차 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이 친필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끝없이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고상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영원한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인민의 사랑속에 길이 전해갈 귀중한 국보로, 만년대계의 재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친필활동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그가운데는 동요와 동시도 있고 가사와 서정시도 있으며 희곡도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 형태와 양상도 다양하지만 담고있는 사상주제적내용도 매우 폭넓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친필활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충실성과 열렬한 흠모심으로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그 어느 작품에서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위대한 대원수님의 굳은 맹세를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친필활동은 끝없이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독창적인 예술적발견으로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뜻깊은 생활철학을 밝혀내시였으며 그것을 새롭고 참신한 형상수법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인 시가문학이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혁명적시가문학에서 기본주제의 하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축원하는 뜨거운 마음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주체42(1953)], 《우리의 수령》[주체42(1953)], 《우리 교실》[주체43(1954)],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주체43(1954)], 《충성의 노래》[주체58(1969)],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주체60(1971)] 등이 이 주제에 바쳐진 대표작들이다.

명작들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세상에 한분밖에 안 계시는 인민의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로 칭송하고 따르며 그 품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뜨거운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의 수령》에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눈보라 휘날려도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백두의 산발을 타고 용감히 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경건한 흠모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명작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워 온갖 원쑤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날 드팀없는 의지를 힘있게 노래함으로써 시가의 철학적깊이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나는요 지금도 다짐을 하지요
온갖 원쑤들 모두 물리치고
인민의 행복 찾기 위하여
힘차게 끝까지 싸워갈래요

원수님 높은 뜻 받들고받들어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날래요

바로 이러한 뜻깊은 사상감정은 적후천리 밀림속에서 오로지 수령님만을 그리워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절절한 흠모심을 노래한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은덕을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과 언제나 수령님만을 믿고 따를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노래한 명작 《충성의 노래》에도 흘러넘치고있다.

명작들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축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 《한초가 한시간 되여 줄수 없을가》가 그 대표작들이다.

명작 《축복의 노래》에서는 준엄한 전선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을 끝없이 념려하며 부디 안녕하시기를 축복하는 지극한 마음이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 시구절에는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이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사색과 체험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적시가문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소원을 잊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뜨거운 결의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나의 어머니》[주체49(1960)], 《진달래》[주체51(1962)]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명작 《나의 어머니》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실 큰뜻을 키워주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흠모심을 주옥같은 시구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명작의 1절에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라는 알기 쉽고 뜻깊은 시적표현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께 기울

이신 로고와 심혈을 다 표현하였으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라는 형상적인 비유로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을 조선의 아들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키우신 크나큰 업적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2절과 3절에 가서 어머님의 뜻대로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며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는 불타는 결의로 터져오르고있다.

명작 《진달래》는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념원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려는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 잊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명작의 예술적발견은 《조선의 진달래》라는 뜻깊은 표현속에서 그 진달래와 더불어 떠오르는 잊을수 없는 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애국심을 형상적으로 밝혀낸데 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진달래를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조선의 진달래》라고 부르시였다.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는 곧 그리운 어머님의 모습이였고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여난 붉은 진달래는 조국을 찾기 위해 모진 시련을 이기며 싸워가시는 어머님의 넋이였다. 이처럼 명작은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애국심과 혁명정신을 진달래에 담아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적시가문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로 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고야말 혁명적신념과 굳은 맹세이다.

이 주제에 바쳐진 대표적인 명작들로서는 《대동강의 해맞이》[주체49(1960)], 《조선아 너를 빛내리》[주체49(1960)],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주체51(1962)] 등이다.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에서는 락원의 대동강가에서 찬란한 해돋이를 노래하면서 불타는 정열과 아름다운 희망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전위로 될 굳은 결심을 노래하고있다.

명작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에서는 천만대군 이끌고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시려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필승의 기백과 신념을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천만대군 이끌고 험산준령 넘고넘어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가리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내몰고
통일된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라

명작에서는 백두산의 기상을 닮아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고 배짱도 장군의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견결한 반제혁명정신과 《그 어떤 원쑤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 영원히 지켜가리라》는 드팀없는 혁명적립장이 간결하고 힘있는 시구로 격조높이 형상되였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불타는 맹세를 노래한 명작으로서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적시가문학이다.

명작의 1절과 2절에서는 그 어떤 풍랑과 폭풍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으로서 조선을 이끌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명작의 3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받으시여 온 세계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될 그날을 앞당겨오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적시가문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로 되고있는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다.

명작들인 《조국의 품》[주체41(1952)], 《공화국기발》[주체39(1950)], 《제일강산》[주체51(1962)]이 이 주제의 대표작들이다.

명작《조국의 품》은 1절에서 모란봉과 대동강에 붉게 타는 노을에 비겨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이라고 노래하였고 2절에서는 진달래꽃 피는 새봄에 비겨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라고 노래하였다.

이 세상에 가장 정답고 소중한것이 고향과 어머니이기에 거기에 비기여 조국을 노래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참으로 진실하고 뜨겁게 안겨온다. 명작은 3절에 가서 그것을 더 뜻깊은 사색속에 심화시키고있다.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아침해, 별빛에 비기여 조국의 품이 얼마나 밝고 따사로운가를 노래한것도 좋지만 그 해빛, 별빛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이기에 조국의 품은 곧 아버지장군님품이라고 노래한데 이 명작의 끝없이 심오하고 독창적인 철학이 있는것이다. 이때까지 아직 그 누구도 이처럼 조국의 개념을 수령과 련결시켜 깊이있게 리해하고 극히 간결하면서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탁월한 예지와 예술적 천품에 의해서만 꽃펴날수 있은 하나의 위대한 예술적발견으로 된다.

명작 《제일강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로동당시대와 결부시킴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있다.

자연은 예로부터 아름다왔지만 천대받는 인민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로동당의 해빛아래 꽃펴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어리였기에 금수강산의 절승경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게 된것이다. 이러한 뜻깊은 사색을 안고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조선을 안아올리겠다는 결의를 노래하였기에 명작은 깊은 여운을 안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참으로 그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최고봉에서 찬란히 빛나는 불멸의 본보기로서 주체문학의 보물고에 영원히 간직되여 대를 이어 빛을 뿌릴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여난 붉은 진달래
긴긴 밤 찬서리에 피고 또 피여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 잊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

봄산에 진달래
여름산엔 하얀 밤꽃
한창 꽃계절이 그만이더니
단풍이 불타는 가을은 더 좋아

산은 산마다 울긋불긋
골은 골마다 맑은 물소리
푸른 하늘 떼지어 나는 산새도
이 강산이 하좋아 노래하는가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절승경개라
사람들 자랑높이 안고사는 금수강산
천하의 아름다움 여기 다 모여
세상에 다시 없는 제일강산아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냐
로동당의 해빛이 하도 따뜻해
인민의 기쁨은 일만단풍에 어리고
누리는 행복은 산상끝에 닿았구나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새 조국건설시기의 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해방된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민주주의적인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한 새 조선을 일떠세우자면 경제건설을 잘하는것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새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 《민주건설의 현 계단과 문화인의 임무》,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등을 발표하시여 새 민주조선 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이 시기 문학의 발전방향을 위한 당의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입니다.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작가, 예술인들이 지닌 고상한 임무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이어받으며 다른 나라의 선진문화의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새 제도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적인 새 현실우에서 꽃펴나는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 시기 작가들은 우선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고매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는 사업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였다. 이 과정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리찬), 장편서사

시 《백두산》(조기천), 《북간도》(한명천), 단편소설들인 《개선》, 《혈로》(한설야), 《**김일성**장군님을 맞는 날》(강훈), 장막희곡 《뢰성》(김사량)과 같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만저우(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새 민주조선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풍모를 경건한 마음으로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송가의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을 수령으로 모신 우리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만고의 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력사의 증견자인 만저우벌 눈바람과 밀림의 긴긴 밤을 통해 열렬히 송축하고있다.

송가의 3절에서는 해방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히신 새 조국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후렴구에서 가사의 심오한 주제사상적내용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경건하고 장중한 서정과 뜻이 깊고 표현적이면서도 간결하고 함축된 시어들을 훌륭히 리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른 명가사, 명작으로 되고있다.

이와 함께 단편소설들인 《개선》, 《**김일성**장군님을 맞는 날》에서는 20성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해방된 조국땅에서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격동과 열화와 같은 흠모의 감정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정을 감동깊게 노래한

송가적양상의 서정시작품들도 많이 쏟아져나왔다.

《해볕에서 살리라》(박세영),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백인준), 《**김일성**장군님께 바치는 송가》(안룡만), 《빛나는 그 이름 **김일성**장군》(리원우),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정서촌),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김춘희) 등은 그 대표적 작품들이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형상한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서정시 《장백산》(한명천), 《우리는 나서자 영예로운 길로》(리원우), 《대오는 이밤 강을 건느다》(김조규), 단편소설 《유격대》(천청송), 영화문학 《내 고향》(김승구), 희곡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박령보), 《조선빨찌산》(김영근), 《장백산맥》(박령보)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영화문학 《내 고향》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작가, 예술인들이 해방후 처음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첫 예술영화의 영화문학으로서 고향과 조국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사상은 주인공인 관필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주인공 관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충실한 전사로서 항일혈전의 준엄한 고비를 헤쳐나가는 나날에 용감무쌍한 기관총수로 자라난다. 그는 국내공작임무를 맡고 삼엄한 적구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짓밟힌 고향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복수의 감정을 억제하고 맡겨진 정찰임무를 수행한 다음 피눈물을 삼키며 부대로 돌아간다. 그후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그는 마침내 조국해방전투에 참가하게 되며 사랑하는 고향사람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게 된다.

작품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충실성과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그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고무하고있다.

단편소설 《유격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무기획득을 위하여 싸우다가 반일인민유격대에 들어가는 애국청년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으며 희곡 《태양을 기다

리는 사람들》은 1935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푸쑹현(무송현)을 무대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마을사람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와 신뢰,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작가들은 또한 새 나라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력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서정시 《농촌위원회의 밤》(김우철), 《축제의 날도 가까워》(안룡만), 《로동법령송》(리정구), 《녀인도》(백인준), 가사 《승리의 5월》(박세영), 《밭갈이노래》(집체작), 단편소설들인 《로동일가》(리북명), 《개벽》(리기영), 《탄맥》(황건), 《호랑령감》(천세봉), 장편소설 《땅》(제1부, 리기영), 희곡 《성장》(백문환), 《바우》(한태천), 《복사꽃 필 때》(남궁만) 등 민주개혁의 주인공들을 형상한 작품들과 련시 《항쟁의 려수》(조기천), 서사시 《한나산》(강승한), 단편소설《그전날 밤》(리동규), 《제2전구》(박태민), 희곡 《하의도》(남궁만), 가사 《구국투쟁가》(리원우) 등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단편소설 《개벽》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원첨지일가의 형상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으며 단편소설 《그전날 밤》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망국적인 5.10단독선거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그리고 희곡 《하의도》는 1946년 8월 미제의 《신한공사》와 놈들의 토지수탈을 반대하여 일떠서 싸운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농민들의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이렇듯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민주조선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명언]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김 정 일

백 두 산

《백두산》은 혁명시인 조기천(1913—1951)이 1947년에 창작한 장편서사시이다.

조기천은 함경북도 회령시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의 압박과 착취밑에서 더는 살아갈수 없게 된 그는 고향을 등지고 아버지를 따라 로씨야로 들어갔다. 그는 옴스크고리끼사범대학을 마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선사범대학에서 약 2년간 교원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다음에 조국에 돌아온 조기천은 신문 《조선신문》 문예부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인 시창작을 진행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첫날부터 조기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였으며 그것을 자기의 시작품에서 노래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보다 더 위대한분은 없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력사는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결의를 실천에 옮겨 1947년 2월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밖에도 그는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시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기천은 종군작가로서 락동강계선까지 진군하면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성과 불굴의 투지, 자기희생성과 애국심을 뜨겁게 체험하였다. 이 시기에 창작한 서정시 《조선의 어머

니》, 《불타는 거리에서》, 《조선은 싸운다》, 《나의 고지》, 가사 《문경고개》 등에서는 애국주의적열정과 전투적기백, 혁명적락관주의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강한 호소성과 선동성을 타고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조기천은 1951년 3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조직되자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시창작을 계속하였다.

조기천은 1951년 7월 서사시 《비행기사냥군조》를 창작하던 도중 미제원쑤놈들의 폭격에 희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조기천의 묘를 경치좋은 곳으로 옮기도록 하여주시고 그의 묘비에 《혁명시인》이라고 새기게 하시였으며 그후에는 또다시 애국렬사릉에 그를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서사시 《백두산》은 모두 7개 장과 머리시, 맺음시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홍산골에 기여든 일제 《토벌대》를 격멸소탕하시는 이야기를 그리고있으며 2장과 3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국내공작을 진행하는 정치공작원 철호, 련락원 영남이 그리고 꽃분이의 투쟁이 노래되고있다. 4장에서는 식량공작을 나갔던 석준이가 농민의 소를 끌고온 사건을 계기로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주고있다. 5장에서는 정찰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돌아오던 도중 적들의 추격으로 영남이가 희생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있다.

이 서사시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6장에서는 H시진공전투장면을 그리고있고 7장에서는 철호와 석준이가 귀로에 오른 사령부를 보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머리시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파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벼루돌 삼아
곰팽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루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

첩첩층암이 창공을 치뚫으고
절벽에 눈뿌리 아득해지는 이곳
선녀들이 무지개 타고 내린다는 천지
안개도 오르기 주저하는 이 절정！
세월의 류수에 추억의 배 거슬러올리라—
어느해 어느때에
이 나라 빨찌산들이 이곳에 올라
천심을 떠받으며
의분에 불질러
해방전의 마지막봉화 일으켰느냐？

×

이제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
사선에 올랐던 이 나라에
재생의 백광 가져왔으니
해방사의 혁혁한 대로

두만강 물결을 넘어왔고
백두의 주름주름 바로 꿰여
민주조선에 줄곧 뻗치노니
또 창바이(장백)의 곡곡에 얼룩진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력력하노니
내 오늘 맘놓고 여기에 올라
삼천리를 손금같이 굽어보노라!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딩굴었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밤길 더듬어
백두의 밀림 찾았더냐?
가랑잎에 쪽잠도 그리웠고
사지를 문턱인듯 넘나든이 그 뉘냐?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
해방된 이 땅에서
뉘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뉘가 민전의 첫머리에 섰느냐?

×

쉬—위—
바위우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여뻗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쳐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그리곤 휘파람속에 감추인다
바위 호을로 솟아
이끼에 바람만 스치여도
호랑이는 그 바위에 서고있는듯
내 정신 가다듬어 듣노라—
다시금 휘파람소리 들릴지
산천을 뒤집어 떨치는
그 노호소리 다시금 들릴지！

×

바위！ 바위！
내 알리 없어라！
정녕코 그 바위일수도 있다
빨찌산초병이 원쑤를 노렸고
애국렬사 맹세의 칼 높이 들었던 그 바위
빨찌산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창바이에 솟은 이름모를 그 바위
또 내 가슴속에도 뿌리박고 솟았거니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더듬으며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삼천만이여，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제 1 장

1

고개뒤에 또 고개—
몇몇이나 있으련고？
넘어넘어 또 넘어도
기다린듯 다가만 서라！
한 골짜기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
이깔로 백화로 뒤엉켜 앞길 막노니
목도군이 고역에 노그라지듯
골짜기는 으슥히 휘늘어져있어라！
울림으로 삑삑하여 몇백리
백설로 아득하여 몇천리—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날아 떠나고야마는
창바이의 중중심처 홍산골—
절벽사이 칼바람에 쌓인 눈우에
뚜렷이 그려진 이 발자욱
어디론지 북으로 북으로 가버린
가없이 외로운 이 발자욱—
어느 뉘의 자취인가？
눈보라에 길 잃었던 포수
절망에 운명 맡긴 자취인가？
어느 뉜지 북으론 웨 갔느뇨？
북에선 백두산이 백발을 휘날리며
한설을 안아 뒤뿌려치는데
서리발로 한숨 쉬고있는데！

2

눈우에 뚜렷한 이 발자욱
눈여겨 살피라—
그속엔 절망의 흔적 없으리
지난밤 흰 두루마기사람들
설피 신고 이곳 꿰여 북으로 갔으니
사람은 몇백이나 되여도
발자욱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런데 오늘은 이 발자욱 허물이며
수십의 왜놈의 무리
허리까지 눈무지에 빠지며

《토벌》의 큰 불 밀림에 지르련다
맨앞엔 군견 두마리 날뛰고
그뒤엔 안경이 번뜩이고
또 그뒤엔 서리어린 총부리와 총부리—
《대체 한사람의 발자욱뿐—
모두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절벽에 안경을 두리번두리번—
맨 앞놈의 중얼거림
《글쎄요… 신출귀몰은…》
옆놈의 대답 끝나기도 전에
《땅》—총소리
얼어든 대기를 깨뜨린다
《안경》이 눈에서 다리도 못 뺀채
경례나 하듯이 꺼꾸러진다

3

그다음…
그담엔 홍산골이 터졌다—
총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그담엔 절벽이 무너졌다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며
바위돌이 골짜기를 쳐부신다
《만세！》, 《만세！》— 골안을 떨치며
산비탈에 숨었던 흰 두루마기들
나는듯이 달려내렸다
여기서도 돌격의 《악》
저기서도 《악！》《악！》
설광과 마주치는 날창
번개같이 서리찬 하늘을 찢는다
《동무들！
한놈도 놓치지 말라！》
이것은 작렬되는 육박의 첫 구령소리

4

산비탈 바위우에
청년 하나이 버쩍 올라선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흰 두루마기자락이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거센 나래같이 퍼덕이는데
온몸과 팔과 다리—
모두다 약진의 서슬에 불붙고
서리발 칼날의 시선으로
싸움터를 단번에 쭉— 가르며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부르짖었다
바른손 싸창을
바위아래로 번쩍이자
마지막 발악쓰던 원쑤 두놈이
미끄러지듯 허적여 뒤여진다—
《한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재쳐 부르짖었다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치떠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창바이를 쥐락펴락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푸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5

육박의 불길 멎었을 때
밀림의 주인공 빨찌산들
주섬주섬 원쑤의 무기 거둔다
몇놈이나 복수의 칼 맞았느냐?
몇놈이나 빨찌산전법에
《천황페하》도 산산줄달음에 팽개치고
《무사도》도 갈데로 가라—
도망치다 엎드러졌느냐?
《한놈도 빼우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보고
《놈들은 이번에도
무장 바치러 왔지!》
김대장의 높은 말소리
그리곤 호탕한 웃음소리—
《하… 하… 하…》
함박꽃인양 그 웃음소리
떨기떨기 내려져 눈우에 꽂기는듯!

6

이날 밤에 눈이 내렸다—
하늘도 땅도 바위츠렁도
홍산골싸움터도
눈속에 묻히였다
이깔밭만 칠월의 꽃피는 삼밭이 되고
대부동 고목에도 때아닌 꽃이 피다
이밤 빨찌산부대
나흘만에 천막에 들다!
내굴냄새 웨 그리도 구수하고
모닥불도 불꽃채로 품속에 껴안을듯
이날 밤 대장이 든 천막엔
새벽까지 등불이 가물가물…

하더니 아침엔 눈보라치는데
정치공작원 철호 먼길 떠났다
전송하는 대장의 말—
《철호, 조심하게！ 믿네！》
덤썩 틀어쥐는 대장의 손길
심장속에 해발을 일으켜라
해는 눈보라속에 숨어있어도
추위는 박달같이 땅을 얼궈도—
… …

제 6 장

1

이 나라 북변의 장강—
칠백리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해 비꼈는데
황혼을 담아싣고
뗴목이 내린다 뗴목이 내린다
뉘의 눈물겨운 이야기
뗴목우의 초막에 깃들었느냐?
뉘의 한많은 평생 모닥불에 타서
한줄기 연기로 없어지느냐?
《물피리 불며 울며 구을러갈제
강 건너 천리길을 이미 떠난 몸
재넘어 구름따라 끝없이 간다
에헹 에헤요 끝없이 가요》
웨 저 노래 저다지 슬프단 말가
이 땅의 청청밀림 찍어내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랴！
이 나라의 집집은
대들보 터지고 기둥이 썩어져도
그 미끈한 만년대목으로는
놈들이 춤추고 노래부를 집을 세우고
놈들이 향락의 향연 베풀거니
그 노래 어이 슬프지 않으리！

2

황혼도 깊어지고
물결도 차지고
서늘한 밤바람
강가에 감돌아들무렵
강건너 바위밑에서 휘—익—
휘파람소리 나더니
떼목에서도 모닥불이 번뜩번뜩
내려가던 떼목이 돌아간다 돌아간다
머리는 저편 강가에
꼬리는 이편 강가에—
삽시간에 이루어진 떼목다리
초막에서 나온 두 사람
나는듯 이편으로 달아온다
한 사람은 떼목군
다른 사람은 철호
그담 강 저편 바위밑에서
군인들이 달아나온다
달아나와선 떼목으로
압록강을 건너온다—
빨찌산부대 압록강을 건너온다
산밑에 그들이 숨었을 때
그 떼목다리도 간데 없고
출렁—처절썩—
찬 물결만 강가에 깨여지는데
멀리선—
《띄우리라 띄우리라
배를 무어 띄우리라
떼를 무어 띄우리라！》

3

빨찌산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왜적이 짓밟은 이 땅에
살아서 살 곳 없고
죽어서 누울 곳 없고
모두다 잃고 빼앗겼으니
물어보자 동포여！
가슴꺼지는 한숨으로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
그날부터 몇몇해 지났느뇨？
강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이 강 넘은 백성의 한숨이나 아닌가
물줄기는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이 강 넘은 백성의 눈물이나 아닌가
오오— 압록강！ 압록강！
허나 오늘 밤엔 그대 날뛰라
격랑을 일으켜
쾅—쾅— 강산을 울리라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려
그대를 넘어왔다—
애국의 심장을 태워 앞길 밝히며
의지를 갈아 창검으로 높이 들고
이 나라의 렬사들이
조국땅에 넘어섰다
압록강！ 압록강！
격랑을 치여들고
쾅—쾅— 강산을 울리라！
거창한 가슴을 한껏 들먹이며
와—와— 격전을 부르짖으라！

4

골짜기에 끼여누운 H시에
밤 열시…
고로에 먼지 찬 하루나절 지났다고
시민들도 잠자리에 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가가들도 문 걸어닫고
늦도록 료리집에서 야지러지던
매춘부의 웃음도 끊어지고
소경의 곯아빠진 눈자위같이
그 창문도 어둑해지고
거리를 휩쓸며
《구사쯔요이또꼬》 부르던 놈도
2층집 문을 차며
《요보야로！》 욕하다 들어가버리고…
밤 열시…
영림창 뒤통
빈민굴 어느 구석에선가
떼목에 치여죽었다는 사나이를
거적에 싸서 방구석에 놓고
온 저녁 목놓아 울던 녀인의 사설도 끊치고
오뉴월 북어인양 벌거숭이애들
뼈만 남은 젊은이들
꼬부라진 늙은이들—
모두다 웅크리고 노그라져
쿨—쿨— 잠들어버린
밤 열시…

5

밤 열시
거리엔 인적이 끊치고
전등만 누렇게 흐르고—

주재소 교번순사도
꺼덕꺼덕 조을고있을 때
어디선가 남녀 두 사람
주재소 문간에 나타났다—
녀인은 사나이를 끌고
사나이는 녀인에게 끌리우고
《이연석 들어가자！》
녀인의 짜증내는 소리
《하… 어…찌…라…고…》
사나이의 혀까부라진 소리
《웬일이야！》 순사 골낸다
들어선 남녀를 흘기며
《나리님 저놈이 술값을…》
《허… 내 우스워서…
허허허… 나리님두 우습지？》
《이놈 어딘줄 알고 웃어？
내앞에서 감히 웃어？》
순사 단걸음에 다가서며
주먹을 쳐들자
그놈의 가슴에 총부리 대인다
소리도 못 치고 두눈 뒤집고
순사 방구석에 까무러칠제
녀인은(그는 솔개골 꽃분이)
전신줄을 끊고
사나이는(그는 정치공작원 철호)
문열고 손짓한다
문열고 손짓하자—
바로 곁에서 신호의 총성
잠든 시가를 깨뜨린다
그담 련이어 나는 총소리 총소리…
우편국에서도 총소리
은행에서도 영림창에서도
어지러운 점선을 그으는
따—따—따—따— 기관총소리
쾅—쿵— 폭탄치는 소리！

6

적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고
류치장 지붕에선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왜놈들 집에서도
반역자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윽물어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첨에는 몇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눌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옷 입은 무리 쓸어나온다—
머리벗은 로인도 발벗은 녀인도
벌거숭이애들도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붓기고
재생의 열망을 휘끗어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김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만세소리 집도 거리도 떨치고
화염을 따라 오르고올라
이 나라의 컴컴한 야공을
뒤흔든다 뒤울린다！

7

휘황한 불빛이 온 거리에 차흐르는데
떨어지는 불꽃을 밟으며
혁명가 드높이 부르며
빨찌산부대 거리를 떠난다
그들을 전송하는 이 고장 사람들—
기막힌 이 거리에
한줄기 생의 빛 가져왔으니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어느때나 승리하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면
또 검은 거리, 눈물의 거리
그러기에 울음으로 전송하누나—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언제나 다시 만나리！》
뺨에서 흐르는 눈물
불빛에 피방울인듯
허지만 빨찌산들의 부르짖음—
《잘 있으라 동포여
싸우라 동포여！
우리 다시 만나자
해방연에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
휘황한 불빛에 쌔워
빨찌산들이 어둠을 직차며 뚫으며
처억처억 앞으로 나간다
싸움의 길로—
처억—
처억—
처억—

땅

《땅》(제1부)은 리기영이 1948년에 창작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거대한 의의와 그 위대한 생활력, 새 조국건설을 위한 농민들의 헌신적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개간편과 수확편으로 되여있다.

곽바위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열네살 때에 지주집머슴으로 들어간다.

그는 살기가 너무 괴로와 오히려 죽은 식구들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크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그저 5년만 더 참으라고 위로한다. 돈 300원에 팔려 제사공장에 들어간 누이동생이 중병에 걸렸을 때도 몸조리를 잘하고 1년만 더 고생하면 꼭 빚을 갚고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곽바위는 피포기로 자기의 얼굴을 갈긴 왜놈농업기수를 논귀퉁이에 처박은 죄아닌 《죄》로 6년간 징역을 산다.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던 누이동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고향을 떠난 그는 10여년을 머슴으로 험악한 생활을 한다.

지주에게 땅을 빼앗긴것으로 하여 이처럼 비극적인 생활로정을 걸어온 곽바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심으로써 비로소 땅의 주인, 농촌의 주인으로 된다.

농촌위원회를 조직하던 날 곽바위는 주석단에 추천되였으며 농촌위원회 위원으로 된다.

그는 농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주놈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도 자기 상전이였던 지주 고병상의 땅을 분여받는다.

난생처음 제 땅을 가지게 된 곽바위를 비롯한 마을농민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는데 지주놈들은 토지개혁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어떻게 하나 땅을 떼우지 않으려고 악을 쓴다.

지주 고병상은 머슴인 곽바위가 분여받은 자기네 땅을 도로 내놓게 하려고 을러메기도 하고 구슬려보기도 한다.

곽바위는 잔꾀를 부리는 지주놈에게 자신은 지난날의 곽바위가

아니라고 되게 면박을 주고 결연히 그놈의 집에서 뛰쳐나온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토지개혁후 곽바위의 심정을 사로잡은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네를 땅의 주인, 농촌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그의 생각은 논이 없는 이 고장에 논을 풀어야 하겠다는데 미친다. 그는 면당위원장 강균에게 논을 풀것을 제기한다. 당조직에서는 솔버덩개간공사를 승인한다. 곽바위는 개간공사의 현장책임을 지고 쇠써레를 창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적극 고무하기도 하면서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한다. 고병상, 주태로 등 전복된 지주놈들이 갖은 모략을 다 해가며 반대하였고 나중에는 저수지를 파괴하려고까지 책동하였으나 그는 광범한 농민대중의 지지와 당조직의 방조를 받아 원쑤들의 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개간공사를 완성한다.

개간사업에서 성공하자 곽바위는 모범농민으로 추천되였으며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으로 된다. 그는 1946년 11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강원도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

곽바위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보며 흠모의 정과 감격을 걷잡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제일먼저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였다.

곽바위는 불현듯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다시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곽바위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마디마디 새기며 더욱 새로운 투쟁결의를 다진다.

3

토지분여를 하던 날은 벌말 안팎동네가 벅작 고아댔다. 그것은 전고에 없던 력사적사실이였기때문이다.

이날 마을사람들은 토지개혁의 결과가 어찌되는지 몰라서 제가끔 불안한 가슴을 안고있었다. 누구나 제가 부치던 땅은 아주 제 소유로 넘겨받고 땅이 없던 머슴군까지도 농토를 받게 된다는 바람에—그중에도 빈농들의 기뻐날뛰는 광경은 이루 형언할수가 없었다.

곽바위는 말할것도 없지마는 원여 박첨지도 그러하였다. 권칠복이와 고성도, 주태원, 황갑산이와 순이네까지도 앉은 터전이 그대로 자기 소유로 넘어왔다.

그날 곽바위는 다른 위원들과 같이 토지사정위원중에 한몫 끼게 되여서 이 마을의 토지를 사정하게 되였을 때 주인집 고병상의 토지를 한자리 분여받았다.

하긴 그 땅을 요구한것은 아닌데 여러 위원들이 그래야만 된다해서 속으로는 떨떠름하였으나 그냥 결정을 지었었다.

땅 한평 없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저 땅이 생기고 그것이 또한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되였으니 이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들은 분여가 끝난 후에 너무도 감격해서 제가끔 그 땅들을 가보았다. 물론 가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 근처의 농토를 횅하게 알수 있다. 하나 그전에는 남의 땅으로만 무관심하게 알았던것이 인제는 내 소유가 되였다는데 누구나 한번 다시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곽바위는 주인집의 그 땅을 1년에도 몇번씩 갈아주었다. 그러나 전에는 심드렁하던 그 땅이 마치 은금보화처럼 돋보임은 웬일인가? 그는 흙을 한웅큼 집어서 두손안에다 넣고 비벼보았다. 모래가 섞이지 않는 황토는 마치 떡가루처럼 곱게 망거진다. 사실 이 땅을 올해에 잘 다루면 곡식이 깨 쏟아지듯 할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춤이라도 추고싶다.

한동안 그는 밭을 응시하고있었다. 밭에서는 금방 모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것 같았다. 거기에는 강냉이가 우거지고 감자꽃

이 만발하고 콩은 꼬투리가 다래다래 영글었다. 수수는 모개미가 척척 늘어졌다.… 바람이 불적마다 곡식들은 와삭와삭 너울거리며 춤을 춘다.

곽바위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구수한 흙냄새가 코끝에 말아진다. 그는 흙 한줌을 혀바닥으로 핥아보았다.

원여 박첨지는 그때 곧장 새로 얻은 논자리로 뛰여갔다. 논이라고는 소작도 못 얻어부치던 박첨지가 이 땅이 내 소유로 되였다는것은 그 역시 50평생에 처음 당하는 희한한 일이다. 그래 그도 논배미로 뛰여들어가서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혼자 중얼거리며 넙죽 엎드렸다. 그는 땅에다 입을 맞추었다. 죽은 자식이 살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랴고!

《오! 네가 오늘부터 내 땅이 되다니… 이게 대체 웬일이냐?》

한참만에 그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논한테 이런 말을 하였다.

《논아! 말 들어라! 네가 인제는 주인을 바꿨으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 그대신 나두 네 소원을 잘 들어주마. 록비퇴비와 개똥, 쇠똥을 줏어다라도… 그러니 그저 더두말구 한마지기에 석섬씩만 내여다구!》

박첨지는 사실 기쁜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래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마누라를 소리쳐 불렀다.

《여보! 마누라, 우리 집에도 논이 생겼소. 임자도 좀 나가보라우. 송참봉집 논 일곱마지기가 차례왔어!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있는가. 허허허…》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그 안해는 느닷없이 마누라를 부르며 대드는 바람에 웬일인지 몰라서 마주 쫓아나오니 령감은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혼자 지껄여댄다.

《아니 우리 집에도 논이 생겼어요? 어떤 논이 생겼다구 그리시우.》

그 안해는 하도 반가운 이 말에 선후도착, 정신을 잃고 당황해서 되짚어 묻는다.

《어떤 논은… 수렁배미 송참봉집 논이라니깐— 임자두 가서 인사를 하란 말야!》

《호호호… 인사를 어떻게 해요? 논이 뭐 말할줄 아나!》

안해는 치마자락에다 물묻은 손을 씻으며 웃는다.

《그런게 안야! 당신을랑 가서 절을 하라구. 암 절해야 되지, 재배 삼배래두…》

《아니 그럼, 당신두 절을 하셨수? … 원 나종엔 별소릴 다 하시는구려.》

안해는 어이없는 웃음을 한바탕 웃는데

《난 절버덤 더한걸 했다니까.》 하고 박첨지는 여전히 어벌쩡댄다.

《절버덤 더한건 뭐예요?》

《입을 맞추었어!》

《호호호… 아이구 참, 정말로 그리셨수?》

《그랬다니깐… 그 땅이야 우리 집 화수분 아니냐 말야.》

《하지만 땅이야 절을 한들 알겠소 입을 맞추니 알겠소. 그저 우리 농사군들은 나라에서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잘 알아야겠지.》

마누라도 어느덧 감격한 눈물이 핑그르 돌며 목소리가 떨리여 나온다.

《내 말이 그말이거든. —땅을 소중히 알라는것—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그것 말이야.》

령감이 이렇게 말하니

《그렇다면 나두 절 아니라 절버덤 더한것이라두 하겠수다.》

안해는 휭하니 치마바람이 나게 밖으로 내닫는다.

그도 그길로 자기의 논자리로 좇아가서 마치 초례청에 들어선 각시가 큰절을 하듯이 두손을 펴서 이마에 붙이고는 동서남북 사방에다 정성껏 절을 하고 돌아왔다.

* *

곽바위는 그길로 자기의 밭을 가보고나서 무심히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사랑에 혼자 앉아있던 고병상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기색이 시퍼래서 본체만체 한다. 그는 식식 황소숨을 쉬고있었다.

고병상은 요새 며칠째 밤잠을 못 자고 입맛이 소태같이 쓰다.

지난밤에도 그는 선잠을 자다깨다하면서 날을 밝히다십이 하였다. 식전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하고 사지에 맥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짜증을 부리고 눈살을 찌프렸다. 그리고 애매한 식구들만 볶아쳤다.… 그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그가 요즈음 남몰래 상심하는것은 자기의 토지도 몰수를 당할가봐 겁이 났던것이다. 외처에 소작을 준것은 물론이요, 문앞전장중에도 남을 준 땅을 내놓을게 적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그 땅들을 몰수 안 당하고 자기 소유로 영구히 보존할수 있을가, 그 점을 아무리 궁리해야 도무지 묘책이 나서지를 않는다.

동산이라면 몰래 팔아나 가지고 이남으로 도망을 치련만 땅덩이를 떠갈수는 없다. 그러니 별재간이 없었다. 그렇다고 눈 번히 뜨고 앉아서 그 땅들을 내놓아야 할것이냐. 생각할수록 그는 기가 막힌다. 남이야 뺏기든말든 자기나 안 뺏겼으면 좋겠는데… 하다면 무슨 도리가 없을가?…

그런데 소위 농촌위원회에서는 온 동네의 토지를 저희끼리 분여했다구! 전에는 성명도 없던 놈들이— 남의 집 머슴군과 가난뱅이 소작인놈들이 모여서 남의 땅을 제 맘대로들 부자집 떡 도르듯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도 주고 머슴군에게도 노나준다니 이게 어데 될말이냐고 그는 분통을 터치였다. 그러나 이런 불평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반동분자로 지목을 받을테니 말할수 없고 말을 안하자니 속이 북받쳐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그는 이래저래 화만 나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때문에 그는 침식이 불안해졌다.

그날도 그는 답답한 가슴을 어쩌지 못하여 같은 경우를 당한 주태로의 집으로 아침도 안 먹고 좇아갔다. 고, 주 량씨는 옛날부터 각기 자기의 문중을 위해서 서로 알륵이 심했었다. 그들은 문벌을 다투고 패를 가르고 하는데 그중에도 고병상이와 주태로는 량성간에 두목격일뿐만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그들이 대지주다. 그래 평소에는 별별 흉계를 다 꾸며서 매사에 서로 방해를 놓았다.

이러한 사이건만 그들의 리해관계가 똑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는 《미덕》이 없지 않았다. 이번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두 집은 피차간 지주의 립장에서 서로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였다. 그들은 대책을 강구하여 어떻게든지 토지몰수를 안 당하려고 무등 애를 써

보았다.

지금도 고병상은 주태로를 찾아가서 은근히 운을 떼기를

《성님, 여보시우다. 오늘 뭐 이 동리에서도 토지분배를 한다는데 참석해보지 않으려우?》 하니까

《오란 말두 없는데 뭘 하러 가겠소.》 하고 주태로는 아주 심사가 뒤틀려서 볼먹은 소리를 내지른다. 그리고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우는게 화풀이를 담배에다나 하려는것 같다.

《그렇지만 구경이야 못 갈것 뭐 있소. 그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꼴이나 좀 보잔 말이지요.》

《흥! 꼴을 봐야 그렇겠지.… 공연히 심사사나운 꼴은 차라리 안 보느니만 같지 못하거든!》

주태로는 마치 역정이 난 사람처럼 외면을 하고 앉아서 심술궂게 내뱉는다.

《하긴 그두 그런데…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요.》

고병상은 부지중 한숨을 내쉬면서 얼없이 천정을 쳐다본다. 주태로는 담배대를 재털이에 탁탁 털면서

《글쎄말이요.… 상전이 벽해로 된단 말은 들었지만 세상이 원 이렇게 변할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왜정때에는 지주들이 얼마든지 땅을 가질수가 있었지요.》

《그건 지주가 하는 말이지 작인놈들은 토지개혁을 좋아할것 아니요?》

《아니 제놈들더러 누가 땅을 사지 말랬나요.… 부귀빈천이 다 아 복불복으로 되는건데 공연히 남의 탓할건 뭐냐 말야!》

고병상은 불뚝 성이 나서 주태로 대신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놈의 민주주의가 해방선을 타고 들어와서 토지개혁두 시켰다며!… 도대체 민주주의란 뭐란거야?》

《낸들 알겠소만은 그건 뭐 백성을 잘살도록 하는 주의라면서요?》

《그럼 왜 하필 토지개혁을 하느냐 말야!》

《뭐 지주는 소작인을 착취해먹기때문에 토지개혁부터 해야 된다구 그런다나봅니다.》

《착취란 또 뭔가?… 아니 누가 그런 말을 지어낸답데까? 도대체…》

《누가 지어내요! 민주주의가 그런다니까… 지주는 소작인을 기름짜먹듯 했다구…》

고병상은 천장을 쳐다보며 얼없는 웃음을 웃는데

《그놈의 민주주의가 지주를 잡아먹으러 들어왔군 그래! 우리가 작인을 못살게 군게 있다 하더라도 건 다 큰 지주들이 먼저 전례를 내놓으니까 다른 지주들도 자연 따라갈수밖에… 케가 그렇게 되지 않았소?》 하고 주태로는 풀이 죽어서 입맛을 쩍쩍 다신다.

《그러니 지주는 똑같다는게 아니여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두 솟아날 구멍이 있다구— 설마 사는 수가 있겠지요.… 성님두 너무 락심마시구 어데 하회를 두고봅시다.》

고병상의 이 말에 주태로는 두귀가 번쩍 띄여서

《아니 무슨 수가 있소?》 하고 반색을 하여 묻는다.

《다른게 아니라 송참봉 큰아들(일제시대의 도회의원)이 서울 가있지 않우? 그이가 아마 한자릴 잡는다나봅데다. 그래 요전에도 인편이 있길래 한번 만나보구 오랬으니까 무슨 기별이 있을거요.》

《아, 그랬던가요?… 난 미처 그 생각은 못했구려!》

주태로는 감심한듯이 고병상을 쳐다본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무한테고 마셔야 됩니다. 나두 성님이길래 참 여쭙지 다른 사람앞에서야 어데 입이나 뗄수 있는가요. 공연히 큰일날걸!》

고병상은 아주 이렇게 생색을 내는데

《암, 그 다 이를 말인가요. 동생 수단이 참 용하외다.》하고 주태로는 고병상을 은근히 추켜세운다. 마치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래기를 잡는셈과 같았다.

《난 성님이 가신다면 같이 모시고 갈가 하였는데 지금 성님 말씀을 들어보니 워낙 가는게 재미없겠군요. 그럼 그만두십시다.》

《그렇구말구. 공연히 뒤전에 가 앉아서 창피한 꼴만 볼거야 있소.》

《그럼 성님 앉아계시우다. 난 그만 가겠어요.》

《아직 식전일텐데 아무데서나 같이 한술 자시지…》

《난 요새 구미가 떨어져서 아무것두 못 먹는답니다. 세상에 원 별일을 다 보잖우. 꿈은 자다가나 꾼다지만…》

《흥! 누가 아니라오.》

고병상은 그길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사랑방에 누워있었다. 그는 아침도 먹기가 싫어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저녁때 들으니 이 동네의 토지를 모조리 분배했다 한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지도 본타동간에 소작을 주었던것은 모조리 토지없는 농민들에게 점수제로 분배를 하였다 하며 그중에는 곽바위도 한몫 들어서 버덩말의 자기 집 밭 한자리를 차지하였다는데는 그만 두눈이 모로 서리만큼 격분이 치밀어올랐다.

《머슴군이 주인집 땅을 뺏어부친다. 세상에 이런 변두 있는가. 이놈이 들어오거든 다리를 분질러놓아야지！》

그는 마치 모주먹은 돼지 벼르듯 방안에서 화를 끓이며 있는데 곽바위는 고병상의 이런 속을 모르고 무심히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의 눈치가 어쩐지 전보다 다르다. 고병상은 외면을 하고 앉았다가 한참만에야 고개를 쳐들더니

《여보게！》 하는 첫마디부터 불호령이 나온다.

《예？》

《자네 여적 어데 가서 뭘했나？》

《회에 갔다옵니다.》

《그래 토지분배는 다 됐는가？》

《예,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응당 토지를 타겠네그려, 어떤 토지를 탔는가？》

《탔습지요.…》

주인의 기색이 좋지 않게 묻는데는 곽바위도 거북한 생각이 들어갔다. 그속을 짐작한 고병상은 더욱 노기를 띤 목소리로 두눈을 부라리며

《왜 선뜻 말을 못해！ 자네가 내 땅을 분배받았다니 그게 정말인가？》

《예,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말이 다른 집 토지보다는 농사를 지어주던 집의 토지 한자리를 받는것이 옳다구들 해서요.》

곽바위는 사실대로 설명했다.

《아니 무엇이 어째？… 어째서 하필 내 땅을 차지해야 옳다는건 어데서 나온 법률인가？》

고병상은 더욱 기가 나서 대드는데

《건 그렇습니다. 제야 어데 소작을 부치는게 있습니까. 집에

서 여적 머슴을 살았으니까 댁의 전장을 갈라부치는게 옳단 말입지요.》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자네가 사폐를 보아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 밭을 안 받았으면 될것 안야? 자네두 보다싶이 내 집 형편이 딱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폐일언하고 그 밭은 나를 도루 주게! 자네는 위원이니까 그 밭이 아니라두 어떻게 달리 구처가 되겠지.》

고병상은 처음 서둘 때와는 딴판으로 별안간 수그러지며 싹싹하게 빌붙는 태도로 나온다.

《달리 구처가 어떻게 됩니까. 머슴군은 주인집 땅으로만 분배를 받게 된다는데요.》

《아따 아무 땅이거나 상관있는가. 다— 그럭저럭하면 되는수가 있지 않는가?… 하루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구 자네와 나와 사이에 몇해동안 주객지의를 생각하더라도 자네가 그만한 사폐는 보아줄수 있지 않은가. 좀 어렵더라도 자네의 농량은 대여줄테니까 그렇게 내 집에서 농사를 같이 짓세나그려. 그전에도 같이 살았는데 못살게 없지 않는가. 허허…》 하고 고병상은 곽바위의 눈치를 보며 간활한 웃음을 웃는다.

《아니 쥔님! 저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폐를 보랍니까? 난 싫소이다.… 머슴살이를 또 하란 말이여요? 그동안 산것만두 진저리가 나는데요. 그렇기로 말하면 오히려 댁에서 나같은 사람의 사폐를 봐줘야 하겠수다. 이건 남이야 굶든지 죽든지 자기 혼자만 잘살려구… 그렇게 그악스리 모아서는 뭘 하느냐 말이여요.》

곽바위는 하두 결이 나서 평소에 불쾌히 생각했던 점을 까놓고 토설하였다.

《자네 어떻게 하는 말인가? 내가 언제 혼자만 잘살려고 욕심을 부렸단 말인가?》

고병상은 금시에 낯빛이 푸르락불그락하며 아래턱을 달달 떨고 노려본다.

《아니면 뭐예요. 내가 한집속에서 안 보았으면 거짓말이라 하겠수다. 지난 가을만 해두 방아를 천여말씩 찧어서 그 쌀을 다 뭘했나요?… 남은 굶는대야 언제 쌀 한말 선뜻 주어본적이 있소?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글쎄 그렇게 모아서는 뭘 하느냐 말이여

요?》

《아니 이 사람! 그게 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린가?》

고병상은 여기가 질려서 큰소리를 못하고 한팔을 접히는 태도를 보이는데

《해뗘이 아니라 말이 났으니 말이외다. 댁에서는 지금 가진 토지만 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법지법대로 동중이 공론해서 분배한것을 내가 그 밭 한자리를 얻었다구 도루 달라시니 내 맘대로 줄수도 없지마는 그런 심사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일이 안 그렇습니까?》

곽바위는 사실 고병상의 안달아하는 꼴이 비위에 거슬려서 욕찌기가 난다. 이 말에 고병상은 한참 멀거니 쳐다보다가

《여보게 이 사람! 심사가 틀리다니? 아니 못 주겠으면 그만이지 그따위 말버르장이를 뉘게다 하는거야? 응!》

싹수가 틀린지라 그는 다시 앙심을 먹고 달려든다.

《그럼 당신네 심사가 틀렸지 바른줄 아우. 이제는 해방전과 세상이 달라졌으니 정신을 좀 차리시우.》

《뭐 정신을 차려? 점점 못할 소리가 없구나!… 너 누구의 세력을 믿고 그러는거냐, 응?》

고병상은 그만 화가 발끈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다.

《난 아무 세력두 없소. 당신이 있는 자세를 부리고 여적 나갈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지.》

《얘! 이놈 봐라. 곽바위 참 잘났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졌기루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래야 옳단 말이냐? 아니 머슴군놈이 주인의 땅을 뺏더니만 인젠 또 훈계까지 하는게냐? 이놈, 이 괘씸한 놈 같으니!》

마침내 고병상은 부아통이 터져서 콩팔칠팔하며 담배대로 상아대질을 하고 대든다.

《흥! 그따위 역설을 뉘게다 하는거야. 나두 인젠 그전 곽바위가 아니요! 왜놈의 압제밑에서 해방전에는 죽어만 지냈지만… 인제는 그렇지 않아요!》

곽바위도 결이 나서 마주 서둘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인젠 네 세상이란 말이지. ―어데 두고보자! 이거 원… 에―

페일언하구.》 하더니 별안간 고병상은 말투를 고쳐서

《자네같은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주게! 뭐 긴말 할게 없지 않은가. 허 그거 참 사람이 봉변을 당할려니까…》

《나 역시 그렇수다. 지금 나갈테니 념려마시오. 설령 댁에서 붙잡는대두 더는 못 있겠수다.》

《그러니 잘되지 않았는가. ―주인 장 떨어지자 나그네 국 마다자!… 새경회계는 닦아봐야 알겠네. 자네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는지…》

곽바위는 말대꾸도 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문을 차고 나갔다.

그는 그길로 순이네를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니

《아따 그 집은 있는 자셀 되우 하나부다.― 그럼 우리 집에 우선 와서 계시우.》

해서 그날 저녁부터 곽바위는 순이네 집에다 주인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그는 나무장사를 시작하였던것이다.

전고― 지나간 옛날.

록비퇴비― 생풀, 짚, 집짐승의 오줌똥을 썩이여서 만든 거름.

선후도착― 먼저 할것과 뒤에 할것이 서로 뒤바뀜.

화수분― (전설에서) 재물이 자꾸 생겨나서 아무리 써도 줄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물건.

초례청― 옛날에 결혼을 할 때 차려놓는 마루나 장소.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된다.》는 뜻으로서 《자연이나 사회의 심한 변천》을 비겨 이르는 말.

하회―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의 정형이나 결과.

본타동― 지주가 살고있는 본동네와 다른 동네.

사폐― 개인의 사정 또는 일의 폐단.

페일언하다― 이러니저러니 할것없이 한말로 말하여.

구처― 변통하여 처리하는것.

주객지의― 주인과 손님사이의 의리.

간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여기가 질리다― 기운이 줄다. 기세가 눌리우다.

동중— 동리의 여러 사람.

설령— 《일부러》 또는 《가정하여》.

새경회계— 《새경》은 《사경》의 사투리로서 《사경돈》이라는 뜻. 《사경돈》은 지주가 머슴에게 삯으로 주는 돈. 《회계》는 계산한다는 뜻.

농촌위원회의 밤

《농촌위원회의 밤》은 김우철(1915—1959)이 1946년에 쓴 서정시이다.

김우철은 평안북도 의주군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시기 독서회에 망라되고 동맹휴학에 참가한 《죄》로 2학년에서 출학당하고 일본에 건너가 중학을 졸업하였다. 1930년부터 《별나라》, 《신소년》 등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4년 《카프》사건(《신건설》사건)관련으로 1년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해방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 문예총기관지 《문화전선》 편집부장 등의 사업을 하면서 창작을 하였다. 이 시기 그의 대표적작품으로는 가사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들수 있다.

그의 작품집으로서 시집 《나의 조국》, 《김우철시집》, 동요동시집 《사랑하는 조국에》 등이 있다. 그는 동요, 동시, 가요, 서정시, 장막희곡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작품을 남겼다.

서정시 《농촌위원회의 밤》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에 접한 그날의 감격을 생동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두메산골
풀섶에서 자라
바위처럼 살아왔더란다

등잔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산비탈 돌짝 밭머리
오솔길이 눈앞에 선하다

한평생 화전을 캐먹고 살아온
구새먹은 어매 아배는
가난에 허리 굽고
시름에 쪼들려
산과 같이 늙었고

산에서 산으로 자리뜸하며
두더지마냥
북데기를 파뒤지기 서른해,
녀편네와 조마구니자식을 거느려
구름보다 높은 마을에 쫓겨왔고
하늘도 좁은 골짜기에 초막을 쳤더니라

눈꽃이 흩날리는
북쪽의 3월달
얼음밑에 숨쉬는 실개천이
해방의 봄노래를 돌돌… 굴려
산기슭을 굽이돌아 씻어내릴무렵,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개혁의 우람찬 환성은
등을 넘고 비탈길을 감돌아
두메산골에까지 산울림해왔다

—나라를 찾은것만 해두 고마운데
  땅까지 차지하게 되다니…
—이거 모두 꿈인가, 생시인가
눈은 뜨이고 귀는 열리여
곰처럼 느린 산사람들은
금시 줄달음쳐
그악한 산비탈을 타고 넘어왔고
약수터가 자리잡은 마을의 글방에
불을 밝혀 밤으로 모이였다

농사군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살아나갈 앞일을 의논해본적이
어느 한당대 꿈엔들 있었던가
어느 세월 하향 상놈이 어울려
하고싶은 말 뇌여본적 있던가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칠판에 굵다랗게 쓴 토필글씨를
한자한자 더듬어 읽는 돌쇠는
야학에서 이태나 익혀 유식하다는
머슴살이에 잔뼈가 굵은 로총각이였다

—올봄부턴 제 땅 갈아 장가밑천 장만하겠수…
돌쇠의 입김은 능청맞고
—출출하고 일 잘하는
  마을처녀를 중매서주리！
박첨지의 대꾸는 너털웃음에 흥겨워
이처럼 오가는 잡담속에서도

기쁨이 샘물마냥 솟는다

눈오는 봄도 3월달
약수터를 에워싼 농촌위원회의 밤은
산사람들의 새로운 꿈을 결고
밤을 밝혀 심지를 돋우며
호박꽃처럼 빨갛게 익었다

이제 첫닭이 홰를 치면
산발을 타고 초막에 돌아가
어매 아배앞에 무릎을 꿇고
이 꿈같은 소식을 전하리라
—등살을 쳐먹던 지주들을 내몰고
　우리들 농사군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 기쁜 소식, 어엿이 사뢰리라!

[명언]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 정 일

로동일가

《로동일가》는 리북명(1908—1988)이 1947년에 쓴 단편소설이다.

리북명은 함흥시 성천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부터 흥남비료공장에서 로동을 하였다. 학교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었던 그는 로동을 하면서 1928년에 단편소설 《질소비료공장》을 창작하였으나 사상이 불온하다는 리유로 일제경찰에 압수당하였다. 그후 그는 1931년에 그 소설을 다시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그후 리북명은 《카프》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썼는데 주로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쓴것으로 하여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구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문학창작의 길을 걷게 된 리북명은 《로동일가》와 같은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되였다.

그는 1958년부터 작가동맹 부위원장으로, 1962년부터는 현역작가로 사업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해방전 작품으로서 단편소설들인 《질소비료공장》, 《출근정지》 등이 있고 해방후 작품으로서는 중편소설 《당의 아들》, 장편소설 《등대》 등이 있다.

단편소설 《로동일가》는 5.1절을 앞두고 증산투쟁의 앞장에 나선 흥남비료공장 선반공들이 휴식시간에 건국실에서 유쾌한 오락회를 벌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진구는 웃음이 넘쳐나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요즈음 전에없이 얼굴빛이 흐려있는 달호의 기분을 돋구어주려고 춤판

에서 그를 찾는다.

진구는 경쟁이 벌어진 뒤부터 자기에게 곁을 주지 않고 경원시하는 달호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왼심을 써왔다.

그러나 달호는 여전히 그와 말도 잘하지 않고 애국로동에 참가한 안해에게 저녁을 제때에 짓지 않았다고 화를 내여 가정불화까지 일으킨다. 지어 그는 공명심과 조급성에 사로잡혀 홀로 기대를 돌리다가 바이트를 분질러 제품에 흠집까지 낸다. 그런가 하면 해방전에 고철장사를 해먹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구멍수를 찾는 꿈을 꾸기도 하며 일제때 배운 선반기능에 도취되여 새 선반기술을 배우지도 않는다.

그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소설에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구는 가정삼각경쟁을 뭇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는가 하면 체육에서 손꼽히는 아들 수돌의 공부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린다. 그리고 안해를 적극 도와 새 조국건설의 장엄한 현실에 맞게 로동속에서 보람을 찾는 사랑스런 안해로, 좋은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 개변시켜 자기의 가정을 행복한 로동일가로 꾸려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진구와 달호는 피스톤대를 한개씩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받는다. 이 일에서 달호는 진구보다 일곱시간이나 먼저 피스톤대를 깎아낸다.

그 기쁨으로 침울하던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여오른다. 점심시간에 벌어진 오락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곱새춤까지 추어 인기를 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안해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즐긴다.

한편 로동자회관에서 5.1절과 관련한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영화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아들이 우등을 했다는 안해의 말을 듣고 미래에 대한 기쁨에 부풀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한다.

그 이튿날 진구와 달호의 경쟁에 대한 중간총화가 진행된다.

자재를 랑비하면서라도 제품을 먼저 깎아내여 이름을 내보려던 달호는 동지들의 원칙적인 비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심각히 뉘우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5.1절을 계기로 표창대상자로 내신된 진구가 집으로 돌아와 안해와 아들과 함께 로동에 대한 벅찬 희망과 행복감에 넘쳐 있는것으로 끝난다.

———— ☆ ————

…

5.1절이 가까와왔다.

해방후 두번째 맞이하는 5.1절을 증산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직장에서는 작업반과 작업반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증산경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었다.

달호는 한날한시에 자기와 진구에게 피스톤대를 깎으라는 지시가 내린것을 좋은 기회로 진구에게 경쟁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주일동안에 규격에 맞는 완전한 제품 두개를 깎아내여야 하였다. 류안비료의 증산도 증산이려니와 기술에 있어서나 사회단체사업에 있어서 선반공들의 신임이 두터운 진구와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무들이 자기의 기술을 알아줄것이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승격의 계기로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좋은 수가 생길것이다. 설사 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는가? 밑져야 본전인데, 지는 송사를 어데 가서 못하랴!

《좋소, 우리 한번 모범시합을 해보자구. 그런데 경쟁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는걸 알지?》

달호의 경쟁제의를 쾌히 받아들이면서 진구는 이렇게 따졌다.

《알구말구. 제품의 질과 량을 보장할것, 로동규률준수, 출근률 100프로 또 있지, 다 알구있어.》

이것은 전번 생산협의회때 직맹증산부장과 직장장이 번갈아 강조한 문제였다.

그날 점심때 진구와 달호는 건국실에서 경쟁조문에 서명하였다. 비록 기간은 2주일이였으나 액체암모니아를 증산하여 류안비료의 계획량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경쟁이였다. 로동자들은 첫날부터 이 경쟁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그런데 달호는 그 이튿날 아침에 벌써 독보회가 채 필하기도 전에 살그머니 뒤문으로 빠져나가서 기계를 돌렸다. 그에게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보회쯤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되였다.

그후부터 그는 빚에 몰리는 사람처럼 밤낮으로 걱정이 심해갔다. 그 태도가 옳지 못한것인줄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선반직장은 2.4분기에 들어서자 주철과 단조 두 직장을 상대로 생산책임량의 초과완수와 출근률제고와 직장의 청소미화— 이 세가지 조목을 내걸고 삼각경쟁을 체결했던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건국증산경쟁이 개인경쟁뿐아니라 집체적운동으로 일보 전진한 형태였다.

그런데 달호는 이 삼각경쟁을 자기와 진구와의 경쟁과는 전연 동떨어진것으로 분리해서 해석하고있다.

그는 삼각경쟁보다 개인경쟁에서의 승리를 념두에 두고있었다. 삼각경쟁에 져도 개인경쟁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달호는 삼각경쟁의 한 조목으로 되여있는 직장내외를 청소하며 꽃밭을 꾸미고 분수를 만드는 동무들을 보고도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분수나 꽃이야 좋은 집 정원에나 심을것이지 이 쇠무지속에는 격식이 맞지 않아, 바빠죽겠는데 누가 그것을 보겠다구…》

그러면서도 그는 싫은대로 그 작업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달호는 1947년이란 1년 365일을 줄창 고된 일속에 파묻혀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지나친 생각은 그의 심리상태에다 일종의 압박감을 주었다. 그가 보는바에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 조급히 앞으로 내닫고있었다.

사위가 소란스러워져서 정신이 얼떨떨해질 때가 가끔 있었다. 달호는 1947년도 1년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량을 어떻게나 맺고 한시름 놓으리라 마음먹었다. 이 한해동안의 책임량을 달성한다면 명년부터는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1948년부터는 그렇게 부스닦이지 않고도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믿고있었다. 금년 1년만 보내면 된다.

작업개시고동이 채 소리도 멎기 전에 선반공들은 제가끔 자기 기대에 붙어섰다. 아직 웃음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 보인다. 털털이 문삼수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면서 연송 이마의 땀을 훔친다. 그는 씨름에서 련이어 다섯동무를 멋지게 지우고 막 뛰여들

어온것이다.

주문식아바이도 김진구도 마치 화창한 봄날씨처럼 기분이 명랑했다.

《아바이, 한바탕 솜씨를 내봅시다.》

돋보기의 부러진 다리를 가느다란 쇠줄로 감고있는 주문식에게 말을 건늬는 김진구의 두팔에서 새 힘이 솟구쳐올랐다.

《암 내다뿐이겠나. 점심은 먹었겠다 웃음도 실컷 웃었겠다 기운이 마구 솟네. 그런데 달호가 저기서 뭘 하구있어…》

아바이는 돋보기를 코등에 걸면서 연마석이 있는데로 갔다. 진구는 그쪽을 힐끔 돌아다보았다. 구태여 가보나마나 대뜸 짐작할수가 있었다.

《아바이, 미안하오.》

달호는 주문식이를 볼 낯이 없었다.

《또 분질렀구나. 사람두…》

아바이가 알기에도 피스톤대를 깎기 시작한 이후 이것이 벌써 세개째이다.

《미안하오.》

《그런 소린 듣기 싫네. 글쎄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이게 무슨짓인가? 다들 유쾌하게 노는데 섞사귀지두 않구… 사람이 그래서는 못쓰네 못써…》

《또 설교요? 춤추고 노래하구 웃는것만 노는게랍데까?》

달호는 금시 또 기분이 흐려졌다. 그에게는 아바이가 진구의 편을 드는것으로만 느껴졌던것이다.

《요새 자네가 너무 심상해하니까 말일세. 달호! 작업중에 이런 사담을 해서 안됐네만 내게 한번 툭 털어놓구 이야기해주게. 자네가 달래 바이트를 분질러먹는줄 아나…》

《아바이, 알겠소. 후에 이야기하리다.》

달호는 아바이의 훈계가 더는 듣고싶지 않았다. 무척 마음이 괴로왔던것이다.

《여보게 진구! 예비바이트가 없나?》

휘파람을 불면서 도면을 들여다보고 섰는 진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아바이가 말했다.

《왜요?》

《달호가 또 분질렀다네.》

《내 짐작이 맞았군. 그거 안됐는데.》

진구는 다우쳐 도구상자에서 갓 벼려둔 바이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연마석 있는데로 갔다.

《달호동무! 이걸 쓰라구.》

진구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연마석의 스위치부터 떼고 그에게 바이트를 내밀었다.

《아니 그만두오.》

달호는 잽싸게 도로 스위치를 찔렀다.

《글쎄 내게는 새것이 있으니까 쓰라구.》

《아니 벌써 다 갈았으니까 필요없소.》

달호는 진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굳이 거절한다. 그는 진구의 진정을 알아줄 대신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던것이다.

《글쎄 고집은 뒀다가 다른데 쓰구 이걸루 깎으라구. 그걸루는 안된다니까…》

《아니 이걸루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마오.》

《또 고집인가? 사람두… 이리 주게.》

둘의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섰던 아바이가 정색을 하고 나서더니만 달호의 손에서 부러진 바이트를 채듯이 빼앗았다.

《이걸루 저 중한 피스톤을 깎겠다니… 대관절 그 자신이 무슨 자신인가?》

아바이의 말투에 노기가 섞여있었다.

《여보 달호동무! 당신은 이것을 진구의 바이트라고 생각하오? 이것은 국가의것이라우. 류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피차 일하자구. 자…》

달호는 진구의 말이 가슴에 찔려서 더 말없이 바이트를 받았다.

흥남지구인민공장에 부과된 1947년도 생산계획량은 류안비료를 비롯해서 카바이드, 비누 등 각 품종에 걸쳐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그 어느것이나 인민의 생활을 향상발전시키는데 더없이 필요한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바로 봄씨붙임을 앞에 두고 2.4분기 류안비료의 책임량부터 달성하는것이 선결문제였다.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 역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호

소를 높이 받들고 식량증산에 궐기하였다. 그러나 일제놈들이 흡혈귀처럼 기름을 모조리 빨아먹고 간 땅에는 퇴비외에 많은 화학비료가 요구되였다.

일제놈들은 패망직전까지 여러해에 걸쳐 이 공장에서 적지 않은 화학비료를 생산했으나 그 대부분을 제놈들의 나라로 실어가고 조선농촌에는 새발의 피만큼밖에 주지 않았던것이다.

식량증산의 유일한 열쇠일뿐만아니라 이 공장 전체 로동자들의 과업으로 나선 류안비료를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설사 다른 부문의 생산량을 넘쳐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으로 될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 공장에 부과된 생산품종중에서 류안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던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국가와 당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서로 경쟁을 걸고 한치의 땅도 남기지 않고 갈아번지고있습니다. 금년의 식량은 걱정마십시오.…

…참깨, 들깨, 아주까리도 많이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먼저 멀리 솟은 비료공장의 굴뚝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습관으로 되여있습니다. 요즈음 그 굴뚝에서 연기가 더욱 무럭무럭 솟는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운을 돋구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씨붙임때를 놓치지 않도록 비료를 많이 보내달라는것뿐입니다. …빨리 비료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함흥벌에 있는 삼평이라는 농촌부락의 농민들이 비료공장로동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김진구는 이 편지가 벽보판에 나붙었을 때 씹어서 맛보듯 두번, 세번 거듭 읽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지 몰랐다.

기어코 농민들의 요구에 보답하리라— 이것은 진구 혼자만의 결의가 아니였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6백톤의 비료가 생산된다. 무사고, 무정전으로 줄창 기계를 돌린대야 1년잡고 21만 6천톤의 류안비료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년간책임량까지에는 아직 3만톤이상이 부족된다. 하루에 7백톤

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계획수자를 달성할수 없다.

일제놈들이 근 20년을 두고 혹독하게 써먹은 비료공장의 기계는 낡고 게다가 부분품이 부족되였다.

이미 로동자들의 창의창안으로 포화기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기계가 개조되여 성능을 회복했으나 아직 그것으로는 일산 700톤을 생산할수가 없었다. 류산직장의 배소로를 보수하여 류산을 더 많이 생산하며 현재 하루 170톤밖에 생산되지 않는 액체암모니아를 220톤까지 높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락관할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 피스톤대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일부 기술일군들까지 외국에 주문할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을 고집하였으나 지금 주문하더라도 넌내로 해결되기는 곤난하였다. 넌내로 해결하지 못한다는것은 류안비료의 년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기사와 기술자들이 달포를 두고 로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ㅅ고주파공장에서 뽑은 특수강이면 능히 피스톤대를 제작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것이다. 이 특수강이 단조직장을 거쳐 선반직장에 도착한 날 선반공들은 그것을 둘러싸고 환성을 올렸다.

김진구는 원형을 함마로 이모저모 두들겨보면서 액체암모니아가 흥건히 찬 암모니아탕크와 높은 비료산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암 그렇게 되구말구. 반드시 그렇게 될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을 제작하라는 과업이 자기에게 맡겨질것을 은근히 바랐던것이다.

달호는 진구에게서 받은 바이트로 대를 깎으면서 진구의 작업태도를 힐끔힐끔 건너다보았다. 자기로서는 리해하기가 곤난하리만큼 그는 자주 선반기의 회전을 멈추는것이였다. 휘파람을 불면서 쇠기둥에 걸려있는 도면을 한참씩 들여다보고 절삭부분에다 필요이상으로 자를 찔러보고 하는것이 대단히 굼뜨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달호는 진구의 기대밑에 타래송곳같이 쇠밥이 수북이 쌓인것을 보자 그가 한결같이 꾸준한 정력으로 깎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자기의 쇠밥보다 못지 않게 쌓여있는것이 분명했다. 저것이 옳은 작업방법이 아닐가? 문뜩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였다. 자기의 경쟁자에게 귀중한 바이트까지 서슴없이 내주는 진구의 마음씨가 자기로서는 리해하기 곤난하리만큼 관대하였다. 나의 실력

을 깔보고 한 일종의 동정일가?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우정을 가지고 한 행동일가?

(동정? 그럴는지 몰라,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아…)

그는 기계를 공전시키면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김진구는 야학을 겨우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하였다. 그것을 밑천으로 짬짬이 글을 읽어 겨우 제 이름자 가는데나 알게 되였다. 쥐여짠듯 한 가난속에서 열한살에 아버지를 잃은 그는 늙은 할머니를 비롯해서 다섯식구의 생활을 약한 두어깨에 짊어지게 되였다. 그의 로동생활은 철공장에서 풍구를 불게 된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허구한 세월을 피밥과 된장찌개와 콩비지로 연명하면서 철공장 기계수리공으로 로동하다가 선반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생활은 계속 궁색하였다. 일제의 소위 《대동아전쟁》시기에는 생활조건이 더욱 나빴다. 썩은 대두박과 썩은 된장이 주식물이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하루에 12시간내지 15시간의 로동을 강요했던것이다.

《그때 10시간을 하던 일을 지금 우리는 3시간이면 넉근히 해내거던… 꾀있는 목수는 대패날을 세번 갈아 하루일을 보낸다구 글쎄 한개 나사를 내는데 1시간이상 걸린 때가 있었으니까, 물론 직공장놈이 지키구있었지만 그런건 세워놓고 감쪽같이 입관했거던… 하하…》

진구는 지금도 가끔 옛말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쾌하게 웃는것이였다.

어떻게 하면 일제놈들의 눈밖에 나지 않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낼수 있을가?

해방전에 일제놈의 공장에서 이런 꾀를 부린 로동자가 어찌 김진구 혼자뿐이랴! 그는 글을 배울래야 배울수가 없었던 로동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8.15해방은 그가 그렇게도 한탄하던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무식은 파멸이고 지식은 광명이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자!

진구는 해방직후 처음으로 이런 표어를 보았을 때 얼마나 벅찬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다. —이 나라의 버젓한 주인으로 된 내가 눈뜬 소경으로 있다니 될말인가! 나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는 비상한 결의를 다지고 배우기 시작했던것이다. 정치학습

은 말할것도 없고 독보회, 기술강좌, 시사강연회 등 모임에는 거의 빠지 않고 참가하였다. 신문도 열심히 읽었다. 아는것보다 모르는 것이 몇갑절 더 많았다. 그는 모르는것은 따로 적어두었다가 서슴없이 아는 동무에게 물어 배웠다. 달호에게서도 배웠다.

이리하여 배움은 그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었고 그의 가슴에다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새로운 생활을 위하여 있는 힘과 재능을 깡그리 로동에 바치겠다는 결의가 가슴뿌듯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일제놈들이 파괴한 공장을 속히 복구정비하기 위하여 일주일내지 십여일씩 동무들과 공장 기계곁에서 자고 먹고 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기중기를 수리하던 8.15직후의 일을 그는 지금도 잊을수 없는 옛말로 기억하고있다.

김진구는 달호와의 개인경쟁의 승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시하는것도 아니였지만 그에게는 그것보다도 3개 직장간에 진행되고있는 삼각경쟁이 더 중요했던것이다.

공장정문앞에 있는 경쟁판에는 날마다 그 실적이 도표로 총화되여갔다. 로동자들은 출퇴근시마다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경쟁도표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까지의 성적으로 본다면 청소에 있어서는 선반직장이 비행기였으나 생산과 출근률에서는 거부기였다. 비행기는 제일 빠르고 선진적인것이였고 거부기는 제일 굼뜨고 락후한것이였다. 명예롭지 못한 거부기가 된 원인은 오작품이 계속 근절되지 않는것과 일부 로동자들이 아직 인민경제계획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있는데 있었다. 이것은 비단 선반직장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아직 적지 않게 있는 현상이였다. 이런 경향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당의 지도밑에 각 직장에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관련해서 생산검토회가 광범히 벌어졌다. 당의 지도밑에 직맹은 모범로동자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창의고안운동을 적극 추진시키기로 되였다.

김진구는 이 사업외에 구역당에서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로동자의 가족들에게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침투시키는 해설사업에 동원

되였다. 딱딱한 연설조로가 아니라 재미있는 좌담식으로 하라는 구역당선전부장의 주의가 있었으나 군중앞에 나서자 불을 안은 사람처럼 상기되여 그런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둔탁한 목청을 돋구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던것이다.

《그건 좌담이 아니라 연설이야. 연설중에서두 막대기연설일세.》

그 장소에 참가했던 아바이가 나중에 진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껄껄 웃었다.

《뭐니뭐니해두 군중앞에서 말하는것처럼 힘든 일이 또 어데 있겠소.》

김진구는 이미 한두번만 아니게 회의에서 토론에 참가해보았으나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말주변이 없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는 생산부문에서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에서까지 점점 책임이 무거워짐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든지 사양하지 않았다. 보잘것 없는 자기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기에 맡기는것이리라고 당이나 직맹에서 주는 과업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이 많아지면 질수록 마음의 나사를 부쩍 죄였으며 기쁨과 행복감에 잠겼던것이다. 그러면서 진구는 또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그는 현재와 일제때를 비교해보았다. 공장은 이미 그 기구와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조했는데 가정생활은 아직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있었다. 공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를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가정에서 무식을 몰아내고 로동에로 가족을 불러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해방후 겨울마다 있어오는 성인학교에 빼지 않고 안해를 내여보냈다. 두번 겨울을 배운 안해는 쉬운 편지나마 쓰고 신문도 뜯어읽게 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행복스럽고 더 알뜰한 생활을 꾸릴수 있을것을 그는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두 그 동무들처럼 집안식구끼리 경쟁을 해볼가? 경쟁이래야 별것이 아니거던… 당신은 지금보다 더 일 잘하는 녀성이 되구, 또 수돌이는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구, 그렇게 되면 나두 더 부지런한 주인노릇을 할것 같애. 어떻소?》

김진구는 하루저녁 안해에게 비누직장의 모범로동자 윤숙희의

이야기를 하던 끝에 롱삼아 이런 말을 건네보았다.

숙희는 공장에서뿐만아니라 기계수리공인 남편과 증산경쟁을 체결하여 새 모범을 보이고있었다.

《글로 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없어도 힘으로 하는 일은 남만큼 하겠소.》

의외에도 안해의 대답은 명쾌했다.

《나두 할테야.》

수돌이 역시 장담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롱이 정작이 되여 진구네 가정에서는 말하자면 가정 삼각경쟁이 벌어졌다.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비유해 말하면 수학에서 문제와 답의 관계를 이룬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보람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좋은 작품을 쓰자면 주제부터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누가 더 의의있고 절실한 주제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좌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다.》

주제는 말그대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회적문제이다.

주제의 개념은 두가지로 쓰이고있다. 하나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생활령역이나 범위를 말한다. 례를 들어 혁명전통주제, 사회주의건설주제, 계급교양주제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를 말한다. 례를 들어 민주개혁주제의 장편소설 《땅》에 제기된 구체적인 기본문제는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운명에서 어떤 전변이 일어났는가 하는것이다. 같은

민주개혁주제이지만 단편소설 《로동일가》의 기본문제는 새로운 인민주권밑에서 증산경쟁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이 지녀야 할 사상도덕적풍모는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주제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개로 제기될수 있다.

이때 기본으로 되는것을 기본주제라 하고 그밖의 문제들은 부차적주제라고 한다. 단편소설, 단막희곡, 서정시 같은 작은 형식의 작품에는 대체로 주제가 하나이다. 그러나 중편소설, 장편소설, 장막희곡, 서사시 등 큰 형식의 작품에는 기본주제와 함께 여러가지 부차적주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례를 들어 장편소설 《땅》에는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력사적전변의 기본주제와 함께 다양한 부차적주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지주아들 쾌동이의 사주팔자를 제 손으로 가져다 물려버린 용감한 처녀 유금숙의 형상에는 낡은 봉건적결혼제도로부터 녀성들을 해방할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여있고 현물세낟가리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혀가는 쾌동이의 형상에는 계급적원쑤들의 악랄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여있다.

문학작품의 주제를 옳게 풀어야 한다. 주제를 옳게 풀려면 두가지 요구를 지켜야 한다.

첫째로, 주제는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한다.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푼다는것은 당정책에 의거하여 사상교양적가치가 있게 푼다는것을 말한다. 좋은 문제를 제기하고도 시시껄렁하게 풀어나가서는 안된다. 가령 해방후 인민정권밑에서 증산경쟁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새로운 정신도덕적풍모에 대한 주제를 제기했다면 《로동일가》에서처럼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할 결의를 안고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진심으로 나라를 받들어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계급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작가가 순수한 기술적문제에 국한시켜 손재간 있고 눈썰미 있는 사람이 경쟁에

서 이기기마련이고 따라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풀어나갔더라면 작품의 사상교양적가치는 크게 떨어졌을것이다.

둘째로, 주제는 형상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제를 형상적으로 밝힌다는것은 주제를 작가의 말로 직선적으로 설명하거나 한두대목에서 선언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인물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주제는 어디까지나 흥미있고 생동한 형상속에 숨어있는것이지 자연과학문제처럼 작품의 첫머리나 마감에 직선적인 말로 드러나있는것이 아니다. 서사시 《백두산》이나 서정시 《농촌위원회의 밤》에는 그 어느 대목에서도 작품의 주제를 댕그라니 드러내놓은 말마디를 찾을수 없다. 주제는 형상전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밝혀지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풀려나오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사상은 주제에 대한 예술적해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의 사상은 종자의 구현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작가의 주장이고 화폭으로 펼쳐지는 생활에 대한 그의 평가이며 인물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다.》

문학작품의 사상은 작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며 묘사된 인물과 생활에 대한 그의 평가와 결론이다.

작품에 반영된 인물과 사건, 지어 간단한 자연묘사나 대사 하나에도 작가의 태도와 평가가 주어져있다. 례를 들어 장편소설 《땅》을 보면 곽바위나 전순옥을 비롯한 좋은 인물들을 그릴 때에는 작가의 깊은 사랑과 동정, 긍정적인 태도와 평가가 나타나있고 고병상이나 쾌동이를 비롯한 나쁜 놈들을 그릴 때에는 작가의 분노와 규탄, 비웃음, 부정적인 태도와 평가가 나타나있다. 곽바위가 땅을 분여받고 새 인간으로 태여나 놀라운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땅을 개간하고 풍요한 수확을 거두어 나라에 애국미를 바치며 나중에

인민의 대의원으로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작가는 땅의 주인이 됨으로써 농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될수 있었으며 이것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개별적인 형상요소들을 일일이 평가하면서 작품의 끝에 가서 작가가 내린 이 결론이 곧 작품의 사상으로 되는것이다.

작품의 사상에는 기본사상과 부차적사상이 있다.

기본주제와 부차적주제가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예술적해답으로서의 사상에도 기본사상과 부차적사상이 있게 되는것이다.

기본사상은 기본주제의 해답으로서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과 운명을 통하여 밝혀지는 사상이다. 부차적사상은 부차적주제의 해답으로서 주로 부차적인물들의 성격과 생활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모든것이 다 합쳐져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되는것이다.

작품의 사상도 역시 형상속에 깃들어있다. 그래서 작품의 사상을 형상적결론이라고도 한다. 작품의 사상은 작가의 말로 직선적으로 표현되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작품전반의 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에 있어서 엄혹한 시련이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싸우는 인민대중을 전쟁의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등을 발표하시여 전시문학의 발전방향과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문예방침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에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문학이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전쟁의 최후승리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문학은 무엇보다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칭송한 송가들과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시가작품들인 서정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백인준), 《수령께 드리는 노래》(집체작), 《경애하는 수령》(김우철), 《장군님께서 오신 마을》(리맥), 《사랑의 손길》(김우철), 가사 《우리의 최고사령관》(김북원) 등을 내놓았다.

작품들에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끓어넘치는 흠모의 정을 담아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경애하는 수령》에서는 영예군인학교를 몸소 찾으시여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노래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몸소 학교를 세워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전화의 불길속을 헤치시고 학교를 찾아주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식당과 침실을 돌아보시고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 오매에도 못 잊는 우리의 수령은
> 연설을 하려고 오시지는 않았다
>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의 정으로
> 첫걸음을 우리의 식당에 옮기셨다
>
> 량은 알맞는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 맛은 어떤가 잡수어도 보시고
> 그다음엔 침실로 걸음을 옮기시며
> 우리들의 입은 옷을 어루만져보셨다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고조된 정서적체험속에서 노래하면서 크나큰 은정이 낳은 위대한 힘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이 시기 문학은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시 《조선은 싸운다》(조기천), 《강철청년부대》(김람인), 《나의 따발총》(안룡만), 《이 사람들속에서》(김조규), 《나팔수》(박세영), 가사 《조국보위의 노래》(조령출), 《결전의 길로》(석광희), 《전호속의 나의 노래》(심봉원), 《샘물터에서》(최로사),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장편소설 《대동강》(한설야),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천세봉),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한태천), 《탄광사람들》(한봉식), 《그가 사랑하는 노래》(송영)와 같은 작품들은 전시문학을 대표하는 성과작들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영웅을 형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선용사들과 후방의 애국적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영웅적현실이 요구하는 긍정적주인공의 영웅주의적특질을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전시문학의 전투적이며 애국주의적특징을 훌륭히 부각시켰다.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은 구대원인 장수철이 신대원인 박성구를 용감하고 대담한 영웅전사로 키워내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돕고 이끌고 배워주면서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혁명적동지애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는 1950년 8월 락동강류역의 어느 강안에서 아군의 도하를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은 전기선소대원들이 부대와의 련락이 끊어진채 적의 포위속에서 한주일이상이나 온갖 시련을 이겨가면서 끝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집행에서 높이 발양된 인민군용사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문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미제침략자들의 죄행과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폭로하는 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이 돌려진것이다.

풍자시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백인준), 《월가의 관병식》(백인준), 단편소설 《승냥이》(한설야), 풍자소설 《뼉다귀장군》(김형교), 희곡 《강화도》(송영), 《수원회담》(허춘) 등은 세계의 면전에서 미제를 흉악한 침략자로 락인찍고 놈들의 추악성과 포악성, 야수적인 본성을 예리하게 단죄하고있다.

풍자시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는 략탈자이며 살인자인 미

제의 죄악적본질을 력사적으로, 립체적으로 날카롭게 풍자하고있다.

시에서는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목적을 낱낱이 발가내면서 조선인민에게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한 승냥이 미제놈들을 치솟는 격분속에 단죄하고있으며 개와 곰과 두꺼비들까지도 경멸하는 가장 추악한 인간쓰레기로 규탄하고있다.

작품은 끝으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절대로 살아돌아갈수 없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모두 반미평화투쟁에 일떠서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편소설 《승냥이》는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미국선교사와 그의 녀편네, 아들 시몬, 교회병원 원장 맥부인 등의 형상을 통해 폭로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사건을 통하여 폭로규탄한 작품들에는 1871년 미제의 강화도침입사건을 소재로 한 장막희곡 《강화도》도 있다.

이처럼 전시문학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로 가득찬 영웅적인 문학으로서 인민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은 싸운다

1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방금 섰던 3층벽돌집은
아스팔트길에 거꾸러지고
반나마 타버린 가로수들은
허리부러져 길바닥에 딩구노니
과수원도 뿌리채 간데 없고
박우물 바위도 부서지고
무서운 악몽에서 허덕이듯
고향거리도 찾을길 없으니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북남 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같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2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캄캄한 밤길！
시한탄에 밤이 튀는 신작로
죽음이 목숨을 틀어잡은 여기서
무슨 그림자이냐 말소리냐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복구대는 일한다
시한탄을 끌어내친다
그러면 어둠속에서 호각소리 울리고
서리어린 화물차는 박는듯이 멎고
젊은 운전사의 목소리는
《길이 어떻소？》
그러면 어둠속에서 반기는
《길이 좋아요！》
처녀의 맑은 목소리를 뒤이어
다시 호각소리 출발을 울리는
천리길 그 많은 굽이굽이에서
밤마다 밤마다 죽음을 이기는
조선의 싸우는 후방！

3

만일 하늘에 하느님이 있어
낮과 밤을 내였다면
조선사람을 보고 놀라리라
밤을 모르는 인민을！
컴컴한 거리를 깨뜨리며
검은 번개모양 자동차 날아지난다
다정한 방울소리 흘리며
달구지도 쉴새없이 밤을 지난다
그사이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는
땅에서라도 불꽃을 일으키듯
걸음을 재촉하는 행군인가
복구대인가 로력대인가
전동기소리，기대소리，마치소리
어둠을 뚫고 새벽에 뻗치여
낮과 밤을 이어대는
싸우는 조선의 밤모르는 후방—

4

동틀무렵 그는 홀로 남았다
눈내리는 고지에
전우들도 죽고 련락도 끊어지고
산밑에서 아우성치는 원쑤들에게
《개놈들아, 올라오라!
나 혼자뿐이다!》
어찌 인민군전사의 손에서
수류탄이 목표를 모르랴
하늘도 터지고 고지도 떠가는듯
적은 세번이나 물러섰다
본대에서 고지를 탈환했을제
주위엔 적의 시체 너저분한데
쓰러진 전사의 낯에선
아직도 눈송이들이 녹았다
정성껏 삼가 내려지는
조국의 고운 눈송이들은…
조선은 산이 많은 나라
아, 그 많은 령마루, 그 많은 바위에서
이 나라의 이름없는 영웅들은
조국의 행복을 부르짖으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피흘리면서도 죽으면서도
마지막탄환으로 원쑤를 찾았다

5

싸우는 조선의 전방아!
휘발유에 돌까지 타는 산에서
어떻게 원쑤를 물리쳤느냐
폭격에 밑바닥까지 뒤집히는 강하는
어떻게 넘었느냐
불붙는 거리와 마을들은

폭격에 컴컴한 진지는
어떻게 지키느냐
누가 수류탄이 되여
적의 땅크밑에 뛰여들었던가！
누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가슴으로 불뿜는 화구를 막았던가！
철화속에서 포연속에서
겨레의 죽음을 넘어
무한한 시련과 고통을 박차며
눈물도 잊어버리고
끝없는 증오에 불타는 눈이
어찌 눈물을 알것인가！
한숨도 없이
끝없는 복수에 불타는 가슴이
어찌 한숨을 알것인가！
모든것을
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여
인민은 싸운다！

6

세계의 소박한 사람들이여！
싸우는 조선의 말을 들으라
엄마 잃은 이 나라 애가,
길가에서 울며 기던 그 아기도
피 즐기는 미제침략자들의 파녁으로
백여발의 총알을 맞았다
지금 당신이 안은 아기와 동갑이라고
언젠가 어머니는 그리도 기뻤더란다！
악형에 상처받은 가슴을 붙안고
온갖 릉욕을 피타는 증오로 불사르고
벗은 몸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불덩이같이 나가는 조선의 녀인

지금 당신을 길이 믿어 쳐다보는
하늘색 눈동자의 련인은 아닌가?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은
당신들의 머리를 겨누거니
사람의 눈을 찌르며 손톱을 뽑으며
미칠듯 웃어대는 야수들은
사람의 가슴에 창끝으로
원자탄을 그리는 야수들은
당신들에게 달려가려 날뛰거니

7

불타는 조선
싸우는 조선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세계에 부르짖는다
지구의 인민들을 딸라에 교살하려는
야수들을 막아 일어서라!
투쟁의 대렬을 강철같이 떨치라!
수백만 인민의 성스런 죽음으로써
그들이 흘린 붉은 피로써
세계의 반제전선에
조선은 들어선다!
꽃피는 자유의 땅
행복의 땅을 위하여
삼천만의 봄을 위하여
조선은 싸운다!

—1951년—

조기천

[명언]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다.
김 정 일

불타는 섬

《불타는 섬》은 황건(1918—1991)이 1952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황건은 량강도 풍서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중학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많은 책을 읽고 습작도 하였으나 그의 진정한 문학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8.15해방이후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신문기자활동을 하면서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황건은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들인 《안해》, 《그가 돌아온 길》, 《불타는 섬》, 중편소설 《행복》 등을 창작하였다.

전후시기에 황건은 작가동맹 소설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장편소설 《개마고원》, 중편소설 《새벽길》,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들인 《아들딸》, 《자라는 대오》를 창작하였으며 1980년에는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창작하였다.

황건은 이러한 창작성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최고상인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단편소설 《불타는 섬》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를 피로 지켜 용감히 싸운 리대훈해안포중대 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1950년 10월 깊은 밤 무전수 안정희는 두명의 녀성통신병과 함께 월미도에 있는 리대훈해안포중대에 배속되여간다.

월미도에 온 그들은 포화의 불비속에서도 두려움없이 조국의 촌토를 지켜싸우는 해안포중대원들의 희생적인 투쟁모습을 보게 된

다. 그중에서도 용맹한 투지로 중대를 지휘하는 리대훈중대장의 모습은 안정희에게 지울수 없는 감명을 안겨준다.

련일 함포사격과 비행기폭격으로 월미도를 불바다로 만든 적들은 13일 오전에 해안으로 다가들기 시작한다. 해안포병들은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어 적 대소함정 13척이나 격침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고 사단지휘부의 축하전문을 받는다.

14일 중대는 또다시 상륙을 기도하는 적함선 6척을 물속에 수장했으나 적지 않은 손실을 입는다. 중대원 8명에 포 한문, 포탄도 얼마 남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장 리대훈을 비롯한 월미도용사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을 맞받아싸운다.

최후의 결전을 앞둔 시각 사단지휘부에서는 무전수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안정희는 불타는 섬을 뜰수 없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중대원들과 함께 섬에 남게 해줄것을 사단지휘부에 거듭 요구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 … …

벌써 날이 새는듯 바다 먼 섬봉우리들이 희끄무레 밝아왔다.

밤새 무전기를 대하고 앉았으나 송신기에서 손을 놓은지 이슥한 정희는 나무걸상에 걸터앉은채 전호출입구너머로 어둠속에 괴괴한 바다를 어느때까지고 지키고 앉았다.

왼켠뒤에는 중대장 대훈이가 그 역시 말없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지난밤은 수리도 못하고만 포탄에 무너진 전호출입구 웃턱에는 허리부러진 통나무가 드나드는 사람의 이마를 찌를듯 드리워있다. 통로에 가득 쏟아진 흙이며 돌은 포중대동무들이 포주위에서 떨어못 지는 사이 정희가 혼자서 간신히 쳐내여 통행할수는 있게 하였다.

바다 먼 어둠속에서는 함포들이 계속 아가리에서 불을 토했다. 지진에 치우듯 전호는 간단없이 울렸다. 이따금 가까이에서 떨어지

는 포탄폭풍에 먼지가 전호속까지 확 풍겨들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희멀건 별빛아래 거밋거밋 멀고 가까운 섬들을 뒤에 두르고 인천바다는 새벽대기속에 마치 혀바닥들을 다시는 피에 주린 악귀들의 소굴처럼 생각되였다. 크고작은 함정들은 바다 한가운데 한 해적도시를 이루고있지만 지금도 희뜩희뜩 눈에 띄는 마스트며 굴뚝이며 포아가리며 선체는 피묻은 이발로, 발톱, 손톱으로, 살기서린 눈깔들로 보였다.

《이젠 포탄 오기두 틀려버렸군.…》

혼자 말하듯 대훈의 굵은 음성이 느릿느릿 들려왔다.

《날이 다 밝는군요.》

정희 역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대훈은 더 말이 없었다.

다시 둘은 묵묵한 속에 아직 어두운 바다 멀리 시퍼런 불이 번쩍이는 함포아가리들만 바라보았다.

정희는 자기도 모를 힘에 끌려 대훈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어쩐지 정희는 이 시간의 대훈의 얼굴표정이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어둠속에 희미하기는 하나 대훈은 여전히 투지만만한 긴장된 얼굴이여서 정희는 다시금 안도되는 마음이였다.

대훈에게서 도로 고개를 돌린 정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생각 못했으면서 어쩐지 바로 이 시각에는 이제껏 할 기회가 없었던 서로의 마음속의 온갖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것 같은 간절한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정희는 저으기 망설이던 가운데 다시 홱 고개를 돌렸다난 다음 몸을 일으켜 나무걸상 한귀를 내여주며

《여기 앉으세요. 중대장동무…》

하고 대훈에게 권했다.

《좋소.》

대훈은 걸상을 굽어볼뿐 앉을념을 안했다.

정희는 몸을 일으킨 그대로

《앉으세요, 좁은대로 앉으세요.》

하고 재차 권했다.

대훈은 그리고도 얼마를 그냥 서있다가 걸상에 걸터앉자 오른팔을 책상우에 버리듯 눕혀놓았다.

거북스런 가운데 둘은 다시금 한동안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와짝 저려왔다. 정희는 이제는 서로 마지막시간이 가까와왔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그러며 정희는 지금 이 동무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그런 생각이 들었

다. 어쩐지 정희는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중대장에 대한 생각이 더 가슴에 가득했다. 그런데 불쑥 대훈은

《동무는…》

하고 느린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두 들어가는것이 좋지 않겠는지…》

《왜요?》

정희는 얼굴을 들었다.

《포탄이 안 오는 한 월미도는 오전안으로 저놈들한테 주어야 할것이요.》

정희는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희자신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보다도 정희는 딴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것이였으나 생각도 말도 나가지 않고 가슴만 저렸다.

다시 얼마의 막막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 대훈은 문득 갖추매 없는 굵은 음성으로

《동무는 죽음이 무섭지 않소?》

하고 물었다.

말을 하는 사이도 대훈의 눈은 바다속 놈들의 함정들을 겨누고 있었다.

정희도 한곳을 지키며 말을 못하다가

《아니요.》 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그러나 정희는 자기도 모를 흥분속에 저으기 창창한 목소리로

《그보다두 저는…》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음성은 가끔 목에 걸리여 거북하게 울려나왔다.

《그보다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은 없이… 어떻게 말루 표현할수는 없어두 기쁘구 행복한 마음이예요. 참말 저는 중대장동무며 중대동무들때문에 지금은 제 일생의 그중 귀중한 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철없다고 꾸짖지는 마세요.》

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훈은 정희의 일로 하여 벌써 전부터 마음이 자못 무거웠었다. 그의 심정이 무조건 고맙고 귀중하게 생각되면서도 그것에 무언가 잘못은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얼마후 대훈이 역시 거북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동무의 일로 마음이 괴로와지오. 아니 그보다두 무어라구 해야 할지… 저쪽 동무들두 같은 말을 했었소만 동무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요.… 모두 동무하고는 형제를 만난것처럼 생각하고있소.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싸워오는, 마지막이 될는지 모를 이 전투를 앞에 놓고 동무는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뜨겁게 하여주고있는지 모르오. 말하자면 동무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마지막순간까지 싸울것을 맹세한 젊은 아들들인 우리 전사들의 자랑과 기쁨을 더욱 찬란하게 하여주고있는것이요.… 우리는 동무와 같이 있을 시간이 목전에 한정된것이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오. 그만큼 또 우리에게는 동무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것이 괴로와지는것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참된 길루 그냥 채찍질해주세요.》

정희는 자기 생각만 좇으며 외우듯 말했다.

대훈은 말대신 책상우에 가지런히 놓인 정희의 두손을 꼭 잡았다.

서로 겨눈 방향은 달라도 눈들은 타는듯 했다.

바로 전호앞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포탄이 터졌다. 폭풍이 확 전호안에 밀려들고 모래, 돌짝과 먼지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대훈이도 정희도 그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한모양으로 앉아있다.

정희 역시 지금은 앞에 놓인, 같이 싸울 한정된 시간을 생각하며 이름못할 감정을 달랠 길이 없었다.

대훈은 한결 어성을 바꾸어 정희에게 물었다. 이제사 이것을 묻는것이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시오?》

《청진이예요.》

《입대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소?》

《방직공장에 있었어요. 47년도부터 방직공으로 있다가 작년에 군대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 이내 해군기술학교에 가게 되구 졸업한지 반년만에 이번 전쟁에 나오게 되였어요.》

검은 속눈섭을 간간이 내리덮는 정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대훈은 회상하듯 입을 열었다. 자신이 무엇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고향이 충청남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북반부에서 해방을 맞구… 고향에 돌아가자고 했지만 벌써 미제원쑤놈들이 기여들어왔댔소. 그래 고향에 기여든 저 원쑤놈들을 족치려고 일찌기 군대에 들어왔댔소.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어릴적 그리운이들을 찾은 뒤 마을을 위해 무척 많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왔었소.… 욕심꾸러기처럼 무슨 일이든 많이 하지 않으면 한것 같지 않은것이요. 오늘 이렇게 싸우는것만도 한

은 없지만… 또 내 아니라두 얼마든지 열렬한 동무들이 고향을 위해 일을 해주겠지만 진격하는 길에 잠간이라도 고향마을에 들려보고싶었었소.》

《친척들도 아직 계세요?》

《3촌, 4촌들이 있습니다. 동무는 방직공장에 만나구싶은 동무들이 많으시지?》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전쟁에 나왔을거예요.… 친하게 지낸 동무들이 많아요. 저는 그 동무들과 책읽은 이야기를 하는게 제일 기쁜 일이였어요. 읽던 책에 너무 감동돼서 밤중에 미치광이처럼 동무네 집에 달려가 동무한테 읽어준적도 있었어요.…》

대훈이도 정희도 눈들은 다 기쁨에 서려 번쩍이였다.

날은 더욱 밝아오고 함포는 더 세차게 주위를 울렸다. 둘은 싸움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욱더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렸을적 자라던 이야기며 군대에서, 공장에서 지내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 문득 정희는 먼 포성이 울려오는 동트는 하늘가 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계시겠지요?》 하고 조용히 뇌였다.

대훈이 역시 숭엄한 생각에 잠긴듯 정희가 바라보는 북쪽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다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보고계실겝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시구계실겁니다.… 원쑤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계실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얼마나 큰것인가.… 정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입을 열지 못했다.

적들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눈에 띄였다.

점점 밝아오는 바다를 묵묵히 지키고 앉았던 대훈은 부스스 걸상에서 일어섰다.

《적정보고를 부탁하오. 놈들은 또 상륙할 작정이요.》

대훈은 이제껏 이야기하던것과는 판이하게 다시금 전신에 탄력을 모두며 눈에 불길이 성성해 교통호를 나갔다.

정희는 미진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하며 무전기전건을 두들겼다.

어느덧 바다는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크고작은 가지가지 배

들은 가로세로 움직이며 가까와오고있고 함포들은 발악하듯 포탄을 퍼부었다. 전호안이 뒤집힐듯 울리고 출입구밖이 초연에 뽀얗게 되였다.

더 가까이에 기여들 때를 기다리는듯 단 한문 남은 우리 포는 아직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먼 바다속 섬봉우리에 해살이 비치자 이번은 하늘을 가리울듯 비행기들이 날아와 날쳤다.

앉은 자리가 마구 구겨지고 숨이 꽉 막히는것 같은 질둔한 시간이 계속되였다.

함포와 포격이 좀 뜸해지는가싶자 또 놈들은 배머리에 흰 물결을 세우며 섬을 향하여 가까와오기 시작했다.

드디여 우리 포가 불을 토했다. 먼 해면에 시허연 물기둥이 일떠섰다. 그리고 또 일떠섰다. 그러나 포탄은 한발씩 한발씩 너무나 외롭고 안타까왔다. 하지만 적의 함정들은 짐승의 무리처럼 얼마나 욱실득실한가! 배마다 마스트마다 날리는 붉고 푸른 기발들은 세상에도 악착스러운, 어떻게 저처럼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일수 있을가! 짐승들에게는 죄없는 조선사람의 간장이—간장의 피가 요구되는것이다. 선한 생명의 모든 피가 요구되는것이다.

마침내 한문의 우리 포탄은 적의 구축함에 명중되였다. 바로 기관부에 맞은듯 시꺼먼 연기가 룡트림쳐 올라가더니 연기는 함체를 완전히 덮기 시작했다. 폭음속을 새듯 포좌지 전호에서 동무들의 환호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단 한문의 포탄은 또 경비함을 갈겼다. 경비함은 이내 수중에 함체를 기울였다.

우리 포는 해상에 계속 그 외로운 물기둥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 포소리는 그만 멈춘채 울릴줄을 몰랐다.

정희는 두손을 무릎에 놓은채 교통호쪽에만 귀를 기울였다. 포진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희는 걸상에서 일어서자 초연에 눈을 뜰수 없는 교통호를 달음박질로 나갔다.

전호안에는 포를 쏘다만, 해병복이 람루한 땀투성이, 먼지투성이의 동무들이 손을 드리운채 늘어서고 그가운데 중대장 리대훈이가 왼팔을 동무에게 맡기고 눈살을 찌프리며 서있다. 대훈의 팔을 잡은 동무는 그 팔에 붕대를 감고있었고 붕대는 피에 벌써 발갛게 물이 들었다.

그러나 대훈은 정희를 보자 태연한 얼굴로

《구축함 한척이 격파되구 경비정 한척이 격파된걸 보고했소?》

하고 물었다.

《네, 보고했습니다. 이젠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까?》

하고 정희는 부상당한것은 묻지 못했다.

《떨어졌소.》

하고 무심하게 대답한 다음 대훈은 옆동무에게

《자, 그만해놓소.》

하고 나머지붕대를 받아 오른손으로 아무렇게나 끝을 마물군 다음 팔을 그냥 드리워버렸다.

《이젠 모두 수류탄에 따바리들을 드오. 그리구 밖으로 나가야겠소.》

대훈은 자기부터 전호구석에서 수류탄을 집어 띠에 차고 호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정희는 먼저 중대부에 돌아왔다. 정희는 걸상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무전대앞에 멍해 서있었다.

바다속에 해적의 무리는 흰 물살을 더욱 거칠게 울리며 가까이에 퍼져 다가왔다.

이윽고 교통호로부터 리대훈중대장을 선두로 중대원들이 모두 따바리에 수류탄들을 차고 나타났다. 정희는 동무들의 얼굴이 류달리 일일이 살펴졌다. 중대장이하 전원 6명, 누구나가 여전한 한결같은 기개 드센 얼굴이였다.

정희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잠간동안 대훈이도 정희도 동무들도 한곳에 우중충 모여서 바다우 놈들의 함체의 움직임이며 흰 파도를 지켰다.

놈들은 훨씬 섬에 가까와지면서 함포를 멈추었다. 비행기도 뒤로 물러갔다.

중대장은 대원들에게 전호를 기여나가 물가에 진을 칠것을 명령했다. 동무들이 나가는 뒤모양을 일일이 살피던 대훈은 정희쪽에 돌아섰다.

《부상당하셨어요?》

기다렸던듯 정희는 이제사 그것을 물었다. 대훈을 생각하는 그리고 동무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물결이 끓듯 가슴속이 소용돌이쳤다.

《파편에 좀 맞았소.》

《많이 다치셨나본데…》

중얼거리며 정희는 자기 손을 대훈의 피가 배여나 흐르는 팔가까이에 다치지 않을 정도로 엉거주춤 이끌리듯 가져갔으나 더는 아무리지도 못했다. 생각하면 지금 그런대야 필요한 일일수도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대훈은 그것에는 생각도 가지 않는듯 다시 놈들이 밀려드는 바다쪽에 고개를 돌렸다난 다음
《자 서루 마지막임무를 깨끗이 수행합시다.》
하며 성한 오른손을 내밀었다.
뜨거운 눈길이 서로 맞부딪치며 말들이 나가지 않았다.
정희는 무엇을 들어라도 주듯 힘들여 자기 손을 대훈에게 주었다.
《전국이 어려워질것 같소.… 그렇지만 일시지 모두 이를 갈며 막아설것이요.》
정희는 가슴에 고패치는 마음 어찌할길 없이 대훈의 손을 두손으로 잡자 앞으로 쳐들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던 정희는 홱 고개를 들자 메여오는 목을 겨우 가누며
《중대장동무, 저두 함께 나가 싸울수 없어요? 저두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간원하듯 말했다.
그러나 대훈은
《안되오. 동무의 임무는 그것이 아니요.》
하고 엄하게 말했다.
그래도 얼마를 대훈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던 정희는 단념하듯 이윽고
《저한테 수류탄을 하나 주세요. 보고를 더 계속할수 없을적에 쓰겠어요.》
하고 말했다.
대훈은 그 불같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다 말없이 바지주머니에서 수류탄을 한개 꺼내주었다.
대훈은 정희를 다시한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홱 돌아서더니 전호밖으로 걸어나갔다.

정희는 무전대앞에 단정히 앉아 전건을 잡았다.
전건옆에는 수류탄이 이내 손이 닿을수 있게 놓여있다.
정희는 타는듯 한 마음으로 전건을 눌렀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통신이 될것이다. 통신이 그칠 때 그때에는 전건옆에 쪽철을 펴놓은 수류탄이 터질것이다. 마지막 나의 통신을 정성껏 받아다오. 너와 모든 동무들에게 굽힐줄 모르는 싸움과 승리가 있을것을 빈다.… 1번수.》

정희는 다시금 몸을 단정히 하며 눈을 바다가로 가져갔다.

바다를 가르며, 바다에 넘쳐날듯 놈들의 상륙뽀트들이 물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다가왔다. 놈들은 물결을 헤치며 배에서 쏟아져내리자 물가에 개무리처럼 까맣게 밀려들었다.

사단지휘부 무전실 유리창아래 무전대앞에는 턱밑에 물결이 선연한 해병복의 3번 무전수가 눈물고인 눈도 씻지 못한채 온 정신을 수신지우에 기울이고있었다. 자주빛연필이 수신지우를 넘어지듯 달렸다. 이윽고 무전수는 수신지들을 책책 겹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옆에 따로 밀어놓았던 자기에게 온 수신지를 잡고 망설이다가 그것까지 겹쳐들고 사단장실로 들어섰다.

나이 40이 넘은 듬직한 몸에 눈섭술이 많은 옛 항일투사인 사단장은 방안을 거닐던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근엄한 눈길로 전문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3번수에게 온 첫 전문을 읽은 다음 분초의 사이를 못 두고 수신지로 시선을 옮겼다.

《8시 47분… 중대장이하 중대원 여섯명 수류탄과 따바리를 휴대하고 물가로, 배에서 내린 놈들은 개무리처럼 까맣게 물가에 오르기 시작, 해안포용사들은 바위틈에서, 포탄구뎅이에서, 따바리를 휘두르며, 수류탄을 던지며 일떠선다. 놈들은 물가 진흙탕에 쓰러져간다. 거품이 어지러운 조수는 물감 풀리듯 붉게 물들어간다. 우리 범들은 몸도 감추지 않고 물가까지 나가 감탕속에 버티고 섰다. 용사들의 탄환, 수류탄은 겹쳐나오는 놈들의 배통, 골통을 그대로 가르고 마슨다. 놈들의 전진은 수라장을 이루고있다.… 1번수.》

《8시 57분… 뒤따라나온 놈들의 상륙정은 물가에 땅크를 내려놓았다. 땅크는 중기, 경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며 흙탕속을 기여나온다. 우리 동무들은 저마다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간 엎드린다. 그냥 보이지 않는 동무도 있다. 불쑥 오른손에 수류탄묶음을 든 리대훈 중대장이 일어섰다. 땅크를 향하여 수류탄묶음을 던졌다. 수류탄이 터진 뒤 땅크는 무한궤도가 끊어진듯 감탕속 한자리에서 뭉갠다. 또 하나 땅크가 그옆을 기여나온다. 중대장은 더 보이지 않는다. 놈들의 세찬 불길속에 또 한 동무가 일어섰다.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채 넘어지고말았다. 우리 동무는 더 볼수 없다.… 1번수.》

《9시 5분… 놈들의 선두땅크는 벌써 내 전호우측을 뒤로 달리고있다. 또 한대가 그뒤를 따라 올라온다. 그도 보이지 않고 또 딴

땅크와 땅크… 그리고 개무리들이… 미국놈 검둥이에 일본놈까지 또 까맣게 따라올라오고있다. 전호출입구에 미국놈 한놈이 막아섰다. 나는 이미 수류탄을 쥐였다. 어리석은 이놈은 총을 겨누며 나를 향하여 다가…》

밤잠을 못 자 눈이 부석부석한 사단장은 다 읽은 뒤에도 수신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손을 떨궜다.

원쑤들의 시체에 덮인 감탕이, 피에 물드는 거품, 흐린 조수가 어수선히 눈앞에 떠올랐다.

옆에 와 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 참모장이 수신지에 손을 내여밀었다.

사단장은 참모장에게 수신지를 주며 혼자생각에 얽혀 중얼거리듯, 그러나 천근무게로 띠염띠염 말했다.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소. 최고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불덩이같은 이런 사람들을, 놈들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요.…》

결전의 길로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러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만세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나가자 동무여 결전의 길로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음을 헛되게 말라
구령은 내렸다 탄우를 뚫고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만세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나가자 동무여 결전의 길로

피로써 승리해가는 이 길이
그리운 고향에 뻗치고있다
수령께 맹세한 붉은 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만세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나가자 동무여 결전의 길로

—1951년—
석광희

[명언]

싸우는 마을사람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작가 천세봉(1915—1986)이 1952년에 창작발표한 중편소설이다.

천세봉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은정속에서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활짝 꽃피워온 정열적이고 재능있는 작가였다.

그는 함경남도 고원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천세봉은 어려서 겨우 보통학교에 들어갔으나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는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야학을 세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옛날 소설책들과 신소설들을 빠짐없이 읽었다.

천세봉이 농촌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에서 우리 나라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는 작가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이때의 농사경험과 많은 책들을 읽은 밑천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해방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새 조선건설에 헌신하면서 작품창작에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첫 단편소설 《령로》(고개길이라는 뜻)를 썼는데 이것이 현상응모에 당선되였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창작생활은 1947년에 단편소설 《새로운 맥박》을 창작하고 뒤이어 작가동맹 정맹원이 된 다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체험해온 천세봉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고원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미제와 싸웠으며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고향이 해방되자 마을에 내려와 당세포를 복구하고 반동놈들을 처단하는 한편 일시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이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 천세봉은 협동조합을 내오기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때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창작하였다.

천세봉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1962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그는 해방전과 해방후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담은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력사》(제1부), 《대하는 흐른다》(제1부) 등을 창작하였다.

작가 천세봉의 일생에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1963년 11월 5일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귀중한 교시를 받게 된것이다.

그후 천세봉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은하수》, 《조선의 봄》, 김정숙어머님의 혁명투쟁을 형상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사령부로 가는 길》, 태성할머니를 형상한 장편소설 《축원》 등 훌륭한 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이러한 창작성과로 하여 그는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작가협회 문학상인 로터스상을 수여받았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적강점지구에서 고향마을을 지켜싸운 유격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적들이 들어오게 되자 당조직의 지시에 따라 집짐승까지 끌고 느릅구지에 갔던 개안마을사람들가운데서 최치부가 막내아들 룡갑이와 같이 먼저 개안마을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느릅구지에서는 상급당조직의 지시에 따라 당원들을 중심으로 유격대가 조직되여 대호산으로 들어가게 되였고 그밖의 마을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가 추수를 하게 되였는데 마을형편도 알아볼겸 최치부를 한발 먼저 떠나보낸것이다.

최치부는 마을에 들어서는 길로 황달훈놈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황달훈은 해방전에 개안마을에서 지주로 있다가 해방후에 남으로 도망친 놈인데 《치안대》대장이 되여 다시 나타난것이다.

최치부는 마을사람들을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는 황달훈놈의 으름장을 귀등으로 흘려보낸다.

며칠후 계덕근을 비롯하여 마을아낙네들이 느릅구지에서 마을로 내려온다.

그들은 갈벌 여기저기에서 벼를 벤다. 이것은 빨찌산의 지시였다. 때가 늦으면 벼가 눈속에 묻힐것이니 베여서 동배기를 가려두고 한톨도 마을로는 운반하지 말라는것이다. 그것은 한알의 쌀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것으로 만드는 투쟁이였다.

이때 개밖거리(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정거장쪽에 자리잡은 마을)에 둥지를 틀고앉은 미제침략군 쫀은 졸개들을 데리고 개안마을로 뻔질나게 나들며 략탈과 학살에 피눈이 되여 날뛴다.

개안마을의 벼가을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날 놈들은 최치부를 비롯한 개안마을농민들을 온갖 고문끝에 네가지 조건부를 달고 끌고간다.(이 부분이 선문교재로 되여있다.)

개안마을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놈들의 요구에 굴복하느냐 비밀을 지켜 끝까지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마을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개안마을에 정찰을 내려온 빨찌산대원인 권영필은 빨찌산의 비밀을 지켜 싸우다가 집안에 갇히운채 불길속에 타죽는 자기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보면서도 더 큰것을 위해 억지로 참아낸다.

어느덧 날은 흘러 혹한이 온다.

빨찌산이 읏둔전의 《국방군》을 녹여내자 쫀은 미친듯이 날뛰며 계덕근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둔다. 그 이튿날 밤 최치부, 계덕근, 룡갑이 등 20여명이 사형장으로 끌려나간다. 도중에 계덕근이 놈들을 냅다 치며 《뛰여라!》 하고 벽력같이 소리친다. 사람들은 와 흩어져 뛴다. 그통에 계덕근은 놈들의 총알에 치명상을 입고 최치부도 쓰러진다.

마을의 소식을 들은 빨찌산에서 개안마을과 개밖거리해방전투에 나선다.

빨찌산은 그날 밤 《빨찌산소탕전》의 《출전축하연》을 벌리고있는 신옥화네 집을 포위하고 들이쳐 쫀일행을 일망타진하고 마을을 해방한다.

그때까지 부상당한채 갈벌 벼무지속에 누워있던 최치부는 해방된 마을사람들과 함께 빨찌산을 맞이한다.

끝이 없을것 같던 어두운 밤이 지샌다. 갈벌우에 아침해발이 퍼진다.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춘다. 개안마을에서는 다음전투를 위한 감격적인 농민대회가 열린다.

2

… …

집뒤에 선 누런 밤나무, 싱싱하게 통이 든 배추밭, 나무잎 떨어지는 뜨락, 오리가리 가리마처럼 갈라져나간 정든 길목들… 계덕근이의 머리속엔 떠오르지 않는것이 없다. 그는 그중에서도 지울수 없는 생각은 마을앞으로 누워나간 갈벌이였다. 금년농형은 더욱 좋았다. 갈벌은 온통 황금빛으로 뗠치였다. 개꼬리같이 늘어진 이삭을 손에 잡으면 묵직하고 차돌같이 도글도글하다. 이처럼 다 여문 풍작을 벌판에 내버리고 왔다. 하기야 이판에 그것만 소중하랴만 계덕근이에겐 다른 어느것보다 이것이 아깝고 분하다.

계덕근이는 또 부시를 찍찍 그었다. 벌써 앉은자리에서 담배를 거듭 세대째다. 한가지를 생각해내면 또 한가지 생각이 꼬리를 맞물고 일어난다.

《갈벌을 그놈들한테 주다니…》

계덕근이는 종시 가슴이 활활거려서 앉아배길수가 없었다. 그는 불을 털어버린 곰방대를 조끼주머니에 찌르고 씨근대며 일어섰다. 저편 어둠가운데서 유덕하며 리인민위원장이 모여앉아있다. 계덕근이는 그들옆으로 바싹 걸어갔다. 그는 사람들곁에 통나무처럼 우뚝 섰다.

《누구요?》

《내우다.…》

《…》

사람들은 잠간 말이 없었다. 그들도 역시 무거운 마음을 지닌것 같다. 누가 손장난이라도 하는듯 나무가지를 뚝뚝 부러뜨리고 있다.

《아니 이거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이요? 난 도무지 막막해서 잠이 안 오우다.》

계덕근이의 말소린 아무 모양없이 무뚝뚝하고 불평하는 소리같이도 들린다.

《가만 좀 있수다. 당에서 어련히 지시가 있겠기에 그러우. 그렇게 초조할 말이면 허덕허덕 여기까지 올게 뭐요.》

리인민위원장 황달주의 대답이다. 그는 며칠동안 복잡하게 부대끼여 신경질이 난듯 한 말소리였다.

《한 2, 3일 걸려야 상준동무가 돌아올걸…》

유덕하가 말을 보태였다. 지금 대호산으로 들어간 세포위원장 최상준이가 의레 인민들이 어떻게 할 당의 지시를 가지고 돌아온다

는 말이였다. 계덕근이는 잠자코 서있다가 기어코 맘먹은 소리를 불쑥 내뜨렸다.

《글쎄 당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릴런지 몰라두 난 집으로 돌아가는게 좋것 갈수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다니… 금방 여길 왔는데 벌써 돌아가요?》

《…》

《그건 어떻게 할 작정으로 허는 소리요?》

《돌아가서 벼를 베야 하겠수다. 그놈들 베먹으라구 내버려둬요.》

《허허허, 성님같이 머리가 단순해선 좋지 않으리…》

유덕하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베먹지 못할줄 아우? 허다못해 못 베먹으면 불을 써대두 그놈들 베먹게 내버려둬요?》

《허허허, 글쎄 일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소. 기위 여기까지 온게니까 우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립시다.》

그러나 계덕근이는 유덕하의 말을 느림보같이 답답스런 소리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유덕하와 계덕근이는 친형제같이 지내는 터수다. 계덕근이가 유덕하네 집에서 열살까지 자라난 어릴 때 정분은 나이든 오늘에도 오히려 골수에 살아있다. 유덕하가 계덕근이보다 한살 아래이지만 아는것이 많고 성품이 유하다. 무슨 일에든 기름에 불붙듯 화닥닥 달려드는 일이 없고 열번 스무번 심중한 생각끝에야 결단을 맺는 성미다. 해방후 오늘까지 오래도록 농맹위원장을 해오지만 실수 한번 없었다. 그리고보니 마을사람들의 신임은 더욱 두터웠다. 그렇기때문에 계덕근이는 유덕하를 웃사람으로 믿고 그의 말을 천금같이 알고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유덕하의 화닥닥 결단성이 없는 느림보같이 처진 소리가 답답한것만 같았다.

…

×

계덕근이는 칡으로 외양간을 끙끙 얽어매였다. 그러나 그는 일이 손싸지 않아 자꾸 담배만 피웠다. 그는 원쑤들이 고향에 들어오더라도 마을에 버티고 앉아서 싸워야 옳다고 생각하였다. 싸우다가 죽더라도 그래야만 옳은것 같았다. 정든 땅을 헌 신짝 버리듯 하고 온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만 같았다.

저놈들이 빈 마을에 들어와 집들과 곡식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중요한 기계는 빼여서 감추긴 했지만 양수장과 정미소는 어떻게 될것인가? … 계덕근이는 피난온것이 사뭇 부아가 날 지경이였다. 이러한 계덕근이에게 동정자가 생겼다. 그것은 북별의 부친 최치부다.

《어떻든지 도루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놈들 무서워 자초에 피난 떠나는것부터 잘못이란 말야.》

《그러게 성님두 내려갑시다. 이 판국에 무어 무서운게 있소.》

《그럼 이제 조선사람이 무서운게 있게 됐나!》

최치부도 마을로 들어가자는 말에 저으기 흥분한다. 최치부와 계덕근이는 동갑이다. 그러나 계덕근이는 최치부를 성님(형님)이라고 부르는것을 의당한 일같이 생각하고있다. 그것은 생일이 한달 앞섰다는데서 그랬지만 사실 최치부는 계덕근이보다 십년이상으로 보인다. 계덕근이의 몸이 피둥피둥하고 우람한데 비해서 최치부는 체소한 가위에 얼굴이 여위고 수염만 더부룩하게 나왔다. 금년 마흔다섯이지만 쉰을 훨씬 넘게 보는것이 보통이다.

《그까짓거… 죽어두 좋아요. 내가 죽자면 저놈들도 몇놈 잡아 죽일테니까… 그저 헐히 죽겠소.》

계덕근이는 버덩이 한대때문에 입술이 너절써하게 뵈였으나 구리빛같은 이마밑에 사뭇 두드러진듯 한 큰 눈망울엔 불길같은것이 번쩍거린다.

《글쎄 어떤 사람은 모두 대호산으로 들어가야 살아난다구들 그럽데만 젠장 뭣이 무서워서 자꾸 피해 들어가나? 원쑤가 대가리도 디밀지 않아 이런 빌어먹을짓이 있어.… 가만있자, 세포위원장이 금명간 오겠지.… 우린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헙세.…》

최치부는 담배대를 허리춤에 꽂으며 일어섰다. 그는 모든 동작과 말까지도 폭 늙어보이였다.

그러나 또 하루가 지나도 상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마다 얼굴에 수심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한지에서 여러 밤을 새운 아이들은 배병을 만났다. 아낙네들은 노곤한 몸을 아무데나 쓰러뜨렸다. 이러한 때에 기다리던 상준이가 돌아왔다. 밀림속에선 환성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백리길 산줄기를 달려온 상준이를 둘러싼다. 모두들 활기를 띠였다. 상준이는 그만 이러는 인민들앞에서 격한 감정때문에 몇번이고 눈물이 날것만 같았다.

상준이는 오던 날 밤으로 세포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엔 최치부를 마을로 떠나보냈다. 우선 마을형편을 알아보려는것이였다.

6

날이 훨씬 풀리여 따뜻해지였다. 개안마을 강기슭엔 서리가 녹아 번질번질하다. 쑥등걸에나 창포무데기에 노란 새움이 뾰족뾰족 내밀기조차 했다. 누렇게 해빛이 부어내리는 갈벌엔 오늘도 농민들이 벼를 베러 나갔다. 놈들이 어떤짓을 하든 농민들은 그것을 더욱 항거하는 투지에 불탔다. 그들은 어떤 불행속에서도 5년동안 자기들의 살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자기들의 주권을 소중히 알고 또 어느때든 그 주권이 다시 돌아오기를 굳게 믿는다. 아니 지금 오히려 자기들의 주권이 자기들속에 엄연히 서있는것을 느끼고있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은 넓은 가슴에 내가 조선사람이라는 궁지가 충만해있고 어떤 원쑤라도 타승하겠다는 기개가 름름한것이다.

갈벌에 벼가을이 거의 되였다. 농민들은 어찌하든 빨찌산의 지시를 어기지 않으려고 맹세했다.

최치부나 계덕근이는 오늘이면 벼가을을 마감할 료량을 하였다. 그런데 별안간 벌판으로 총을 멘 놈들이 나타났다. 미국놈들과 경찰대놈들이다. 놈들은 총을 땅땅 쏘며 개안마을사람들을 전부 논벌에서 몰아낸다. 군중회의가 있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자는거다. 사람들은 놈들이 내모는대로 동네에 들어왔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농맹위원장 유덕하네 안마당에 농민들을 몰아넣는다. 총을 멘 놈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싸다닌다. 미군놈 한패가 질근질근 껌을 씹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놈은 사람들앞에서 가끔 카메라의 렌즈를 눈깔에 대여보군 한다.

마당가운데에 들어온 농민들은 기민하게 놈들의 행동만 살펴보고있다. 놈들은 구두발로 방안을 들락날락했다. 한놈이 방안에 걸었던 괘종시계를 떼들고 나오더니 어데론가 들고 나간다. 전구를 떼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던 놈이 토방에서 기둥모에 유덕하라고 쓴 문패를 총창끝으로 버쩍 밀어 떼던진다.

얼마후 경찰대 얽음뱅이 고태수가 종이를 펴들고 앞에 나선다. 한놈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호령을 했다.

《미리 당신들한테 말하겠소. 오늘 당신들이 묻는 말을 정직하게 대지 않으면 재미가 없소.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장이 묻는 말을 정직하게 말해야 하겠소.… 알아들 들었소?》

농민들은 아무 대꾸없이 잠자코 서있다.

《자, 그럼 이름 부르는 사람부터 나오우.》

놈은 손에 쥐였던 발기를 쳐든다. 첨에 불리운것은 리인민위원장의 부친 황도일이다. 금년 꼭 환갑인 황로인은 머리를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갔다. 머리에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른 놈 하나가 황로인을 앞세우고 사립문밖으로 나간다. 로인이 끌려나간지 얼마 안되여 이 집과 린접해있는 권영필네 집에서 엄청한 호통소리가 들리고 자끈자끈 매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놈들이 늙은일 때리는구나.》

농민들은 가슴이 후두둑 떨려왔다.

《개새끼들 움쭉하면 쏠테다.》

놈들은 사방을 경계하고 섰다. 다음에 불린것은 권영필이의 어머니다. 울타리너머 늙은 배나무 한주 서있는쪽에서 갈갈이 찢는 소리가 났다. 사람살려달라는 소리가 뻔질나게 넘어온다. 농민들은 이발을 악물고 섰다.

《애구우 어쩌우, 글쎄 죽는구먼… 죽어요.》

사람들속에서 녀인 하나가 발을 동동 굴렀다.

《누가 그따위 소리야. 맘을 단단히 먹구 서있으란 말야!》

놈들이 소리치기 전에 계덕근이가 바위돌 메때리듯 버럭 소리친다. 세번째로 불려나간건 최치부다. 그런데 얼마 안되여 놈들은 최치부를 시뻘겋게 웃통을 벗겨가지고 도로 들어왔다. 뒤엔 미군 둘이 따르고 신치교도 따라섰다. 경찰대원 한놈이 금방 다듬은 아카시아몽치를 한아름 안아다가 청간뒤에다 와르르 놓는다. 놈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최치부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하려는것이다. 그렇게 위협해야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묻는 말을 수월히 대답할줄 아는것이다.

최치부는 놈들에게 등을 밀리여 청간으로 올라섰다.

《이놈들 어쩔셈으로 이러니? 이 개같은 놈들…》

최치부는 건 가래침을 돋구어 탁 뱉았다. 놈들한테 잡힌 팔뚝에 심줄이 와짝 동해 일어서고 붉은 배허벅이 불룩불룩한다.

《개수작말구 가만히 섰거라.》

한놈이 꽥 소리를 지른다. 미국놈이 곰보에게 뭐라고 지껄인다. 곰보는 그동안 미군놈과의 허튼 수작질에서 쉬운 말을 알아들었다. 곰보는 대가리를 끄덕이며 누런 잠바를 획 벗어던진다. 그러더니 미끈한 몽치 하나를 뽑아들었다.

《쌍놈의 새끼, 대답을 안할테야? 아니 딸년과 사위놈 간델 안 댈테야, 응?》

《이 짐승같은 이놈들… 그래 내가 죽은들 너희한테 그걸 대줘?…》

최치부는 머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이래두, 이래두 대답을 안해…》

놈은 이를 악물고 최치부의 붉은 몸에 몽치를 내려갈겼다.

최치부의 커다란 손이 민첩하게 날아오는 몽치를 걷어잡아 와짝 중둥을 꺾어버렸다. 놈은 발끈해서 다른것을 연방 갈아쥐였다. 자끈… 몽둥이 옹두라지에 살이 처끈 안겨나왔다.

《애구우—》

최치부가 아니라 군중속에서 비명이 일어났다. 최치부는 강약이 부동으로 두세놈이 덮치는 바람에 넘어졌다. 그러나 내려앵기는 몽치를 또 걷잡아 부러뜨렸다. 몽둥이는 저절로도 부러졌다. 부러지지 않으면 손 쥔 대목까지 쫙쫙 쪼개져나갔다.

최치부는 드디여 피흐르는 얼굴을 땅바닥에 숙였다. 잔등이 푸릇푸릇하고 바지괴춤에까지 피가 물들었다. 팔과 목덜미가 푸들푸들 떨었다. 놈은 씨근씨근하며 숨을 돌리였다. 곰보는 손수건을 꺼내 붉은 목덜미며 얼굴을 문댔다. 그 순간이였다. 최치부는 온몸이 부들부들 용을 쓰며 머리를 들었다. 머리가 터져서 붉은 피가 이마와 눈지방에 고랑을 지어 흐른다. 그는 한쪽팔로 머리맡의 기둥을 가슴에 와락 휘여안으며 상체를 붙이고 일어섰다. 한놈이 구두발로 가슴패기를 찼다. 그러나 최치부는 기둥을 놓지 않았다. 카메라를 든 미국놈이 사진을 찍겠다고 덤벼들었다.

《네놈들이 암만 그래두… 암만 그래두… 내 몸대기엔 피밖엔 없다.…》

최치부는 입술이 떨리며 밸굽이에서 가까스로 말소리를 파올린다. 얼굴은 가끔 이그러졌다. 이마와 코에서 흐르는 피가 수염을 적시였다.

《맘을… 맘을 든든히들 먹어라! 아직두… 이 기둥은 든든히 서있어! 응… 우리네 기둥은 든든히 서있으니까…》

최치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안은 기둥을 부들부들 어루만지며 군중을 내려다본다. 물론 사람들은 최치부의 이 말이 자기들의 주권이 튼튼히 서있다는것을 말하는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쑤를 이겨낼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의미하는 소리로도 들을수 있었다.

《우리가, 우리가 죽어두 우리가 세운 기둥은 무쇠기둥이야.… 어느 놈이 넘어뜨리질 못해 응! 이 사람들아, 날 좀 봐라.… 그래 안 그러냐?》

최치부는 흠씬 목이 멘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다.

군중들은 증오에 찬 눈으로 원쑤들을 쏴보았다. 최치부는 무엇인가 솟아오르는것을 참으며 두주먹을 틀어쥐였다.

얼마뒤 울음소리는 누구인가 격분해서 욱박지르는 소리에 그치였다. 놈들은 하루종일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했다. 그러나 한가지

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날 밤 놈들은 마을에서 세 집 가족을 체포해가지고 돌아갔다. 리인민위원장네와 권영필네와 최치부네 식구다. 권영필이의 녀동생 영순이며 리인민위원장네 꼬마동이 같은 어린것들은 앙앙 울부짖으며 비룡강다리를 건너갔다. 놈들은 이 사람들을 네가지 조건부로 끌고갔다. 소가 어데 가있는것을 삼일내로 보고할것, 리간부들이 어데 가있는것을 삼일내로 보고할것, 양수장과 정미소기계를 삼일내로 가져올것, 갈벌의 농작물을 일주일내로 모두 동네로 운반할것, 이 네가지를 실행하면 석방한다는 수작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놈들은 이 세 집 가장기물들을 달구지로 개밖거리에 실어내였다.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는 김사량(1914—1950)이 1950년에 창작한 종군기이다.

김사량(본명 김시창)은 평양에서 자그마한 주물공장을 경영하는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1936년 평양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다니던 때 왜놈의 군사교련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일으킨것으로 하여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자 일본에 건너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1936년 10월에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반감을 가진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을 발표한것때문에 몇달동안 경찰서에 붙잡혀있었다.

1939년 봄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 돌아온 그는 서울에서 기자로 있으면서 일제놈들에게 예속되여있는 조선지식인의 고민과 민족적의식을 보여주는 단편소설 《빛속에》를 창작하였다.

김사량은 1941년 2월에 도꾜에서 일제놈들의 《치안유지법》에 걸려 50일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조선에 돌아와 정신적고민속에서 몇년을 보내다가 1945년 봄에 중국으로 갔다.

작가는 이때에 쓴 장편기행문 《노마만리》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고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를 《태양부대》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해방을 맞이하여 조국에 돌아오던 때인 1945년 10월 중순 김사량

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방송으로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수필 《소년고수》를 썼다.

평양에 나온 김사량은 그해 11월 2일에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귀중한 교시를 받았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강령적교시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후 그는 북조선예술총련맹 국제문화국장과 평남도예술련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정력적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단편소설들인 《마식령》, 《차돌이의 기차》, 《칠현금》, 《남에서 온 편지》,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 그리고 장막희곡 《뢰성》 등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사량은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서울서 수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락동강반의 전호속에서》, 《바다가 보인다》를 비롯한 많은 종군기를 써서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적후에서 활동하는 인민유격대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 마산진중에서 —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가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진해만을 발아래 굽어보며 마산을 지척간에 둔 남쪽하늘 한끝 푸른 바다가의 서북산 700고지우에 지금 나는 우리 군대동무들과 같이 진중에 있다. 바위돌을 파내고 솔가지를 덮은 은폐호속에서 저 멀리 서남쪽으로는 통영반도의 산줄기가 굼실굼실 내다보이며 정면으로 활짝 트인 바다 한가운데로는 거제도가 보인다.

그리고 올숭달숭 물오리떼처럼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조그만 섬들은 안개속에 가물거린다.

흐늘어지게 아름다운 바다—

미제와 그 괴뢰들이 철옹성같이 가로막았던 38도선을 가슴답답히 앞에 두었을 때는 그렇듯 까마득한 외국의 남방땅처럼 생각되던 사시장철 대나무숲이 푸르다는 마산땅에 우리 영웅적○○부대는 잘도 당도하였다.

이제 피에 굶주린 잔악한 적군놈들을 물깊은 저 바다속으로 쓸어넣을 때도 머지 않았으며 또 동남쪽의 끝항구 부산항도 여기서

얼마 멀지를 않으니 우리들의 귀중한 조국땅을 고스란히 끌어안을 때도 거의 림박하였다.

저 아름다운 남해바다도 우리들의것이다.

놈들의 함선들이 해적선마냥 가로세로 바다를 째면서 이 나라의 은금보화를 실어냈고 또 불을 터치며 이 땅우에 포격을 감행하고있으나 우리들은 또한 남해바다도 결코 놈들에게 내여맡기지 않으리라. 바로 저 바다가 그 옛날 우리들의 리순신장군이 왜적들의 함대를 전멸시킨 영웅의 바다다.

×

우리 영웅적○○부대는 질풍같이 서남전선을 휩쓸며 목포, 려수를 휘몰아 섬진강을 건너 이 남해바다가의 중심해역까지 달려온것이다. 우리 인민군부대들이 계속하여 원쑤들의 부대를 처처에서 포위섬멸하며 우로부터 무쇠의 흐름파도 같이 대구, 영천, 경주계선의 적군방어선으로 쇄도하는 동시에 옆으로는 천리장강 락동강을 넘어 적군들의 잔등을 납덩어리처럼 압박하며 지리누르고있을 때 우리 ○○부대는 근위사단의 기발을 휘날리며 계속 남진하여 바로 놈들의 발굽밑에 들어와 붙었다. 이와 같이 대담한 우회작전은 적들의 기본력량이 집결되여있는 대구를 고립시키며 해상후송로를 차단하여 적들을 협소한 지역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갖는것이다.

이리하여 부산항으로 빠질 구멍과 빠질 길을 죽기로 지켜보려는 적들은 발밑에 다가든 불길을 막아내려고 흑인부대까지 동원하고 또 해병려단을 상륙시키며 천험의 요새를 리용하여 마산, 진해의 계선을 고수확보하려고 최후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하고있다. 적들의 땅크떼도 계속하여 여기 기여올랐고 각종 중무기들도 함선에서 숲처럼 무데기로 상륙하였다. 그리고 또 각종 군함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진해바다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항공대는 남해전선의 하늘을 덮어누르게 되였다.

우선 항공때문에 놈들에게는 하루에 싸울수 있는 열세시간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오직 밤이 되여 어두운 아홉시간이 있다. 그리고 또 놈들에게는 공로를 장악하여 유리한 기동전을 할수 있는 강력한 기계화부대가 있다. 동시에 놈들에게는 바다를 끼고 함포사격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 군함들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전선보다도 전투환경의 악렬성을 더 혹심하게 하는 조건인것이다.

그리고 또 이 계선은 놈들에게 있어서는 부산항으로 빠져나갈 최후의 날까지도 사수해야 될만 한 중요한 지대로 남아있기때문에

놈들은 고지와 진지마다에 토목화점과 영구화점들을 강고히 구축하고 중요한 도로지점에 수없이 많은 지뢰를 묻어놓았다.

그러면 이러한 정세와 조건들에 대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싸울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부대장감시소에서는 어느날 저녁 엄숙한 회의가 열렸던것이다. 이때 부대장은 슬기로운 지혜와 신중한 계량속에 침착하고도 조용한 목소리로 마디마디 힘을 주어가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야말려는 왕성한 전투의식이 있다. 또 적들이 비겁하고 미련한 반면에 우리 인민군대는 무쌍용감하고 대담하고 침착하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인민전체의 절대적지지와 협력이 있을뿐더러 험난한 자연적조건은 옳게만 싸운다면 완전히 우리들의 편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우회, 매복, 돌격 등의 과감하고도 교묘한 전술들을 더욱 고무하여준다.

문제는 협소한 지역안에 늘어붙어서 최후발악을 하는 적군의 유생력량을 어떻게 뚜드려먹느냐, 또 놈들의 기동부대와 화점들을 어떻게 때려잡느냐에 있다. 놈들은 비겁하다. 놈들은 전전긍긍해있다. 밤에는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적극적인 진지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활발한 전투행동을 전개하여 적군의 유생력량을 소멸하며 적구후방에서 습격조들의 활동을 더 강화하여 놈들의 땅크떼와 포진지들을 까부시자는것이다. 새로운 정세와 조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술—그러면 동무들 앞으로 다가와 둘러앉으시오.》

작전지도를 방안 그득하게 덜덜 펼쳐놓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부대장동지의 새로운 결심에 의한 장쾌하고도 발랄한 작전계획밑에 새로운 전투명령이 하달되는것이다.

… …

×

이리하여 이날 밤부터 벌써 부대전선일대에서는 적극적인 진지전이 전개되는 동시에 일부 병력에 의하여 맹렬한 기동전이 개시되였다. 뿐만아니라 더욱 많은 습격조와 파괴조와 돌격조가 적진후방으로 어둠을 뚫고 잠입하게 되였다. 하기는 벌써부터 정찰대원들이 적후에 들어가 놈들의 땅크떼들을 까부시고 지휘부를 습격하고 교량들을 파괴하여 후송로를 끊는데 수많은 위훈들을 나타내고있었다. 내가 참모장동지를 따라나온 신유암산으로는 이튿날 밤, 우리들의 적후방정찰대의 일부가 돌아왔었다.

그들의 보고에 기준하여 그 계선으로부터도 미리 대기하였던

수대의 습격조가 파견되였다. 거기에는 남반부에서 피의 투쟁을 계속하던 유격대동무들과 국난에 처하여 전선으로 달려나온 의용군동무들도 자원하여 참가하였다. 그들은 반땅크지뢰들을 짊어지고 혹은 뻰찌와 수류탄을 꽁무니에 차고 혹은 기관단총을 둘러메고 엄숙하게도 맹세문에 서명을 한 다음 적진속으로 한 분조씩 사라졌다.

나는 여러 동무들과 함께 골짜기밑 대발속까지 그들을 전송하였다. 무수한 영웅들의 뜨거운 손길을 끌어잡으며 나는 말할수 없는 감동에 떨었다.

겨우 열일여덟, 열아홉난 어린 전사들이 웃음짓는 하얀 이속들이 빛난다. 오랜 풍상과 고난에 거칠은 유격대동무들의 덥수룩한 머리카락속으로 불송이같은 눈들이 번쩍인다. 분조장인 군관 혹은 하사관동무들은 힝힝 코방귀를 뀌며 떠나면서 싱긋싱긋 웃어보이였다. 다음날 밤을 기하여 은밀히 전개될 서북산공격전에 배합하여 적후에서 놈들의 기동부대와 포진지를 습격할 동무들이다.

그중에는 마산과 진해를 해방하는 날까지 적후활동을 계속할 동무들도 섞여있었다.

이날 밤이 밝기 전으로 우리 ○○구분대의 일부는 신유암산계선을 다른 구분대와 교대하고 서북산 1키로메터지점인 메기슭으로 지휘부를 비밀히 이동하였다. 나도 이때 참모장동지를 따라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였다. 캄캄하고도 험한 산길이였다. 잔솔나무가 바위틈서리에 어쩌다 한그루씩 박혔을뿐으로 전체가 가파로운 돌산들로 자칫하면 굴러떨어지고 또 엎어지고 엉덩방아를 찧군 하였다. 전사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 산들은 모두 이렇게 《더러운》것들이다. 모두 앉은뱅이걸음으로 스쳐내려오고 또 풀뿌리를 거머쥐고 기여오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지불로 길을 비칠수도 없었고 기침소리도 크게 낼수 없었다. 우리들이 그 기슭으로 향하고있는 서북산고지들에서 손바닥처럼 내려다보이는 곳이였기때문이였다.

부르면 대답할만 한 거리건만 고지들사이에는 별빛도 안 비치는 깊은 골짜기들이 파고들었다. 골짜기속의 좁은 땅들은 돌을 한길만큼씩 쌓아올려 손바닥만 한 논들이 층층대를 이루고있었다. 이 논바닥들에도 놈들의 무수한 포탄과 폭탄이 떨어져 여기저기 깊은 물웅뎅이들이 패워있다. 이 근방은 어디나 다 이와 같이 만신창인것이다.

이따금 공중에 조명탄들이 매여달린다. 우리들은 그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엎디였다. 놈들의 화포들은 간단없이 우리들의 후방에도 퉁퉁 조애사격을 하고있었다. 밤이 되면 놈들은 언제나 안심이 안되여 이렇게 지랄을 하는것이다. 로상의 부락들은 모두 다 타

버리고 또 부서져 완전한 폐허들이였다.

우리 지휘부일행은 날이 훤하게 밝을녘에 어떤 독립가옥에 도착하였다. 지도에 의하면 여항면 옥방부락근방이다. 벌써 여기에는 전화가 설치되고 무전기가 설치되여있었다. 각 중대들도 이미 지정된 지점까지 전화선을 늘이며 적진가까이 접근을 완료하였었다. 밝기 전으로 우리 동무들은 이와 같이 벌써 서북산잔등에 들어박힌것이다. 이리하여 전화선은 우로는 부대본부로부터 포진지, 포병감시소, 정찰대 그리고 중대부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포치된셈이다.

이 독립가옥에서 참모장동지가 서북산점령의 기동전을 조직하고 또 지휘하게 되였다. 아침녘에 군단본부로부터도 이 서북산을 급속히 점령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였다. 서북산은 마산공략계선에 있어서의 해발 738메터나 되는 지배적고지로 마산의 문호인 진동과 함안을 공략하려면 이 고지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험악한 경사를 이룬 릉선들을 사방에 펼치고 아군행동을 종심까지 전망할뿐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산악들을 지배하고있다. 그리고 마산으로 들어가는 진동장거리는 바로 그 동남방으로 발밑이며 또 진동과 함안간의 대도로는 바로 그 등뒤로 굽어보인다. 그러므로 만약이 서북산을 제압한 뒤 땅크를 선두로 한 적군의 기계화부대가 고도의 기동성을 발휘하고있는 이 대도로까지 차단만 한다면 진동과 함안은 벌써 존재성을 상실하는것이다. 진동과 함안을 잃으면 마산과 진해는 또한 문간없는 허청간으로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적군들도 이 서북산고지들을 심히 중대시하며 강고한 진지들을 구축했을뿐아니라 대병력들을 배치하여 화력들을 강화하고 또 고지들에는 곰같이 우둔한 흑인부대와 매국역적 리승만괴뢰군경들을 파하여 최후발악적인 완강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이 고지들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벌써 수십차에 걸쳐 적과 아군사이에 돌격과 반돌격의 격전이 있었던것이다.

서북산은 허다한 피로 물들인 아군부대의 원한의 산이였다. 뿐더러 우리 지휘부의 뒤골짜기인 서북산 도덕골에는 진주감옥에 수용되였던 400여명의 애국자들이 무참하게도 놈들에게 학살된채 아직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있다. 이 원한과 비분에 사무치는 산을 탈취하려는 작전계획은 비밀리에 정확하고도 지혜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장병들의 의기는 고도로 앙양되여있었다.

문화부중대장은 돌아와 보고한다. 당원들은 새벽에 당위원회를 열고 공격전에 대처할 결심들을 더욱 굳게 다지였으며 전사들은 모두 결의문을 제출하여왔다고.

포병대대장으로부터는 전화로 보고해오기를 인민들이 밤사이에

포탄을 정량대로 운반해왔으며 각종 화포들은 이미 백발백중의 묘준을 완료했다고.

적진가까이 달라붙어있는 중대부들의 보고도 《이상 없다.》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놈들의 포진지는 서북산근방으로 이동해왔으나 아직 아군의 기맥을 감촉한것 같지는 않다.

낮때가 되여 부대본부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서북산공격개시와 전후하여 603은 포로써 양공(거짓공격)지원하고 655는 주서리와 필봉고지공격을 개시할것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우리 전선일대에는 본격적인 기동전이 전개될 모양이였다.

서북산공격은 저녁 여섯시반 정각으로 결정된다. 팔뚝에 찬 전리품의 미국시계들을 참모장동지의 시계에 맞춘다. 신호는 두발의 포로써 전화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병들도 또한 동원된다. 전화의 감도는 좋다. 무전은 쉴사이없이 또닥거린다. 무전의 전파는 좋다.

적군의 정찰기는 이날도 하루종일 우리들의 머리우를 빙빙 떠돌면서 습격기들과 전투기들을 동원시키며 또 함포사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으로 알고있는 놈들의 폭격과 포격은 소경 막대질이다. 항공대는 고지에다 폭탄과 소이탄과 휘발유통을 우줄렁 던지기도 하고 불을 튀기며 기관포소사를 하면서 꼬리를 물고 기여들고 또 하얀 배때기를 드러내며 허공으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고지뿐아니라 산등과 골짜기, 도로, 부락, 수림, 들판까지도 발갈이하듯 뒤엎고 또 함포와 지상포들도 아무데나 대고 막 조애사격, 피로사격, 집중사격 등 있는 포탄을 다하여 지옥소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놈들이 이 나라의 산하까지도 공연히 무서워진 징조이다. 그리고 흉악한 놈들에게 가릴것이 그 무엇이 있으랴. 이 땅우에 무엇을 아낄것이 있으랴.

그러나 놈들은 지금 제놈들의 최대의 아성이며 근거지인 서북산의 잔등과 옆구리와 앞가슴에 분노와 증오의 비수가 들이닿고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놈들의 발악은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희생을 가져오는것이다.

이날 오후에도 우리들은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였다. 바로 북쪽으로 1키로메터반가량 떨어진 부락이 기관포소사를 당하여 늙은이와 어린애 두명이 쓰러지고 또 몇사람의 부락민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 모두 근처의 굴속으로 허둥지둥 피난을 갔었는데 적군 몇놈이 산에서 기여내려와 굴속에다 연막탄을 터치고서 도로 몰려나오는 사람들을 늙은이, 부녀자 할것없이 모두 몰고 올라갔다는것이다. 그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로파 한명이 달려와서 울음소리를 터치며 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애걸한다.

미군장교놈이 흑인 두놈과 괴뢰군 한놈을 앞세우고 내려왔더라고 한다. 늙은이들과 어린애들을 보급대로 강제동원하려는것이다. 그리고 야수와 같은 놈들이 부녀자들을 어떻게 모욕할지를 또한 잘 알고있다. 경비소대동무들은 기관단총을 잡아쥐며 벌떡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참모장동지는 그들을 만류하며 눈을 내려감은채 《동무들, 참으시오. 따라가긴 늦었소.》 이렇게 침중하게 중얼거렸다.

《더 큰 복수를 위하여 조그만 분노를 억제해야겠소.》

로파는 비탄과 절망에 빠져 몸부림을 치며 운다. 더욱 비참한 음영들이 전사들의 얼굴에 서물거린다.

《만약 서북산으로 끌고 올라가는것이라면 아마 십중팔구는 우리 동무들에게 걸릴게요.》 하면서 참모장동지는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듯 첨가하였다.

《정찰대동무들에게 전화를 거시우.》

그러나 그것은 위로에 지나지 않았다. 정찰대동무들이 산우에서 그물을 치고 매복하였다가 놈들을 소리없이 잡아제끼고 괴뢰군놈 하나를 포로하기에 성공한것이다. 포로놈은 우리들의 지휘부로 끌려왔다. 로파는 그놈을 보더니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갈범처럼 포로놈에게 달려들었다. 누구인가 로파를 떼여말리려 하니까 전사들은 모두 떠들어댄다.

《내쳐둬라! 내쳐둬라!》

고수머리의 포로놈은 미국군대의 작업복을 얻어입고 목에는 개표처럼 군번호를 적은 표쪼박을 걸고있었다. 전남 광양군 어떤 지서의 소사로부터 순경으로까지 출세하였다는 놈이다. 아군부대가 쳐들어온다는 바람에 경찰놈들과 함께 려수항으로 빠지여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도망을 쳤더니 미군놈들이 군대작업복을 둘러입히여 전선으로 끌고나왔다고 한다. 서북산고지에서 가장 악을 받쳐 싸우던 놈들중의 하나로 적정에 대한 진술은 우리 정찰대원들의 보고의 정확성을 재확인케 할뿐으로 별 신통한 자료는 없다.

놈은 움푹 패워들어간 눈을 게눈처럼 감고서 허옇게 메마른 입술을 연해 혀를 둘러 적신다. 밥을 얻어먹었느냐고 물으니까 벌써 열흘가까이 쌀밥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인민들이 협력을 않고 모두 달아났기때문이다. 그래 산밑까지 자동차로 식료품을 운반해오는데 산우로는 흑인놈들이 져올렸다. 수량이 많고 기분이라도 좋을 때면 미군상관놈은 통졸임을 두개씩 주기도 하였으나 하나에 한개가 보통이였다. 구뎅이속에는 흑인과 괴뢰군이 한명씩 같이 들어있는데 깜둥이가 그중에서 고기같은 근중있는것을 빼앗았다. 또 미군놈들은 보급이 안 오면 주었던것도 도로 거두어가기가 일쑤였다.

담배는 세명에 하루 한갑푼수로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전사 하나가 그렇게 구차한 양거지놀음을 하면서도 그냥 붙어먹고있었느냐고 하니까 놈은 고개를 푹 숙인채 대답을 못한다.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흑인들과 괴뢰군놈들의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야말로 참답게 살기 위하여 싸우는것이다.

놈들의 전투서렬은 제1선이 괴뢰군 혹은 경찰대놈이고 그뒤에는 흑인이 달리고 제일 후선에는 미군놈들이 기관총을 들고 서있다. 고지들에는 흑인들과 괴뢰군경놈들을 올려두고 미군놈들은 탈것을 세워둔 큰길곁이나 진지에 늘어붙어있는것이다. 총소리만 가까와지면 언제 먼저 달아났는지도 모르게 차를 타고 뺑소니를 치군 하였다. 도망을 갈 때도 차에는 미국놈의 시체를 실으면 실었지 흑인이나 괴뢰군경놈들은 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놈들은 요즈음 어둠속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군 하여 밤에는 눈을 뜬채 옴짝달싹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세계제패를 꿈꾸며 지구우의 도처에서 전쟁방화를 하는 놈들은 이렇게 더럽게도 비겁하다. 그리고 놈들의 노예와 식민지가 된다면 바로 이 흑인과 괴뢰군경의 운명처럼 되는것이다. 괴뢰군경놈들은 《밤은 저승이요 낮은 생지옥이라！》 이렇게 한탄하고있다 한다. 우리는 미군놈들과 깜둥이와 함께 놈들을 한탄에 그치지 않게 할것이다. 그 지옥과 저승이 놈들에게 준비되여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할것이다.

…

×

이리하여 지금 나는 우리 용사들과 함께 피로 물들은 이 서북산고지우에 있는것이다. 원한의 산, 비분의 산은 이제 와서 복수의 산, 승리의 산으로 되였다. 그러나 산은 도시 몸붙일데가 없다. 60도경사로 깎아질리운 이 험산은 전호를 팔래야 팔수 없는 석판이며 또 몸가리울만 한 나무 한그루도 드물다.

날이 밝기 전으로 우리 동무들은 인민의 협력을 얻어 바위밑을 파고 또는 돌을 뽑아내여 웅뎅이를 장만하고 흙가마니를 쌓아가려 은폐호를 만들고 바위틈새에 돌들을 모두어 방축을 구축하고 또 지휘부를 설정하고 전화선들을 늘이였다. 륙해공군을 들어 잔악무도하게 달려오는 아메리카깽그군대와의 가혹한 싸움속에서 그들은 이미 강철같이 단련되였고 또 무수한 지혜를 얻어 지물과 지형을 리용하여 어떻게 안전히 음페하며 어떻게 견지할지를 잘 알고있는것이다.

지상의 최후의 날과도 같이 놈들의 포탄과 폭탄은 우리들의 고

지부근에 떨어지며 천지를 진동하고 소이탄과 화염발사통과 휘발유통은 솔포기와 생풀까지 태우며 흑연이 충천하고 기관포는 암석에 부딪쳐 불빛이 번쩍인다.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길이 턱턱 막힌다. 하늘을 뒤덮은 항공대때문에 잠시도 머리를 들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서운 폭탄우속에서도 인민군대동무들은 결연한 태도로 이 서북산을 사수하며 저 푸르청한 남해바다를 굽어보며 하루바삐 바다를 향하여 수리개마냥 날개를 펴고 마산으로, 진해로 진격할 명령이 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우리들이 결코 고독한 가운데 고지들을 사수하고 있지 않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하나의 고지, 하나의 진지에도 우리 삼천만인민이 모두다 들어붙어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이 처참가렬한 싸움에는… 민주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함께 서있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오후부터 비가 쭈룩쭈룩 내리기 시작하였다. 함포사격은 눈먼 소경처럼 뒤쪽 산판에다 대고 그냥 계속되였으나 적군의 항공대는 활동이 봉쇄되였다. 전사들은 모두 웅뎅이와 은페호속에서 반신들을 내밀고 군복들을 쥐여짜고있었다. 랭습한 비안개에 속몸이 떨리며 스산하고도 또 을씨년스럽기 한량없다.

문화부동무들은 신대원들의 전호와 은페호들을 찾아다니며 우스운 얘기를 섞어가며 사기들을 고동하고 또 쓰딸린그라드공장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 로동자들이 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지지하여 궐기한 소식들도 들려주면서 유쾌한 담화를 교환하고 있었다. 군관과 하사관동무들은 전사동무들의 전호들을 검열도 하고 또 그 개조의 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충고를 주고있었다. 어떤 넙적한 은페호속에서는 2, 3명의 대원들이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비옷들을 뒤집어쓰고 모여앉아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단체와 매개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엄숙한 얼굴로 돌려가며 읽고있었다. 나는 불현듯 발길을 멈추고 한참동안 못박힌 사람처럼 서있었다. 속절없이 가슴 후더워지고 눈앞이 흐려지는것이였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이 산고지들은 어떠한 곳인가?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들을 쳐물리치는 길에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려는 우람찬 청년들! 세계의 평화와 민주의 승리를 위하여 영예로운 공화국의 피묻은 기발을 이 남해바다끝까지 펄럭이며 나온 영웅들! 언제나 또 그속에서 당원들은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고도의 용감성을 발휘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영웅적청년들이 더운 피를 적시여가며 빼

앗은 이 고지들인것이다. 매일같이 처참가렬한 격전속에서 적군의 중땅크들을 수류탄으로 쳐부시며 혹은 철조망을 끊고 포진지를 습격하면서 악독한 원쑤들을 지리밟으며 내달린 우리 용사들은 맹렬한 포사격의 지원을 받아가며 혹은 우회, 매복, 기습의 영용무쌍한 전술을 써가며 만세소리도 우렁차게 매개 고지를 향하여 돌격을 강행했던것이다. 적군의 경기와 중기가 아우성치며 수류탄이 비오듯 하는 속을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수류탄을 마주 던지며 총대로 후려갈기며 서로 앞을 다투어 고지로, 고지로—

어느 고지 하나 피칠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지금 내가 우리 용사동무들과 같이 진중에 있는 이 서북산고지！ 그 돌바위고지와 벼랑바위고지가 점령된 뒤에도 이 상상봉고지의 적들은 세문의 중기와 경기를 걸어놓고 암굴과 암반을 리용하여 최후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포사격도 놈들의 이 완강한 진지를 파괴할수는 없었다. 돌격에 돌격을 가하였으나 그야말로 머리로 바위를 떠받기였다. 결사대는 몇번이고 조직되였다. 기여오르다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였다. 장애물 해제조의 어떤 동무는 한팔이 끊어지자 땅에 떨어진 뻰찌를 입에 물고 그냥 전진하였다. 또 어떤 폭파조동무는 다리에 총탄을 맞자 위생지도원이 붙드는것도 뿌리치고 수류탄을 안은채 배밀이로 그냥 기여올랐다. 또 돌격조의 어떤 동무는 적군의 화점밑까지 바짝 다가들어 적군의 경기를 빼앗아들고 돌입하다가 수류탄을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수류탄과 함께 터지며 웨쳤다.

《동무들！ 앞으로！》

이 소리에 우리 동무들은 폭파되는 진지를 향하여 만세소리를 지르며 사자떼마냥 달려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뛰여나오는 적군들을 닥치는대로 찌르고 또 찔러넘기며 이 상상봉으로 뛰여오르며 웨치는 소리—

《아！ 동무들 바다가 보인다！》

《남해바다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사내울음을 터치였다. 먼통이 트고 있었다. 선들바람이 불고있었다. 베일을 덮은듯 한 해무속으로 노을빛이 잠긴 망망대해가 흐물거리고있었다.

그렇다. 바로 저 바다가 남해바다이다. 진해만은 발아래 굽어보이고 마산은 불과 지척간이다. 마산과 진해를 향하여 산고지들은 우리들의 진격을 환영해 맞이하려는듯 눈아래 올망졸망 디딤돌처럼 널려있는것이다. 서해바다줄기를 스쳐 수천리길을 《마산으로, 진해로, 부산으로！》 이렇게 웨치며 이 남해바다 한끝 서북산에까지

동무들의 시체를 넘어 걸음걸음 피에 젖으며 달려온 우리 용사들!
그러나 그들은 짐짓 놀래인듯 두어걸음 물러났다. 그들의 발앞에 너저분하게 쓰러진 미군놈들과 흑인, 괴뢰군들의 시체가운데 우리 동무의 시체 하나가 끼여있지 않는가? 그는 어느새 먼저 여기에 기여올라왔던고? 어둠속으로 몰래 뛰여들어와 무서운 창격전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총대라도 부러져 손에 무기가 없어졌던가? 권총을 뽑아든 미군장교놈의 하이칼라머리를 한손으로 그러잡아 둘러메치고 커다란 돌덩이를 움켜쥔, 또 한손을 허공에 높이 쳐든채 그는 엎더져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손을 들어 동무의 장엄한 주검앞에 경례를 붙이였다.
아메리카깽그들의 항공대들아! 하늘을 덮으려거든 덮어보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몸뚱이를 놈들의 요란치는 기관포도 꿰뚫지는 못하고 불을 터치는 휘발유통도 태우지를 못하리라!
아메리카해적들의 군함들아!
산고지들을 무너치려거든 무너쳐보라!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진지를 놈들의 천둥치는 함포사격도 부서치지는 못하리라!
아르 카보네의 후예들아! 승냥이처럼 떼몰려 상륙하려거든 상륙해오라!
평화와 영예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의 국토를 놈들의 불꽃튀는 화력망도 빼앗지는 못하리라!

아! 울려라 우리들의 군단포!
노래하라 지스뜨리! 막심!
땅크들이여! 원쑤들의 가슴을 타라!
모터찌클들이여! 구름처럼 달리라!
동무들 돌격 앞으로!

우리들은 고기비늘같은 만신의 상처들을 더듬으며 거인과도 같이 산악에서 내려가리라!
올림프스산을 내려가는 제우스처럼 만천하에 빛을 뿌리며 거동하리라!
오각별 삼색기 펄럭이며 위대한 령수 노래부르며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가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문학작품의 종자

문학작품을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다면 그 꽃에 남다른 모양과 색갈과 향기를 준 근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따사로운 해빛과 풍만한 자양분에 대해서 말할수도 있겠지만 역시 근본은 씨앗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편의 문학작품이 다른 문학작품과 구별되는 자기의 독특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되자면 그러한 문학작품을 낳게 할수 있는 씨앗 즉 종자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가 무엇인가를 옳게 리해하자면 우선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는 말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생활현상은 다 일정한 사상적의미를 가지고있다. 그것도 여러가지 사상적의미를 가지고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것을 사상적알맹이라고 한다.

1930년대에 일제는 주구단체인 《자위단》이라는것을 뭇고 거기에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어넣었으며 항일유격대를 반대하는 싸움판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자위단》에 끌려간 사람들은 일제침략자들의 총알받이가 되여 개죽음을 당해야 하였고 《자위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고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총을 잡고 일어나 혁명투쟁을 벌렸다. 이러한 생활에는 여러가지 사상적의미가 있지만 그가운데서 알맹이로 되는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세상에서 살길은 혁명투쟁밖에 없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사상적알맹이는 《자위단》살이라는 구체적인 생활속에 생동한 형태로 나타난다. 막연하게 아무래도 죽을바에는 혁명투쟁을 하자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럴 때 그것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로 된다.

만일 이 명작에 담겨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자위단》살이라는 구체적인 생활에 담아 생동한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막연하게 아무래도 죽을바에는 혁명을 하자는 식으로 규정하였더라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혁명투쟁에 일떠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다른 작품

들 례를 들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나 《피바다》와 서로 구별되지 않을것이다. 매 인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하여 생동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사상적알맹이는 설음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된다는것이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사상적알맹이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깃들어있다.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사상적알맹이에는 압제자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항거하여 일떠서느냐 하는 나라잃은 민족의 생사존망문제가 담겨져있다. 이것이 곧 명작의 기본문제, 주제로 된다.

이러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에는 또한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다.

형상의 요소라고 하면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성격, 인물들사이의 관계, 사건, 갈등, 이야기줄거리 등을 말한다.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사상적알맹이에는 《자위단》에 들어가 죽은 만식이나 안 들어갔지만 죽은 철삼이, 《자위단》살이를 박차고 유격대를 찾아가 보람찬 삶의 길을 찾은 갑룡이 등의 인물성격과 사건의 째임새에 대한 암시가 스며있다. 이 사상적알맹이를 쥐게 되면 앞으로 쓰게 될 작품의 형상요소들이 륜곽적으로 떠오르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 사상도 다 종자에 의해 규정되고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문학작품의 종자를 잡을 때 어떤 요구를 지켜야 하는가.

첫째로, 종자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우리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옳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눈을 틔워주며 생활을 훌륭하게 개조할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깊이 알고 현실을 보아야만 가치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있다.

둘째로, 종자는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아무리 뜻깊은 사상적알맹이라고 하여도 철학이나 경제학, 력사학에서 풀어야 할것이 따로 있고 문학에서 풀어야 할것이 따로 있다. 문학에서는 풍부한 생활에 기초하여 생동한 형상으로 꽃피울

수 있는것을 종자로 잡아야 한다.

가령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골라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강연제강이나 론설을 쓸 종자이지 문학작품을 쓸 종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동한 형상적화폭도 안겨주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을 남반부에 두고있는 사람이 고향의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통일거리건설장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것을 보고나서 남녘의 어머니가 그리워 아들의 두뺨에 흐르는것은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더운 땀이였다는 종자를 찾았다면 그것은 벌써 좋은 시를 쓸 흥분을 안겨줄것이다. 실제로 한 시인은 이 종자를 가지고 좋은 서정시를 썼다.

셋째로, 종자는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것이여야 한다.

종자가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형상도 새롭고 특색있게 할수 있다. 만일 아무런 새맛이 없는 종자를 골라잡았다면 그것을 기초로 쓴 작품은 그 어느 작품과 류사한 도식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종자가 새롭고 특색이 있게 되여야 비반복적인 참신한 작품을 쓸수 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페허로 된 조국땅우에 창조의 새 생활을 꽃피우기 위한 어려운 복구건설과업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사상정신적무기로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문화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등에서 우리의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방향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주체가 서지 못한 표현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의것을 위주로 하여 조선혁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주체가 선 문학예술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온갖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를 튼튼히 지킬데 대한 문제, 민족문화유산을 정당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등 전후복구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문학예

술이 지닌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풍모를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가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원종소), 서정시 《우리의 최고사령관》(박승수), 《광장에서》(조벽암), 《조국땅 한끝에》(정문향) 등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고 새 생활창조를 위한 전후복구건설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송축시가작품이다.

가사는 강도 일제를 때려눕히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간으로 내세워주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하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백두의 밀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
우리는 수령의 노래 자랑으로 부르네
이 노래 억눌렸던자 용사로 키워
언제나 승리에로 고무해주네
이 노래 원쑤에겐 죽음을 주고
승리한 조국땅에 울려퍼지네
(후렴)
아 언제나 친근한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우리들은 심장으로 높이 부르네

가사의 1, 2절에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억눌리고 짓밟혔던 우리 인민을 용사로, 영웅으로 키워주시여 고지와 싸움터마다에서 원쑤격멸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찬란한 태양아래 행복은 꽃피고
우리는 수령의 노래 소리높이 부르네
이 노래 남녘의 형제 불러일으켜
한마음 통일 위하여 싸워나가네
이 노래 원쑤들을 짓누르면서
이 땅에 사회주의 꽃피게 하네
(후렴)

3절에서는 우리 인민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면서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가사는 시형상의 초점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밝히는데 두면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통일시켜 훌륭히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시적함축과 집약화를 통하여 작은 형식에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담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서정시들인 《당이여! 우리는 그대가 준 심장을 지녔다》(김학연), 《나는 당의 기수다》(김북원), 《당증을 펴들고》(한명천), 《해마다 오는 봄》(전초민), 《세 유격대원의 이야기》(전동우), 《발자국소리》(조벽암) 등이 창작되였다.

가사 《복구건설의 노래》(류종대),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정문향), 단편소설 《직맹반장》(유항림), 《빛나는 전망》(변희근),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윤세중), 장막희곡 《위대한 힘》(리동춘), 《그립던 곳에서》(류기홍), 영화문학 《신혼부부》, 《산매》(주동인)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쟁의 페허를 가시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투지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작품들에서는 복구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을 단순한 생산투쟁으로만 보여준것이 아니라 온갖 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고 낡고 보수적인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의의있게 밝혀낼수 있었다.

단편소설 《직맹반장》은 전후복구건설의 초시기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난 결함들 즉 출퇴근시간조차 지키지 않거나 로동에서 주인다운 기풍이 부족한 현상,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는 현상 등이 우리 당의 사상교양방침에 따라 어떻게 극복되여나갔는가를 주인공인 직맹반장 영희의 형상을 통해 잘 보여주고있다.

희곡 《위대한 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용광로를 자체의 힘으

로 복구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4천마력송풍기를 자체의 힘으로 보수한 어느 한 제철소로동계급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로동계급의 힘은 무궁무진하고 위대하다는 사상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문학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서정시 《등불》(정서촌), 《그는 이렇게 회답을 쓴다》(김북원), 시초 《평남관개시초》(리용악), 중편소설 《첫 수확》(리근영), 단편소설 《소》(박효준), 《태봉령감》(김만선),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제1부, 천세봉), 장막희곡 《선구자들》(신고송)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밖에도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영웅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개마고원》(황건), 《향토》(윤시철), 단편소설 《명령》(리종렬), 서사시 《련대의 기수》(신상호), 《소년빨찌산 서강렴》(김학연), 장막희곡 《우리를 기다리라》(한성),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리종순, 최건), 영화문학 《어랑천》(한성), 《빨찌산처녀》(김승구)와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큰 형식의 력사물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였는데 장편소설 《두만강》(1, 2부, 리기영), 《서산대사》(최명익), 장편동화 《도끼장군》(리원우), 장막희곡 《리순신장군》(조령출) 등이 그 대표작이다.

이 시기 작가들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형상화하는데 창작적주목을 돌렸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야수적만행과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적지 않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시 《물러가라 아메리카》(백인준), 《어머니 환갑날에》(김조규),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조벽암), 장편소설 《동틀무렵》(제1부, 엄흥섭), 단편소설 《아버지의 수기》(권정룡), 영화문학 《잊지 말라 파주를》(집체작), 《어떻게 떨어져 살수 있으랴》(한상운, 양재춘) 등은 이 시기 조국통일주제에 바쳐진 대표적작품들이다.

이와 같이 전후복구건설시기문학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전후의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과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고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발전하였다.

새들은 숲으로 간다

교대고동이
저녁녘 구내를 흔드는
하늘중천에
새들이 날아퍼진다

즐거움에 겨워 깃을 치며
감돌아 멀리 사라지며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듯
흰 가슴들을 높이 추켜들며—
새들은 숲으로 간다

얼마만이냐！ 원쑤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다가의 숲에서
습기찬 용광로의 부서진 철탑에 의지하여
싸움속에 살아온 새들아！

다시 일어선 열풍로의
훈훈한 방부제냄새
녹쓸었던 철판에
다시 흐르는 증기소리—

아, 모든것을 다시 추켜세운 구내우로 새들이 난다
그 모진 싸움속에서도 가슴 드놀지 않던
제철공들의 무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흔들며—

우리 이 자리를 지켜
오늘을 맞는것처럼
평화로운 조국의 하늘가에—

어디로 가도 기쁘고 즐거운 바다와 산과 들,
그리움에 찬 보금자리를 다시 찾아
새들은 숲으로 간다
제철공들의 그 무쇠의 가슴을 흔들며…

—1954년—

정문향

빛나는 전망

《빛나는 전망》은 변희근(1924—1989)이 1954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변희근은 함경남도 영광군의 화전농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중학교까지는 가까스로 졸업하였으나 진학의 길이 막혀 어느 한 저금소에서 일하면서 문학수업을 하였다.

반일감정이 강하고 진보적사상에 민감하였던 변희근은 진보적인 독서회에 관계한탓으로 해방될 때까지 6개월간 함흥형무소에 구금되여 감옥살이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신 다음에야 그에게도 진정한 문학창작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변희근은 해방후 단편소설 《거룩》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에 파견되여 일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변희근은 1952년부터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단편소설들인 《첫눈》, 《빛나는 전망》을 창작하였다. 1961년부터는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가 창작한 소설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철의 력사》, 《지하의 별들》, 《생명수》, 《뜨거운 심장》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생명수》와 《뜨거운 심장》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았으며 1989년 3월에는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의 이야기는 유능한 용접공인 혜숙이가 로동에 대한 보람을 안고 제대되여 돌아올 남편을 그리며 새로운 가정생활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며칠후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 윤호가 제대되여 돌아온다.

윤호는 혜숙에게 공장생활을 그만두고 자기가 배치된 곳으로 함께 떠날것을 요구한다.

남편을 더없이 사랑하는 혜숙이였지만 그는 차마 기능공이 모자라 애를 먹는 자기 직장을 버리고 떠날수 없었다.

혜숙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리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윤호는 자기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옛날의 혜숙이로 돌아가지 않는 안해에 대한 불만과 노여움이 앞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린다.

그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소설은 계속하여 윤호가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안해에 대하여 고까운 감정을 품고 그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가는 이야기를 펼쳐보인다.

윤호는 공장에서 자기를 기능공으로 키워준 최아바이를 만나 그로부터 폭격속에서 공장을 희생적으로 지켜낸 안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원쑤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된 공장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돌격전에 선 병사마냥 전투를 벌리고있는 안해의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친다.

소설은 혜숙이가 자기를 리해해주고 고무해주는 남편과 함께 공장구내를 걸어가며 보람찬 로동속에서 이룩될 빛나는 전망을 그려보는것으로 끝난다.

5

공장에 나가서도 혜숙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할줄 몰랐다.

그가 직장사무실에 들어서니 송령감과 최동무가 또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은듯 어두운 낯색을 하고 마주앉아있었다. 그들은 무슨 밀담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같이 혜숙이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것조차 잊은듯싶었다.

《벌써 나오셨어요?》

혜숙이 먼저 인사를 했다. 그래도 무슨 일인지 그들은 혜숙의 얼굴만 살피는듯 한 눈길로 쳐다볼뿐 응대가 없었다. 그러다가 송령감이 수심낀 얼굴로 물었다.

《혜숙동문 언제 가오?》

혜숙은 그제사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차렸다.

《가긴 어델 가요?》

《우린 롱말을 하는게 아니요.》

최동무가 언젠가 영희문제를 토론하던 때와 같은 그런 비웃음이 어린 눈으로 혜숙이를 흘금 보며 참견을 들었다. 그러자 송령감이 다시 말을 꺼냈다.

《혜숙동무, 우린 동무가 가는걸 말리자는건 아니요. 언제 가는지 알아야 우리두 무슨 대책을 세울게 아니요?》

사실 송령감은 혜숙이가 떠난 후의 일이 걱정이 되여 한 말이였다. 그것때문에 지금껏 최동무와 마주앉아 답답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였다.

혜숙은 자기가 남편을 따라간다는 소문이 벌써 공장안에까지 퍼진것이 이상스러웠다.

《제가 간다구 누가 그래요?》

《영희가 윤호동무를 만났다더군.》

송령감의 대답이였다.

혜숙은 자기가 꼭 간다고만 생각하는 그들이 야속스러웠다. 그는 가슴에 옹쳤던 그 무엇을 내뱉기나 하듯 부르짖었다.

《그건 거짓말이예요. 전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송령감은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슴벅거리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그래요. 전 가지 않아요.》

《글쎄 그랬으면야 오죽이나 좋겠소.》

송령감은 그래도 못 믿겠는지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전 정말 안 가요. 두구보시라요.》

혜숙은 자기자신에게 다짐이나 두듯 이렇게 다시 뇌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정말일가?》

송령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최동무에게 물었다.

《원 난 곧이 들리지 않수다. 남편이 가자면 갔지 별수 있나요.》

최동무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일었다.

《이거 정말 야단났구만.》

송령감은 시름스러운 낯색을 짓고 땅이 꺼질듯이 후 한숨을 내쉬였다.

사무실을 나온 혜숙은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침 비속으로 달려오는 영희와 마주쳤다. 영희는 옷이며 머리가 비에 함빡 젖어있었다.

혜숙은 걸음을 멈추고 성난 눈으로 영희를 쏘아보았다.

영희도 그를 마주보았다.

《넌 무슨 말공부질을 하고 다니는거냐?》

혜숙이 쏘아붙이는 말에 영희는 어안이 벙벙한듯 그를 쳐다보다가

《뭘 말이예요?》

하고 물었다.

《내가 간다구 누가 그러더냐?》

《아저씨가 그러시더군요.》

《뭐 아저씨가?》

《그런데 언닌 왜 그렇게 성이 나서 그래요?》

《그런 말은 그만둬,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혜숙은 이렇게 뇌이고는 비가 퍼붓는 속으로 종종걸음쳐 나갔다.

영희는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서 비속에 멀어져가는 혜숙을 불안한 눈길로 바래며 혼자 생각을 했다.

(저 언닌 정말 안 갈텐가?… 아니야. 그럴리 없어.… 남편이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갈수 있어.… 겉으론 저렇지만 가긴 갈거야.…)

첨벙첨벙 진창길을 차며 작업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혜숙은 자꾸만 설음이 북받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는것이 서운하고 안타까왔다.

(그인 집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남편의 생각을 하면 괴롭고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누가 뭐래두 난 갈수 없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이 빨리 복구되기를 얼마나 바라고계신가. 그래서 모두 낮에 밤을 이어 충성의 돌격전을 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대오에서 빠질수 있어.… 절대로 그럴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떻게?)

혜숙은 안타까운 생각에 몸부림이 쳐졌다.

그런데 여러가지 크고작은 배관들이 가로세로 얽힌 골목길을 빠져나와 합성직장앞에 다달았을 때였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 한가지 궁리가 펀뜩 떠올랐다.

(그래! 최아바이를 만나 말씀드리면 도와줄거야. 내가 왜 벌써 그 생각을 못했을가?)

최아바이란 합성직장에서 일하는 로기능공이였다. 해방후 첫 모범로동자들중의 한 사람인 그는 숱한 젊은 기능공들을 키워냈었다. 윤호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최아바이는 머리가 좋을뿐아니라 일에 직심스러운 윤호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다. 윤호도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래서 혜숙이도 무슨 딱한 일이 생길 때면 그를 찾아가 의논하군 했었다. 윤호가 전선에 나간 후 혜숙이를 용접공이 되도록 주선해준것도 바로 최아바이였다.

최아바이는 정전후 다 허물어진 합성직장을 지키면서 복구를 위한 내부정리사업을 맡아하고있었다.

(그인 최아바이 말씀이면 들으실지두 몰라.)

혜숙은 이런 생각을 하며 합성직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최아바이가 저쪽에서 걸어나오고있었다.

《아바이!》

혜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며 그를 마주 향해 달려갔다.

《아니 혜숙이 아닌가? 비오는데 어떻게 왔나?》

최아바이도 반색을 했다.
《우리 집에서 돌아오셨어요.》
하는 혜숙의 말에 최아바이는
《뭐? 윤호가 돌아왔단 말인가? 온다더니 왔구만.》
하고 반가와하며 다시 물었다.
《그래 지금 어데 있나? 집에? 그런데 여긴 왜 안 나오나? 몸은 건강하던가?》
《네. 건강해요.》
《그래 이젠 영 우리 공장에 돌아왔다던가?》
《안요. 청수공장에 간대요.》
《청수? 왜 우리 공장에 오지 않구?》
최아바이의 얼굴에는 서운한 빛이 떠올랐다.
혜숙이 청수공장에 가게 된 사연을 말했으나 최아바이의 얼굴에선 서운한 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두 제 공장에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럼 혜숙이두 따라가야 하겠구만?》
혜숙은 용기를 내여
《사실은 그 문제때문에 아바이하구 의논하러 왔어요.》
하고 마음에 품고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최아바이는 심중한 낯색을 짓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혜숙이 마음은 잘 알겠네. 내 오늘 윤호를 만나 이야기할테니 걱정말구 가서 일을 하게.》
그러나 혜숙의 무거운 마음은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개이지 않았다.
대줄기같이 좍좍 퍼붓는 비속에서도 용접공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번개불이 펀뜩이고 우뢰가 울었다. 땅우에서는 푸른 용접광이 비발속에 줄달음치고 가스탕크가 드렁드렁 울었다.
《언니!》
잔등을 두드리며 웨치는 덕순이의 다급한 웨침소리에 놀라 혜숙은 일손을 멈추고 얼굴에서 방광면을 떼였다.
《언니, 오늘은 어떻게 된셈이예요?》
얼굴에 흐르는 비물을 손으로 훔치며 덕순이가 하는 말이였다.
《왜?》
혜숙은 흐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요.》

하며 덕순이는 조금전에 혜숙이가 용접한 자리를 손끝으로 긁으며 말했다.

《맨 벌집투성이예요.》

혜숙은 가슴이 섬찍하여 그 자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덕순이의 말이 옳았다.

《이만큼은 나두 자신이 있어요.》

덕순이는 일부러 뽐내며 생글거리였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일했담.)

혜숙은 덕순이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며 그 자리를 다시 때였다.

혜숙은 머리속에 갈마드는 어수선한 생각때문에 일이 잘 되여지지 않았다.

방광면 푸른 유리를 거쳐 용접부를 쏘아보는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자꾸 막아서는것이였다. 그럴 때마다 집에 혼자 남아 울적해하고있을 남편에 대한 미안스러운 생각에 가슴이 뒤설레이면서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면 저도모르게 용접기를 틀어쥔 손이 후들후들 떨리며 벌집이 생기는것이였다.

(그이는 정말 혼자 떠나버리지나 않을가? 내가 너무 지나쳤는지도 몰라?…)

혜숙은 아무리 물리쳐도 지꿎게 갈마드는 괴롭고 안타까운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의 서글픈 마음을 울어주는듯 비는 여전히 좍좍 소리를 내며 퍼부었다.

[명언]

시련속에서

《시련속에서》는 윤세중(1912—1965)이 1957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윤세중은 충청남도 론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웅기군(오늘의 라선시)에 이주하여 거기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지엔다오(간도)땅인 룽징(룡정)으로 건너가 중학공부를 하였다. 이 시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을 터득하기 시작한 윤세중은 일제의 앞잡이로 된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일제놈들의 탄압을 받게 되여 학교를 그만두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소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혁명적인 청소년단체인 소년회에 망라되여 활동하던 윤세중은 력사적인 왕재산회의후 조선반일청년회에 참가하여 반일투쟁을 벌리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약 4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으로 어지러운 사회현실과 맞서보려고 결심한 윤세중은 1937년에 단편소설 《그늘밑사람》을 발표한데 이어 단편소설들인 《명랑》과 《로변》을 창작하였고 1940년에는 장편소설 《백무선》을 창작하였다.

서울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마음을 안고 1946년 봄에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 그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선화리》, 《안골동네》,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활동한 윤세중은 단편소설들인 《편지》, 《분대장》, 《구대원과 신대원》을 비롯하여 종군기들과 전투실화 등 거의 50편에 달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싸우는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였다.

윤세중은 전후시기 10년간에 장편소설들인 《시련속에서》, 《용광로는 숨쉰다》, 《안해》, 《끝없는 열정》, 중편소설 《도성소대장과 그의 전우들》, 단편소설들인 《상아물부리》, 《전진》 등을 비롯하여 무려 50여편의 소설, 수필, 평론들을 썼다.

장편소설 《시련속에서》는 대학교원이며 야금기사인 주인공 림태운이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부름따라 제철소에 나가는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해방전 성진고주파공장에서 소년로동을 하다가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당원으로, 유능한 야금기사로, 대학교원으로 자라난 림태운은 혁명초소를 제철소에 옮긴 후 제철소를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불같은 결의를 안고 투쟁에 뛰여든다.

우리의 기술로써 제철소를 복구확장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그의 충실성은 로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는 간단한 기술적문제만 처리하면 50t로를 능히 100t로로 개조할수 있다는 대담한 발기를 하고 여기에 달라붙는다. 그는 자재와 기술의 부족,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 일부 사람들의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과 맞다들지만 그런 시련속에서도 끝내 이를 뚫고나간다. 그리하여 설계대로 100t로는 세웠으나 예견한것보다 용해시간이 늦어지고 용착이 무시로 일어나 증산목표는커녕 당면한 생산계획조차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자 불순분자 김대준은 이때라고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며 그놈의 꾀임에 넘어간 박봉서, 서만덕과 같은 사람들이 앞선 용해방법의 도입을 방해하고 T번호특수강시험용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

림태운은 일시적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 로의 복구개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혁명에 끼치게 될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그러나 림태운은 당위원장 박창민을 찾아가 용해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실패와 곡절의 원인을 랭정히 분석하고 유일한 방도는 고속도용해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라는 창발적의견을 제기하고 당의 믿음과 방조속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로를 구원하려 서슴없이 고열속에 뛰여드는 김유상,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로를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밤새워 용접을 하는 원태보, 눈무지속에 파묻힌 볼트, 나트를 파내는 제대군인 유갑석, 이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일본새를 배우면서 림태운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간다.

이무렵에 대학에 있던 윤선주기사가 제철소에 내려와 제강분석실을 책임지게 된다.

T번호의 특수강을 만들 새로운 과제를 받은 제철소에서는 림태운에게 시험용해를 맡긴다. 첫 시험용해와 두번째 시험용해는 계급적원쑤이며 더러운 인간쓰레기인 김대준의 파괴암해책동으로 실패한다. 그

후 김대준의 정체가 드러나고 세번째 시험용해에서 T번호의 특수강생산은 드디여 성공한다.

새로운 앞선 방법인 고속도용해방법이 계속 도입된다.

선문교재는 바로 T번호의 특수강생산을 위한 두번째 시험용해를 하는 대목부터 불순분자 김대준의 암해책동이 적발폭로되고 세번째 시험용해가 성공하는 절정부분으로 되여있다.

10. T번호의 강

3

두번째 시험용해가 시작되였다. 서만덕은 작업을 지시하고 잠간 문의할 일이 있어 직장장실로 갔다. 직장장실은 문이 반쯤 열린채 아무도 없었다. 그냥 돌아서려다가 옆에 있는 책임기사 방문이 역시 벙긋이 열려있는데로 눈이 갔다. 박봉서가 거기 있는것 같아 힐끔 문짬으로 안을 살피였다. 대준이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그를 막아서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틀림없이 박봉서 뒤모습이였다. 손기척을 하고 들어서려고 하는데 마침 대준이가 무슨 말인가 하다가 자기 이름을 거들고있는것이 귀결에 들리였다. 의심이 많은 만덕은 호기심을 일으키며 잠간 귀를 대고 엿들었다.

《…직장장동무, 그것은 념려마십시오. 서만덕은 내 말이라면 문제없이 듣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틀어쥐고있으니까요.》

《글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원체 미덥지 못한 사람이 되여…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 험한 입을 어떻게 막겠소?》

박봉서의 불안스러운 말이였다.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모든게 문제없습니다. 저도 철부지가 아닌 이상 허투루 입을 놀리겠어요. 또 그 사람은 내 말이라면 불에라도 뛰여들겝니다.》

대준은 만만해서 말하였다. 잠시 말소리는 중단되였다. 그러다가 박봉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너무 은근하게 하는 말이여서 잘 알아들을수 없다. 박봉서가 또 말하였다.

《그럼, 그건 책임기사가 책임을 지시오. 이번까지만 넘기면 문제는 해결될것입니다.》

박봉서는 안심이 되는듯 몸을 움직이였다. 서만덕은 질겁을 하여 문짬에서 물러서며 저만큼 가버렸다. 돌아다보니 아직 아무도 나오는 기색이 없다. 서만덕은 잘됐다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였다.

문의할 일이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여서 그길로 도로 현장으로 나와버렸다.…

봉서는 자기 방으로 왔다. 태운이의 하는 잡도리가 아무래도 두번째 시험용해에는 합격품을 뽑아낼것 같다. 림태운이가 하는 시험용해이기때문에 거기에는 직장장도 아무 발언할 권한이 없다. 물론 대준의 말대로 열에 한번쯤 맞아떨어질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생산과제로는 받아지지 않을것이며 얼마든지 버틸수도 있다. 그것이 무서운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봉서는 자기 위신문제를 크게 생각하였다. 또 두번째에 성공을 한다면 일이 시끄럽게 될것만은 사실이다. 이래저래 불리할것은 뻔한노릇이다. 이왕 생산과제로 받을수 없는 이상 세상사람들이 군말없이 수긍할수 있도록 되여야 할게 아닌가? 두번째까지 안되면 특수강을 만들수 없다는 자기 주장이 당당하게 면목을 세울것이다. 또 지휘부에서도 쉽게 단념할수 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세번 다 불합격품이 나와야만 한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되려니 바라고만 있어서는 위험하다. 벌써 첫 용해에서 위험천만에 부닥쳤던게 아닌가! 박봉서는 초조하였다. 박봉서는 만일을 념려하여 대준의 제의에 동감한것이다. 대준이도 봉서 못지 않게 불안을 느끼고있는지라 봉서의 견해를 알게 되자 쌍수를 들었다. 아니 사실 대준은 더 험악한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대준은 이 기회에 림태운이가 성공을 하면 자기 위치가 다시 위태로와지는것을 잘 느끼고있었다. 처음부터 협력을 하는것으로 되였다면 모르지만 반대를 하던 끝이라 자기 력량이 새로 검토될게요, 그에게 다시 넘어지고말 우려가 다분하다.

(응 안된다. 내가 여기 있는 이상 열번 시험용해를 해도 될수 없다. 안되게 하고야말테니까.)

대준은 독이 올라 파래진 눈알을 디룩거리며 생각에 골몰해 앉아있었다. 봉서와 대준의 이러한 심사는 서로 통하였다. 그들은 로를 직접 다루고있는 서만덕을 리용하여 만일의 경우 감쪽같이 장난을 함으로써 불합격품을 내게 하자는 계교를 꾸민것이다.

시험용해는 점점 가경으로 들어갔다. 후장입까지 끝난 젊은 평로공들은 그야말로 호시탐탐한 표정으로 로내를 들여다보며 변화를 지키고있었다. 갑석은 유상에게서 세밀한 설명을 듣고왔으나 흰빛으로 이글이글 타는 로를 들여다보면 긴가민가하여 판단력이 없어지고만다.

태운은 여전히 두꺼운 회중시계를 내보고있다. 그는 슬라크관리나 온도조절을 평로공들이 익숙하게 하여오던 그 방식대로 내버려두었다. 만일 새로운것을 요구하면 서툴러서 오히려 지장이 올지

도 모르기때문이다. 서만덕이도 그의 옆에 서있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녀사무원이 오더니 직장장실에서 급히 찾는다고 만덕을 불러갔다.

만덕은 무슨 일인가싶어 어정쩡한 표정을 지으며 직장장실로 들어갔다. 직장장대리인 박봉서는 없고 기사 대준이가 혼자 앉아있다.

《아 만덕동무, 안됐수다. 바쁘신데 오시래서…》

대준은 전에 없이 반기는 얼굴로 일어서며 만덕을 맞이한다. 만덕은 《괜찮습니다. 기사동지 찾으셨나요?》 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네, 내가 잠간 할 말이 있어 오시랬지.》

대준은 만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직장장 의자뒤로 깊숙이 데리고 들어갔다.

《다른게 아니라, 한가지 간곡히 말할게 있어 오시랬소.》

서만덕은 눈이 휑해서 대준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였다. 대준은 대담하게 자기 계획을 말하였다.

《이번 물까지만 탄소를 높이여 빼주시오. 그러면 서동무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겝니다. 뒤이야기는 나중에 할테니 그리 알고…》

서만덕은 의아한 눈을 더욱 크게 떴다.

《네?》

《지금 하는 시험용해 말이요. 전번같이 탄소를 높게 빼란 말이요. 그래야 되겠으니까…》

서만덕은 말이 없었다.

《내 부탁하자는것은 그것이요.》

《일부러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암 그렇지. 탄소성분을 맞춘대야 만덕동무에게는 아무 리속도 없으니까 그보다도 더 귀찮은 일만 부닥치오. 보통강생산도 계획을 못하는데 특수강이 다 무에요. 깨떡이 떨어지기 바라지. 알만하시지? 서동무.》

서만덕은 갑자기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만덕은 아침에 직장장과 자기 이름을 들먹이며 숙덕이던 공론이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동무, 일부러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왜?》

대준이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나라고 그런 량심을 팔고싶지 않습니다. 쇠물을 만드는것은 내 천직입니다.》

만덕은 똑똑하게 말하였다.

《그게 무슨 량심을 파는 일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그렇게는 누구도 바라지 않소.》

《그래도 국가를 속일수는 없습니다. 못하겠수다.》

《아니 정말로 그런 말을 하오?》

대준은 만덕을 위협하듯 대들었다.

《글쎄 동무는 내가 하라는대로만 하란 말이요. 무엇을 안다고 그러오? 밤낮 시험용해니 무어니 해가지고 생산초과상금을 번번이 한번 받아보지 못하지, 도급임금도 못 받지 않느냐 말이요. 배속에서 술버러지가 우는 소리도 못 들어? 그러지 말고 내 하라는대로만 하라니. 그렇지 않으면 서동무에게도 리로울것이 없을테니…》

서만덕은 의연 빳빳이 서있었다.

《기사동지, 나도 요즈음은 사람구실을 하렵니다. 내게 그런 말을 마십시오. 기사동지는 아마 나를 속까지 못된 놈인줄 아시는 모양이군요. 서만덕이도 조선로동자입니다. 우리 로동자들은 일부러 생산을 망치지 못합니다. 량심이지요.… 기사동지에게 얻어먹은 술은 오늘이라도 갚아드리지요.…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사준 술이라면요. 사람을 너무 업수이 여깁니다. 나도 사람구실을 하렵니다. 두번 그런 말을 마십시오. 바쁩니다.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대준은 눈에 피발이 돋아났다.

《만덕이, 아니 만덕이가 정 이럴 작정이야? 그래도 무사할줄 알아?》

《내게 죄가 있나요? 후퇴 못한 죄, 그놈들 심부름 한번 한 죄밖에 없수다. 그러나 살기 불편하다고 제 집에 불을 지를수야 없지요. 나는 평로공입니다. 평로를 배반하고 살지 못합니다. 기사동지는 다른데 가도 살수 있지만 우리는 평로를 떠나서는 못삽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나를 암살하겠나요?》

서만덕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 거연히 나가버렸다.

《만덕동무, 만덕이—》

대준은 기가 나서 좇아나가며 불렀으나 서만덕은 들은체도 안하고 가버리였다.

《하 저런 망나니같은 자식 보게. 저 자식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였어.》

대준은 얼굴이 핼쑥해지며 머리를 싸쥐고 안락의자에 펄썩 주저앉아버리였다.

서만덕은 자기가 없는새 무슨 일이라도 생긴것 같아 평로로 달려갔다. 보이지 않던 박봉서가 로앞에 버티고 서있었다.

《개새끼들！》
만덕은 봉서앞으로 가 그를 가로막듯 평로를 향하여 섰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였으나 아무 이상도 없는것 같다. 박봉서는 만덕을 보더니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은근하게 한마디 하였다.
《저쪽 벽이 좀 약해보이오.》
만덕은 그 말에 눈이 둥그래졌다. 봉서는 만덕의 눈치를 힐끔 살피고 《천장도 위태롭소. 견딜것 같지 않소.》
만덕은 평로에 끌려들듯 다가서며 천장을 살피였다. 천장은 백색으로 이글거리였다. 위태로운 순간임은 틀림없다.
《아무래도 일을 내겠군.》
봉서는 남의 말을 하듯 한마디 던지고 가버리였다. 만덕은 천장과 로벽에 무조건 신경이 쏠리였다. 그러나 잠시후 만덕은 다른것을 깨달았다.
(응 그러니 빨리 빼버리라는 수작이로구나.)
만덕은 로내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웬일이냐 탄소는 의연 내려가지 않고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오후에 바삐 출강을 하였다. 조괴작업도 순조로왔다.
그런데 분석결과는 또 불합격이다. 두번째 시험용해가 다시 실패로 돌아간것이다.
만덕은 이번에는 자신이 있어 뽑았다. 태운이도 시간타산에서 첫번 잡은 시간에 기초하여 좋다고 응하였다. 그런데 또 탄소가 높다. 만덕은 자신을 잃었다.
(개새끼, 옆에 와 자꾸 쏙대기질을 하니 랭정히 볼수가 있어야지. 내가 어리석었어. 속았어.)
만덕은 혼자 끙끙 앓으며 분해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아무에게도 실패한데 대하여 입을 딱 봉하고있었다.
어두워서 박봉서와 김대준은 지배인을 찾아갔다. 허진은 화가 뻗치여 앉아있었다. 허진은 그들의 말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준은 열심히 기술적설명을 전개하였다. 박봉서는 이따금 한마디씩 끼였다.
《지배인동지, 이것으로 시험용해는 당분간 그만두었으면 어떨가 합니다. 직장장동지가 돌아오시거든 다시 토의해보기로 하고요. 시험용해때문에 생산은 물론 직장내에 지장이 큽니다. 생산을 궤도에 올려놓은 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서의 말이였다. 허진은 저으기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설사 열번 해서 한번 맞힌다 해도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과제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가를 따진다면 수입해오는것보다 배도 더 먹을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에서도 밑지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준이가 버젓하게 보태여 말했다.

《좋소. 동무네들 의견 알만 하오.》

허진은 짜증이 난 목소리로 미간을 찌프리고 말하였다.

《참작할테니 돌아들 가오. 인차 다음 장입은 되였겠지?》

《웬걸요. 로상이 패워서 지금도 용착을 하고있는중입니다. 보통강보다 온도가 높아서 로상침식을 막을수 없습니다.》

기회라는듯 대준이가 말하였다.

지배인실에서 나온 봉서와 대준은 무거웁게 짊어졌던 짐이라도 부린듯 거뜬하고 유쾌하였다. 유쾌한 정도는 두 사람이 다 같았으나 그 내용은 각각 달랐다. 봉서는 자기 주장이 그대로 승리하는데 유쾌한 초점이 있었고 대준은 태운이가 다시 제자리로 자라모가지처럼 기여들어간게 유쾌한 초점이 있었다. 두 사람은 친한 어깨동무처럼 붙어서 직장을 한번 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

11. 폭로

1

…

이튿날 선주는 당위원장 박창민을 찾아갔다. 조용히 만날 일이 있으면 밤 열한시이후에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방에 찾아간것이다.

…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이번 T번호강의 시험용해에 대하여 느낀바, 아니 느끼였다기보다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것이 있어서 잠간 여쭈어볼려고 왔습니다.》

선주는 녀자들이 부끄러움을 탈 때 웃는 그런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창민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과년한 지식인녀성이 필시는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것이거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한창 골머리가 아픈 T번호강에 대한 이야기여서 창민은 대뜸 귀가 번쩍하였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점이든지 의심이 나는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창민은 가슴을 책상에 대면서 얼굴을 내밀었다.

《이것은 제 착각인지도 모르고 혹은 어떤 선입감이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안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고 또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망탕 이야기해볼수 있는 이야기

도 아니고 다만 당위원장동지께 조용히 말씀드려 참고나 되시지 않을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주는 먼저 이렇게 서두를 늘어놓았다. 박창민은 더욱 구미가 당기여 《좋습니다. 아무렇게라도 말씀하시오.》 하였다.

선주는 몇번인가 벼르다가 급기야 입을 열었다.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수첩의 수자를 박창민에게 내보이였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출강전 마지막분석표입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출강직전의 탄소프로수는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출강후에도 탄소프로수는 여전히 이 수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품는 의문입니다. 제강과학으로써 이런 수자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결과가 두번씩 꼭같이 반복된것입니다. 쇠물이라는것은 끓는 동안에는 한초도 쉬지 않고 끓는것이며 끓는다는것은 한초도 쉬지 않고 탈산을 한다는것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분석시간과 출강시간은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산이 없어지는것은 이것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쇠물이 계속 끓는게 아니라 끓다가 식었다 다시 끓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박창민은 눈이 둥그래서 수자를 들여다보았다. 시험용해실패의 고리가 그속에 있는것 같은 어떤 예감에 휩싸이며 온몸이 긴장되였다. 선주는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졌다. 말도 자유롭게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의 과학지식으로는 풀리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자 박창민은 유난히 번쩍이는 눈을 들어 선주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니 여기에는 제절로의 과학의 작용이 아닌 어떤 인위적인게 있다는 말이지요?》

한참뒤 박창민은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 말에 선주는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그런것이 느껴지는게 분명합니까?》

박창민이 다우쳐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창민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뒤짐을 짚고 의자뒤를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이 구석에서 저 구석에로 왔다갔다하였다. 그는 시간이 가는줄도, 선주가 와 앉아있는것도 잊어버린듯 혼자 생각에 골몰해 거닐고있다.

얼마를 그러다가 박창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선주동무, 좋은것을 말씀해주시였습니다. 내가 알고싶은게 바로 그것입니다.》

창민은 이렇게 말을 하며 두툼한 수첩을 꺼내놓았다. 수첩을 훑어보는 그의 눈은 더욱 빛이 났다. …

…

3

…

김유상은 갑석이와 딸 영옥이가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었다. 조금 있다가 복도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마침 영옥이와 갑석이가 나란히 들어왔다. 그들은 마지막회의에 참가하고 늦게야 온것이다.

《그래 어떻게 되였나, 오늘 회의는?》

유상이가 몸을 일으키며 성급하게 물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0프로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박봉서가 할수 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김대준이도…》

《그래? 응 그래서 어떻게 털어놓았단 말야?》

유상이가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나앉았다. 갑석이가 그간 회의경과를 죽 이야기하였다.

《개놈의 새끼들!》

유상은 불현듯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분해하였다.

《그래 그놈들을 모두 가만두었어?》

《아마 단단한 대책이 있을것입니다.》

《그럼 분석실장사건은 아직도 깜깜속인가?》

《막무가내로 입을 딱 봉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드러나고야 말거야요.》

유상은 점점 더 분이 치밀어 숨을 씨근거리였다.

이윽고 젊은 두 사람이 돌아가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유상은 생각할수록 분하였다. 그는 벌떡 증이 나서 침대를 내려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인제는 얼굴붕대는 풀리고 한쪽 손과 목에만 붕대가 남아있었다. 희고 붉은 흉터가 얼룩얼룩 얼굴에 남아있기는 하나 긴장한 빛이 깃들고있었다.

유상은 수직실로 나와 전화를 걸었다. 당위원장 박창민이 전화에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상입니다. 제 래일 일찌기 퇴원하겠습니다. 지배인동지가 방에 안 계시여 위원장께 전화를 겁니다. 래일중으로 시험용해를 한번만 더 조직해주실수 없겠습니까? 네? 아니

원장동무가 래일쯤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일찍 나가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전화를 끝낸 유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침대에 눕기가 싫었다. 그대로 나가고만싶다. 유상은 대준이도 대준이지만 박봉서가 더욱 괘씸하여 견딜수 없었다.

…

4

T번호의 강 세번째 용해가 진행되였다. 이 용해는 김유상이가 담당하였다. 유상은 잠시도 평로앞을 떠나지 않았다. 갑석이가 옆에 붙어있었다. 태운은 두번에 걸친 기술테타를 유상에게 제기하였다. 유상은 어떤 요구든지 태운이가 제시하는것이라면 다 들어줄 배심을 이미 기르고있었다. 장입을 해서 열아홉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유상은 집으로 나가지 않았다. 식사는 날라다 먹었다. 유상의 안해 조갑례는 남편을 위하여 숭어찜에 닭알반찬을 성의껏 만들어 함지에 담아이고 두차례나 왔다갔다.

출강은 다음날 오전중에 진행되였다. 첫 장입부터 정확한 계산에 의한 배합이며 슬라크를 만들고 정련에 이르기까지 용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였던것이다. 출강을 할 때 유상은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과연 성분이 맞아떨어질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닭알빛쇠물은 남비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화염과 연기와 김이 하늘을 그슬릴듯 치올랐다. 갑석을 비롯한 젊은 용해공들이 앞뒤로 뛰여다니였다. 다만 유상이만이 얼굴에 보안경을 댄채 남비앞에 돌처럼 굳어서있었다.

출강이 끝났다. 조괴작업도 원만히 되였다.

주먹만큼 큰 검은 쇠덩이가 실험실로 옮겨갔다. 유상은 마음을 조이며 림태운옆에 앉아있었다. 실험시간이 너무나 지루한것 같았다. 자신이 있는것도 같고 없는것도 같고 그야말로 이상야릇한 심정이였다. 유상은 답답해서 현장을 한바퀴 돌아 다시 들어왔다. 림태운은 열심히 무엇인가 쓰고있었다. 눈치를 보아야 그사이에 전화가 온것 같지 않다. 유상은 나무걸상을 끌어다 앉으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때 마침 전화종이 요란히 울렸다. 유상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덜컹하였다. 전화는 바로 실험실에서 걸려온것이다.

《네? 합격이요? 네? 얼마?》

태운은 시원한 두눈이 금시에 빛나며 부산스럽게 종이우에다 분석에서 나온 성분수자를 기록하였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성원의 덕택입니다. 네— 네—》

태운은 통통한 두볼에 웃음을 올리며 수화기를 놓았다. 그러면서 일어섰다.

《어떻게 됐습니까?》

태운의 태도로 합격이 된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몰라 유상이가 물었다.

《합격입니다. 아주 좋은 수자가 나왔습니다.》

태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말입니까.》 하고 웨친 유상은 자기도 모르게 태운을 꽉 끌어안았다.

《고맙수다. 기사동지! 그런 강철쯤 우리 손으로 못 만들고야 무슨 평로공이겠습니까? 고맙수다, 기사동지!》

이렇게 말하는 유상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머리를 돌리며 눈을 슴벅이였다.

조금뒤 평로앞에서는 평로공들이 모여 기쁨의 함성을 올리였다. 평로공들은 저마다 기쁨과 자랑을 안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박봉서가 그렇게 못한다는것을 해냈단 말이야. 더두 말고 세번만에!》

《흥, 세번? 그 개자식같은 김대준이가 아니였더면 첫 실험용해에 단번에 성공했을거네!》

그들은 서로 떠들며 좋아하였다.

이날 밤 늦게까지 자기 방에 혼자 앉아있는 지배인 허진은 무어라 말할수 없는 심정으로 지난 기간 자기 사업을 돌이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한가지 자랑으로 북받치고있었다. 마침 성 부상실에서 건 장거리전화가 나왔다. 허진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와 보고를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부상동지, T번호강의 생산과제를 속히 내려주십시오. 우리 일군들의 성숙된 력량이 얼마든지 뽑아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되도록 속히 내려주십시오.…》

전화를 놓은 허진은 마음이 거뜬해 일어서서 방안을 한바퀴 돌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역시 태운이가 일군이야. 티 하나 없는 사람이야. 바로 그게 충실한 일군이란 말이지. 바로 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허진은 문득 태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제기, 무어라고 사과를 한담.… 나를 리해해주겠지.…》

허진은 당위원장방으로 가기 위해 붉은 수첩을 들고 일어섰다.

평남관개시초

《평남관개시초》는 시인 리용악(1914—1971)이 1956년에 창작한 시초이다.

리용악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빈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를 하고 귀국하여 주로 잡지사에서 기자생활을 하였다.

리용악은 해방후 서울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문화인대렬에서 사업하다가 괴뢰경찰에 체포되여 10년언도를 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감금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될 때 감옥에서 놓여나온 후 1951년 3월 북과 남의 문화단체가 련합하면서부터 1952년 7월까지 조선문학동맹 시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였으며 1956년 11월부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 부주필로 사업하였다.

《평남관개시초》는 1956년 조선인민군창건 문학기념작품으로 창작되여 시부문에서 1등상을 수여받았다.

《평남관개시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열두삼천리벌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이 실현된 자랑찬 현실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우리 당의 수리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초이다.

시초에는 《위대한 사랑》, 《흘러들라 십리굴에》, 《연풍저수지》, 《두 강물을 한곬으로》, 《전설속의 이야기》, 《덕치마을에서》(1, 2), 《물냄새가 좋아선가》, 《열두부자동뚝》, 《격류하라 사회주의에로》 등 10여편의 서정시가 들어있다.

선문교재로는 《전설속의 이야기》, 《덕치마을에서》(1, 2)를 주고있다.

시초의 첫시작으로 되고있는 《위대한 사랑》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대자연개조의 력사적전변이 일어나고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이 땅에 풍요한 오곡을 자래워 조국강산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시킬것을 호소적으로 구가하고있다.

《흘러들라 십리굴에》에서는 산악을 진동하며 십리굴로 흘러드는 대동강의 흐름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천년을 메말랐던 광활한 벌이》, 《새날을 호흡하며 전변하는 승리》로 긍지높이 웨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벅찬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연풍저수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 사회주의건

설자들이 산골짝마다 차고넘치는 대동강의 물빛에 가물에 탄 몸을 적시는 농민들의 웃음띤 얼굴을 비쳐보면서 자연을 개조한 환희와 열정, 랑만을 가슴벅차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두 강물을 한곬으로》에서는 대동강과 청천강이 합류되는 격동적인 사실을 청춘의 랑만과 결부시켜 노래하고있다.

《물냄새가 좋아선가》에서는 열두삼천리벌에서 자란 소가 난생처음 맡는 강물냄새, 물냄새가 너무 좋아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노래함으로써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물에 대한 농민들의 갈망이 이루어진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열두부자동뚝》에서는 지난날 탐욕과 착취를 목적으로 열두부자와 일제놈들이 동뚝을 쌓다가 망해버린 그 자리에 나라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동뚝을 쌓아올린 청년들의 위훈을 보여주면서 로동당시대의 크나큰 자랑과 우리 농민들의 기쁨을 감격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시초의 마감을 장식하고있는 《격류하라 사회주의에로》에서는 시초가 지향하고있는 기본사상감정과 랑만적열정을 집약적으로 일반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격류한다 승리의 물줄기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심장속에 새긴
우리의 투지, 우리의 정열을 타고
사회주의에로—
사회주의에로—

전설속의 이야기

떠가는 구름장을 애타게 쳐다보며
균렬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늘이 무심타고 통곡하던 소리가
허허벌판을 덮어도 눈물만으론
시드는 벼포기를 일으킬수 없었단다

꿈결에도 따로야 숨쉴수 없는
사랑하는 농토의 어느 한 홈타기에선들

콸콸 샘물이 솟아오를 기적을 갈망했건만
풀지 못한 소원을 땅깊이 새겨
대를 이어 물려준 이 고장 조상들

물이여 어디를 내가 딛고 서서 발을 돋우면
아득히 뻗어나간 너의 길을 다 볼수 있을가
로쇠한 대지에 영원한 젊음을
지심깊이 닿도록 젊음을 부어주는 물줄기여

소를 몰고 고랑마다 타는 고랑을
숨차게 열두번씩 가고 또 와도
이삭이 패일 날을 하늘이 좌우하던
건갈이농사는 전설속의 이야기
전설속의 이야기로 이제 되였다

물이여 굳었던 땅을 푹푹 추기며
네가 흘러가는 벌판 한귀에
너무나 작은 나의 입술을 맞추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막으려고 하지 않음은
정녕코 정녕 내 나라가 좋고 고마와

덕치마을에서(1)

서해의 막다른 덕치마을 선전실
환한 전등밑에 모여앉아
라지오를 듣고있던 조합원들은
일시에 《야！》 하고 소리를 친다
이밤에 누구보다 기쁜이는 아마
륙십평생 농사로 허리가 굽었건만
물모라군 꿎아 못 본 칠보령감님
《연풍에서 물이 떠났다구 분명히 그랬지！》

《그러문요 떠났구말구요
우리가 새로 푼 논배미들에도
머지 않아 철철 넘치게 되지요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나라와 로동자동무들 은혜를 갚자면
땅에서 소출이 더 많아야 하지요
우리 조합만도 올가을엔
천톤쯤은 쌀을 더 거둘겁니다.》

위원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끼리끼리 두런거리고
누군가 나직이 물어보는 말
《천톤이면 얼마만큼일가?》
《달구지로 가득가득 나르재도 천번쯤은 실어야
할 그만큼 되지요.》

어질고 근면한 이 사람들앞에
약속된 풍년을 무엇이 막으랴
쌀은 사회주의라고 굵직하게 써붙인
붉은 글자들에 모든 시선이 즐겁게 쏠리고
허연 구레나룻을 쓰다듬다가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던 칠보령감
《산없는 벌판에 쌀산이 생기겠군.》

덕치마을에서(2)

《어찌나 생광스런 물이과데
모르게 당두하면 어떻게 한담
물마중도 쓰게 못하면
조합체면은 무엇이 된담.》
밤도 이슥해 마을은 곤히 자는데
칠보령감만 홀로 나와 뚝에 앉았다
《물이 오면 달려가 종을 때리지》

별이 쨍쨍하면 오히려 마음 흐리던
지난 세월 더듬으며 엽초를 말며
석달열흘 가물어도 근심걱정 없어질
오는 세월 그리며 엽초를 말며

그러다가 령감님은 말뚝잠이 들었다
머리없은 달빛이 하도 고와서
구수한 흙냄새에 그만 취해서
귀전을 스치는 거센 흐름소리에
놀래여 선잠에서 깨여났을 땐
자정도 넘고 삼경도 지날무렵
그러나 수로에 물은 안 오고
가까운 서해에서 파도만 쏴—쏴—

희슥희슥 동트는 새벽하늘을
이따금씩 바라보며 엽초를 또 말며
몹시나 몹시나 초조한 마음
《어찌된셈일가 여태 안 오니》
수로가 2천리도 넘는다는 사실을
아마도 령감님은 모르시나봐
물살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하루에야 이끝까지 어찌 다 올가

[명언]

새것의 탄생과 승리는 언제나 진통을 겪는 법이다.

김 정 일

석개울의 새봄

《석개울의 새봄》(제1부)은 천세봉이 1955년에 창작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작품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관계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구체적인 화폭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각이한 성격을 가진 여러 계층의 인물들이 어떻게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하나의 대오로 굳게 결속되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승리해나갔는가를 진실하게 잘 묘사하고있다.

소설은 미제원쑤놈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승리하고 제대되여오는 김창혁이가 4년만에 처음으로 고향땅에 들어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창혁이는 정답게 맞아줄 부모와 안해 그리고 초대면을 할 네살잡이 어린 딸을 만날 꿈을 안고 고향마을에 들어섰으나 슬픈 소식만이 기다리고있었다. 딸 정옥이만 남고 온 가족이 원쑤놈들의 폭격에 희생된것이다.

창혁이는 뼈저린 슬픔을 안고 눈물을 머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피와 원한이 밴 이 땅을 힘껏 세워보자고 맹세한다. 그는 크나큰 포부를 안고 곽봉기, 억삼, 룡이 등과 함께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러나 창혁이를 비롯한 농촌핵심들은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친다.

부농 리인수는 소가 있는 부유한 사람끼리 조합을 따로 조직하려고 한다. 탁수일은 협동조합조직준비위원이면서도 자기 집 소와 토지가 아까와서 동요한다. 중농인 마령감도 조합조직을 외면한다. 게다가 후퇴시기 《치안대》에 들었다가 자수한 박병천과 과수원집 아들 서기표는 뒤에서 반혁명적책동을 계속한다.

조합준비위원회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농민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어 광명농업협동조합을 뭇는다. 창혁이는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곽봉기는 세포위원장으로 선출된다.

관리위원회는 파종계획을 세우고 종곡을 확보하며 겨울동안 퇴비생산을 대대적으로 벌릴 조직사업도 하고 소를 사기 위해 부업생산을 할 대책도 세운다.

창혁은 부업으로 구들돌캐기와 가마니짜기를 힘있게 내민다. 이때 창혁이는 자기 리속을 노리고 정미소를 사자고 제기하는 박병천의 꾀임에 넘어갈번 하다가 리당위원장의 충고에 의해 그만둔다.

조합에서는 새로 축산반이 조직되여 룡이가 반장으로 임명된다. 이무렵에 국가에서 조합에 축력자금을 대부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한편 뜨락또르가 와서 밭을 씽씽 갈아엎는다. 얼마후 오리목장에서 오리까지 가져온다. 조합은 점차 흥성거리기 시작한다. 조합에서는 삼봉산밑에 저수지도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결코 순조롭게 되여가는것은 아니였다.

서기표는 박병천에게 아비산을 주면서 돼지물이나 소여물에 넣으라고 한다.

박병천은 락하산간첩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그가 죽은 후 수첩과 권총을 비밀리에 보관한다.

그런데다가 중농을 비롯한 일부 개인농들은 아직도 동요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리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날림식으로 일한다.

이러한 때 돼지뜨물에 아비산을 넣는 암해행위가 감행된다. 이것은 서기표네 집에 숨어있는 침투간첩 강덕기놈의 행위였지만 아직은 누구도 모른다.

돼지가 죽는 바람에 조형모와 같이 아직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집 소를 도로 끌어간다.

조합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닥쳐온다. 그러나 리당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한편 풀김치저장고를 파는 일을 비롯하여 조합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그대로 밀고나간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창혁이는 마음을 다잡고 조합일에 발벗고나서는 한편 박병천의 처 금란이를 통해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발가놓는다.

시련에 찬 나날을 거쳐 드디여 조합에서는 풍년가을을 맞이한다. 이것을 계기로 조합원들은 사회주의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느끼며 기회만을 엿보던 리인수나 마령감 같은 사람들도 조합에 들어오게 된다.

소설의 마감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주정토로가 주어지고 있다.

《확실히 석개울과 긴여울엔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새로운 봄을 앞에 둔 눈석이절기라고나 할가! 큰 흐름은 사람

들의 생활속에, 의식속에 줄기차게 흘러들고있다. 수백년동안, 아니 수천년동안 사람들과 사람들의 의식을 얽어놓고 봉쇄했던 두겹 세겹의 굳은 얼음장들이 가로세로 테가 가서 부서져내린다. 이 거세찬 흐름은 낡은 쓰레기와 얼음장들을 밀고내려가며 얼마나 화창한 봄을 예고하는가!

확실히 이 땅엔 새봄이 도래하고있다. 인간의 새봄이, 사회주의 새봄이…》

49. 산협길

돼지우리에서 일어난 사고를 강덕기의 소행이라고 아는 사람은 있을리 없었다. 어제 밤 강덕기는 서기표를 앞세우고 석개울로 숨어들어갔다.

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외양간에는 조희모가 나와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고 돼지우리에 접근해서 이 가증한 행위를 저지른것이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삼봉산일경엔 안개가 자욱히 덮이고 부실부실 가랑비가 내리였다. 곽봉기는 어제 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찌기 리당위원회로 나갔다. 긴여울에 거의 나가서 마침 석개울로 들어오는 리당위원장 김형태를 만났다.

《저는 지금 리당위원장동무를 찾아나오는 길입니다.》

《아니 돼지가 한마리 죽었다구요? 어떻게 됐소?》

검은 비옷을 입은 김형태는 고무장화발로 개울물을 절렁절렁 건너서면서 물었다.

《한마리 죽었습니다. 어제 나와서 여쭈려고 했는데 마침 군당에 올라가셨다기에 오늘 아침 나오는 길입니다.》

《물독에 아비산을 넣었다는게 확실하우?》

《틀림없습니다. 수의가 와서 보았으니까요.》

김형태는 묵묵히 앞서며 걸어갔다. 그의 장화발에선 삐국삐국 소리가 났다. 곽봉기는 뒤에 따르며 어제 일어났던 일을 대략 이야기하였다.

《병천이가 집근방에 숨어있는것 같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각성들을 높이시우.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몰랐소. 그러다간 원쑤들이 조합을 통채로 들어가두 모르고있질 않겠소?》

김형태는 유한 음성으로 말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할 말이 없겠죠. 일을 잘못했으니까…》

김형태는 껄껄 웃었다. 곽봉기는 김형태의 이러한 태도가 더욱 맘을 죄였다. 그들은 아카시아숲 우거진데를 잠자코 걸었다.

조합원들은 비가 오거나 말거나 풀김치저장고를 파려고 연장을 메고 나섰다. 모두들 조합사무실마당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비가 와서는 땅에 물이 괴여 저장고구뎅이를 팔수 없다느니, 이만한 가랑비엔 언제 물이 괼 새가 없으니 구뎅이를 팔수 있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김정근이는 어디를 쏘다녔는지 량어깨가 푹 젖었다. 잘 떠들던 그는 말 한마디 없이 퇴지에 서서 담배만 피운다. 사실 그는 어제 돼지우리에서 일어난 사고때문에 몹시 상심되였다. 조합재산이 손해를 본것도 분한노릇이지만 딸의 정상이 딱했다. 그는 끼니도 안 먹고 펄펄 뛰였다. 어제도 김정근이는 자기 딸 읍별이가 병천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금란이한테로 달려가는것을 겨우 달래서 못 가게 하였다.

금란이네 집앞에서 딸을 끌고오느라고 비를 푹 맞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공동외양간에서 또 딴 말시비가 생겼다. 어제 밤부터 부분적조합원들은 공동외양간이 위험하다고 수군수군하였다. 돼지한테 피해를 주자고 한 놈들이라면 큰 집짐승인 소를 주목할것은 뻔한노릇이다. 그렇다면 위험하게 소를 한외양간에 매두지 말고 분산해서 먹이는게 안전하지 않느냐고 수군거리였다. 이 소리에 조형모는 귀가 버쩍 뗬다. 늘 조합에 들어서 소를 내놓은것이 불안스럽던 그는 이런 기회에 자기가 내놓은 소를 자기 외양간에 도로 끌어다 매구싶었다. 그는 조합이 뒤숭숭해진 이때 소를 공동외양간에 두었다간 무슨 변고가 날것도 같고 자기 외양간에 소를 끌어만 간다면 어쩌면 영영 다시 자기 소로 만들수도 있을것 같았다. 조형모는 은근히 소를 낸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소를 공동외양간에 매두었다간 위험하다, 소가 조합에 들어간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직 소임자들이 소값도 받지 않은터에 어떻게 소가 위험한데 모르는척 할테냐? 끌어다가 자기 외양간에서 먹여야 한다.

조합으로 보면 소가 공동외양간에 있거나 소임자들 외양간에 있거나 잘 거두어서 먹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소는 안전

하게 소개해야 한다.

조형모의 이러한 선동에 몇몇 소임자들은 일이 그럴듯싶어서 오늘 아침엔 일나갈 생각도 없이 공동외양간앞에 모여서서 말시비들을 하고있다. 이 의견에 불달리듯이 찬동하고 나서는것은 외양간에서 일하고있는 탁준보였다. 겁많은 탁준보는 돼지우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벌벌 떨었다. 그의 생각엔 반드시 반동놈들이 소를 죽이려고 왔다가 일이 안되니까 돼지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탁준보는 깊은 생각이 없이 자기 편할 생각만 하며 당장 오늘 밤부턴 소임자들이 자기 외양간에 소를 끌어가라고 선언했다.

《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간 큰 재산이요? 돼지 같은건 몇마리가 죽어두 소 한마리를 당하우. 그런데 한외양간에 매두었다가 벼락을 맞을게 있소? 저놈들은 조합외양간을 주목하지 개인외양간은 주목하지 않을거란 말이요.》

조형모는 탁준보가 자기 의견을 찬동하는 바람에 신명이 나서 말했다. 그런데 그의 형 조희모가 나오다가 이 소리를 듣고 펄쩍 놀래였다.

《아니 소를 개인들 외양간에 끌어가다니? 그건 무슨 흉한 소린가?》

키작은 조희모는 대뜸 눈알이 돋아서 모여선 사람들을 언짢게 보았다.

《그럼 이런 큰 가축을 해산하지 않구 한외양간에 두었다가 벼락을 맞겠소?》

조형모가 고불통을 꺼내며 언짢게 대꾸했다.

《벼락은 무슨 벼락이야? 경비를 철통같이 서는데 벼락칠 놈이 어데 있나?》

《그래 돼지우리에서 사고가 났군. 그런 고담같은 소리는 하지두 마우.》

《무엇이 고담같은 소리냐? 공동외양간을 잘 경비하겠다는 소리들은 없이 소를 모두 개인들 외양간에 끌어가? 그게 무슨 놈의 본때냐?》

《글쎄 우리두 소를 관리하자구 그러우. 형님만 조합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구 우린 그런 책임이 없는줄 아우?》

조형모형제는 눈이 빨개서 다투었다.

조희모가 이렇게 세우자 탁준보와 다른 조합원들은 말을 못하고 머밀머밀하고 섰다. 이러한 때에 사무실로 나가던 창혁이가 외양간에 들리였다.

《무엇때문에 이렇게들 떠들어요?》

《글쎄 관리위원장, 말을 좀 들어보우. 공동외양간을 해산하고 소를 모두 개인들 외양간으로 끌어가겠다우. 아니 머 공동외양간에 두었다간 소들이 모두 반동놈들한테 벼락을 맞는다나?》

조희모가 나서며 창혁이한테 말했다.

《벼락을 맞든 천둥을 맞든 누구의 지시로 소를 끌어가요? 관리위원회는 그런 지시를 안했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창혁이는 얼굴을 돌리며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어제 아침부터 격분한 속이라 이 당찮은 소리를 듣고 당장 이마전으로 피줄이 일어선다. 조형모는 낯이 붉어서 담배를 빠금빠금 빨고 섰다. 노란 수염이 담숭담숭 난 턱이 더욱 축해보이고 곰방대를 쥔 손이 점점 떨렸다.

《걱정들 말구 어서 일들 나가시오. 조합관리위원회가 벼락을 안 맞도록 관리할테니 걱정들 마시오.》

《뭣이 어째? 벼락을 안 맞도록 하는게 돼지우리에선 왜 사고를 쳤느냐? 그따위 수작들은 말아! 내 소는 내가 끌어다가 관리하겠다.》

조형모는 창혁이의 말끝에 성이 발끈 올라서 부르짖으며 힁해 외양간으로 들어간다. 그는 아침풀 먹은 황소를 풀어가지고 막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온다. 어떻게 세게 당기는지 코뚜레가 버쩍 들리고 소가 이힝 하며 신음소리를 지른다. 조희모가 발을 구르며 달려들었다. 형제가 외양간에서 맞들고 밀며 당기며 하였다. 조형모는 종시 형을 밀어던지고 소를 끌고 마당으로 나섰다. 창혁이는 그때껏 참고 섰다가 얼른 조형모의 손목을 감아쥐였다.

《이걸 놓으시오.》

창혁이는 숨이 찼다.

《무엇이 어째? 자네가 관리위원장이야?》

《아니 이건 어디다 이런 허튼 언사를 하우? 이건 놓소. 작업 나갈 소를 끌고가면 어쩔테요?》

《글쎄 못 놓겠다.》

《아직두 소를 팔아먹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구 자기네 외양간으로 끌어가겠다구 야단이요? 그 사상을 아직도 못 내버려요?》

창혁이는 소고삐를 우쩍 나꿔채서 소등에 훌 던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긴여울에서 들어오던 곽봉기며 김형태도 외양간앞에 들리였다. 돼지우리에 있던 룡이며 읍별이도 달려왔다. 조형모는 소를 놓아버리고 성이 올라 창혁이한테 덤벼들었다.

《임자 그래 금란이한테 밀은 왜 세가마니나 빼줬나? 반동의 마누라

하구 뭐 어쩌구 어째？ 그리고두 자네 입에 무슨 말이 있어？》

조형모의 입에선 예상치도 않았던 놀랍고 험한 말이 막 튀여져 나왔다.

《엠마나！》

읍별이가 그 소리에 눈을 싸며 질겁을 했다. 룡이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했다. 창혁이도 이 당치 않은 소리에 얼굴이 시뻘개서 껄껄 웃는다.

《여보 아저씨, 이러지 말구 돌아가우. 이게 무슨짓이요？》

곽봉기와 김형태가 조형모의 등을 밀며 타일렀다.

《난 인젠 조합을 그만두겠소. 저런 사람이 관리위원장을 한다면 조합을 그만두겠단 말이요.》

곽봉기와 김형태한테 밀려나가는 조형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창혁이는 기가 막혀서 여전히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그는 아래다리가 몹시 떨리였다. 사실 조형모가 창혁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것은 조형모자신이 들은 소리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요새 조합 아낙네들사이엔 은근히 흉한 소리가 돌았다.

《글쎄 조합관리위원장이 금란이 일에 그렇게 나서서 뛸게 뭐요？ 아무래두 둘이 좋아지내는것 같애요. 그리구 밀두 전불할 때 몇가마니 더 주었기에 금란이가 서순구한테 밀을 갚겠다구 했지？ 제가 전불받은 밀만 가지고야 먹을 예산은 없이 남의 빚을 갚겠다구 했을가？》

이게 부전이의 약삭바른 짐작소리였는데 뒤생각 없는 억삼이 처가

《아니 그년이 어떤 년이라구？ 제 안 먹구 남의 빚을 갚아요？ 틀림없이 공짜가 생겼기에 그러겠지.》

하고 부전이 말을 툭툭 받으며 맞장구를 쳤다. 결국 그 말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돌아서 퍼졌다. 조형모도 아낙네들속에서 이 소리를 얻어들었던것이다.

얼마후 사무실로 들어온 창혁이는 경황없이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무래도 너그럽게만 웃어지지는 않고 얼굴이 뜨겁고 목안이 훌떡훌떡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대를 꺼내서 물었다.

뒤따라 들어온 김형태와 곽봉기도 저편 의자에 앉아 잔말없이 담배 한대씩 붙여물었다. 마당에선 조합원들이 술렁술렁 끓었다. 그들은 연장들을 놓고 퇴지에 털썩털썩 걸터앉았다. 억삼이와 박병서도 일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박병서는 기색이 죽었다. 그의 생각엔 조합내의 이모저모에서 일이 일어나는걸 보고 조합이 위태롭게 되였다는것을 느끼였다. 사무실안의

사람이나 사무실밖의 사람들이 어째 모두 기색이 심상해뵈지들 않는다.

이러한 때에 별안간 사무실마당엔 룡이가 나타났다. 그는 마당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증을 내며 부르짖었다.

《왜 일들 안 나가요? 조합은 그대로 있어요. 어느 누구도 조합을 넘겨뜨리지 못해요. 아니 관리위원장이 오유를 범했으면 범했지 무슨 상관이야요.》

《손맥이 풀려서 일할 생각이 안 나우.》

룡이의 말끝에 조합원들속에서 이런 대꾸가 튕겨나왔다.

(흥, 점점 더 오해가 깊어지는구나!)

창혁이는 기가 막혀 담배연기를 후후 내뿜었다.

《손맥이 왜 풀려요? 우린 손맥이 풀릴게 없어요. 이건 우리들 조합이야요. 어느 누가 조합에 해독을 주려 해두 우린 우리 조합을 지키며 그것과 싸워야 해요. 만약 관리위원장자신이 그런 오유가 있다면 우리들앞에 솔직히 내놓으래요. 그렇게 비겁할게 없어요.》

룡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무실안팎을 짱짱하게 울리였다. 그는 사무실문앞으로 달려왔다.

《작업반장들은 왜 일을 안 나가요? 왜 조합원들을 작업에 나가도록 조직 안해요? 당신들까지도 조합에 해독을 주자고 일을 안하구 앉아있어요?》

룡이는 이마에 드리운 머리카락들이 막 뒤흔들리며 검은 눈알이 무섭게 돌았다.

《나들 갑시다.》

박병서가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쌍 빌어먹을것…》

억삼이 두덜거리며 뒤를 따라 씽 일어선다. 그는 누구를 꾸짖는것인지 시뻘건 목에 피대가 일어섰다.

조합원들이 연장을 메고 룡이와 억삼이들을 따라 우실우실 작업장으로 나간다.

얼마동안 사무실안엔 침묵이 누르고있었다. 아무도 한마디 꺼내지 않는다. 김형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모두들 이러구 앉아있소? 일들을 안할테요? 이 조합엔 룡이동무 하나밖에 없는것 같소. 창혁동무는 왜 그러구 앉아있소? 동무! 기색이 죽은걸 보니까 정말 그런 오유가 있는것 같은걸?…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일이야 공개적이 아니니까.》

김형태가 웃으면서 곽봉기를 보았다.

《나들 갑시다. 창혁동무는 오늘 벌목하는데 가서 보는게 좋겠소. 마당에 산림보호원동무가 와서 기다리니까 어서 일어서우.》

곽봉기는 등이 죄여서 견디다못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김형태는 웃는 눈으로 창혁이를 쳐다보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사실 김형태는 창혁이와 금란이가 눈이 맞아 밀을 도적질해주었다는 소리따위엔 귀도 기울이지 않고있는 사람이였다. 1년가까이 함께 사업해온 김형태는 창혁이란 인간을 도저히 그렇게는 믿을수가 없는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처럼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도록 고무해주고싶은 생각밖에는 없었다.

얼마후 창혁이는 풀김치저장고 웃집지을 재목을 베러 산으로 떠났다.

벌목을 립회하러 온 산림보호원과 동행이 되였다. 여전히 가랑비가 뿌렸다. 강냉이잎들이며 길옆의 풀들이 무겁게 휘여져있었다.

그들은 진창길에 나서자 둘이 다 강길수의 달구지우에 올랐다.

아무리 통이 큰 창혁이지만 그렇게 쉽사리 기분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고달픈 싸움이다. 그러나 지쳐서는 안될 싸움이다.

《여보, 보호원동무! 난 이놈의 달구지가 용감하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허다한 난관과 파란곡절을 깔아뭉개면서 굴러갑니까? 금방 저기 진창들을 지나왔는데 또 이렇게 험한 바위길을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허허…》

보호원은 창혁이의 말을 딱히 리해하지 못했으나 그의 기분은 대략 짐작하였다.

그도 오늘 아침 광경을 띠여보았다.

《이거 얼마나 달구지의 진동이 심합니까? 나는 이놈의 산협길이 그냥 우리들이 나가는 사업행정과 같다구 봅니다. 어려운 진창길, 어려운 바위길… 허허허.》

창혁이는 스스로 웃었다. 정말 달구지는 덜그럭덜그럭하면서 바위들이 깔린 험한 비탈길을 굴러가고있다. 달구지바퀴뒤로는 진창과 돌과 언덕들이 련속 빠져나가고있다.

《그렇지요. 꼭 우리들이 나가는 길과 같지요. 그런데 만약 그 어떤 목표가 없이 달구지처럼 한없이 자꾸 굴러만 간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소. 다행히 목표가 있으니까… 전망을 가지고있으니까… 진창길두 성수가 나는거지요.》

산협엔 안개가 자욱히 내리고 넓은잎나무잎사귀에 비방울 듣는

소리가 후둑후둑 들린다. 창혁이는 캡을 벗어 비물내리는 뺨을 몇번이고 씻었다. 얼굴은 매우 수척하고 그래도 곱슬곱슬한 머리는 윤기가 났다.

그는 고조되는 흥분을 스스로 이겨낼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10년후에는 옛말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5년이나 3년후에도 오늘을 유쾌하게 회상할수가 있을것입니다. 괴롭던 일, 이처럼 진땀나던 일, 거북스럽고 창피하던 일, 그게 다 유쾌한 회상으로 남을테지요.》

《관리위원장동무, 너무 흥분하는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흥분하는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이 골짜기로 달구지를 타고 가며 이런 이야기를 하던것도 후날에야 재미있는 추억으로 될수가 있겠죠. 하하하.》

창혁이는 안개흐르는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가랑비가 멎고 날이 활짝 들렸으면 시원할것 같았다.

(글쎄 나를 그렇게 안단 말인가! 내가 뭐 금란이하고 눈이 맞고 조합원들의 땀을, 그렇지 땀이지, 그걸 세가마니나 도적해서 금란이를 줬어? 참 가소로운 일이지, 물론 내가 하잘것 없는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그런 자식이야 될수가 있는가!)

《여보 보호원동무! 나에겐 참으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평남도 순천내기로 박치도란 사람두 있구, 또 고중을 다니다가 갓 나온 신포청년 리창배도 있구… 그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창배는 적땅크를 네대나 까부신 용감한 청년인데 고지전투에서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았소. 그는 죽는 순간에 자기의 시를 읊었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모습을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구 박치도는 내가 락동강을 건늘 때 잃어버린 전우입니다. 그는 도하장우에서 적탄을 맞고 죽는 순간까지 나를 붙들고 일어서서 조국의 노래를 불렀지요. 〈얘 창혁아, 난 행복하다.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게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박치도가 남기고 간 이 마지막말을 언제든지 잊지 못합니다. 보호원동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야 훌륭하지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가장 옳은것을 깨닫구 또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구… 실제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에 느끼고 간 그 숭고한 감정을 상상해볼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엄숙해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두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호원도 감동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운 전우다. 그럼 내가 그들만치 똑똑한가? 그들의 전우로서 손색이 없는가? 그들처럼 최후의 순간에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후회가 없고 참으로 큰 행복감에 젖어서 눈을 감을수가 있겠는가? 이건 비과학적인 말입니다만 만약 죽은 후에 내가 그들을 만나는 세상이 있다면 나자신이 그들과 어엿이 악수를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부끄럼이 없이 즐겁게 이야기할수가 있겠는가? 지금 나자신의 사업이 어떤가, 미흡한 구석이 없는가, 오유가 없는가? 나는 옳게 살아야 한다.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굳세게 성실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난 오늘 자꾸만 이런 생각때문에 흥분을 느낍니다.》

창혁이는 자기의 깊은 심중을 털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변호는 아니라고 머리를 저었다.

창혁이는 비물흐르는 얼굴을 또 한번 캡으로 씻었다. 달구지는 좀 더 험한 비탈길로 굴러간다. 덜그덕덜그덕 바위등을 넘어갈 때마다 그들은 한쪽으로 쏠리며 바로 앉으며 했다.

천리마시대의 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47(1958)년 8월에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과업이 실현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롭게 조성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혁명과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힘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총진군운동에로 힘있게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체 근로자들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게 되였다. 천리마운동의 세찬 불길은 마침내 온 나라를 휩쓸게 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생산적앙양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천리마시대는 그에 맞는 시대정신이 구현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시대의 이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등을 발표하시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밝히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과 새 생활 건설의 참된 주인공

들을 형상화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리마시대의 문학에서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시기 문학을 장식하는 귀중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고매한 풍모를 훌륭히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 다양한 형태에 걸쳐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것이다.

단편소설 《맑은 아침》(고병삼), 《철의 력사》(변희근), 《력사의 자취》(권정웅), 《눈석이》(석윤기), 서정서사시 《장군님의 어머니》(백하),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리종순) 등은 그 대표작들이다.

작품들에서는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면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력,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안아키우신 열렬한 녀성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님의 고매한 풍모를 높은 존경심과 뜨거운 흠모의 정을 가지고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맑은 아침》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형상하고있으며 《철의 력사》는 평화적민주건설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페허로 되였던 한 제철소를 찾으시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영웅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이 시기에는 장편소설 《청년전위》(1, 2부, 림춘추), 《서광》(박달), 《아들딸》(황건), 《안해》(윤세중), 서정시 《공산주의자》(김우철), 가사 《눈이 내린다》(김재화), 《오, 눈보라 눈보라》(석광희), 영화문학 《한 지대장의 이야기》(리종순),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리종순), 희곡 《해바라기》(박령보), 《태양의 딸》(박령보), 《공산주의자》(남궁만)와 같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한 작품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제1부, 천세봉), 《시대의 탄생》(제1부, 석윤기), 중편소설 《전사들》(석윤기), 《포성》(정창윤), 영화문학 《대지의 아들》(1부—3부, 주동인)과 같이 평화적민주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형상한 작품들도 활발히 창작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현실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비약적으로 전진하는 천리마시대가 요구하는 절박한 창작과제였다.

가사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박세영), 《천리마 달린다》(남응손),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정서촌), 《천리마 동상》(최승칠),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쉰다》(윤세중), 단편소설 《길동무들》(김병훈), 《백일홍》(권정웅), 《〈해주—하성〉서 온 편지》(김병훈), 《옥이》(천세봉), 《행복》(석윤기), 희곡 《붉은 선동원》(조백령), 《아침노을》(박령보), 경희극 《산울림》(리동춘), 영화문학 《정방공》(한성), 《갈매기호 청년들》(한상운), 《끝없어라 나의 희망》(백인준)과 같은 작품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빛나게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가사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천리마시대의 정신을 훌륭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고상한 풍모를 훌륭히 형상한 영화문학 《정방공》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주인공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와 공장의 주인으로, 소문난 로력혁신자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감동깊은 화폭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천리마의 기백으로 약동하는 우리 현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또한 이 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의 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단죄하는 풍자정론시들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념원을 반영한 전투적인 가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서 가사 《원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라》(리문섭),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집체), 《통일렬차 달린다》(박산운), 서정시 《복수자의 선언》(오영재), 풍자시집 《벌거벗은 아메리카》, 종합시집 《단죄한다 아메리카》, 영화문학 《최학신의 일가》(백인준), 《성장의 길에서》(백인준)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 문학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갈등을 새롭게 탐구하고 다양한 문학형태들을 적극 탐구리용하면서 소설, 가사, 영화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참다운 문학건설을 위한 길을 앞당겨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명언]

인간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

김 정 일

력 사 의 자 취

《력사의 자취》는 권정웅이 1967년에 창작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소멸》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는 일제《토벌》대놈들을 등에 달고 며칠째 계속되는 간고한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항일유격대의 행군대오를 보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침내 대렬이 숲에 들어섰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기관총소대장 오태수를 부르시여 숙영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적정과 휴식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다가 말씀을 중단하시고 웬일인지 귀를 강구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무슨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서 전령병을 부르시여 산마루에 올라가 알아보게 하신 다음 오태수를 불탄마을로 파견하신다.

그리하여 오태수는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불타버린 마을에서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업고 사령부로 돌아온다.

그 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 …

드디여 그들은 숙영지에 도착하였다. 보초와 신호를 교환하고 나니 이젠 사령부가 자리잡은 언덕으로 오르면 된다.

이제까지는 빨리 되돌아와야겠다는 한가지 목적이 마음을 끌었지만 이제 정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허덕허덕 언덕에 오르고있는데 저편에서 누가 맞받아내려온다.

《오, 빨리 오는군그래. 수고했소!》

사령관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다가오시더니 앞에 선 오태수의 어깨를 잡으신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무척 추웠지? 저리로 갑시다.》

모임을 가지던 그 자리로 왔다.

오태수와 인식은 덤덤히 서있다.

《왜 그러오. 앉소. 응? 등에 업은건 뭐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오태수앞으로 다가오시더니 불룩한 등을 어루만져보신다.

《아이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의아해하시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곧 심상치 않은 어떤 사연이 있었으리라는것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어서 내려놓소.》

오태수는 깍지를 꼈던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잠시 꾸물거려서야 아이를 내려놓았다. 처녀아이는 자지 않았던 모양인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새로 나타난 사람들을 쳐다본다.

《귀여운 처녀애로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처녀애를 덥석 안아올리시였다. 인식이도 업었던 아이를 내려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내애까지 한품에 다 안아드시였다.

《애들이 큰일날번 했군. 손이 얼었군.…》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으시며 두 어린것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신다.

오태수는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찰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마을의 정경부터 알려드린 다음 《토벌》대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마을을 불태우고 살륙하였는가를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몸서리쳐지는 마을정경이 그의 목을 꺽꺽 막히게 하였다.

《좋소. 그만하면 알겠소. 자세한것은 천천히 들읍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외투앞자락을 헤치시더니 두 아이를 그속에 품으시였다. 그러시더니 아이들의 네개의 주먹을 단꺼번에 꽉 쥐여

입에 대고 녹여주시는것이였다. 입김을 내불 때마다 푸름한것이 고드름 달린 외투깃을 스치며 뒤로 날아흩어진다. 손도 주물러주시고 발도 만져보신다. 손은 얼어서 오그라들었고 발은 헝겊을 감아 북망치처럼 되였다.

《안됐소, 오동무, 불을 피우오.》

《네?! 불말입니까?》

《그렇소, 어서 불을 피우오. 애들의 손발이 꽁꽁 얼었소. 와들와들 떨고있잖소.》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는것을 오태수는 잘 알고있는터였다.

《사령관동지! 불은…》

《어서 피우오. 괜찮소!》

오태수는 눈무지를 헤쳐 삭정이를 꺾고 봇나무를 찍어눕혔다. 잠시후 우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점의 불꽃이 마른 나무가지에 달리더니 마침내 봇나무가지가 피직피직 소리를 내면서 불길을 일구었다. 불길은 널름거리면서 먹물같은 어둠을 밀어제끼고 사위를 환히 비치였다. 희미하던 모든것들이 자기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눈무지, 나무그루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들, 그중에서도 두 어린것의 새별같은 눈…

《아주 좋소, 역시 유격대생활엔 우등불이 제격이거던, 자, 앉읍시다!》

사령관동지께서 맞은편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 오태수와 인식이가 앉고 이쪽에 전령병들이 앉았다.

《어디 말해보우, 마을이 어떻게 됐나?》

오태수는 조리있게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하고있는 사이에도 사령관동지께서는 줄곧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고계셨다. 어찌 보면 이 일을 걱정하시는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더 귀중하고 더 커다란 그 무엇을 생각하고계시는 듯도 하였다.

어쨌든 오태수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자기의 그 어떤 실책으로 된것처럼 느껴져 몸둘바를 몰랐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곧 낯색을 달리하더니 여느때 늘 볼수 있었던 그런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어린것들과 이야기를 하시는것이였다.

《춥지？ 자, 손을 녹이자.》

한쪽무릎에 하나씩 앉힌 아이들의 손을 불에 쬐여주시며 주물러주신다.

토스레잠뱅이를 걸친 작은 몸뚱이, 헝겊으로 두루마리를 한 발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것을 강렬하게 호소하고있는 눈빛, 그런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계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심정을 다시 알아보시기나 하시는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였다.

《넌 몇살이지？ 응？》

갸름한 얼굴에 유독 광채가 도는 쌍까풀진 눈을 치켜뜨며 처녀애가 빤히 올려다본다.

《일곱살！》

《일곱살？ 똑똑하구나, 동생 너는？》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불쑥 내대는것은 채 펴지지 못한 다섯손가락.

《오！ 다섯살, 아주 똑똑하다, 그래 이름은 뭐지？》

《처어리.》

《뭐？》

《처어리.》

《철이예요. 내 동생 이름은.》

《응！ 철이, 이름이 좋구나, 철이니까 강철같이 굳세겠지, 하하, 넌？》

처녀애는 옥이라고 대답을 올린다.

금시 단란한 한가정의 분위기처럼 되였다.

아이들이 조잘대며 마을에서 당한 일을 서슴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령병을 부르시더니 아이들에게 뭘 좀 줄것이 없느냐고 물으시였다.

식량은 떨어진지 오래다. 전령병은 대답을 드리지 못한다.

사실 그는 한홉 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사령관동지께 드릴 비상용으로 가지고있을뿐이다.

《없다는건 나도 알고있소. 비상용미시가루라도 가져오오.》

눈을 움켜다가 녹이고 두어숟가락 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넣어서 물에 풀었다.

오태수가 아이들에게 죽을 떠넣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더운물만을 마시였다.

주렸던 아이들은 한그릇 골숨한 죽을 게눈감추듯 하고나서 입술을 감빨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물을 마시다가 가슴아프신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물그릇을 아이들의 입에 대여주신다. 아이들은 꿀떡꿀떡 물도 맛나게 넘긴다.

《더운물이라도 많이 마셔라.》

이때 사령관동지의 음성은 약간 갈린듯 하셨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잠시도 떼지 않으시던 그이의 눈길이 맞은편 이깔나무그루로 옮겨가더니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사령관동지의 눈길에서는 어린것들을 보고계시는 동안, 조선의 온 어린이들 그리고 이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시한번 념려하시는 심정을 력력히 읽을수 있었다. 오태수의 가슴은 다시 저릿저릿해왔다.

《조국의 비운이 너희들에게까지 미쳤구나. 세상은 넓고넓은데도 작은 너희들의 이 몸뚱이 하나를 편안히 의탁할 곳이 없더란 말이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격정을 누르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말끄러미 올려다만 본다.

어느덧 우등불가에는 대원들이 빽빽이 모여섰다.

오태수는 사령관동지의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가슴을 뭉클뭉클 울려놓는것을 느끼였다. 벌써 10년가까이 유격대생활을 해오면서 그이께서 하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때처럼 가슴을 옥죄이기는 처음이였다.

《땅도 집도 어머니도 빼앗아갔단 말이지? 그러나 애들아, 서러워말아라! 조선은 죽지 않고 조선사람들은 살아서 싸우고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는 끝이 나고 조국광복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 우리는 악귀같은 일제놈들을 쳐물리치고 너희들을 조국의 품에 안겨주고야말겠다.》

또다시 말씀이 중단되였다. 그이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어리시고 눈에서는 불이 활활 타번지는듯 빛을 내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지키던 오태수는 뿌지지

끓어오르는 가슴을 움켜잡았다.

우등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올랐다.

불길은 널름거리면서 진하게 내리드리운 어둠을 쉴새없이 쓸어내리고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타는듯이 붉다. 하나 누구 하나 말이 없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릎에 앉힌 두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계시다가 이윽해서 고개를 드시여 사위를 살피시면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지금 헐벗은채 한지에서 떨고있는 너희들을 이제 조국은 반드시 따스하니 품어줄것이다. 일제침략자들을 내몰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응당 세상에서 가장 좋은것이 차례질것이다. 조국땅 어디를 가나 너희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받을것이며 배움의 길은 열려져있을것이다. 철들기도 전에 그토록 억울하고 통분하게 흘린 그 눈물의 대가는 응당 웃음과 행복으로 보상되여야 한다. 제 나라, 제 땅에서 너희들은 떳떳한 주인이 되여야 한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끓어오르던 격정을 가라앉히시고 타이르시듯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어서 커서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 총을 메고 싸우고 나라도 지키고…》

처녀애는 그 뜻을 알겠다는듯이 고개를 까닥까닥한다. 그러다가 챙챙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나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오, 네가 날 알겠다구? 허, 이런 참.》

《아저씨 유격대죠?》

《유격대! 하하, 네가 유격대를 다 알구 대단하구나.》

《울 아버지가 유격대는 좋은 사람이라구 했어요!》

처녀애는 무엇이나 더 많은것을 알고있기나 한것처럼 입을 나불거리다가 잠시후에 《아저씨 **김일성**장군님 봤어요?》 하고 불쑥 물었다.

《…》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시는 얼굴로 곁에 서있는 대원을 바라보시였다.

《나 이제 **김일성**장군님 보문 대줄래. 울 아빠, 엄마를 〈토

벌〉대놈들이 다 죽였다구…》

여기까지 말하고는 그 어린것도 목이 메여 더 계속하지 못한다. 부모생각이 갑자기 더해지는 모양이다. 금시 얼굴이 이그러지고 입이 비죽비죽하더니만 끝내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작은것도 결따라 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팽팽히 얼어든 새벽밀림의 공기를 흔들어놓으면서 듣고있던 사람들의 폐부를 사정없이 들이찔렀다.

오태수는 마른기침을 몇번 하였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틀고 돌아앉는다. 그렇게도 억센 사람들이였건만 두 어린것이 눈물로 하소하는 그 사연, 투쟁에 일떠선 전인민의 항변, 그것을 그저 듣고만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래 대드리자! 사령관동지께 대드리자!)

오태수는 우지지 땀이 배여오르는 손으로 총탁을 굳게 틀어쥐면서 아이들을 다시 쳐다보았다.

두 아이는 사령관동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이들을 꼭 껴안으시고 내려다보시던 사령관동지의 눈굽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계신지, 아이들을 자애롭게 품고계시는 그 모습은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분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숭고한 초상으로 부각되여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신음하는 겨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것인가, 아니면 항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웨침소리를 들으시고계시는가, 그것도 아니면 그이를 우러러 만백성이 구원을 바라는 그 손길들을 감각하고계시는가…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오태수의 가슴은 위대한분을 모신다는 영예로 하여 한없이 높뛰였다.

《자, 세면을 할가?》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을 다시 진정하시고 아이들을 내려놓으신 다음 더운물을 따르어 수건을 적시셨다.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신다. 대원이 부러뜨린 총가목을 고쳐주시던 그 손, 연필대를 잡으시여 ㄱ, ㄴ을 익혀주신 그 손, 총칼의 숲을 헤치고 적구로 떠나가는 공작원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던 그 손이시다. 그이께서 잡아주신 그 손길, 따스하게 미쳐온 그 체온, 그것이 엄동 콩크리트감방바닥에 누워서도 추위를 모르게 했고 천리 타곳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모르게 하지 않았던가. 그 손이 지금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

시고있는것이다.

《착한 애들은 울지 않지? 응? 용타, 울지 않는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 그랬더냐싶게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나 크문 총 주지?》

사내애의 말이다.

《응, 주구말구.》

《아 좋아!》

짝자꿍을 한다.

이렇게 되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셨다.

《동무들! 오늘 밤 여기서 더 쉬지 말고 떠납시다. 동무들이 매우 지쳤다는것은 나도 아오. 그러나 보시오. 조국의 동포들은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우리는 어떤 곤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조국으로 나가야 하오. 그래서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겠소. 우리는 이 새 력사의 로정에서 한시도 지체할수 없소.》

말씀을 중단하시고 좌우를 둘러보시였다.

《오동무! 이만 하고 행군을 계속하는것이 어떻소?》

엄숙하게 울리는 사령관동지의 음성이다. 오태수는 사령관동지의 뜻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전 대오에 행군준비명령이 내렸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지칠대로 지친 그들이였건만 푸근히 쉴 예정을 변경하기에 서슴지 않았다.

대오가 정렬되였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대원들의 어깨가 무쇠통처럼 번들거린다. 입김이 확확 내풍긴다.

가슴이 높이 들먹인다.

사기충천한 그들이 이제 한걸음 발을 옮겨놓기만 하면 산악도 갈라지고 대하도 길을 비켜설것 같다. 그리하여 단숨에 달려가 피에 젖은 붉은 땅을 한아름으로 들어일구며 《사람들이여! 조국이 해방되였다!》 할것 같다.

오태수는 대렬 맨 우측에 붙어서서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아이를 단꺼번에 안아 외투자락에 싸시더니 성큼 자리를 뜨시였다.

《자! 떠납시다.》

나직한 사령관동지의 한마디 말씀을 받아 전 대오에 출발명령이 하달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맨앞에 서시여 성큼성큼 걸어나가시였다.

오태수는 사령관동지의 뒤에 바투 따라섰다.

왜 그런지 마냥 가슴은 설레이기만 하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제가 건사하겠노라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싶었지만 종시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저 온몸에 감격이 넘쳐흐르고 용기가 솟을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줄곧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씹고있었다.

(옥이야, 그리고 철이야, 너희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너희들은 벌써 조국의 품, 그이의 품에 힘있게 안겼다.

너희들은 지금 모를테지만 이날 이밤에 사령관동지의 가슴에 안겨 걷고있는 이 길이 어떠한 걸음이라는것을 이제 앞날에 알게 될것이다.)

오태수의 가슴은 활랑거리기 시작했고 그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목구멍에 뿌듯이 올리밀었다.

《동무들! 여기 진대나무가 있소!》

눈길을 헤치시며 앞서나가시던 사령관동지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르신다.

눈가루가 우수수 쏟아지는 속으로 그이의 어깨가 앞에서 움직인다. 덩굴을 헤치고 나아가신다.

사령관동지를 따르는 이 길이 천리라도 좋고 만리라도 좋다. 휴식없는 이런 밤이 열흘, 백날 아니 10년이 몇번 겹쳐도 좋다. 그이를 모시고라면 설사 이 길에서 한줌의 재가 되고 한방울의 이슬로 사라져도 한이 없다.

오직 이 길에서 사령관동지를 위해 이 한몸을 바치리라!

희디흰 숫눈길우에 사령관동지의 발자국이 찍힌다. 성큼성큼 옮겨디디신 자취이시다.

그 자국을 따라 오태수, 그가 가고 그뒤에 전 대오가 잇대섰다.

설한풍속, 이 광활한 대지우에 찍히는 사령관동지의 발자국,

말그대로 전인미답의 이 땅, 력사의 큰길우에 찍히는 그 발자국! 안투(안도)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먼저 만경대의 초가집으로부터 포평나루를 지나 라오예령(로야령)을 넘고 창바이의 산발들을 주름잡아 수천수만리, 원시림의 숲속, 사득판의 수렁길, 층층절벽, 포연탄우속 불타는 산허리를 꿰지르기를 그 몇번인가!

력사는 지금 사령관동지의 발밑에서 크게 한번 뒤채면서 온 인류앞에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모든것은 다 길을 비켜라. 여기 조선혁명의 불패의 대오가 나가고있다.》고.

마냥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줄 모르는 오태수는 그저 묵묵히 사령관동지의 뒤를 따라가고있다.

대오는 흐르고있다.

앞이 활짝 열리였다. 수해천리가 눈에 안겨온다. 푸른 대지와 검은 하늘이 저 한끝에서 맞붙었다. 하나 그사이에서는 벌써 닥쳐올 아침을 예고하면서 려명이 비쳐오기 시작한다. 뭉게뭉게 구름이 피여오르는것이 보인다.

바야흐로 지금 우주에서는 새날이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력사를 낳아놓기 위해 장엄한 태동을 일으키고있다.

《애들아, 저기 훤한 하늘이 뵈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을 드시여 동터오는 하늘을 가리키신다.

《저기에 우리 조국이 있다. 너희들이 대를 이어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 땅이 있다. 저기로 우리는 가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대원들의 심장을 다시한번 힘있게 울리였다.

모두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곳에 눈길을 보내고 섰다.

아이들을 안으신채 바위등에 올라서시여 앞을 바라보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털모자 한끝에 한줄기 빛이 와닿았다.

높은 산봉우리 한끝에 미친 아침해살의 첫 한가닥이다.

해살은 순식간에 확대되더니 사령관동지를 환히 비친다.

두리에는 아침해빛을 받은 대기에 가득찬 서리꽃이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듯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하늘이 높이 들린다. 어둠이 총퇴각을 시작했다.

아침이다!

대렬이 흘러가고있다.

조국이 다가온다.
다가온다.

장군님의 어머니

《장군님의 어머니》는 시인 백하가 1962년에 창작한 서정서사시이다.

시는 모두 4개의 절로 되여있다.

시는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신 이후 난만(남만)으로 가시던 길에 병석에 누워계실 어머님을 생각하시여 잠시 집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과 겨레를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로 떠나보내시는 강반석어머님의 고결한 혁명가적풍모와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시의 1절에서는 일제놈들이 살판치는 둥만(동만)의 갈밭속에 있는 나지막한 초가집 들창아래 병환으로 누워계시면서 무장대오를 이끌고 일제를 족치고계실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뜨거운 마음을 노래하면서 몸소 푸쑹의 험한 령을 넘나드시면서 혁명에 한몸을 바치시며 장군님께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실 그날을 굳게 믿으시는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의 뜻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시의 2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시다가 병환에 드신 강반석어머님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형상하고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싶던 아드님께서 오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시랴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애써 반가움을 누르시며 무슨 일로 들리셨느냐고 물으신다.

어머님께서는 장군님께서 보실세라 들다만 멀건 죽그릇에 종이장을 몰래 덮으신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왜 그것을 보지 못하셨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음 한술 뜨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뒤에 두시고는 차마 발길을 돌리실수 없으시였다.

그 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3

찢기는 마음 누르시고
묵묵히 앉아계시던 장군님
마련해오신 좁쌀 한말
어머님앞에 내놓으시였다

《피어린 성전에 출전한 몸
더 머무르지 못합니다
적으나 이 좁쌀이라도 보태여
어머님 병환에 쓰십시오》

조용히 일어나시는 어머니
흩어진 머리 가듬가듬 쓸어넘기시며
말없이 장군님을 쳐다보시더니
정에 찬 눈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여라

《고맙다
네 효성에 일어난듯 기쁘다
허나…
나라의 운명을 떠멘 너를
한갖 어머니머리맡에 머무르게 하니
이 마음 죄스럽고 괴롭구나

없는 쌀미음에 슬퍼할 내 아니다
나라없는 슬픔이 불치의 병 되였으니
이런걸로 나를 위로하려 말아다오》
바람은 통채로 집을 떠갈듯
토담벽을 들어 흔든다 흔든다

《사랑하는 고국산천을 하직하고
너의 손목 잡고 천리, 천리

나라 찾으러 압록강 건너올 때
이런 위로 받으러 내 오지 않았다

온 땅이 천대와 원한에 신음하고
온 천하가 굶주려 허덕이고있는데
어찌 이 쌀 한줌으로
굶주린 땅을 위로하겠느냐?
어서 떠나거라, 내 걱정 말고…
낸들 어이 네가 그립지 않겠느냐

근처집 아들딸들 나무짐 지고 지날 때
싸늘한 아래목에 네 생각 없을소며
인제는 숟가락 하나 천금처럼 무거우니
어찌 네 손길 그립지 않겠느냐

허나 쇠사슬에 매인 조국이
신음하는 겨레가 너를 바라본다
네 한몸에 만백성이 있어
네 섬겨야 할이 어머니뿐이 아니구나

어서 떠나거라 내 걱정 말고
춘하추동 철마다 네 소식 고대하련다
그날은 어느때냐 과연 어느때냐
독립기 펄펄 날고 강산이 춤출 때
환호성에 묻혀 너 개선할 때
둥둥 승전고소리로 나를 위로해다고!》

바람도 목메여 잠잠해라
장군님은 조용히 머리 들어
뜨거이뜨거이 어머니를 쳐다보며
묵묵히 더운 눈물 삼키시였다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님

원쑤의 주검으로 협곡마다를 메우고
모질고 사나운 이 세상에
봄을 거느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어머니를 하직하고
일어나 천천히 돌아나오시는데
그이의 뒤모습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눈에 뜨거이뜨거이 어리는것이여！
아，말없이 말없이 쏟아지는것이여！

4

우러러도 굽어도 암흑천지
하늘은 어디냐 별은 그 어디
소용도는 하늬바람과 눈보라뿐

허나 광야의 한복판엔
숨막히는 세기의 어둠을 사르련듯
타오른다 하나의 우등불이
둘레엔 군복과 혹은 로동복을 걸쳤건만
어깨엔 총과 창을 멘 청년들

장군님의 령솔아래 갓 무은
이 나라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
압제의 야밤을 매장하러 나선
끌날같은 30년대의 청년전위들！
무릎으로 눈 헤집고
길을 떠났나니

얼마나 걸어왔느냐？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군복자락 거세게 북풍에 펄럭이며
장군님은 거연히 손들어 헤아리신다
어둠에 묻힌 먼 앞길을

우등불이 타오른다 활활 타오른다
허공에선 녹아내리는 물방울 물방울
불빛어려 한결 불그레한 얼굴들
언발들 녹이며 훈훈히 몸 덥히는데

전사들 발 얼세라 장군님 걱정하신다
어서 신발 벗어 젖은 버선 말리라고
가벼이 전사들 등 밀며 손목 이끌며
불가까이 가까이 앉혀주신다

허지만 뒤에 서계신 장군님께
대원들 말씀드렸다
《가까이 나오십시오!》
《어서 몸 녹이십시오!》

마지 못해 장군님께서도 한옆에 앉으셨다
허나 어인 연고인고?
장군님께선 도시 발이 시리지 않아
한줄기 예감에 신발 벗어보셨나니
신바닥에 손 넣어보신 장군님
그만 그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누나

이것은 무어냐 손끝에 닿는것
신깔개밑에 따스하니 깐 달비
머나먼 행군길에 류달리 신발 거뿐하더니
아, 어느사이 손수 넣으셨느냐
부드러운 어머님의 달비

바라보는 대원들의 눈시울마다
뜨거운 감격이 맺히는데
천천히 머리드신 장군님의 안광에
후더이후더이 이슬이 어리누나

우등불이 탄다 활활 타오른다
가슴가슴을 달쿠며 타번진다
눈길천리에 발이 얼리라고
장군님 몰래 머리태를 잘라
달비를 깔아주신 어머님이시여

따스한 어머니체온
장군님의 몸에서 떠나지 말라고
눈보라 천리 거침없이 진격하라고
정을 담아 넣어주신 어머님의 달비！

오 혹한에 바위는 얼어터져도
장군님의 몸만은 봄날처럼 후더우라고
그리하여 눈에 덮인 온 천하를
따스한 품으로 녹여주라고
지성 고여 깔아주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이여

장군님 일어나신다
대원들도 일어난다
더욱 세차게 날리는 장군님의 군복자락
장군님의 눈은 환히 환히 불탔나니
어둠도 눈보라도 닁큼 물러섰다

그로부터 어디로 가시나
눈보라속에서나 소나기속에서나
어머니의 목소리 조국의 목소리

장군님 머리우에 엄숙히 울렸더라
가슴엔 불타는 투지 끓어올랐더라

그로부터 어디로 가시나
어머님의 불같은 사랑
장군님의 몸을 따뜻이 감싸주었으니
혹한도 주림도 그이앞에 무릎 꿇었더라

우리의 힘을 지니신 장군님
천재의 지략을 품으신 장군님
영명하신 젊은 령장
그이는 천만포대를 무너뜨리며
항일대군을 이끌어 적진을 들부셨나니

서산포대에 붉은기 날리고
푸쑹의 현성을 원쑤의 주검으로 덮었더라
협곡마다 중기로 들부시며
봉우리마다 총성을 뒤울리며
온 천하를 원쑤의 비명으로 채웠더라

오 백두령장 **김일성**장군님
조국광복의 빛발을 삼천리에 뻗치며
창바이로 보천보로 무산으로
그리운 조국으로 조국으로 내달리셨더라
어둡고 침침한 수난의 땅 이 나라에
봄을 거느리고 개선하셨더라

문학작품의 언어

문학작품의 형식에서 첫째가는 요소는 언어이다. 미술의 표현수단이 색과 선이고 무용의 표현수단이 률동인것처럼 문학도 자기의 고유한 표현수단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언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문학은 오직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사상감정을 전달하는것만큼 읽는 사람들이 작가의 능란한 언어솜씨에 매혹되여 한문장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수 있게 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아무리 큰 사상을 심어놓아도 작가의 언어솜씨가 서투르면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수 없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문학작품을 가리켜 문장이라고 하였고 작가를 가리켜 문장가라고 하였던것이다.

문학작품의 언어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문학작품의 언어는 작가의 말과 등장인물의 말로 갈라볼수 있다. 물론 작품은 통채로 보아 작가의 말이라고 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작가의 말과 등장인물의 말로 구분할수 있는것이다.

작가의 말에는 묘사, 설명(바탕글), 주정토로가 있다.

묘사는 소설에서 기본형상수단으로 되는데 생활을 살아움직이는 그림처럼 그려보여주는 언어형태이다.

《일을 한참 하고난 때에야 달래벌끝전에서 해가 솟았다. 해는 안개속에서 놋양푼처럼 켰다. 누런 광선이 안개를 적시기 시작했다. 령롱한 안개알들이 벙글벙글 말리며 풀리며 초조히 흐르기 시작했

다.》(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중에서)

묘사에서 중요한것은 그림을 보는듯이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묘사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심리묘사, 행동묘사, 초상묘사, 자연묘사, 환경묘사, 풍물묘사 등으로 가른다.

설명은 말그대로 인물의 행동이나 생활사실, 어떤 대상,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말이다. 소설에서는 작가의 설명이라고 그대로 부르지만 영화문학이나 희곡에서는 대사를 내놓고 인물의 등장과 퇴장, 행동, 시간과 장소 등을 간단히 해설해준 부분을 지문이라고 한다. 지문을 바탕글이라고도 한다.

주정토로는 작가가 작품에 그려진 인물이나 사건, 생활형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평가를 직접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형태이다.

《설한풍속, 이 광활한 대지우에 찍히는 사령관동지의 발자국, 말그대로 전인미답의 이 땅, 력사의 큰길우에 찍히는 그 발자국! 안투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먼저 만경대의 초가집으로부터 포평나루를 지나 라오예령을 넘고 창바이의 산발들을 주름잡아 수천수만리, 원시림의 숲속, 사득판의 수렁길, 층층절벽, 포연탄우속 불타는 산허리를 꿰지르기를 그 몇번인가!》(단편소설 《력사의 자취》중에서)

주정토로는 가장 뜻깊고 감동적인 대목에서 펼쳐놓되 깊은 사색과 풍만한 정서가 넘치도록 하는것이 기본이다.

등장인물의 말은 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화, 독백, 방백, 군중의 목소리가 있다.

대화는 둘이상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다.

독백은 대상자가 없이 혼자 하는 말이다.

방백은 상대인물을 곁에 두고 하는 말인데 상대인물은 그 말을 듣지 못하는것으로 약속되여있고 관중만이 듣게 되여있는 혼자말이다.

《구장: 이 댁에선 무얼 차렸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일

부러 청하시우?

지주: (방백) 야, 요놈이 밉다니까 모루 기누나.》(혁명연극《성황당》중에서》)

극문학에서 방백은 인물의 속생각이나 상대인물에 대한 견해와 평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군중의 목소리란 소설이나 극문학에서 그 대사의 임자를 지적하지 않고 군중속에서 울려나오는 여러가지 목소리를 제시해준 말이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의 언어는 산문체언어와 운문체언어로 가른다.

산문이란 보통 소설이나 희곡, 영화문학에서 쓰는 음악적률조가 없는 말이고 운문이란 시에서 쓰는 운률이 있는 말이다.

운률이란 시에서 말소리의 음악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시에서 말소리의 흐름은 음악의 곡조와 마찬가지로 흐름새와 박자로 이루어진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러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가사《결전의 길로》중에서)

이 시구절은 시어의 소리마디수와 시줄의 길이가 호흡에 맞게 규칙적으로 조직배렬됨으로써 음악적인 흐름새와 박자를 잘 살리고 있다. 소리마디수가 일정하고 시줄의 길이가 일정하며 한 시줄안에서 6자와 5자로 이루어진 두개소리마디묶음(음절군)이 서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줄과 시줄이 같은 길이로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시에서 운률을 조성하는 방법을 작시법이라고 한다.

문학작품의 언어를 잘 살려쓰자면 두가지 기본요구를 지켜야 한다.

첫째로, 언어형상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문학의 언어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언어행위와 다른 점이 있다. 작품에서 언어는 인민대중을 대상하여 씌여진다. 그런만큼 작가는 언제나 인민과 말하는 립장에서 언어를 찾아써야 한다. 우리 인민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말하고 글을 쓰는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이다.

그러자면 문학작품의 언어는 알기 쉬워야 하며 표현이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문화적인 말로 되여야 한다. 낡은 언어관습이 깃든 비문화적인 언어, 속된 말을 없애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는것이다. 외래어나 한자어는 될수록 다듬은 우리 말로 바꾸어써야 한다.

둘째로, 언어형상에서 사실주의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언어형상에서 사실주의원칙을 구현한다는것은 진실하게 하고 개성적으로 한다는것이다.

그러자면 내용에 맞게 언어를 쓰는것이 기본이다. 내용은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성적인 참신한 표현을 적극 찾아써야 한다. 다른 작품에서 쓴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시 쓰지 말며 될수록 생신한 어휘와 표현을 써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들을 지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삼고 거기에서 언어형상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명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필승과 멸적의 무기이며 백전백승의 근본원천이다.

김 정 일

전 사 들

《전사들》은 석윤기(1929—1989)가 1960년에 창작한 중편소설이다.

석윤기는 경상북도 달성군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베이지엔다오(북간도)에 가서 살면서 망국노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후 석윤기는 조국에 돌아와 중학교에 다니면서 문학공부를 시작하였으며 1945년에 시 《출항》을 창작하여 지방잡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한때 남조선문학가동맹에 있다가 1947년 8월부터 잡지 《예술평론》사의 기자로 일하였다.

그는 1948년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가 체포되여 고문을 받았으며 병보석으로 출옥한 후 남조선문학가동맹 성원으로 일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의용군에 입대하여 3년간 수송전사로 싸웠다. 작가로서의 그의 창작적재능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이후에야 비로소 활짝 꽃펴날수 있었다.

전후시기 그는 전상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첫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썼다. 그리고 작가동맹출판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때에 중편소설 《전사들》과 《청춘의 길》을 창작하였다.

석윤기는 1961년부터 작가생활을 하면서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창작하였다.

그후 석윤기는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기였고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등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석윤기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중편소설 《전사들》은 한개 중대의 적은 인원으로 력량상 우세한 적 3개 련대의 발악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전략상 주요지점인 두무령을 영웅적으로 지켜냄으로써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진지방어전)작전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박대우중대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1장 《돌출부》, 2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 3장 《조국의 지도우에서》, 4장 《기발》, 5장 《시련의 낮과 밤》, 6장 《열정의 봉우리》로 되여있는데 교재는 6장의 3절과 4절을 발취한 것이다.

소설은 련대군의소 군의 구혜경이 3대대 중대장 박대우의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파편이 박힌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술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한시간 가까이 걸려 수술이 끝났는데 박대우는 곧 중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혜경에게 붙들려 입원실로 들어간다.

항일유격대출신인 련대장 강표와 구혜경의 오빠인 신임련대참모장 구본수가 월하봉정점을 넘어 두무령의 방어전연으로 나간다. 구본수는 전사들이 무너진 참호를 보수하는것이 아니라 희생된 전우가 남겨놓은 꼬아리를 정성들여 심는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강표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한다.

두무령을 돌아본 구본수는 중대원들이 지쳤기때문에 그들을 두무령에 그냥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질은 무너진 참호는 수리하지 않고 한가하게 꼬아리나 심고있는 그들이 미덥지 않은데 있었다. 하지만 강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원에서 나와 중대에 돌아온 박대우는 어느날 련대지휘부 작전회의에 참가한다. 그는 회의에서 적들이 공격할 때 련대주력이 삼두봉우익으로 은밀히 진출한다면 놈들을 월하분지에 끌어내여 포위섬멸할수 있고 적의 방어선을 4km이상 밀어낼수 있다는 대담한

의견을 제기한다. 련대장이 이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어 련대에서는 최종적인 작전이 토의된다.

드디여 두무령에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박대우를 비롯한 중대원들은 결사전을 벌리며 탄약이 부족할 때에는 적들이 버리고 도망친 박격포탄을 주어다 굴리면서 적들을 격퇴시킨다.

이 가렬한 전투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대학출신 병사들이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위해 대학으로 떠나간다.

한편 두무령에는 적들의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공격으로 하여 긴장한 정황이 조성된다.

그 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6. 열정의 봉우리

3

대우는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였다.

정확하게 6시부터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뒤따라 구라망편대가 두무령상공을 갈가마귀떼처럼 감돌며 폭탄과 기총알을 퍼부어댔다.

천장이 무너져서 전호나 다름없이 된 엄페호벽에 기대인 대우의 심장은 터질듯이 긴장되였다.

(과연 밀려올것인가?)

포사격은 시작될 때와 같이 정확하게 6시반이 되자 딱 멎었다. 그러자 우릉우릉 무한궤도소리가 들려왔다.

대우는 후— 한숨을 내쉬였다. 적정을 살폈다. 딱정벌레같이 보이는 여섯대의 중땅크가 앞장을 서고 그뒤로 보병들이 새까맣게 풀려나오고있었다. 총공격이 틀림없었다.

《허— 굉장한걸.… 허허허.》

대우의 입에서는 부지중 너털웃음이 새여나왔다. 도무지 웃음집이 흔들거려서 참을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송곳같은 덧이가 전진에 어지러워진 얼굴에 하얗게 드러났다.

멀끔히 면도를 한 곽홍규도 비죽이 웃으며 《봐라, 면도를 잘 했지, 하하하》 하고 너털거렸다.

딱정벌레같던 땅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집채만 해졌다.

선두땅크가 월하분지중간을 넘어서자부터 쾅쾅 포탄을 갈겨댔다.

《멋을 부리는군.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배때기에 창을 내놓을테니…》

전사들은 고개를 움츠러뜨리면서도 욕을 퍼붓는것은 잊지 않았다.

이윽고 땅크의 시창이 똑똑히 보이고 그뒤에 달려오는 검고 희고 누르고 한 오가잡탕 병졸들의 얼굴까지 가려볼수 있게 됐을 때 기척없이 앉아있던 820고지에서 태고의 침묵을 깨뜨리듯 위력한 지스뜨리의 일제사격소리가 천지를 진감시켰다. 뒤따라 삼두봉 좌익릉선에 대고 사단포련대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였다. 각종 구경의 일체 포들이 삼두봉과 월하분지에 집결된 적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웠다.

보병들의 머리우에 짓누르듯 날아가는 지뢰탄, 땅크의 철갑을 파고드는 파갑탄…

쫘르릉, 쾅, 쫘르릉.

쉭쉭쉭— 피유— 쾅, 쫘르릉.

천지는 사무친 분노에 떨듯 뒤흔들렸고 삼두봉은 뿌리채 뽑혀나는듯 하였다.

월하분지에 겹겹이 뭉쳐 달려나온 적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 불의의 불벼락에 놀라 심장들이 터진듯 하였다. 산병선은 지리멸렬이 되고 불개미떼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육중한 땅크도 삑 방향을 돌리더니 저희네 병졸을 깔아뭉개며 뒤로 달아나는가 하면 어떤 놈은 두무령벼랑을 향해 선불맞은 메돼지처럼 달려들기도 하였다.

《하하하.》

《흐흐흐.》

《전쟁도 할 맛이 있는걸. 푸짐한데. …어허허허.》

참호속에서는 허파가 흔들흔들하도록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두대의 땅크가 지스뜨리포탄에 명중되여 한놈은 불이 붙고 한놈은 무한궤도가 뭉청 끊어져서 쭈그러져 앉고말았다.

그러나 미구에 적들도 정신을 수습하였다. 놈들은 두무령에 바

싹 접근함으로써만 아군 포화력을 피할수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땅크를 선두로 발악적으로 두무령을 공격하였다.

넉대의 땅크는 두무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포탄을 갈겨댔다. 보병놈들은 땅크의 엄호를 받으며 고지앞턱에 와붙었다.

땅크포가 정면으로 갈겨대기때문에 두무령은 아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적이 바싹 두무령에 접근하자 이쪽으로 향했던 아군 포화력은 점차 삼두봉쪽으로 옮아가고 땅크를 위협하는것은 오직 두무령에 있는 반땅크총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넉대의 땅크를 제압하기는 너무나 아름이 찼다.

적은 마침내 고지에 붙었다. 살길을 찾아 놈들은 필사적으로 기여올랐다. 머지않아 등뒤로 죽음을 재촉하는 돌격소리가 울려오리라는것을 짐작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전에 두무령을 탈취할 심산이였다.

전사들은 땅크포의 집중적인 사격을 무릅쓰고 고지에 기여오른 놈들을 향해 불을 퍼부었다. 중기의 방열통은 벌써부터 펄펄 끓어올랐다. 경기도 기관단총도 보총도 반총도 쉴새없이 불을 토하였다. 총신이 달아 빨갛게 익은 탄알이 발아래 주르륵 떨어지도록 쏘았다.

그러나 워낙 적은 수량상 비교가 안될만큼 우세한데다 땅크의 사격때문에 정세는 갈수록 불리해졌다.

대우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엄페호 흉장에 기대서 고지중턱까지 바라오른 놈들을 내려다보았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는듯 하였다. 고지턱밑에 바싹 붙은 넉대의 땅크는 전후좌우로 마구 내달리면서 미친듯이 포구에서 불을 뿜어댔다.

대우는 사태가 위급하다는것을 느꼈다. 땅크를 진압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며 어떤 희생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적의 보병이 앞에서 득실거리는데 땅크파괴조를 보낼수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어쨌든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불과 몇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는지 모른다. 결정적인 대책을…

이때 두무령앞턱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친듯이 한대의 땅크가 달려오는데 그를 맞받아 한 전사가 수류탄묶음을 안고 달려들었다. 고지를 깔아뭉갤듯이 사납게 돌진해오던 땅크가 정면으로 달려오는 전사를 보자 흠칠 급정거를 하였다. 무한궤도가 와르릉

땅을 물어뜯고 몸체가 우직거렸다. 전사도 멎어섰다. 혼전이 벌어진 두무령 한끝에서 수십톤의 중량을 가진 육중한 대형땅크와 한 사람의 전사가 결투를 하듯이 서로 노려보며 마주선것이다. 땅크가 뒤걸음질치기 시작하였다. 《셔먼장군》이라고 위용을 뽐내는 중땅크가 《USA》라는 글자를 송구스럽게 옆으로 감추면서 꽁무니를 사리는것이다. 순간 전사는 수류탄묶음을 안고 내리덮치듯이 그놈의 배때기로 육박하였다.

꽈르릉!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일어났다. 다음순간 그 자리에는 볼꼴없이 무너져앉은 땅크의 잔해가 활활 불타고있을뿐이였다. 전사의 모습은 간곳이 없었다.

《풍수야— 이 문둥아—》

숨죽이고있던 전호속에서 리봉선이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의 손에는 곽홍규가 그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던 담배주머니가 쥐여져있었다.

《이봐라 봉선아, 사실은 우리 고향에 마누라도 있고 새끼들도 있다. 이담에 우리 고향을 해방시키거든 이 주머니를 우리 마누라 갖다줘라. 그러면 감도 얻어먹고 사과도 따다줄것이다.》

봉선이는 경황없는 싸움판이라 얼결에 그 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대에서 제일 겁많던 홍규는 적의 땅크와 단둘이 맞서서 그렇게 죽었다. 깨끗이 면도까지 하고…

대우는 홍규의 장렬한 전사를 보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정숙이를 불렀다.

《련대장동지를 찾소, 전화로! 내가 직접 말하겠소, 얼른!》

대우는 송수화기를 틀어쥐자 소리쳤다.

《3번동지십니까? 지스뜨리포로 두무령을 사격해주십시오. 땅크에게 집중사격을 부탁합니다.》

련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요? 동무들의 머리우에 포사격을 하란 말이요? 안될 말이요. 좀 더 견디오. 조금만 더…》

《돌격이 시작되면 놈들은 기어코 올라올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크때문에 얼굴도 들수 없습니다. 포를 돌려주십시오.》

《동무들이 맞을수 있소. 그래서 놈들이 거기 바싹 붙은거요. 그냥 좀 견디오.》

《련대장동지, 그러기에 때려야 합니다. 지금은 한시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땅크를 제압하지 않으면 보병들을 격퇴할수 없습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련대장동지, 련대장동지!》

그러나 의연히 수화기에서는 앵—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대우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기다렸다. 비록 짧은 동안이지만 련대장이 얼마나 심각한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때문이다.

사실 강표는 송수화기를 으스러뜨릴듯이 틀어쥐고 감시창너머로 두무령을 쏘아보고있었다.

(내 전사들 머리우에 포탄을 갈겨?)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죽 솟아났다. 거기엔 대우가 있고 정숙이가 있고 아마도 한평생 잊지 못할 사랑스럽고 용감한 전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 포사격을 퍼붓다니…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빌어먹을… 안된다. 그것만은 안된다. 적탄에 희생되는것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우리 포탄에 희생되는 전사가 생긴다면 그 절통함을 어디다 호소하랴!

두무령턱밑에 딱정벌레처럼 들어붙어 번쩍번쩍 불을 토하고있는 적땅크들이 보였다. 강표의 이마에서는 손가락같은 정맥이 두드러져올랐다.

(개같은 놈들! 만일 내가 쏘지 않으면 저놈들이 우리 전사들을 쏠것이다.)

강표는 다시한번 송수화기를 힘있게 틀어쥐였다. 불과 일분도 안되는 짧은 동안이였으나 강표의 머리에서는 쏘자, 쏘아서는 안돼,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생각들이 수십번도 더 자반뒤집기를 하였다.

이때 그의 생각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대우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울려왔다.

《련대장동지, 저희들은 념려마십시오. 저희들은 어떻게나 살아남을것입니다. 련대장동지, 갈겨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쏘아주십시오.》

강표는 머리를 쳐들었다.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사랑인것이다.

《좋소, 알겠소. 곧 포를 돌리겠소. 대우동무, 모두 부디… 아니, 곧 갈기겠소.》

강표가 송수화기를 놓고 돌아보니 어느새 들어왔는지 구본수가 옆에 서있었다.

강표는 곧 다른 전화로 포진지에 나가있는 군사부련대장을 불렀다.

《지스뜨리를 다시 두무령쪽으로 돌리시오. 파갑탄으로 적땅크를 묘준사격하시오. 10분이내로 소멸해야 하오!》

구본수가 소스라쳐 한걸음 앞으로 나선것과 동시에 수화기에서 당황한 군사부련대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강표는 결연한 태도로 말하였다.

《〈그렇지만〉이 아니요. 사격하시오. 10분이내로 땅크를 제압하지 못하면 엄중하게 책임질줄 아시오! 묘준은 정확하게!》

송수화기를 꾹 눌러놓은 강표는 일순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인차 수리개처럼 높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송구스럽게 서있는 구본수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본수는 웬일인지 더럭 무섬증이 났다. 그는 그처럼 단호하고 무자비한 련대장의 태도를 여적 본적이 없었다.

이때 강표가 불쑥 한장의 도면과 문건을 내놓았다.

《보시오!》

구본수는 얼른 문건을 펼쳐들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지고 입은 벌어졌다. 그것은 차지한 계선에서 적극적인 진지방어로 이전할데 대한 전선사령관의 명령서사본이였다. 그리고 도면은 강표가 사판에 의하여 손수 작성한 완전한 반전차대책과 지뢰, 철조망 등 공병적대책을 갖추었고 공고한 갱도식 진지들을 예견한 삼두봉의 방어략도였다.

구본수는 피뜩 어제 새벽에 사단으로부터 련락군관이 왔다간것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이번 전투가 자기가 생각한것처럼 단순히 전국을 호전시키기 위한 전술적공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략적 단계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타산되고 준비된 진정한 작전이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제 전투의 운명은 결정되였소. 우리는 승리할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런 군사비밀도

없소. 수색전투가 끝나는 즉시로 방어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시오.》

구본수의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났다. 그의 머리에 오래동안 옹이처럼 응고되여있던 옹색하고 메마른 엄격성과 과학성의 성곽이 밑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강대한것은 인간의 힘, 의지의 힘이다. 그의 머리는 이 너무나 큰 충격때문에 어질어질해졌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포소리는 더욱 높아가고있었다. 돌격의 시각이, 원쑤의 숨통에 죽음의 날창을 박을 시각이 박두하고있다.…

대우는 송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엄페호흉장에 엎드렸다. 이제 우리 포병들의 포사격권내에서 싸우게 될 전우들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미여져올랐다. 동시에 진정한 영웅성의 그 비장함과 그 열렬함과 그 강력함에 스스로 감격되기도 하였다. 그는 힘찬 목소리로 련락병을 불렀다.

《소대장들에게로 가오. 이제 곧 아군의 포사격이 시작되니 조심을 하라고…》

《꽝!》

이윽고 지스뜨리포가 적땅크를 겨누어 다시금 포문을 열었다.

꽝!— 꽈꽝!— 파갑탄이 적땅크주위에 마구 떨어졌다. 어떤 포탄은 고지중턱까지 기여오른 적 보병의 머리우에도 떨어지고 오차가 심한것은 아군전호앞에서도 터졌다. 그러나 대체로 포병들의 사격은 정확하였다. 전우들의 머리우를 쏘는 그들의 사격이 어찌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랴.

꽝! 꽈르릉! 꽈꽝!

맹렬한 포사격이 두무령에 집중되자 땅크들은 당황실색하여 갈팡질팡하였다. 보병놈들은 더욱 발악적으로 기여올랐다.

대우는 엄페호앞뒤에 와 떨어지는 위력한 우리 포병들의 사격소리를 들으며 히죽이 웃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엄페호 바로 앞에서 적의 경기가 뚜루룩뚜루룩하고 울부짖었다. 대우는 신다리가 허공 쳐들리는것을 느꼈다.

《중대장동무!》

정신없이 기관단총을 두르고있던 정숙이가 달려들었다. 대우는 눈을 부릅떴다. 적탄은 대퇴로부터 하복부를 꿰고나갔는데 너덜너덜하는 상처에서 걷잡을수 없이 피가 솟구쳐올랐다.

대우를 쏜 경기는 아직도 불을 토하면서 접근해오고있었다. 《U.S.A.》라고 씌인 철갑모와 누런 미국제군복이 보였다.

《개새끼!》

대우는 이를 앙다물고 수류탄을 뽑아들었다. 유리눈갈은 파란 동자, 노리께한 턱수염이 꺼칠한 뾰족한 턱, 칼날같이 날이 선 매부리코— 원쑤의 형상이 똑똑히 보였다. 그놈이 경기를 쳐들고 한걸음 앞으로 기여나오려는 순간 대우는 온몸의 힘을 다해 수류탄을 쥐여뿌렸다.

《이놈들, 더는 못 나온다.》

대우는 폭발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시간이 썩 지난 후에야 그는 아득히 꿈속에서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돌격소리를 들었다. 가슴을 흔들어주는 저 나팔소리—

《만—세—》

《마—ㄴ—세—에—》

우렁찬 만세소리를 듣는 그의 두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의식은 다시 몽롱해지고 모든것이 캄캄해졌다.

4

숨가쁜 긴장이 흘렀다.

아직도 수술실에서는 기척이 없다.

구본수는 이 한시간나마 되는 동안이 마치 지나온 반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두무령에서 수색전투가 끝나는 길로 련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곧 군의소로 달려왔던것이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대우의 수술을 끝마친 군의장이 손을 닦으며 나왔다. 치명상만 해도 세군데나 되는데 그우에 또 출혈이 심하고 하복부를 뚫고나간 탄알이 대장을 못쓰게 만들었다는것이였다.

복잡하긴 하나 수술은 괜찮게 되였는데 소생할는지 어떨는지 장담할수 없다면서 군의장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후로도 여러차례 수혈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의식은 회복되지 않은 모양, 혜경은 벌써 몇시간째 수술실에서 나올줄 몰랐다.

…

대우는 마침내 눈을 떴다. 하얗게 피기가 가신 홀쭉한 얼굴에 작은 눈이 퀭하게 꺼져들어가서 더욱 깊어보였다. 그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혜경이며 구본수며 간호병들의 얼굴을 흐려드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강표의 얼굴을 알아보자 얼굴에 한점 붉은 기운이 돌았다.

《련… 대…》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애썼으나 되지 않았다. 강표는 그의 안타까와하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하였다.

《좋소, 보고는 이다음에 받기요. 빨리 일어나오. 동무는 군의소에 다시 안 오겠다더니…》

강표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대우의 얼굴에는 가냘픈 미소가 떠오르면서 하얀 덧이가 다정하게 드러났다.

강표는 그 얼굴을 바라보더니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정신을 잃었군. 그러나 념려들 마오. 그는 죽지 않소!》

강표의 말이 어찌도 확신에 찼던지 구본수는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혜경이조차 이 방에서 의사는 자기가 아니라 련대장이기나 한것처럼 간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

5월 16일부터 21일간의 반타격전에서 적장병 1만 8천여명을 소멸하였으며 937대의 자동차, 전차, 장갑차, 386문의 각종 포를 파괴, 로획하는 거대한 전과를 거둔 5차 2작전은 끝났다.

간고한 기동방어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거대한 작전에 뒤이어 조중인민군부대는 최고사령부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에 의하여 차지한 유리한 계선에서 진지방어전에로 이전하였다.

완전한 갱도식진지가 굴설되였으며 공고한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여기에서 릿치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에 대처하여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고지를 철옹성으로 만들었다.

《추기공세》가 끝나갈무렵 두무령에는 빨갛게 꼬아리가 무르익었다. 그것은 마치 영웅들이 흘린 선혈의 결정과도 같이 빨갛게 불탔다.

…

높이 개인 쪽빛하늘에 흰구름이 둥둥 떠돌고 포화에 부스러졌던 두무령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어느 가을날, 이 영웅들의 무덤앞에 새 군복을 입은 군관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는 대우였다. 후방병원에서 3개월여에 걸치는 치료를 받고 이제사 련대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그는 오래도록 숙이고있던 고개를 들었다. 볼이 좀 꺼지기는 했으나 지금도 그 희고 군살이 없는 얼굴이며 자그마한 눈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마에 난 상처가 그의 외형을 다소 심각하게 만들어주었다.

대우는 최두령이며 김의식이며 곽홍규의 모습을 방불히 눈앞에 그리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전선으로 돌아왔네. 자네들 생각을 하면 죽을수가 있어야지… 남해끝까지 가겠네. 조국을 통일하여 자네들의 원쑤를 갚고 이 땅우에 자네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겠네. 그러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죽을수 있겠나.…》

남쪽하늘에서 은은히 포소리가 울려왔다. 대우는 포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벗들의 무덤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고 빨갛게 무르익은 꼬아리를 한번 매만져보고나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힘차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포소리가 울리는쪽으로…

그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이 이룩될 그날까지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것이였다.

길동무들

《길동무들》은 김병훈이 1960년에 쓴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도당전원회의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군당위원장이 어느 한 역에서 초롱을 든 한 처녀가 개찰원청년과 싱갱이질을 하는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다짜고짜로 렬차승강대에 오른 처녀—주인공 오명숙은 호기심을 품고 눈여겨 바라보는 길손들에게 5만마리의 잉어새끼가 들어있는 초롱의 비밀을 알려주며 우리 나라 곳곳에 있는 저수지와 논판, 늪에서 잉어를 기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오명숙은 온도계로 초롱속의 물의 온도를 재여보기도 하며 역에 기차가 멎어설 때마다 뛰여내려 물을 길어다 초롱에 새물을 갈아넣기도 한다. 군당위원장 《나》도 처녀의 기특한 소행에 감동되여 그의 충실한 조수로서의 임무를 자진하여 맡아나선다.

어느 한 역에 기차가 멎어섰을 때였다.

물길러 내렸던 오명숙은 그만 렬차를 놓치게 된다. 그렇게 되자 군당위원장 《나》는 오명숙의 초롱과 보따리를 부둥켜안고 다음역에서 내려 그를 기다리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선문교재이다.

소설은 계속하여 군당위원장이 군적으로 양어를 할데 대한 강의와 천개리청년들의 힘찬 투쟁이야기를 하는 오명숙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당위원장은 다정한 길동무인 오명숙과 헤여지면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처럼 뜨겁고 열렬한 심장들을 찾아가야 한다는것을 느낀다.

… …

내가 초롱을 들고 발자국을 옮겼을 때였다. 역사에서 모자에 붉은 테를 두른 역장인듯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그는 떠나가는 렬차를 보자 우뚝 멎어서서 실망한듯이 손을 홱 내리저었다. 그러다

가 문득 나를 발견하고 한참 바라보더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저 미안하지만 이게 물고기새끼가 들어있다는 초롱이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까 방금 저편 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임자가 찾으러 갈터이니 내리워 보관했다 달라는 부탁이 왔다는것이다. 내가 초롱을 가지고 내린 사연을 말했더니 그는 더 좋다고 하였다.

나는 급히 정거장앞의 우물로 뛰여가서 물 한바가지를 퍼다가 처녀가 하던식으로 새물을 갈아부었다. 온도계를 꺼내보니 14도로 내렸다. 초롱안의 고기들도 퍽 활발하게 노는것 같았다. 하지만 여라문마리가 배를 뒤집고 둥둥 뜬것을 건져내면서 나는 못내 가슴아파 견딜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초롱을 들고 대합실에 들어왔다. 해도 안 들이쪼이고 통풍이 잘 됨직한 대합실복판에 초롱을 놓고 걸상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통탕거리는 발구름소리가 나더니 대합실문이 덜렁 열렸다. 처녀가 뛰여든것이다. 나도 어지간히 놀랐지만 내앞에 숨이 턱에 닿아 할딱거리며 서서 눈이 휘둥그래진 처녀는 더욱 놀라운 모양이다. 입을 멍하니 벌린채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서있다.

《아, 아니… 아바이！…》

25리를 한시간동안에 달려오느라 온통 땀과 먼지로 얼룩이 진 그의 몸과 얼굴… 그리고 걱정에 잠겨 생기를 잃고 뿌옇게 잠긴 처녀의 큰 눈을 바라보자 나도 가슴이 뜨거워 미처 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나는 멋없이 빙긋이 웃으며

《자, 어서 저 초롱속이나 살펴보우, 제대루 됐는지 원…》

하고 중얼거리며 초롱을 가리켰다. 그제야 처녀는 황급히 초롱으로 다가가 귀퉁이를 들치고 들여다보더니 온도계를 꺼내들었다.

푸른 수건을 두른 처녀의 머리가 나에게로 홱 돌려졌다. 순간 환희와 생기에 넘쳐 빛나는 그의 두눈동자는 그야말로 이슬을 머금은 머루알이라고나 할가. 나는 평생 그런 눈을 본 일이 없었다.
… 그러자 처녀는 일어서서 몇발자국 다가서더니 갈린 목소리로

《아바이！…》

하고 부르며 와락 달려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두손이 내 손을 꽉 그러쥔다.

《아바이… 물까지 갈아주셨군요.… 고마와요.… 고마와요.…》

처녀는 말을 더듬기나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더듬거렸다. 환희와 뜨거운 감정을 억제 못하는 그의 큰 눈에서 맑은 이슬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의 두손에 꽉 그러쥐인 나의 손목으로는 처녀의 뜨거운 정과 환희가 그대로 흘러들어오는것 같았다.

《에이구, 이게 무슨 못난짓이요, 큰 처녀가 울긴.…》

이렇게 나무라는 나도 웬일인지 눈굽이 뜨거워졌다. 눈물이란 슬픔만 아니라 그 어떤 맑고 그윽한 감정의 북받침이기도 한 모양이다.

그러자 나를 쳐다보는 처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두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상에 앉았다.

《아바인 나때문에 내리셨으니 어떡해요?… 밤찰 타셔야겠군요. 무슨 급한 일로 가시는 길이나 아니세요?… 정말 미안해죽겠어요.…》

처녀는 거듭거듭 걱정한다.

《아니요, 아무런 바쁜 일도 없소.…》

나는 처녀가 너무 미안해하기때문에 그가 안심할수 있도록 그럴듯 한 려행목적을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당장 뭐라고 꾸며댈지 떠오르지 않았다.

처녀는 보따리를 풀더니 오리알을 한개 꺼내여 흰자위를 발가내고 노란자위만 보드랍게 부스러뜨려서 초롱안에 뿌려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바인 어디까지 가시나요?》

《난 가산까지 가오.》

《네?! 가산이라구요?… 전 송봉까지 가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한고향 처녀로군 그래…

《어느 협동조합이요?》

《천개리야요.》

《천개리라… 그렇댔구만.…》

《아바인 어느 리나요?》

《나말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가 망설이였다.

《읍에 사오.》

《저 어느 기관에서 일보시나요? 읍에 들리면 꼭 찾아뵙겠어요. 아바이신셀 어떡하면 다 갚을가, 참…》

《뭐… 난…》

하고 우물쭈물 넘기려는데 처녀는 그냥 간곡히 대달란다. 군당위원장이라고 하면 처녀가 얼마나 당황해할것인가. 군당위원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는 나를 몰라보는것이 도리여 다행한 일이였다.

《저… 난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이요. 참 그것보다두 처녀동무… 아니 인젠 이름을 좀 대주오.》

《명숙이야요, 오명숙…》

《그래 명숙동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혼자 떠났소? 너무 영웅주의를 부려서 무리한게 아니요?…》

이 물음에 처녀는 뭣때문엔가 허구프게 웃더니 시무룩해졌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이나 덤덤하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무르팍을 쓸고있다. 내리깐 길다란 속눈섭들이 자꾸 깜박거렸다.

문득 처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그레 웃었다.

《아바이, 아무것도 안야요. 정말 아바이 말씀마따나 내가 영웅주의를 좀 부린거예요. 그 말은 그만두세요.… 참, 아바인 어디 갔다오시는 길이나요? 정말 무슨 급한 출장이나 다녀오시는거 아니예요?…》

처녀는 말끄리를 돌리면서 자못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본다.

그러니 이 처녀가 끝내 나때문에 마음을 못 놓겠다는것이다. 나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근심마오! 휴양갔다 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니 한가한 려행이지 뭐요.…》

《네— 그러세요.…》

그제야 처녀는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인지 숨을 호 내쉰다.

《그래 어느 휴양소에 갔댔어요?…》

《어디냐구… 아, 저 묘향산이요.…》

나는 어디에 갔댔다는것까지는 미리 생각지 못했댔으므로 얼결에 이렇게 대답했다. 평소에 늘 묘향산구경을 하고싶었던탓일것이다.

《아이참, 묘향산엘요!…》

처녀의 눈동자는 부드러움과 호기심이 어려 반짝거린다. 나는 언제인가 화보에서 본 묘향산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렇소.…》

《아바인 참 좋았겠어요. 난 아직 가본적이 없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몹시 부드러웠고 검은 두눈은 꿈꾸는 사람처럼 쪼프려졌다.

《아바이, 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모든 곳을 다 가봤으면… 온갖 명승고적들이며, 대건설장들이며, 구름우에 솟아오른 산마루와 가없는 동해… 그리구 그리구…》

《가보구려, 그야 어렵겠소. 해마다 휴가를 받으면 기러기처럼 아무데고 훨훨 날아다녀보구려.…》

《기러기처럼요? 아이 좋아요! 꼭 그러겠어요… 하지만…》

처녀는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대합실복판에 놓인 물초롱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금은 안돼요.…》

《왜?…》

《… … …》

《저것때문에…》

나는 처녀의 시선을 따라 물초롱을 바라보며 물었다.

처녀는 그냥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아니, 동무 혼자서 양어를 도맡아하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바라보며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는다. 그러다가 명숙이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진 저에게 닭알장사애길 해요.…》

《뭐 닭알장사애기?…》

《옛날에 웬 사람이 닭알 한꾸레미를 들고 얼음판을 건너가면서 그 닭알을 깨워 닭을 기르구 그 닭에서 또 알을 받아 닭을 기르구… 이렇게 해서 10년후엔 큰 돈을 모아 열칸짜리 기와집을 살가 열마지기 옥답을 살가 망설이다가 그만 얼음판에 미끄러넘어져서 닭알도 기와집도 다 박산이 났대요.…》

《허허허, 그건 관리위원장동무가 무슨 일이든 잘 타산하고 짜고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겠지. 그래 더는 제길 못했소?》

《전 자꾸 애기했어요. 우리 조합의 저수지와 수리안전답들과

천개천흐름을 리용하여 고기를 기를수 있는데 이삼년후이면 여기서 얕잡아도 오륙십톤을 낼수 있고 사오년후엔 백톤을 넉근히 잡을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닭알장사셈이라는거야요.…》

처녀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쉰다.

《흥, 그럴법이 어디 있소?…》

나의 눈앞에는 당돌하게 생긴 천개리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천개리협동조합은 군내에서 쓸쓸하게 되여가는 편이고 관리위원장 사업작풍도 좋다고 들었는데… 어린 처녀의 제기라고 얕본게지…

《전 별 어리석은 생각을 다 했어요. 집어치울가도 생각하구 심지어 학교졸업하고 조합에 남은걸 후회까지 했답니다.》

《고중을 나왔소?》

나는 뻔한 소리를 물었다. 사실은 무엇인가 더 따뜻한 말을 하고싶었는데…

《네—》

명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전, 우리 고향 두메골을 생선고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꿈때문에 다 버리고 남았는데 일년이 지났어도 아무 일도 못 치르었으니 … 게다가 관리위원장아저씬 귀두 안 기울이지… 그래서 저는 모든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구, 정말 내가 궁리한것이 닭알장사같은 망상이나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턱이 있소?…》

《그래요, 아바이, 하지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날 밤 나는 괴로움을 이기다못해 뒤동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었지요. 그러자 웬일인지 정신이 좀 거뜬하게 맑아졌지요. 나는 앉아서 곰곰히 생각에 잠겼어요.…》

《저런!… 그래서 어찌 되였소?…》

처녀는 대답이 없이 이슥토록 묵묵히 앉아있었다. 망설이는 빛이였다. 그러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기다리는 나의 얼굴을 보자

《아바이, 웃지 마세요.…》

하고 다짐을 놓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처녀의 이야기는 결코 웃음거리가 아니였다.

《우리 고중동창생들가운데 졸업한 다음 제 고향에 남아 일하겠다는 애들도 많았지만 대학이요, 공장이요 하고 제각기 꿈을 따라 날아갈 생각을 하는 동무들도 있었지요. 저도 처음엔 그 패였어요. 그런데 2학년 때 한번은 마을에 사는 배나무집 할아버지와의

상봉모임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지주라군 구경한 일도 없기때문에 지주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우리 이 고장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평생을 살아도 흰쌀밥 한숟가락, 생선 한토막 먹어보지 못하고 이 벽촌에다 뼈를 묻어왔단다.…〉

하는 말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 어찌다가 흰쌀밥 한그릇, 생선 몇꼬리 입맛이나 다셔본 사람이면 그게 평생을 두고 큰 자랑거리였다나요. 그런데다가 악독하긴 산골지주놈이 더하다구 일년내 뼈빠지게 돌밭을 뚜져야 죽물 우려먹을 귀밀, 감자알토리도 변변히 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지주놈들이 싹 훑어가군 했대요. 그 할아버지는 머슴을 살았는데 한번은 하두 배가 고파서 지주집외양간을 치다가 여물찌끼에 콩알이 섞인것을 보고 그걸 몰래 갖다가 물에 걸러 콩알을 주어내서 끓여잡수셨대요. 그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그것이 벌써 30년전이라는 먼 옛날 얘기건만 백골이 되여도 잊을수 없다면서 책상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처녀는 이야기를 끊었다. 얼굴에는 침통한 빛이 어렸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잠도 못 자고 모대기였어요. 지금까지 가지고있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검토하였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우리가 늘쌍 그렇게 궁벽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해온 이 고장에 실상은 **김일성**원수님의 해볕아래 새로운 생활이 꽃피여나고있다는것을 비로소 느꼈어요. 우리는 강냉이, 감자, 산채와 산과실가공품을 나라에 보내고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한숟갈도 못 떴다는 흰쌀을 끼를 비우지 않게 보내주시지요! 어려서부터 나는 마을을 꽉 둘러싼 산발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 커서 날개를 달고 저 산벼랑을 넘어 훨훨 날아서 흥성거릴 큰 도시나 공장으로 가서 살아보나 생각했는데 그 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령님께서 이 하늘아래 첫 동네 인민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데 우리 이 고장에서 태여난 자식들이 〈제 고장은 벽지니까 좀 뒤늦게 락원으로 들어서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어느날 저녁 일기책에다 〈나는 이 고장에서 공산주의노을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적어넣었지요.…》

처녀의 얼굴은 사과알처럼 붉게 탔다.

어쩌면 그의 꿈은 나의 생각과 신통히도 같은가! 나도 수령님의 뜻과 빛을 따라 지난날은 이 나라에서도 가장 궁벽하고 락후했던 우리

하늘아래 첫 동네인민들과 더불어 약진하는 조국의 맨 선두에 나서서 공산주의대문을 열어제끼고말리라고 굳게 속다짐하고있는터이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나의 필생의 념원이며 사업인것이다. 그렇다면 이 처녀는 얼마나 미덥고 뜻이 통하는 나의 동지이며 전우란 말인가.

《옳소, 명숙동무, 동문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는 말을 못 이었다. 그의 높은 뜻을 찬동할 말이 나에게는 더 없었던것이다.

《아이참, 아바이두, 그야 당연한 생각이죠 뭐…》 하고 처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후 〈그렇다면 나는 이 고장에다 무엇을 해놓을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똘하게 되였어요. 그러던 어느날 생물시간에 담수양어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문득 우리 고장에선 양어를 할수 없을가 하는 궁리가 들었어요. 글쎄 평생을 두고도 생선꼬리 하나 구경 못했다는 고향사람들에게 아침저녁으로 펄펄 뛰는 생선을 잡숫게 한다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쿵 뛰여서 저는 그날 종일 선생님의 강의는 귀밖에 흘리며 공상에 잠겼댔어요. 그때부터 저는 양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에는 삼등에 가서 한달동안 실습도 하구요.… 이리하여 고향에 남은 제가 글쎄…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사회주의락원도 채 완성치 못했는데 뜻을 꺾다니… 그날 밤 뒤동산에 앉아서 이 모든것을 회상한 나는 고만한 일에 쿨쩍거린것이 스스로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어요. 산아래 마을에서는 마치 내가 마음을 바로잡는것을 반기기나 하는듯이 집집의 등불이 다정하게 깜박이였어요. 그러자 저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더욱 화가 치밀어 견딜수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마을로 내리달렸어요.…》

처녀는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듯이 고개를 숙인다.

(암, 그러면 그렇겠지! 명숙이가 손을 들었을수야 있는가?…)

나는 속이 후련하였다.

《참, 용하오. 그래 그후는 어떻게 되였소?》

《그렇지만 그후에 전 또 어리석은짓을 했다니깐요.…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대신에 그밤 그길로 저 혼자 삽과 곡괭이를 메고 천개천기슭의 미리 점찍어둔 곳에 가서 새끼고기를 넣어 기를 못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조합일이 끝나면 어머니에겐 민청에서 밤일을 한다고 속이고 몰래 나가서 파군 했지요. 한보름 지나니까 몸이 축갔어요. 그렇지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못을 파고 다문 몇마리라도 몰래 길러내서 래년엔 관리위원장아저씨

의 고집을 꺾고야말겠다는 옹색한 생각에 잡혀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밤 웬 사람이 구뎅이의 흙무지우에 나타났어요. 민청위원장동무였어요. 글쎄 어머니가 밤마다 웬 작업이냐고 알아보러 찾아오셨더라는거야요.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대지 않을 작정이였지만 할수 없었지요. 민청원이 동맹앞에 감출 일이 있느냐 하는걸요 뭐, 시들하게 사연을 말했더니 뜻밖에도 그 동문 무릎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굉장한 문젤 왜 벌써 조직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소? 동문 참 독선주의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 독선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맹꽁이였고 조직성이라군 없었지요. 그후 민청원들의 지지를 받구 리당위원장아바이도 저의 계획을 찬성하였기때문에 관리위원장아저씨두 하여튼 금년에 우선 한초롱 갖다가 키워보라구 반승낙이 되여 이렇게 떠났답니다. 어쨌든 우선 금년에 한초롱을 키워서 명년에는 팔따시같은 잉어를 잡아내기만 하면 그땐 아마 우리 관리위원장아저씨두 눈이 둥그래서 생각을 다시 할거야요. 그렇게 되면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수지에 넣어 기를수 있을테지요.… 일년 밀지기는 하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일이 잘못됐군, 그 좋은 계획을 일년 밀지다니.)

《아니, 일년 밀져서야 되겠소? 명숙이, 이 일은 곧 시정하도록 하자우!》

《네? 시정하다니요.…》

(아차 실수했구나!) 나는 불쑥 나온 나의 말이 실수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명숙이는 아직 별다른 눈치를 못 챈 모양이다. 나는 슬쩍 말을 돌렸다.

《명숙이, 난 동무의 계획이 꼭 성공하리라고 믿소. 암 되구말구!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고마와요, 아바이!》

《그런데 명숙이, 난 아까부터 이런 생각을 했소. 동무의 그 양어계획을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도입할수 있지 않을가 하고말이요.…》

《뭐요, 아바이? 전체 군에라구요.…》

처녀는 손벽을 딱 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생기와 환희의 불찌들이 눈동자에서 튕긴다.

《아바이, 그렇게 되문 얼마나 좋아요. 저두 그런걸 생각했댔

어요！》

《아 그럼 왜 벌써 군에다 제기하지 않았소？》

그러자 처녀는 시무룩해지더니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 아직 우리 동네 하나두 설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군에까지…》

《원, 동무답지 않소. 그래 명숙이, 우리 군에 저수지가 몇개나 되는지 아우？》

《여라문개 되잖을가요？…》

《옳소, 열두개요. 동무네 천개리의것이 제일 작지. 그래 여기서 양어를 한다면 얼마나 고기를 낼가？》

《매년 수백톤 아니 천톤은 더 낼거야요！》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아침저녁 생선국을 먹구두 공장을 하나 더 세워야겠군.》

《공장이라구요？》

《암, 통졸임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하늘아래 첫 동네 생선맛을 좀 보시오 하고 온 나라에 보낼수 있을게 아닌가. 하하하…》

《호호호, 아바이두 참…》

이리하여 우리는 어느덧 군전체에 양어를 할 계획을 토의하게 되였다.

… …

[명언]

붉은 선동원

《붉은 선동원》은 조백령이 1961년에 창작한 장막희곡(전 7장)이다.

《붉은 선동원》은 조백령의 대표작인 동시에 천리마시대의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붉은 선동원〉을 왜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 작품이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고있는 감동적인 사실을 그대로 잘 그려냈기때문입니다.》

희곡은 먼저 1장에서 1960년대초의 농촌현실을 보여준다.

농장원들은 당에서 하라는대로 정당 50t의 거름을 내기 위해 들끓는다. 작업소에서 자동차까지 두대나 동원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작업반장 박치욱, 작업반 선동원 리선자 등 핵심적인 농장원들이 안타까와한다. 지난번 분배때 분배를 얼마 타지 못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대신 그 무슨 다른데 탓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최진오며 공장으로 진출할 공상으로 들떠있는 최진오의 아들 관필이, 전쟁때 가족을 잃고 혼자 산다는것을 내걸고 자유주의를 하는 복선아주머니가 이날도 일하러 나오지 않았다. 반장 박치욱은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그저 으으 내밀면서 드립다 욕설퍼붓기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형편에서 선동원 선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작업반원들을 교양개조함으로써 지난날에는 농사가 잘되지 않던 조합을 풍요한 조합으로 만들리라 굳게 결심하고 이악하게 달라붙는다.

먼저 선자는 전쟁시기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성미가 괴벽하여진 복선아주머니를 교양하는데 힘을 들인다. 그는 복선아주머니가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 퍼뜨리며 때로는 정면에서 비웃고 돌아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을 담아 일깨워주기도 하고 도배도 해주고 집안도 거두어주면서 생활을 돌봐준다.

그리하여 복선아주머니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조합일에 진심으로 몸바쳐나서게 된다.

선자는 계속하여 관필이를 개조하는데 성의를 다한다.

관필이는 원래 도시생활을 꿈꾸면서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청룡리에 있는 영애와의 약혼문제가 비틀어져나가는것이 영애의 동창생인 선자의 작간질때문이라고 오해한데서 더욱 엇서나가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영애로부터 선자가 몇번이나 밤에 기차를 타고와서 관필이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해주었기때문에 약혼문제를 비틀던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편지를 받고 관필은 선자에 대한 고까운 생각은 풀렸으나 도시로 가려는 꿈은 종내 버리지 못해 비내리는 어느날 마을을 떠나게 된다.

마침 터지려는 보뚝을 막고있던 선자는 관필을 막아서며 호되게 비판한다.

《관개수를 봐요. 그리고 이 고압전주를 봐요. 들어요? 저 뜨락또르소리를! 누구를 위해 저렇게 들끓고있어요? 그런데 동무는, 동무에겐 어떤 딴세상이 있는 모양이지요. 너절해요! 비겁해요! 동무는 철저한 건달군이예요. 정 가고싶으면 가라요! 자기를 낳아준 고향이 싫거들랑 가라요!》

가슴을 찌르는듯 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결부되여있었다. 그리하여 관필이는 선자를 따라 비물에 터지는 보뚝을 막는데 뛰여들게 된다. 이렇게 되여 관필이도 개조된다.

그런데 최진오는 비할바없이 완고한데다가 낡은 사상이 누구보다도 집요하여 아직 개조되지 못하고있었다.

구역적으로 김매기경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저녁, 논머리에서 하루총화가 있었다.

리기주의사상에 물젖은 최진오는 로력공수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미치는데만 미끈하게 매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은 대충

매버리군 했었다. 선자는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량만 생각하고 질을 보장하지 않은 최진오의 로력점수를 령으로 선포한다.

이에 성이 난 최진오는 선자가 맨 고랑에서 잡초 몇대를 뽑아들고 와서는 네 로력점수는 어찌겠는가고 따지면서 자기의 손은 한평생 농사일로 늙어온 손이라며 대들다가 씽 달려나가고만다. 그리고는 그 후 몸이 아프다는 핑게로 아예 일을 나오지 않는다.

그랬건만 선자는 최진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가 선문교재이다.

선자는 약을 지어다주기도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경우에조차 최진오를 원칙적으로 교양하며 최진오의 도급밭을 밤에 남모르게 매여주기도 한다. 드디여 그렇듯 고집스럽던 최진오도 선자의 뜨거운 진정앞에 머리를 수그리게 되며 자기를 뉘우치고 조합의 주인이 될것을 맹세한다.

이듬해 정월, 풍년분배에 흥성거리는 이 마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다.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리선자는 수령님으로부터 일을 잘했다는 높은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는다.

선자는 감격에 넘쳐있는 조합원들에게 두엄을 더 많이 내자고 호소한다.

때: 력사적인 청산리교시가 나온 때로부터 그 이듬해 정월까지
곳: 평양 가까운 어느 농업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사람들

리선자 8작업반 선동원, 2분조원
안병훈 8작업반 당단체위원장
박치욱 8작업반 반장
최진오 2분조원
오 씨 그의 처, 2분조원
관 필 그의 아들, 2분조원, 민청원
리복선 2분조원
김준식 2분조장

원 숙 2분조 민청원
강철수 뜨락또르운전수

第6장

무대는 1장과 갈다. 다만 계절이 바뀌여 마당의 느티나무며 최진오네 집앞들판에 록음이 물들었고 멀리 뻗어나간 남강줄기는 달빛으로 하여 더욱 몽롱하다. 이따금 개똥벌레가 풀숲을 감돌며 푸른 불빛을 깜빡인다.

막이 오르면

5장에서 이틀후인 이슥한 밤이다.

…

△ 이때 호미를 든 리선자가 대문밖에서 어정거리다가 결심한듯 들어온다.

리선자 (진오앞으로 가까이 가며) 아저씨!

최진오 (힐끗 돌아보고 돌아앉는다.)

리선자 여기 약 갖다놨어요. (마루에 갖다놓는다.) 몸살에는 아주 좋대요.

최진오 (외면한채) 누가 너더러 약 갖다달랬냐?

리선자 하루라두 빨리 몸이 나서야 하지 않아요.

최진오 내 몸 아픈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 오씨 부엌에서 나온다.

리선자 지금 구역적으로 김매기경쟁이 한창인데 아저씨 같은 주로력이 빠지면 되겠어요?

최진오 (벌떡 일어나서) 내가 무슨 주로력이냐 응? 종일 일해야 공점밖에 못 타는게 무슨 주로력이야!

오 씨 아니 병문안온 애보구 그게 무슨 소리유?

리선자 (말이 없다.)

최진오 굶어죽으라고 공을 매겨놓구선 무슨 놈의 병문안?

리선자 아저씨를 굶어돌아가시라고 공점을 매겼겠어요. 조합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서죠.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일하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는 천리마작업반이 되겠

다고 아저씨도 궐기하시지 않았어요?

최진오 궐기했다. 하지만 너한테 망신당하자고 궐기한줄 아니. 너 초봄부터 왜 남의 집일에 중뿔나게 나서는게냐? 원 계집애가 나살이나 찼으면 시집이나 갈게지!

오 씨 아니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하오?

리선자 (모욕을 참느라고 애를 쓰다가 눈물이 글썽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두 좋아요. 허지만 아저씨가 이틀씩이나 일을 안 나오시는데는 저두 여간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최진오 무슨 걱정, 누가 널보구 약 갖다달랬냐?! (마루의 약을 내꽂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다.)

오 씨 (어쩔바를 모르다가) 선자야, 너두 저이 성밀 알지? 날 봐서래두 참아라 응? (하고 부랴부랴 방으로 들어간다.)

△ 오씨의 《당신 정신이 나갔소?》 하고 탓하는 소리가 들린다.

△ 리선자 괴로움을 참고 잠시 어찌할바를 몰라 서있다.

△ 박치욱이가 들어온다.

박치욱 선자동무가 안요?

리선자 네. (얼른 눈시울을 닦는다.)

박치욱 웬일이요?… 어, 진오아저씨 병문안을 온거로군. (의미심중히) 나도 병문안을 왔소.

리선자 (말이 없다.)

박치욱 그동안 나도 선자 속을 썩인 사람의 하나야.

리선자 네?

박치욱 어제 밤 난 당위원장동무와 밤새도록 담화를 했소. 나같이만 일을 한다면 다음엔 막다른 골목에 빠질거야. 선자동문 청산리교시를 참 잘 연구했소. 정말 난 귀중한걸 배웠다니.

리선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박치욱 아니야, 보라구. 인제 내 앞으론 절대로 과격한짓은 안할테니.

리선자 (기쁜듯이 미소를 짓는다.) 반장동무, 전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어요!

박치욱 가보라구! (나가는 선자를 의미있게 바라본다. 그리고는 진오의 방으로 다가간다.) 진오아저씨 계십니까?

최진오 (방에서 나와 반장을 보더니 말없이 퇴마루에 걸터앉는다.)

박치욱 몸이 좀 어떠세요?

최진오 …그만하오.

박치욱 조리를 잘하십쇼. 래일 진료소에 가서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오 씨 (방에서 나오며) 안예요. 그럴것까지는 없어요. 래일쯤은 일어날걸요.

박치욱 작업걱정은 마시구 다 나은 다음에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아저씨에게 제가 너무했습니다.

최진오 (달라진 박치욱을 게면쩍게 쳐다본다.)

박치욱 그저 반원들 분배몫 많게만 하자고 행정식으로 얼마나 관료주의를 부렸습니까. 하하하 이젠 그렇게 안하겠어요.

최진오 (자기자신도 가책이 되는듯 고개를 돌린다.)

박치욱 (로력수첩을 꺼내주며) 아저씨가 앓으시니까 식구들이 고생을 하시는군요. 도급밭은 아주 잘 매셨던데요.

최진오 …무슨 도급밭을 매?

오 씨 (로력수첩을 받아 펴보고) 아니 이게 웬일이유? 이틀로력이 적혀있으니…

최진오 …(치욱에게) 삭갈린게지, 딴 사람걸 올린게 안요?

박치욱 삭갈리다뇨? 분명히 아저씨가 떼맡은 도급밭은 매있던데요. 포전두 돌아보지 않고 로력공수를 매기겠습니까?

최진오 (의심쩍게 오씨를 바라보며) 임자가 나가 맸나?

오 씨 내가 맡은 일이 바쁜데 언제 맬새가 있어요.

박치욱 아니면 관필이가 맸겠지요. 하여간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 다음 나간다.)

오 씨 편안히 가슈. (진오에게) 아니 그게 웬일이유? 관필이 이틀동안 개간한 논에 피를 뽑았다고 하던데.

△ 이때 관필 삽을 들고 들어온다.

오 씨 어딜 갔다 오냐?

관 필 물고 좀 보구 와요.

최진오 너 내 도급밭 맸냐?

관 필 무슨 도급밭을 매요?…

최진오 사협둔덕너머 세필지짜리 말이다.

관 필 안요. 난 안 맸어요. 누가 아마 풀자라는게 안타까우니까

대신 매줬겠지요.

오 씨 누가 남의 도급밭을 매주고 로력까지 매겨주겠니?

관 필 지금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요. 아버지! 선잔 조금두 잘못 한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일이라면 발벗고나서서 도와 주려고 하는데 아버진 왜 자꾸 그 애를 미워하는거예요?

최진오 아니 그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뭐가 또 부족해서 그넌 칭찬이냐?

관 필 아버지두… 아버지가 하신 일은 조금도 생각 안하시고… 어서 선자동무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라요.

최진오 뭐 어떡해?…

관 필 좋아요. 정 리기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된다면 나도 딴 작업반으로 가고말겠어요.

최진오 뭐? 어디를 가? 이놈의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디 다시한번 말해봐라. (주먹으로 관필의 등덜미를 쥐여박는다.)

오 씨 아니 여보 미쳤소? 당신에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게 원쑤같소?

최진오 나가라. 애비 망신당하는걸 제 눈으로 보구두 선자니 뭐니 뇌까려. 뭐 리기주의? 어이후!

관 필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이며) 이 편질 보세요. 선자가 무엇이 안타까와서 제 차비까지 새겨가며 청룡리엘 수십번이나 드나들었겠어요. 그 완고한분이 여북하면 풀어졌겠어요? 그런데 아버진 피문은 원쑤처럼 선자를 미워하니 그게 어디 됐어요.

△ 이때 민청원들이 멀리서 혁명가요를 부르며 포전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오 씨 그런걸… 지금두 선자가 약을 가져온걸 갖은 욕을 다해 보냈단다.

관 필 아버진 반원이면서두 반실정을 너무도 모르세요. 저 노래소리를 들어보세요. 남들은 달빛도 새롭다고 일들을 하는데 이틀씩이나 일을 안 나가시니 도리루두 어디 그럴수 있느냐 말예요. 지금 곡식이 말할수 없이 잘됐는데 도대체 아버지나 제가 한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제발 부탁이예요. 도급밭을 누가 맸는지 매준 사람을 찾아서 도루 공수를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슨 소릴 들

을지 모릅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버린다.)

오 씨 그렇게 하슈. 이러다간 정말 남의 등 쳐먹는다는 소리 나겠쉐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 최진오 고민에 싸여 느티나무아래 멍석에 가앉는다.

△ 개똥벌레가 껌뻑거리며 그의 앞을 감돈다.

△ 리복선이가 들어온다.

리복선 옳지! 마침 계시구먼, 세상에 원 이런 법두 있소? 선자가 좀전에 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디까?

최진오 (말이 없다.)

리복선 내 그렇댔지. 원 무슨 애가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글쎄 그 애가 벌써 이틀째나 어디서 밤을 꼬박 새우고 들어와선 죽도록 몸살을 앓았나봅디다. 그리고 제 아픈것은 고사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와선 먹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고 나갔다지 않아요.

최진오 (가책이 되는듯 선자가 갖다논 약봉지를 돌아본다.)

리복선 그래 여기 오지 않았나 해서 찾아왔더니 벌써 어디루 갔구먼. 어디루 갔는지 모르시우?

최진오 (외면한채 멍해서 앉아만 있다.)

리복선 아니 별안간 귀머거리가 됐소? 대답두 할줄 모르게!

최진오 … …

리복선 나두 내 한나름이 있어 하는 말이오만 관필 아버지두 눈을 크게 뜨셔야겠쉐다. 선자가 김매기경쟁에서 구역적으로 일등을 못할것 같다고 얼마나 안이 달아하는지 아슈? 그런데 백주에 이틀씩이나 일을 안 나와요? 원 렴치가 좋쉐다! (타박을 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횡하니 가버린다.)

△ 최진오 깊은 생각에 잠겨 마루로 걸어오더니 선뜻 약봉지를 집어 물끄러미 바라본다.

최진오 주로력이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아간다구 남에게 로력공수를 누가 매겨주다니. (분연히 호미를 찾아들고 발머리를 향해 걸어간다.)

△ 그가 논배미에 나서자 둥근 달빛에 몽롱한 들판이 안겨온다.

△ 멀리서 들려오는 민청원들의 혁명가요소리.

△ 최진오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간다. 실실이 늘어선 버드나무옆을 지

나 밭으로 들어가려 할 때 무엇을 발견하고 문득 걸음을 멈춘다.

최진오 아니 저게 누구야? (급히 나무뒤에 숨는다.)

△ 김을 매며 나오던 선자가 호미를 들고 밭두렁에서 나온다. 몹시 피로한듯 샘물에 목을 추기고 바위에 가앉는다.

리선자 (혼자소리로) 야 정말 곡식들이 잘됐어. 저대루만 자라면 틀림없이 풍년일거야. (웃으며) 모두 고간에 그득그득 우대곡이랑 타서 쌓아놓고 춤들을 추겠지? (힘이 솟는듯 벌떡 일어나 다시 밭으로 들어가려다가 현기증을 일으키고 쓰러진다.)

△ 최진오 주춤하고 내다본다.

리선자 (다시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럴가? 밤 며칠 샜다고 쓰러지다니?…

△ 멀리서 막닭이 홰를 치며 운다.

리선자 막닭이 우네. (동쪽하늘을 바라본다.) 아,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동촌벌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가. 안개가 개이며 환히 트이는 조국의 동쪽하늘 얼마나 좋아, 우리 조합원들의 머리속도 저렇게 환히 트이기만 하면 지상락원두 조국통일두 더 빨리 당겨오겠지? 그런데 어쩌면 진오아저씬 그럴가?… 안야. 정말 몹시 아프신지두 몰라. 병이 다 나실 때까지 내가 아저씨몫을 해드려야 해! (하고 다시 일어나 들어가려 할 때)

최진오 (목이 메여 소리친다.) 선자야!

△ 선자 깜짝 놀라 돌아선다.

최진오 (말없이 어깨를 들먹이며 버드나무를 짚고 흐느낀다.)

리선자 (그에게로 달려간다.) 아저씨! 뭘 그러세요, 그만두세요!

최진오 (선자손을 덥석 잡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네야말루 진짜 새 농사군이다. 내 너한테 이 손자랑을 했다만 난 정말 몹쓸 놈이다. 나를 용서해라. 꼭 조합의 주인이 되마! (눈물을 닦고 휭하니 발고랑으로 들어간다.)

리선자 (눈이 새별처럼 빛난다.) 어쩌면 좋담! (진오 들어간쪽을 바라보다가 너무도 좋아 털썩 잔디밭에 앉더니 얼굴을 두손으로 얼싼다.)

△ 이때 박치욱이가 호미를 들고 오다가 선자를 발견하고 멈춰선다.

박치욱 누구요? (가까이 간다.)

리선자 (얼굴을 들고) 반장동무!

박치욱 아니 웬일이요, 눈물까지 흘리구!

리선자 (치욱의 손을 덥석 잡더니 언덕으로 올라간다.) 저걸 보세요. 누가 김을 매나 좀 보세요.

박치욱 음, 진오아저씨 안야? 선자동무가 애쓴 보람이 있구만, 수고했소! (굳게 손을 잡는다.)

리선자 다신 주인답지 않은 일은 안하겠다고 하셨어요!

△ 두 사람 어린애처럼 기쁨에 넘쳐 밭고랑을 오래동안 바라보는데 붉은 아침해살이 전야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암전—

제7장

1961년 정월, 최진오네 집에서.

집도 계절도 제1장과 같다. 다만 1장과 달리 크게 눈에 띄우는 것은 산같이 쌓인 로적가리다.

모두가 곳곳이 손이 가서 명절차림처럼 깨끗하다.

막이 오르면

날씨가 화창하고 온 마을이 흥성거린다.

△ 이번에는 건너마을이 아니라 바로 이쪽마을에서 농악소리가 울린다.

△ 최진오 끙끙대며 벼가마니를 지고 들어와 자꾸 덧쌓는다. 그리고는 흐뭇하여 바라본다.

△ 김준식이가 들어온다.

김준식 수고하십니다. 거지반 돼갑니까?

최진오 웬걸 또 가져올게 있어. 자 보게. 우리 집 안마당이 조합창고갈네. 난 아까 수령님께서 이앞을 지나 관리위원회로 가실 때 아예 죽을 죄를 진것만 같아서 고개를 못 들었네!

김준식 그러기에 모든 일에서 수령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청산리에서도 금년엔 아주 대풍이 들었답니다.

최진오 암, 수령님말씀대루만 하면 틀림없지, 그래 아직도 그분께선 리에서 담화를 하고계시나?

김준식 네, 리당에서 당위원장동무랑 선자랑 다 수령님을 뵈옵고

있습니다.

최진오 에이 내 그런줄 알았더면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던걸… 혹 수령님께서 담화를 하시다가 나를 몹쓸 농민이라고 꾸중이나 하시지 않겠는지 모르겠네!

김준식 앞으로 일을 잘하시면 돼요. 작년에 못한것까지 말입니다.

최진오 음, 내 해. 꼭 합세!

…

△ 이때 농악소리가 높아지며 관필이가 뛰여들어온다.

관 필 아버지, 저기 선자가 옵니다. 수령님을 뵈옵고 모두 덩실 덩실 춤들을 추고 와요.

최진오 뭐라구? 음 그럼 칭찬을 받은게로구나.

△ 최진오 관필이를 따라 농악소리나는쪽을 향해 달려나간다.

△ 농악소리, 환성이 들끓는다.

△ 운전수 강철수와 길남이도 무대를 가로질러 건너가고 오씨와 허씨도 방에서 달려나와 웅성거리는쪽을 바라본다.

△ 이윽고 안병훈, 박치욱을 선두로 리선자가 흥분에 차서 뛰여들어온다. 그러더니 로적가리를 쳐다보다가 덥석 껴안고 어깨가 들먹인다.

△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둘러싸고 웅성댄다.

최진오 쉬— 조용해! (군중들 쥐죽은듯 조용해진다. 큰기침을 하고) 선자야, 고만! 고만두래도…

리선자 (돌아서 얼른 눈시울을 닦는다.)

최진오 네 마음을 내 안다. 알아! (자기도 눈물을 씻는다.)

리복선 아니 경사스런 날에 눈물은 왜들 흘리시우? (그러나 자기도 눈시울을 닦고) 그래 수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리선자 (흥분에 차서 말을 못한다.)

최진오 어서 말 좀 해라. 그래 조합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던 못했다고 말씀하시던?…

리선자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부탁하듯) 당위원장동무!

안병훈 하하하 (군중을 향해)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요. 한마디루 말해서 작년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기와 비해볼 때 땅도 그 땅이요 사람도 그 사람인데 낟알은 근 곱절이나 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농사를 지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일동 웅성거린다.

안병훈 그래서 금년 우리 조합에선 백만톤증산을 위해서 강냉이와 벼를 정당 여섯톤씩 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그렇게 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낼만 합니까?

△ 일동 《암, 하고말고》, 《꼭 해야지》 등등 웅성거린다.

안병훈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떠나실 때 여기 이 선자동무가 작년에 군중을 옳게 발동시킨것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동무야말로 훌륭한 공산주의자이며 농촌의 길확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일동 《원, 저런》, 《참 영광스럽다》 등등 선자를 둘러싼다.

리복선 얘, 선자야, 그래도 넌 선동원이 아니냐? 그처럼 말 잘하던 버릇이 다 어디 갔냐? 어서 한마디 하렴.

△ 일동 조용한 가운데 그를 주시한다.

리선자 (간신히 숨을 모아) 래일부터 두엄을 더 많이 내야겠어요!

△ 일동 《원 애두 겨우 그뿐이냐?》 하고 웃음이 터진다.

강철수 (앞으로 나오며) 여러분! 제가 작업소로동자일동을 대표해서 선자동무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을 주며) 백만톤을 위하여! (악수한다.)

△ 일동 박수를 친다.

△ 농악소리가 한결 높아진다.

△ 이때 원숙이가 헐레벌떡 뛰여들어온다.

원 숙 여러분, 지금 선전실 마당에서 농악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춤들을 추시래요.

△ 일동 둔덕을 넘어가려는데 건너마을에서도 농악소리가 한창이다.

원 숙 건너마을에서예요!

박치욱 도처에 만풍년이올시다.

최진오 얘, 선자야! (손목을 덥석 쥐며) 내 이젠 네 말대로 당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내겠다.

리선자 (웃으며) 당에선 백만톤증산을 우리에게 과업 주었어요. 꼭 해내시자요!

최진오 어, 하고말고! 내 꼭 하마!

△ 희희락락하여 모두 손목을 잡고 둔덕을 넘어가는데 사방에서 농악소리 더욱 고조된다.

—암전—

문학작품의 구성

문학작품에는 여러 인물과 여러 사건들이 일정한 관계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루며 엮어져있다.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엮을것인가, 작품을 쓰는 작가앞에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구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재미있고 뜻이 깊은 극으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생활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보여주어야 할 작가에게도 이야기를 꾸미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성이다.》

구성은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이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다. 간단히 말하여 문학작품에서 이야기를 꾸미는 독특한 형식이다.

구성을 잘하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집은 무너지기마련이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묘사가 잘되였다 하더라도 구성을 잘 엮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격으로 작품이 뒤집히고만다.

문학작품에서 구성은 몇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구성의 첫째 요소는 인물관계이다.

인물관계란 작품에서 인물들의 배치와 그들의 호상관계를 말한다.

작가가 옳다고 내세운 인물을 긍정인물이라고 하고 작가가 비판하고 규탄한 인물을 부정인물이라고 한다. 이가운데서 형상의 중심에 서서 주제를 해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긍정인물일수도 있고 부정인물일수도 있다.

인물관계를 맺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을 돋구는데 복종되도록 하는것이다.

희곡 《붉은 선동원》에서 주인공은 리선자이다. 그를 중심으로 하여 작업반장 박치욱, 민청위원장 김봉환 등이 긍정인물로 설정되여있고 리복선, 최관필, 최진오가 부정인물로 설정되여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철저히 우리 당의 인간개조방침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선동원 리선자의 형상을 부각시키는데 복종되고있다.

구성의 둘째 요소는 이야기줄거리이다.

이야기줄거리란 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진 이야기의 흐름이다. 작품의 이야기에는 사건과 함께 일화와 생활세부, 인물의 심리와 경력 같은것이 들어간다.

이야기줄거리에서 기본은 사건줄거리이다. 그것은 환경전개와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으로 엮어진다. 사건줄거리는 기본줄거리(주선)와 부차적줄거리(부선)로 나눈다.

희곡 《붉은 선동원》에서는 허술한 분배를 타놓고 각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묘사한 제1장을 환경전개로 하고 개간공사장에서 엇나오는 리복선, 최관필, 최진오령감과 리선자를 비롯한 긍부정인물들사이에 첫 충돌이 벌어지는것을 묘사한 제2장을 발생으로 하여 사건선이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제3장에서의 리복선의 개조, 제4장에서의 최관필의 개조, 제5장을 거쳐 제6장에서의 최진오의 개조는 사건발전이다. 제7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리선자와 풍년든 마을에 차넘치는 기쁨과 새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절정과 해결이다.

여기서 리복선, 최관필, 최진오를 개조하기 위한 리선자의 활동이 기본줄거리라면 같은 긍정인물이면서도 거치른 작업반장 박치욱과 민청위원장 김봉환이 감화되는 이야기, 관필의 약혼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부차적줄거리이다.

일화는 이러한 사건선과 직접적관련이 없지만 인물의 성격을 살리고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뜻깊게 만들기 위해 작가가 끼워넣은 짤막한 생활적이야기이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달래강전설이야기, 중편소설 《전사들》에서 꼬아리이야기 등을 실례로 들수 있다.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도 중요한것은 주선을 살리는데로 부선들이 맞물려들어가게 하는것이다.

구성의 셋째 요소는 갈등이다.

갈등이란 문학작품에 반영된 새것과 낡은것, 서로 상반되는 계급적립장과 사상의 대립과 충돌, 불일치를 말한다. 문학에서 갈등

은 생활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갈등에도 기본갈등과 부차적갈등이 있다. 희곡 《붉은 선동원》에서 선자와 리복선, 최판필, 최진오와의 갈등은 기본갈등이고 리선자와 박치욱의 갈등은 부차적갈등이다.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적대적갈등과 비적대적갈등으로 나눈다. 이것을 불상용적갈등, 상용적갈등이라고도 부른다. 적대적갈등은 계급적으로 적대된 인물 혹은 세력들사이의 갈등이고 비적대적갈등은 같은 진영안에서의 갈등이다. 중편소설 《전사들》에서 조선인민과 미제와의 갈등은 적대적갈등이고 박대우와 구본수와의 갈등은 비적대적갈등이다.

적대적갈등은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되며 한 일방이 타도되거나 서로 갈라지는것으로 해결된다. 비적대적갈등 특히 사회주의 근로자들사이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을 거쳐 동지적으로 서로 결합되는것으로 해결된다.

구성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감정조직은 인물들사이,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짜나가는 형상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감정조직은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인물들사이,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짜나가는 형상작업이다.

감정조직에서는 인물들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잘 맞물리면서 그것이 독자에게 전달되여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세계에 끊임없이 이끌려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작품이 독자들에게 커다란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재미있게 읽히자면 작가자신이 독자의 심리에 정통하여 그의 감정상태가 어떠하겠는가를 늘 상상하며 글을 써야 한다. 작품에서 인물이 웃고 울고 흥분하여도 독자에게 공감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

이 작품은 작가 리종순이 1960년에 창작한 장막희곡(4막 8장)이다. 희곡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가 1936년 가을 압록강연안인 창바이땅에 진출한 초기부터 다음해 6월초 보천보에로의 진군을 하기 직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에 나오는 박성룡은 약혼녀의 첫날옷 한벌도 장만하지 못하여 성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난하고 쪼들린 생활을 해나가는 농촌청년이였다.

그는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무한히 격동되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는 마을에 온 항일유격대정치공작원 문영이와 조국광복회회원인 한장록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며 드디여 죄없는 아버지에게 모진 행패를 하는 경찰놈을 때려눕히고 조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유격대에 입대한다.

성룡은 유격대에서 그처럼 흠모하여마지 않던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과 교양을 받으면서 어엿한 혁명투사로 자라난다. 그는 전투에서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참지 못하여 규률을 위반하고 총가목을 부러뜨리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성룡에게 간고한 투쟁속에서 얻어진 총에 깃든 사연을 말씀해주시며 몸소 총가목을 고쳐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속에서 성룡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자랄 굳은 결심을 다진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한편 문영이는 1937년 초봄 조국에로 진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국내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길에 적들에게 체포된다. 성룡은 사령관동지께 문영이를 구출하는데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씀올린다.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주신 권총을 받은 성룡은 마을에 내려가

서 한장록과 함께 대담하게 경찰서를 습격하여 문영이를 구출하여 가지고 부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마지막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국내진공을 앞두고 안개가 걷히는 조국땅을 굽어보시며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나오는 사람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

박성룡 (유격대원)

문 영 정치공작원(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의 정치부성원)

주원순 그의 안해, 항일유격대원

오영우 항일유격대 련대장

정치부주임

중대장

소대장

전령병

때: 1936년 가을부터 다음해 6월초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의 보천보에로 진군을 하기 직전까지.

곳: 창바이현에서

제2막

제4장

허이샤쯔거우(희샤즈거우)밀영지의 사령부건물앞. 사면 숲에 둘러싸인 깊은 산속의 경사지이다.

사령부의 귀틀집은 무대정면에 우뚝 나온 바위의 모서리에 가리우고 봇나무숲에 덮여서 그 지붕의 한끝만이 바라보인다. 사령부쪽 언덕배기로 올라가 돌층계우에는 보초가 주위를 살피면서 서있다.

왼쪽으로도 숲속 먼데로 큰 병사건물이 바라보인다.

이곳이 1936년 가을과 겨울의 조선인민혁명군 총참모부이다.

이른아침, 아침노을이 온 누리를 붉게 태우는 속에서 유격대원

들의 생활이 들끓고있다.

△ 젊은 대원 주전자를 들고 언덕우로 뛰여올라간다. 이때 한 유격대원이 찾아들어온다.

한 유격대원 사령관동지 계셔요?

젊은 대원 회의중입니다.

한 유격대원 만나뵈올수 없을가?

젊은 대원 지금 일이 바쁘신것 같습니다.

한 유격대원 지금 경위중대가 적수송대를 습격하고 돌아왔다고 말씀 전해주시오. 다른 일은 없었소. 다시 보고하러 오겠소.

젊은 대원 예! 전하겠습니다.

△ 젊은 대원 언덕을 넘어가고 한 유격대원은 나간다. 로획한 물자를 운반하는 유격대원들 지나간다. 아래쪽에서 주원순, 전령병, 박성룡 들어온다.

주원순 저아래 바위 있는데 가서 기다리세요.

박성룡 네! (언덕아래 바위있는쪽으로 나간다.)

△ 사령부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온다.

언덕아래의 소리―《차렷! 련대장동지! 전 중대는 출전준비를 끝내고 사령관동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오영우 쉬엿하시오! 동지들! 사령관동지께서는 사정에 의하여 우리와 함께 못 떠나시게 되오. 차렷―

△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신다. 뒤를 따라 지휘성원들이 나온다.

김일성장군님 쉬엿하시오.

오영우 쉬엿―

김일성장군님 (중대장들과 악수를 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출전은 전과 같이 창바이에서 혁명의 처녀지를 개척하는 대선전전이요. 조국과 인민의 원쑤를 추호도 용서마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들의 백전백승의 혁명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시오. 손에 무기를 잡고 인민의 원쑤를 때리는것이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란것을 로농대중에게 보여주시오.

오영우 혁명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고 진두에 붉은기를 세차게 휘날리라. 인민 만세!

△ 기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대렬로 내려간다. 언덕아래의 대렬이 함성으로 호응한다.

진군나팔소리, 북소리, 구령소리.

대렬이 떠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을 들어 환송하신다.

전령병 저— 갑산덕에서 청년이 왔습니다.

김일성장군님 만나봅시다.

△ 전령병 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저녁노을이 비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다.

박성룡 (언덕아래에서 뛰여올라와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곁으로 다가간다.) 여보십시오, 말씀 좀 물읍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박성룡을 돌아보신다.

박성룡 이자 절 데리고 오신분이 어디로 갔는가요?

김일성장군님 (박성룡의 낯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당신이 갑산덕에서 온분이시오?

박성룡 네! (대답을 하고는 전령병을 찾아 주의는 다른 곳에 쏠리고있다.)

김일성장군님 그 어린 동무를 찾소? 이제 올게요.

박성룡 그 사람이 저를 저아래 바위앞에서 떠나지 말라는걸 그만…

김일성장군님 여기로 올게요. 앉아서 기다립시다. (박성룡의 팔을 끼고 잔디에 가서 앉으신다.)

△ 박성룡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박성룡의 얼굴을 바라보신다.

△ 박성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눈길에 부딪치고 똑바로 앉는다.

김일성장군님 당신 이야긴 들었소. 집의 일이 참 안됐소.

△ 박성룡 물끄러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쳐다본다.

김일성장군님 그래 집은 어떻게 하고 떠났소?

박성룡 어떻게 할게 뭐 있습니까? 순사까지 때린 나를 그놈들이 살려둘리는 없겠구, 아버지가 대신 통비분자루 잽혀갔지요. 누이동생은 아는 집에 맡기구, 집이 비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집이 텅 비였소? 아무도 없단 말이요?

박성룡 식구란게 그뿐인걸요. 그까짓 집이야 백년을 비워둬두 가져갈건 아무것도 없소다만…

김일성장군님 참 안됐소. 집이 텅 비였군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우리 나라 온 살림이 당신 집처럼 그처럼 스산한 형편이요. 오늘 우리 조선인민의 처지가 뉘나없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그렇게 헤매고있소.

박성룡 그래두 산 사람은 죽지 않구 어떻게라두 산답니다. (하고 구슬픈 웃음을 짓는다.)

김일성장군님 그렇소! 살구말구요. 죽지 않지요. 살다뿐이겠소! 당신의 말이 옳소!

박성룡 당신도 이 부대에서 일보십니까?

김일성장군님 그렇소.

박성룡 오랩니까?

김일성장군님 얼마쯤 되오.

박성룡 그런데 총을 아직 못 가지셨나요! (총이 없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몸차림을 넌지시 살펴본다.)

김일성장군님 총이요? 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듯) 나도 총을 받았소. 당신도 이제 총을 가지게 될게요.

박성룡 글쎄요. 나 같은 놈에게도 총을 줄가요?

김일성장군님 총을 가지게 되면 일제놈들과 싸울수 있겠소?

박성룡 총쏘는 재주만 배워준다면야 뭐 못할게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그놈의 법이 무서워 꼼짝 못한게죠.

김일성장군님 허허… 그랬을게요. 그러나 무서워만 말고 그 강도놈들의 법을 때려부셔야 하오.

박성룡 정말 강도란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놈들의 생억지판에 생사람들이 죽어가는걸요. 다 나라없는 설음입니다.

김일성장군님 그 나라를 누가 팔아먹었소? 역적이 있소. 일제놈과 같은자들이 있단 말이요.

박성룡 있다뿐인가요. 지금도 그런것들이 더 우쭐대는걸요. 눈꼴이 시여서…

김일성장군님 당신네 마을에도 그런자들이 있소?

박성룡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좋습니다. 두고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은 괜찮은가봐요.

김일성장군님 그래, 갑산덕사람들은 우리 혁명군에 대해서 뭐라구 하오?

박성룡 아직 혁명군을 보지는 못했어두 신바람들이 났지요.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종이 한장을 놓고 큰 강물두 건너가신다면서요?

김일성장군님 글쎄…

박성룡 아니 여기 계신다면서 **김일성**장군님을 모르시는가요? 혁명군에 들게 되면 축지법두 배워주신다던데요? 그게 정말입니까?

김일성장군님 축지법… 나는 아직 채 배우지 못했소.

박성룡 예? 배우는중이군요. 그런데 혁명군에 들게만 되면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뵐수 있겠군요?

김일성장군님 있구말구요.

박성룡 어떤분이신가요? (바싹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곁에 다가앉는다.)

김일성장군님 어떻게 생겼더라, 키가 구척이고 눈꼬리가 우로 쭉 째진 장수그림을 봤지요? 그렇소. 조용히 말해도 산이 드릉드릉 울리지요. 그리고 뭐드라… 이제 만나보면 알게 되오. (하고 통쾌하고 호탕하게 웃으신다.)

박성룡 네?! (의아해한다.)

△ 전령병 병영쪽에서 나타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박성룡에게 이야기하시는것을 보고 전령병의 임무를 지키는듯 먼바로 서서 주위를 살핀다.

김일성장군님 (일어나시며) 내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소. 여기를 구경도 하고 푹 쉬시오.

박성룡 (따라 일어나며) 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사령부로 올라가신다. 전령병 박성룡의 곁으로 다가온다.

박성룡 나를 찾았소?

전령병 됐어요. 그런데 이자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박성룡 참 좋은분인데요. 나처럼 농사군이였던지 우리와 말두 통하구 여러가지 이야길 잘 들었소.

전령병 누구를 그래요?
박성룡 이자 그분 말이요.
전령병 사령관동지 말이예요? 아니 모르고 대했어요?
박성룡 아니 뭐요?! 그분이. (놀람과 감격에 싸여 몇걸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가신쪽으로 따라가며 혼자말로) 그분이?!…

제5장

허이샤쯔거우밀영지에서
4장과 같다. 전장에서 약 석달후
△ 이동보초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언덕아래에 멈춰서서 사령부의 창문불빛을 바라본다.
한 보초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 주무시지 않는것 같소. 벌써 세시가 넘었는데.
△ 보초들이 지나간다.
소대장 박성룡과 한 대원을 데리고 언덕아래에서 올라와 그들을 바위앞에 세워두고 사령부로 찾아들어간다. 이윽고 중대장이 한 사람의 대원과 함께 숲속에서 나타난다.
한 대원 (중대장의 앞에 나서며)
중대장동무!
중대장 (반색하며) 돌아왔소! 수고했소!
한 대원 소대장동무는 장도구의 정찰결과를 보고하러 사령부로 갔습니다.
중대장 성룡동무가 함께 갔으니 정찰은 아주 잘됐을거요. 갑산덕이 바로 그 장도구에 속한 마을이지요?
박성룡 예! 시오리밖에 안됩니다.
중대장 래일 새벽 그 장도구습격전이요. 우리 중대에도 그 전투준비명령이 내렸소. (박성룡의 어깨를 툭 치며) 아버님이 갇혀있는 경찰서를 치오. 어떻소? 기운이 나지 않소?
박성룡 중대장동무! (하고 심상치 않은 얼굴로 중대장을 쳐다본다.)
중대장 왜 그러오?

박성룡 중대장동무！ 총을 부러뜨렸습니다. (어깨에서 총을 내려서 받들어들고 머리를 푹 숙인다.)

중대장 … …

한 대원 돌아오는 길에 얼다오강(2도강)앞골에서 네놈의 적과 가까이 맞다들었습니다. 모두 일제놈들이였습니다. 세놈은 쏴 죽였는데 한놈이 달아났습니다. 소대장동무는 그냥 가자고 지시했는데 성룡동무는 그냥 그놈을 쫓아갔습니다.

중대장 왜 소대장동무의 지시를 듣지 않았소?

박성룡 일제놈이 미운 생각에…

중대장 그래서 총을 몽둥이로 썼소?

박성룡 그놈을 총탁으로 까버린다는게 그만 바위를 때렸습니다.

중대장 그래서?

박성룡 그래 그놈은 죽였으나 총은 이렇게…

중대장 (자기가 데리고오던 대원에게) 먼저 보초선에 가서 기다리시오.

대 원 네！ (하고 언덕아래로 내려간다.)

중대장 전투엔 몇번 참가했게 그러오?

박성룡 작은 전투까지 십여회 됩니다.

중대장 그 회수를 알자는게 아니요.

박성룡 …

중대장 동무가 입대한지 벌써 석달이나 되오.
혁명정세는 우리들에게 분을 시간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소. 한달이면 그 60배인 5년의 시간을 쟁취해야 하오. 이것이 현실의 요구요. 더우기 동무의 총은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주신 총이 아니요！

박성룡 예！ 어떤 책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중대장동무, 그러나 장도구습격전에만은 참가시켜주십시오. 제 아버지의 원쑤를 이 아들이 갚게 해주십시오.

중대장 혁명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요. (어성을 높여서) 동무는 우리 총의 력사를 모르고있소. 그러기때문에 규률을 지키지 않는거요. 혁명무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총을 잡을수 있겠소?

박성룡 중대장동무！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있다.)

중대장 벌써 몇번이요? 지시없는 총질을 해서 전투에 혼란을 일

으키지 않았는가 하면 또 총을 꺾어먹구…

내가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있소. (언덕아래로 내려 간다.)

한 대원 나는 자넬 비판하는 중대장동무의 얼굴에서 눈물을 봤네! 참말 우리 총의 력사가 깊고깊지. 자네도 지난날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총들이 어떤 피바다를 거쳐왔는가?

△ 소대장 돌층계를 바쁘게 내려온다.

소대장 장도구로의 출전준비요.

한 대원 소대장동무! (하고 소대장곁에 가서 귀속말을 수군거린다.)

△ 소대장 박성룡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냥 밀영쪽으로 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신다. 뒤를 따라 문영, 오영우, 전령병이 나온다. 박성룡이 자리를 피해 숨는다.

김일성장군님 날씨가 차지는군.

문 영 그래두 여기가 지엔다오의 겨울보다는 좀 나은것 같습니다.

김일성장군님 그렇지두 않을게요.… 아직두 겨울은 초어구거든. … 베이지엔다오바람은 나그네를 울리고 시지엔다오(서간도)바람은 짐승을 울린다는 말이 있소. 그 시지엔다오가 바로 이 창바이요.

오영우 그럴겝니다. 여기가 위도는 아래지만 지대는 훨씬 높을테니까요.

김일성장군님 높구말구요. 훨씬 높소. 백두산밑이 아니요. 우리가 있는 허이샤쯔거우만 해도 1 500이 넘소.

저뒤 홍터우산(홍두산)은 2 000이 넘고. 이제 순한 겨울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뵈일게요. (잠시 사이)

문영동무의 이번 공작이 정말 중요하오. 그러니 련대장이 압록강까지 문영동무의 호위병이 되였군!

오영우 네! 장도구를 때리면 놈들의 국경경비는 불을 뿜는 우리 련대에로 집중될테니까 강을 건느기에는 좋은 기회로 될겝니다. 문영동무! 잘못하면 우리 련대는 헛수고를 하게 되오.

문 영 걱정이 태산이군. 태산이 언덕이요 대강이 개울이라 하지 않았소.

김일성장군님 어쨌든 조국땅을 밟는 동무가 부럽소! 잘하고 돌아오오. 기다리겠소. 동무의 자료가 우리의 국내진공에 대한 작전계획의 중요한 밑천으로 될게요.

문 영 명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국땅에 가면 강점자에게 더렵히운 굴욕의 진창만을 보지 마시오. 조국산천의 그윽한 향기를 맡아야 하오. 우리 겨레들이 반드시 꺾이지 않는 힘으로 새로운 살림을 꾸릴것이요.

겨레들의 전체 희망, 인민들의 전체 미래는 오직 우리에게 있소. 우리들이 오늘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고난의 주추돌은 높이 솟아 영광스러운 당의 탑을 이룩할것이요. (잠시 명상에 잠기신다.) 떠나시오.

문 영 네!

김일성장군님 그사이에 갑산덕에는 동무대신 동무의 안해를 보내겠소!

문 영 네!

김일성장군님 동무의 안해도 그런 일을 해봐야 지하공작을 하는 남편을 더 리해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오. (호탕하신 웃음)

문 영 그럼 마을에 들렸다가 다시 뵙지 못하고 떠나겠습니다.

김일성장군님 떠나시오. 동무가 돌아오는것을 기다려서 국내진공을 하겠소.

△ 문영 퇴장, 오영우 따라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다.

전령병 (박성룡을 발견하고) 성룡동무 아니예요?

김일성장군님 왜 그러구 섰소.

박성룡 (고개를 들며) 저— 중대장동무가 자기가 부를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응— 벌을 섰소?

박성룡 예!

김일성장군님 나도 소대장동무에게서 들었소. 성룡동무! 중대장동무가 먼길을 갔다온 동무를 왜 쉬게 하지 않고 눈보라가 날리며 바람이 찬 이곳에 세워두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오. 그 사람이 왜 노했겠소.

우리는 지엔다오에서 처음엔 맨주먹으로 무장한 적들을 때려눕히고 무기를 빼앗아내야 했소. 수많은 동지들이 그 싸움에서 희생되였소. 귀중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했소. 혁명을 위하여, 제 나라를 도로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총이 필요하였소. 그러니 부모형제나 동지들의 시체를 넘어서라도 그 총을 가져와야 하였소. 많은 동지들과 인민들이 목숨을 바쳤소. 이렇게 모은것이 우리 대오의 첫 무장이요. 성룡동무, 중대장동무가 왜 노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오.

박성룡 (머리를 숙이고 소리없이 울다가)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성장군님 동지를 노엽히지 말아야 하오. 그 동지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 동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성심성의 노력하는것이 공산주의자의 우정이요. 자— 그래 총이 어떤 꼴이 됐소? 좀 봅시다.

박성룡 (어깨에 메였던 총을 벗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받들어드린다.)

김일성장군님 (파괴된 총탁을 살펴보시며) 응! 잘 손질하면 여게서라도 고칠수 있겠소. 총수리할줄은 모르오?

박성룡 아직 그런 기술은 못 배웠습니다.

김일성장군님 그게 무슨 큰 기술이겠소? 그만한 일은 배우면 곧 할수 있소. 우리의 병기창은 먼 백두산밀영에 있소. 일일이 어떻게 그곳만 바라보겠소. 어지간한 일은 자체로 할줄 알아야 하오. 혁명을 하려면 총쏘는것만으로는 안되오. 공부도 하고 연설도 잘해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고 옷도 깁고 모든 일을 다 할줄 알아야 하오.

박성룡 네! 총수리부터 곧 배우겠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이 총은 내가 고쳐보지. (전령병에게) 오섭동무, 가느다란 못을 만들수 있는 철사가 있지?

전령병 네!

김일성장군님 그것을 내 방에 갖다놓소.

전령병 (총을 받으며) 네!

박성룡 사령관동지! 동무들의 힘을 빌려서 제 손으로 고쳐보겠

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우리 같이 고쳐보자구. 성룡이, 혁명이 힘들지?

박성룡 일없습니다.

김일성장군님 힘들게요. 왜 힘들지 않겠소. 배는 고프지, 매일 눈속을 헤치면서 수백리씩 행군을 해야지, 잠은 옷을 입은채로 눈우에서 자야지, 게다가 규률은 강하지, 왜 힘들지 않겠소!

박성룡 저의 각오는 든든합니다.

김일성장군님 그래 오늘 정찰나갔다가 무슨 얘기 못 들었소?

박성룡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놈들의 손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 그럼 집이 텅 비였겠소!

박성룡 네! 어린 누이동생이 남아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 금단이… 내게도 지금 어데서인지 헤매고있을 동생이 하나 있소! (한참동안 사이, 박성룡앞에 다가가시여 그의 어깨를 잡으시고)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를 잃은 불행보다 더 큰 아픔이 어데 있겠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 지금 우리 조선천지를 휩쓸고있소. 큰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크게 생각해야 하오. 조선의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오!

박성룡 사령관동지! 잘 알았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좋소, 한참 푹 쉬고있다가 내 방으로 총 가지러 오시오. (하고 들어가신다.)

△ 박성룡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다. 이윽고 사령부의 창문에 총을 고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이 비친다.

박성룡 (한참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다.)

사령관동지!

—막—

[명언]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을 잃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김 정 일

대하는 흐른다

이 작품은 작가 천세봉이 1962년에 창작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소설을 각색한 연극《대하는 흐른다》를 보시고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훌륭히 형상하였으며 농촌기본계급들에 대한 표현이 잘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작품은 1945년 8.15직전으로부터 해방후 토지개혁이 수행되는 기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농촌에서 벌어진 첨예한 계급투쟁을 반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토지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거대한 력량, 도도히 굽이치는 위대한 진리의 대하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뜻깊은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주인공 마영기의 성격장성과정이 중심내용으로 되고있다.

마영기는 지주 배덕수의 모진 소작살이에 한생을 바친 빈농 마봉서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며 고생속에 살아온 청년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일제패망직전에 징병에 끌려나갔던 마영기가 자기 동료들을 무참하게 총살하는 일제놈들의 횡포한 만행에 참을수 없어 단신으로 장교놈을 처단하고 권총을 빼앗아든채 도망쳐 산속에 숨어다니다가 해방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고향역에 내리자마자 마영기는 군경찰서를 무장해제하는 싸움에 스스로 앞장서서 발악하는 서장놈을 쏘아눕힌다. 그러고도 자치대사업을 함께 하자는 권고는 마다하고 농사나 짓겠다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에게는 아직 계급적자각이나 혁명의식이 옳게 서있지 못했다. 《큰 사업》, 《큰 투쟁》에 대한 열망은 불탔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것이며 무엇을 목적한것인가를 그는 똑똑히 알지 못했

다. 그가 보여준 대담한 행동은 단순한 의협심이나 청년혈기에서 나온것이였다.

때문에 마을에 돌아온 그는 배덕수가 무슨 큰 존재길래 온 군이 달라붙어 온통 끓고 야단인가고 머리를 젓기도 하며 배명희의 외삼촌 춘실을 농조(농민조합)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구안동농조회의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공청조직에 수많은 마을청년들을 받아들이고 공청야학까지 열어 배지주의 딸인 명희를 야학선생으로 초대까지 한 마영기는 일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반당종파분자 최일벽이 공청을 정수분자들로만 꾸리지 않았다고 마구 닦아세우자 그와 맞서 싸울뿐아니라 신구안동의 청년들을 모조리 그러모아 공청조직에 대치되는 다른 청년조직을 제멋대로 새로 내오기도 한다. 심지어 최일벽이 자기에게 불손하게 굴었다고 영기를 그의 집에 가두고 자위대원으로 무장보초를 세우자 그 보초를 주먹으로 쳐넘기고 달아나 어느 굴속에 숨어있기도 한다.

이러하던 마영기의 사상에 전환이 이룩되게 된것은 그의 매부인 군당비서 강형진의 사상적영향과 그자신의 심각한 생활체험이였다.

군당비서 강형진은 매부로서뿐아니라 당일군으로서 마영기를 꾸준히 설복하고 교양한다. 마영기를 군에서 실시하는 강습에도 참가시키고 3,7제실시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도 내세우며 계급투쟁에 몸바쳐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교양도 한다. 이러한 속에서 마영기의 가슴속에는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이 뚜렷이 싹트고 자라게 된다.

이러한 마영기에게 한번은 배덕수가 자기 딸 명희와의 약혼문제를 제기해온다. 명희로 말하면 배덕수가 빚대신에 강제로 끌어다 첩으로 만든 소작농녀인이 낳은 딸이다. 그래서 명희는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에서는 천한 녀자가 낳은 딸이라고 괄시를 받았고 밖에 나와서는 지주의 딸이라고 외면을 당하던 녀자였다. 지금까지 마영기는 명희를 배지주의 딸로가 아니라 지주의 첩으로 불쌍하게 죽은 소작농의 딸로만 보아왔고 그래서 그를 동정하고 사랑했었다. 그런데 배지주는 바로 그 명희를 미끼로 자기를 손아귀에 쥐려는것이였다. 나아가서는 자기를 통하여 매부인 군당비서의 호감을 사려는것이였다.

이것은 참으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였다. 어찌 지난날 자기 아버

지를 마소처럼 여기고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짜내던 원쑤 배지주의 검은 리속을 채우려는 음흉한 책동에 말려들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배덕수의 청혼을 거부한다. 강형진은 그를 정치강습소에 보낸다.

마영기는 정치강습소에서 강습을 함께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됐고 딱친구가 된 철도로동자 장길봉이와 3,7제투쟁에 나선다.

3,7제투쟁이 벌어지자 음흉한 배지주는 마름들을 내세워 작인들에게 이전처럼 소작료를 바치지 않으면 땅을 뗀다고 위협하면서 몰래 소작료를 받아들인다.

어느날 밤 봉래면에서 마름놈의 휘동하에 농민들이 달구지에 소작료를 싣고 배지주네 집으로 오고있다는 통보를 받은 마영기는 장길봉이와 함께 길목을 지킨다. 과연 통보가 틀림없었다. 그들은 농민들을 설복한다. 그런데 이때 농민들을 휘동해오던 마름놈이 장길봉이를 사냥총으로 쏜다. 장길봉은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끝내 희생되고만다.

장길봉의 시체를 묻고 돌아오는 마영기는 심장으로 이렇게 부르짖는다.

(바로 우리의 투쟁이란 이렇게 준엄한것이로구나！…)

(아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혁명투쟁이 간단하다니？)

그는 계급투쟁이 모험이 아니라 판가리를 하는 준엄한 투쟁이라고 일깨워주던 강형진의 충고의 참뜻을 비로소 깊이 깨닫는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섰을 때의 마영기는 농촌혁명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지주의 땅문서를 압수하기 위해 배덕수놈의 집에 갔을 때 마영기는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배덕수를 단호하게 억누르고 그놈의 사타구니에서 금고열쇠를 앗아내며 땅문서를 모조리 압수한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는 명희에게 조금도 미련없이 결단성있게 결별을 선언한다.

배덕수는 더는 배겨낼수 없어 남으로 도주한다.

… …

장길봉이와 마영기는 마침 한방에 있게 되였다. 다다미 몇장 깐 합숙방 한방을 둘이 차지하게 되여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길로 한바탕 다리를 걸고 씨름을 했다. 장길봉이는 몸집이 우람하고 주먹이 소대가리만치나 험하고 컸다.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마영기의 맘에 대뜸 들었다.

둘이는 배우자는 열성이 대단했다.

… …

어떤 날 밤엔 둘이 누워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여봐! 마동무, 동무는 앞으로 뭐가 되갔어?》

《뭐가 되다니? 농사군이 뭐 다른게 될게 있어?》

《챠, 이게 밤낮 농사만 하갔어? 로동계급이 돼야디.》

《로동계급이 되다니? 동무처럼 기관차화부노릇하란 말야?》

《글쎄 화부가 돼두 좋구 공장로동자가 돼두 좋구 어쨌든 혁명에선 로동계급이 첫째가거든.…》

《동무, 그래 농민을 무시하는가?》

《무시하지야 않지, 무시할것 같으면 로농동맹을 하갔어?》

《난 농사를 질테야. 농사가 좀 좋아? 봄에 밭갈구 여름에 김매구 가을에 추수하구 좀 좋아? 지주만 없어지면 농촌이 락원이지.》

《챠, 이게 벌써 락후한 소릴 하잖나? 다리 펴고 락원에서 살 생각부터 하갔어? 그러니까 농민이란거야. 우리 로동계급은 안 그렇거든.… 주먹을 쥐구 혁명을 해야 해, 알갔나?》

《아니, 혁명을 하고나서 또 혁명을 해?》

《우리 혁명만 하갔어? 세계도 혁명을 시켜야지.… 우리 로동계급 담보는 이래. 만국의 로동자야 단결하라는 소리 못 들었어? 이게 세계로동계급이 단결해서 세계혁명한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우리 조선로동계급이 조선혁명만 하구 가만있갔어? 세계혁명에서두 한몫 해야지.》

마영기는 가슴이 찡했다. 과연 그럴듯싶었다. 자기 생각에 비하면 장길봉이 생각하는것은 하늘같이 넓었다.

《그래 동무, 조선에 농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농민이 많기야 하지. 허지만 로동계급이 농민을 이끌고 나가거든.…》

《글쎄 그러게 말야! 농민이 이끌리지 않는다면 로동계급이 혁명을 이겨낼것 같애?》

《그건 곤난하지.》

《그러니까 로동계급만 중요한게 아니라 농민두 중요하단 말야.》

《그렇지만 로동계급이 제일이야.》

둘이는 밤새 론쟁을 하고는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고 주먹타령들을 했다.

… …

어느날 강형진은 장길봉이와 마영기를 불러다놓고 밤에 정치강습생들이 비룡강가에 나가서 소작료를 계약대로 실어건늬는 농민이 있으면 실어건늬지 못하게 해설을 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날 저녁 장길봉이와 마영기는 합숙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강습생들에게 호소하였다.

《동무들! 밥을 좀 있다 먹소.》

마영기와 장길봉이가 일시에 주먹을 들고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여 모두 머리를 들었다.

《이게 쌍나발은 못 불갔는데 동무 얘기하갔어?》

《어서 장동무, 얘기하라구.》

둘이 주먹을 들고 섰다가 마영기가 벙긋 웃으며 양보를 하고 앉았다.

《저 싱검둥이들은 벌써 언제 처먹구 저러나? 좌우간 먹어대기두 빨리 먹어대니까…》

강습생들이 껄껄대며 웃었다.

《웃지덜 말라구.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길 하갔어.》

《무슨 얘기야, 또 배꼽 잃어버릴 얘기가 아니야?》

《배꼽은 무슨 배꼽이야? 목대 꺾는 얘기지.》

《뭐 목대를 꺾어? 누가 목대를 꺾어?》

《목대가 숱한데 꺾을게 없갔어?》

그 소리에 강습생들이 고개를 제끼고 또 웃었다. 장길봉이도 한아름되는 어깨팍을 들썩대며 웃었다.

《다른게 아니구 우리 오늘 밤엔 계급투쟁을 하잔 말야 응?

지금 봉래면 배덕수네 마름들이 봉래면 농민들을 휘동해가지구 구안동으로 소작료를 실어가구있는데 우리가 저걸 막아야갔어. 3할이 아니구 배덕수를 7할 실어다준단 말이야. 생각들 해보라구. 우리가 강습을 뭣때문에 받는가? 계급투쟁하자구 받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계급이 저렇게 녹구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강습만 받갔어?》

장길봉이는 소대가리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연설을 했다.

《웃지들 말구 신중히 들으란 말야!》

곁에 앉은 마영기는 식탁을 두드리며 주의를 시켰다.

《계급투쟁이란건 뭔가? 무산계급이 이기는건가? 유산계급이 이기는건가? 판가리싸움이란 말이야. 만약 우리가 유산계급한테 진다구 하면 우린 죽는단 말야. 알아듣갔어? 허니까 모두들 밥을 든든히 먹구 나가보자구. 나가서 어떻게 하갔는가? 농민들한테 해설을 해야갔어. 우린 적어두 정치강습소 학생이니까 위신있게… 알갔어?》

모두들 빙긋빙긋 웃었다.

《그리구 오늘 밤 계급투쟁은 마영기가 로동계급이 돼서 지휘할테니까.… 로동계급이래야 투쟁을 지도할수 있거든.…》

《그럼 장길봉동무는 안 나갈텐가?》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

《나야 원판 로동계급이니까 말할것이 없지.…》

그 소리에 청년들은 또 웃음을 터뜨리였다.

《좋소! 나가보자구!》

청년들이 밥을 다 먹고나서 벌떡 주먹을 뻗쳐들고 일어서며 웨쳤다. 강습생들은 웅성웅성 끓었다.

저녁을 먹고난 강습생 십여명은 마영기의 지휘밑에 렬을 지어 비룡강가로 나왔다. 그들은 삼일교까지 와서 삼일교는 건느지 않고 곧장 비룡강을 끼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섣달 중순의 찬바람이 강기슭으로 쓰르렁쓰르렁 불어갔다. 마른 풀숲이 부슬거리며 흔들리고 강기슭에 선 백양나무가지들이 휘휘 울었다. 비룡강은 아직 얼어붙지 않았다. 바람에 물결이 일어나 기슭을 철써덕철써덕 갈기였다.

강습생들은 한 오리 걸어서 목적지에 왔다. 거기에 봉래면에서

구안동쪽으로 건너다니는 물목이 있다. 여기는 물이 얕아서 사람도 건너다니고 달구지들도 건너다니였다. 바로 봉래면소작료가 이 물목으로 빠져 구안동으로 건너가는것이였다.

물목에 당도한 강습생들은 웅성웅성 끓었다.

《자아, 여기 앉아 기다려보자구.》

장길봉이가 먼저 풀밭에 들어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강습생들이 모두 풀밭에 들어앉았다. 모두들 담배를 붙여물며 떠들어올린다.

《그런데 이거 청강생들이 안 온다?》

《청강생이라니?》

《해설을 들을 청강생 말이지.》

《허허허 참 그렇군. 그런데 해설은 어떤 방향으로 할텐가?》

《여어 마영기, 해설은 어떤 방향으로 할테야?》

청년들이 마영기에게 물었다.

《어떤 방향이라니? 봉래면사람들한테 하는거니까 남쪽방향으로 하지.》

마영기의 소리에 청년들은 배를 안고 웃었다.

《원 자식두… 저따윌 낳구두 미역국 먹었을가?》

청년들이 이러며 또 껄껄 웃었다. 그들은 찬바람이 씽씽 불어가는데도 귀와 볼편이 화끈화끈해서 힘이 북받쳐 노래를 부른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웅글은 합창소리는 련속 강우로 퍼져가고있다.

여울물소리도 요란히 들린다. 여울물아래는 이어 깊은 소가 져서 흐르는데 거기에도 물결이 높아 소란하다. 어둠이 잠긴 속에서 검은 강물이 몸부림하듯 뒤설렌다.

…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노래를 부르는 마영기의 가슴은 찢기는것 같이 아팠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글이글 서슬이 올랐다. 눈앞에 거창한 환상이 있다. 싸움이 벌어지고 온 천지에 붉은기가 나붓긴다. 그 무엇이 이 판가리 싸움에 들어선 화산같은 심장을 막으랴! 엄숙하게 나가자! 비애도 사랑도 넘어서 나가자!

마영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렸다.

《이거 어떻게 된셈인가? 한놈도 기척이 없으니… 장마당 깨진 날 소팔러 온거 아니가?》

얼마후 장길봉이는 이렇게 중얼대며 벌떡 일어섰다.

《좀 기다리구있어. 밤이 들어서야 올거야.》

마영기가 대꾸를 하며 일어나앉아 담배를 말았다.

청년들은 몸이 애질애질해서 일어섰다앉았다하며 들끓었다.

아마 두어시간 잘 기다리고났을 때였다. 정말 봉래면쪽에서 달구지들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렸다. 강습생들은 우르르 풀밭에서 일어섰다. 어둠이 깃든 땅우의 뿌유스름한 공간에 달구지들과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넨장 오긴 오는구나. 거짓말은 아니였구나.》

강습생들이 이렇게들 떠들며 풀밭에 선채 웅성거렸다.

벼가마니 실은 달구지가 대여섯대 강가에 도착했다.

《이거 어데로 가는 달구지들이요?》

장길봉이가 한발 앞으로 나서며 달구지군들에게 물었다.

《네, 저 소작료를 싣구 가우다.》

달구지군들은 강습생들이 검은 성벽처럼 쭉 막아서는 바람에 겁이 나서 어름어름하는 소리로 대꾸했다.

《이게 구안동 배덕수네 집으로 실어가는 소작료요?》

강습생들이 벌떼 울듯 물었다.

《네, 그렇수다.》

《그런데 소작료를 어떻게 실어가우?》

《어떻게라니요?》

《3할로 실어가는거가?》

앞에 나선 장길봉이가 또 물었다.

《예, 뭐 3할로 물지요.》

《여보소, 우린 정치강습소 학생들인데 농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 여기 나왔으니까 정직하게들 말씀해주소. 분명 3할로 무는 거가？》

《허허…》

《대답을 못하갔소？》

《… …》

《아니 여보, 왜 대답을 못하구있소? 당신들이나 우리는 한편이란 말이요. 한편 사람들끼리 왜 얘길 못하우? 정직하게 얘길 안했다간 오늘 밤에 자미가 없소.》

마영기가 앞으로 나서며 을러메였다.

《사실 우리는 지금 소작료를 소작계약대로 실어 건너가구있수다. 상자보다 복인이 더 설어한단 격으로 지주놈보다 저 마름들 등쌀에 3할로 물구는 앉아서 배기질 못하겠수다.》

《마름들이요? 그, 그놈들이 자꾸 실어가라고 한단 말이요？》

마영기가 또 물었다.

《그렇지요. 뭐 견디게 구나요？》

그제야 달구지군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쟈, 이거 한심한 일이로군. 그놈들과 계급투쟁을 못하고 그놈들 등쌀에 소작료를 계약대로 실어 건너가다니? 이거 답답해 죽을 일 아니가？》

장길봉이가 개탄하며 씨근씨근했다. 그러더니 소대가리같은 주먹을 들어 흔들며 연설을 시작했다.

… …

《우리 로동계급과 여러분이 손을 잡고 혁명을 해야 한단 말이요. 혁명이란 무언가? 지주와 자본가를 이 세상에서 때려없애는거거던. 우리가 지주와 자본가를 때려없애지 않구는 사회주의사회를 가져올수 없단 말요. 알갔어? 그런데 당신네들이 3할로 물라는데 소작계약대로 소작료를 실어가? 배덕수 배때기에 자꾸 기름을 찌워주갔소? 당신네들이 들구일어나서 배덕수를 때려없애야 하갔는데 배덕수한테 자꾸 소작료를 실어다줘? 당신들 손으로 그 마름놈들을 때려죽이지 못하갔소? 배덕수하구 마름놈들만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당신들이 기를 펴고 살거 아니요? 저, 저 봉래면 넓은 토지가 다 당신들 소유로 될것 아니요. 다 당신네들 소유로 만들어놓고 농사를 짓는다면 나쁘갔소？》

장길봉이는 시꺼멓게 내다보이는 봉래면 벌판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다.

《허허, 하기야 우리가 멍텅구리지요.》

한 농민이 이렇게 통탄했다.

《 그렇지요. 멍텅구리라두 이만저만한 멍텅구리가 아니지요. 루추하게 말한다면 똥보다두 더 미련하지요.》

그 소리에 강습생들이 또 껄껄 웃었다. 달구지군들은 량심에 가책을 느끼는지 더수기들을 숙이고 말이 없다.

바로 이러는 순간이였다. 벌판쪽 길에서 또 달구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또 뭔가? 또 오는거 아닌가?》

장길봉이가 웨쳤다.

《예, 뒤에 또 올겁니다. 마름들두 뒤에 따라섰을겁니다.》

달구지군들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그럼 해설은 그만둬야갔군. 어쨌든 당신들은 까딱말구 여기 서 있소. 달구지를 몰고 물을 건너만 간다면 자미가 없갔으니까…》

장길봉이는 이렇게 을러놓으며 한발 강습생들편으로 물러섰다.

《여봐 길봉이, 저기 총멘 자식이 한명 따라오네.》

마영기가 장길봉이의 팔꿈치를 채며 이렇게 소곤거렸다.

《뭐, 총?》

장길봉이 길을 내다보니 달구지군옆에 정말 총을 멘 놈이 한놈 걸어오고있다.

《안되갔어. 단단히 준비들 하라구.》

장길봉이는 강습생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수군거렸다. 강습생들도 긴장해졌다. 학급장은 강습생들에게 돌들을 하나씩 거머쥐라고 일렀다. 만일의 경우를 념려하는것이였다.

이 순간 마영기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총을 빼앗을 생각을 하며 전신을 우들우들 떨었다. 그는 벌써 이게 조계룡이가 렵총을 메고 소작료달구지들을 호송해오는것임을 알았다. 조계룡이 뒤에 굴러오는 달구지들이 대여섯대 잘되는것 같다.

《이건 뭐야? 왜 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들 서있어?》

조계룡이가 먼저 온 달구지군들에게 소리를 치며 걸어왔다. 그는 벌써 강가에 모여선 시꺼먼 그림자들을 보더니 주밋거리며 다가

왔다.

마영기가 조계룡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뭐야?》

조계룡이가 소리를 질렀다.

《우린 군농조에서 파견된 해설대요. 경솔한짓 말구 총을 내리지 못할가?》

마영기가 마주 소리를 질렀다.

《뭐 해설대?》

《그래, 농민들의 3,7제투쟁을 도우려고 나온 해설대요. 달구지들을 좀 세우오.》

《뭐 3,7제투쟁을 도와? 달구지들을 못 세우겠다.》

《정말 못 세우겠소?》

《못 세우겠다. 달구지들을 강으로 들여몰아라! 먼저 온 달구지들은 뭘 하느냐?》

조계룡이가 고함을 지르며 총을 벗어서 손에 거머쥐였다. 그 순간 마영기는 비호같이 조계룡이에게로 달려들었다.

뒤미처 장길봉이도 달려들었다. 온 강습생들이 홍수가 터지듯 와르르 달려들었다. 쾅하는 총소리가 울리였다. 마영기뒤에 달려들던 장길봉이가 허리를 꺾으며 넘어갔다.

《에끼, 이 개새끼 사람을 쏘았구나!》

강습생들이 이를 뿌득 갈아붙이며 겹겹으로 조계룡이한테 돌진했다. 마영기가 조계룡이 다리에 안내기를 걸어 길바닥에 거꾸러뜨렸다. 학급장 김일수가 구두발로 조계룡이의 목을 즈르밟았다. 렵총은 강습생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 강습생이 렵총을 거꾸로 쥐고 총탁으로 조계룡이의 엉덩판을 들이족쳤다. 딱딱하는 소리가 연거퍼 울린다. 이 순간 먼저 온 달구지군들도 들고일어섰다.

《죽일바엔 마저 죽여라! 한대길이 그놈의 새끼는 안 왔느냐?》

달구지군들이 소리를 지르며 새로 당도한 달구지들쪽으로 달려갔다. 정말 조계룡이만 온게 아니고 한대길이도 뒤에 왔다. 그러니 봉래면 마름 둘이 다 걸려들었다. 먼저 온 달구지군들이 한대길의 배허벅을 차넘기였다.

《이놈의 새끼… 우리가 너놈의 새끼들 등쌀에 눌려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 힘이 없는줄 아느냐? 이 개새끼 우리한테 힘이 없는

줄 알아？》

달구지군들은 한대길이를 가로타고 앉아 주먹으로 목줄대를 들이눌렀다. 어떤 달구지군들은 버둥거리는 다리갱이를 들이밟았다.

… …

장길봉이의 부상은 중상이였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지 이틀만에 그만 절명되였다.

《장길봉이가 죽다니？》

강습소청년들은 거짓말같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과연 장길봉이는 눈을 감아버렸다.

강습소청년들은 병원복도를 메워서서 울었다. 마영기는 울음도 나오지 않고 그만 전신이 굳어지고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그 생때같은 사람이 죽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마영기는 길봉이의 시신을 흔들어보았다. 너무도 청천벽력같은 변화였다. 그 우람하던 몸에 이런 변화가 올줄 뉘 알았을가！ 마영기는 기운이 탁 꺾여서 발밑에서 괴임돌을 뽑아낸것 같이 허전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철도종업원들과 군간부들이 모여서 장길봉이의 장례를 치르었다.…

철도에 있는 그의 동무들이 몸부림을 하며 울었다.

군당비서 강형진이를 비롯한 군간부들도 목이 메는 음성으로 조사를 읽었다.

마영기는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관이 떠날 때에도, 장지에 가서도, 관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도 울지 않았다.

다만 얼굴빛이 무섭게 질려있을뿐이였다.…

마영기는 썰렁해진 합숙방에 혼자 누웠다. 모든 일이 꿈같았다. 방안엔 장길봉이가 있던 흔적이라곤 없고 장길봉이 옷이 걸리군 했던 저편의 못박힌 벽이 허전하게 넓어뵈였다. 마영기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다가 어떻게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장길봉이가 보기둥같은 다리를 마영기의 배우에 올려놓았다.

《미친 자식, 잠두 이렇게 갈개잘수가 있나！ 이 다리 치워라！》

마영기는 장길봉이의 다리를 밀어던졌다.

《여봐 영기！ 동무는 그래 농사를 하갔어？》

장길봉이가 지꿎게 물었다.

《또 그 소리야? 농사군이 농사 안하구…》

《로동계급이 되란 말야. 로동계급이 돼서 일생을 혁명에 바쳐야 해. 알갔어?》

《농민이 구태여 로동계급이 될건 무언가? 농민으로선 혁명을 못하는가?》

《엥이 참!… 글쎄 혁명엔 로동계급이 선두에 선대두…》

《어서 그럼 자네나 선두에 서게. 나는 뒤에 따라나 가지.》

《쟈 이게…》

장길봉이가 마영기의 옆구리를 꽉 꼬집었다.

《아갸갸…》

마영기는 한팔로 장길봉이를 덮쳐잡으며 눈을 번쩍 떴다. 장길봉이를 덮쳐잡으려던 팔이 빈 구들바닥에 가서 철썩 내려졌다. 마영기는 빙빙 사방을 둘러보았다.

방안엔 아무것도 없고 귀속이 징 울려왔다.

《길봉이! 장길봉이!》

마영기는 나직이 불러보았다. 그러나 방안은 역시 조용했다.

《자네 혼이 왔어? 정말 혼이 왔나 말야?》

마영기는 또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이 있을리 없는것이다. 마영기는 이마전에 진득거리는 식은 땀을 씻으며 일어나 앉았다. 허무하고 슬펐다. 죽음이란 이렇게 엄격한것인가? 그 황소같던 몸집이 어데로 갔단 말인가? 세계혁명을 하겠다던 그 거창하게 불타던 심장은 어데로 갔는가! 그 모든것이 지금 찬바람 불어가는 산비탈에 아무 고통도 모르고 누워있다니?… 마영기는 전신이 부르르 떨리였다. 다시는 그 억센 몸집과 열정이 끓는 두 눈망울을 대할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기는것 같이 저려왔다.

《길봉이! 장길봉이…》

마영기는 후들후들하며 일어섰다.

(바로 우리의 투쟁이란 이렇게 준엄한것이로구나! 원쑤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가져다주는구나! 이 개같은 놈들! 그 놈들을 비룡강에 사지를 발기발기 찢어던져야 하는걸 그랬구나!)

마영기는 우들우들 떨리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눈물은 인제 터질 구멍을 찾은듯 자꾸 쏟아져내렸다.

장길봉이의 죽음은 마영기로 하여금 모든것을 고쳐 생각하게

하였다. 혁명에 대하여, 자기의 투쟁에 대하여, 지금 무엇을 할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달라진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이때까지의 자기는 혁명을 너무도 몰랐다. 원쑤를 너무도 몰랐다.

계급투쟁이라니 간단한것으로만 여겼다.

혁명이 이렇게 피어린 투쟁을 동반한다는것을 처음 깨달았다. 자기는 인제 이 준엄한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섰다고 느끼였다. 죽은 장길봉이를 생각하니 이가 갈렸다.

(아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혁명투쟁이 간단하다니? 피가 없이 승리를 하다니?)

마영기는 자기의 어리석었던 꼴이 눈앞에 너무도 크게 두드러져 올랐다. 그는 치가 떨렸다. 창가에 다가선 마영기는 눈물을 줄줄 쏟는채 씨근거리며 동이 터오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말하자면 새 발견이 그를 무섭게 흥분시키는것이였다.

벌거벗은 아메리카

—1960년 정초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이 조선녀인을 붙잡아다
벌거벗겨 몸에 뼁끼를 칠해 거리로 내쫓았다—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아메리카는
그 구린내나는 알몸뚱이를…

완력 사나운 강도들이 달려들어
연약한 한 녀인을 벌거벗겼으니
어찌하랴 수난을 당할수밖에
뼁끼를 온몸에 묻히우고 녀인은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기웠다

그러나 오늘 과연
누가 벌거벗었나 인류의 량심앞에서?
남조선의 한 녀인인가 아니면
《거룩》한 아메리카의 《신사》들인가?

온 세계 사람들이 대답하누나
그것은 아메리카! 바로 아메리카자신!
그의 문화 그의 도덕은
20세기 60년대도 바로 정월 초하루날에
쭉 벗고 나섰다 인류의 면전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벗기지 않았건만
스스로 홀딱 드러내놓았구나
그 구리고구린 썩은 제국주의몸뚱아리를
그 누구도 칠해주지 않았건만
뼁끼가 아니라 띠가 묻었다 아메리카는

(나는 시인
수천수만의 말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휘들만을 골라
그우에 또 운과 억양을 붙이는 사람,
두꺼비를 보고도 점지 않게
개구리의 사촌이라 불러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리 좋은 말 다 골라봐도
할수 없구나 달리 말할수는…)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도
눈에 선히 보인다 아메리카《신사》들이
쭉 벌거벗고 워싱톤 네거리로
《문화》를 떠들며 분주히 오고감이
라체에 중절모는 어울리지 않건만
그래도 승용차에 푹신히 앉아
쭉 벌거벗은 미국의 은행가들

나는 상상하노라 《라체의 왕국》을
모든 위선과 가면마저 벗어 동댕이친 나라
쭉 벗고 앉은 대통령이며
쭉 벗고 결재받는 국무장관이며…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

《유엔》의 만국대표들에게 권고하고싶노라
미국의 대표가 《유엔》의 연단에 올라
《사랑》에 대하여 《자유》와 《문명》에 대하여
《신성》한 연설을 내리하실 때
잠간만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가 만일 당신들앞에
쭉 벌거벗고 서서 연설을 한다면?…

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권고하노니
양키들이 당신앞에 온다면
그놈이 제 아무리 《신사》같이 입었어도
그놈은 벌거벗은 놈이라고만 생각하시라
그렇다, 사실 그렇다!
바로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벌거벗고 날친다

인류의 량심과 문화에 대한
이 흉칙한 도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웨친다 고함친다
《애, 이 께끈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조선의 밖으로 내쫓을테다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테다》

—1960년—

백인준

외국문학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1789년 프랑스의 부르죠아혁명으로 서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근대력사가 시작되였다.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사회이다. 봉건적신분제도에 얽매였던 인민들이 이제는 돈의 노예로 되였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동시에 먼저 발전한 자본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 약소국가인민들을 예속하고 략탈하기 위한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을 벌렸다. 이로부터 식민지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힘겨운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근대문학은 이러한 력사를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였다.

서방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보적문학이 주로 자본주의사회의 악덕을 비판하고 자본의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였다면 동방의 진보적문학은 주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략탈과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이룩하려는 반제적경향과 함께 여전히 봉건적사회관계가 우세하였으므로 반봉건적경향이 강하였다.

19세기 동방나라들은 거의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반제애국적인 문학을 많이 창조하였다.

또한 자기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의 몽매하고 부패한 생활을 비판하면서 선진국가들처럼 하루빨리 근대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반봉건민주주의적인 문학을 발전시키였다.

중국의 진보적인 문학가들은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비겁하고 매국적인 봉건통치배들, 매판자본가들을 비판하는 문학운동을 일으켰다. 그가운데서 견책소설(비판소설이라는 뜻)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견책소설의 대표작으로서는 《관리계의 현 상태》(리백원)와 《20년간 목격한 괴이한 이야기》(오연인)를 들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서양침략자들에게 아부굴종하는 청나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폭로하고있다.

인디아의 애국적인 시인 타고르는 시집 《기탄잘리》, 《초생달》, 장편소설 《고라》 등에서 영국침략자들에 대한 반항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서방나라들의 근대문학은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로 나뉘여져 19세기 전기간 서방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18세기말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여러 나라들에 퍼졌다가 19세기 30년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랑만주의작품에서는 작가자신이 주관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생활이나 사회가 공상적으로 그려집니다.》

랑만주의문학은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작가가 주관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생활을 공상적으로 그리는 문학이다.

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하여 자본주의제도가 설 때 사람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점차 자본주의제도가 봉건제도보다도 더 나쁜 제도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새 사회를 건설할 뚜렷한 방도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바라는 생활을 공상적으로 그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주인공들은 미래의 훌륭한 생활에 대한 리상을 안고 착취사회현실에 맞서는 반항자이며 비상한 힘과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현실에서 보기드문 환경에서 행동한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격동적이고 지적인 문체로 씌여졌고 생활론리를 무시한 자유로운 이야기줄거리로 엮어졌다.

이 문학은 미래를 과학적으로 내다볼줄 몰랐던 작가들의 리상을 표현했기때문에 공상적인 꿈을 그리는데 머무를수밖에 없었고 형상에서도 추상성을 피할수 없었다.

진보적랑만주의의 대표적작품들로서는 프랑스작가 빅또르 유고가 쓴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 알렉싼드르 듀마(아버지)가 쓴 장편소설 《몽떼 끄리스또백작》, 죠르쥬 쌍드의 《앵디아나》, 영국작가 바이런이 쓴 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쉘리의 《서풍송가》, 로씨야작가 레르몬또브가 쓴 서사시 《동승》(어린

중이라는 뜻) 등을 들수 있다.

장편소설 《몽떼 끄리스또백작》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기협잡행위도 서슴지 않는 군인 페르낭, 회계원 당글라르, 검사 빌포르를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주인공 에드몽 당떼스(몽떼 끄리스또백작)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가 빚어내는 여러가지 악덕을 깊이있게 들추어내여 비판하고 그에 대치되는 선량한 인간의 정의감과 의리심, 인도주의와 같은 품성을 찬양하였다.

작가는 기이하게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극적긴장성을 띠는 사건줄거리, 풍부한 상상력 등 랑만주의수법을 잘 리용하여 높은 예술적성과를 거두었다.

소설의 제한성은 착취사회의 악덕을 개별적인 악한 사람들의 기질과 소행으로 보여주면서 착취사회제도자체를 비판하지 못한것이다. 주인공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원쑤들만 복수하고있다. 또한 소설은 사건과 인물관계가 흥미본위로 엮어지고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지나치게 과장되여 믿기 어렵게 되여있는 부족점을 나타내였다.

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는 프랑스 나뽈레옹의 침략을 반대하는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 오스트리아의 예속하에 있은 이딸리아인민과 뛰르끼예의 침략을 받고있던 그리스와 알바니아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면서 정의의 해방투쟁을 찬양하고 억압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 인민들을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동시에 부패타락한 통치배들을 규탄하였다.

랑만주의문학은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성과 반인민성이 뚜렷이 드러남에 따라 그것을 예리하게 적발폭로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수 없었다.

비판적사실주의는 19세기 30년대에 출현하여 오늘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진보적문학사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하는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주되는 특징은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지만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그것이 주되는

것으로 되고 또 하나의 사조적현상으로 되는것이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생활반영의 진실성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이 문학은 언제나 전형적인것을 찾아 여러가지 사실주의적묘사수법을 리용하면서 생동하고 진실한 세부묘사를 실현하였다.

이 문학의 기본제한성은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는데 그치고 그 사회적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옳바른 출로를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

서유럽에서 비판적사실주의는 나라별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발전된 서유럽나라들에서는 주로 자본주의적관계가 낳는 사회악과 모순을 비판하였다면 로씨야나 도이칠란드와 같이 자본주의적발전이 뒤떨어진 나라들에서는 주로 봉건적인 농노제도와 전제제도가 낳은 사회악과 모순을 비판하면서 새로 자라나는 자본주의적관계로 하여 빚어지는 사회의 부패상을 비판하였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들로서는 영국의 디킨즈, 쌔커리, 토마스 하디, 샬러트 브론테, 에텔 보이니치, 프랑스의 오노레 더 발자끄, 알렉싼드르 듀마(아들), 플로베르, 모빠쌍, 메리메, 도데, 도이칠란드의 하이네, 로씨야의 뿌슈낀, 레브 똘스또이, 고골리, 뚜르게네브, 도스또옙스끼, 안똔 체호브, 노르웨이의 헨리크 입쎈, 미국의 마크 트웨인 등을 들수 있다.

영국작가 디킨즈의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에서는 오만하고 랭혹한 대자본가 돔비가 돈때문에 사람의 량심과 체면마저 다 잃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고 쌔커리의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에서는 영국사회는 지위도 량심도 사랑도 돈으로 사고 파는 장마당이라고 하면서 영국사회전체가 하나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비판하고있다.

로씨야의 작가 뿌슈낀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는 썩어빠진 귀족생활을 비판하고있으며 고골리의 장편소설 《죽은 넋》에서는 정말로 《죽은 넋》이 되여버린 로씨야농노주, 관리들과 새로 등장하는 악착한 부르죠아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뚜르게네브의 장편소설 《전야》(전날 밤이라는 뜻)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평민출신의 혁명가를 그리고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자기의 발전과정에 혁명적민주주의라고

불리운 문학류파를 출현시켰다. 이 류파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고무되면서 보다 근로인민에게 접근한 작가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근로인민들의 형상을 많이 그리면서 혁명투쟁의 방법으로 사회를 개조할것을 부르짖었다.

도이칠란드시인 하이네는 서정시 《실레지야방직공》에서 실레지야방직공들의 폭동을 노래하였고 서사시 《도이칠란드, 겨울이야기》에서는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 일떠세울 새 사회, 새 생활의 리상을 그렸다.

로씨야작가 체르늬쉡스끼는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로씨야농노제도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적인 생활을 꿈꾸는 평민출신의 새 인간들을 그리였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비판적사실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뒤를 이어 등장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기초를 쌓았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던 환경속에서 새로운 혁명적문학으로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출현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작가들과 인민의 편에 선 혁명적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이 문학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발생하던 첫 시기에는 과학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뚜렷이 구현하지 못하고 많은 미숙성을 가지게 되였다. 때문에 이 시기의 문학은 후날 발생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과 구별하여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이라고 부른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먼저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빠리꼼뮨문학이다.

빠리꼼뮨문학은 꼼뮨투사들에 의하여 창작된 문학으로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열렬히 호소하고 자본주의제도를 기어이 때려눕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보여준 문학이였다. 이 문학의 대표자는 로동계급출신의 혁명가이고 시인이였던 에젠 뽀찌에였다. 그는 혁명가요 《인터나쇼날》을 썼다.

일어나라 저주로 인맞은
주리고 종된자 세계
우리의 피가 끓어넘쳐
결사전을 하게 하네
억제의 세상 뿌리빼고
새 세계를 세우자
짓밟혀 천대받은자
모든것의 주인이 되리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싸움이니
인터나쑈날로 인류가 떨치리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싸움이니
인터나쑈날로 인류가 떨치리

이렇게 시작된 가사는 굶주리고 짓밟히는 모든 근로대중에게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으며 천대받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세울 굳은 결의를 노래하였다. 동시에 낡은 착취사회를 짓부시기 위한 마지막판가리싸움에서 전세계 로동계급이 굳게 단결하리라는 신념을 토로하였다.

마구공의 아들이였던 꼼뮨참가자 레옹 끌라델도 장편소설 《쟈크 라따스》에서 꼼뮨전사의 영웅적인 형상을 그렸다.

빠리꼼뮨문학에 이어 로씨야에서도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자는 고리끼였다. 고리끼는 단편소설 《첼까슈》, 산문시 《해연의 노래》, 희곡 《최하층》을 써서 로씨야로동계급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방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서방나라들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대부분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예속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던 사정과 관련된다.

동방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반제반봉건적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함께 민족적각성을 호소하는데로 나아갔다.

중국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왕성하게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방제국주의나라들과 일본의 침략을 받고있던 중

국에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이며 반식민지적인 락후한 중국사회를 하루빨리 근대문명국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섰다.

1919년 5.4운동을 계기로 신문학운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지향을 뚜렷이 반영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 대표자는 루쉰(로신), 쟝광츠(장광자), 라오서(로사), 바진(파금), 궈뭐뤄(곽말약) 등이였다.

루쉰은 단편소설 《미친 사람의 일기》(광인일기), 《축복》, 《아큐정전》 등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 무능하고 썩어빠진 지배계급을 비판하였다. 쟝광츠의 단편소설 《압록강가에서》, 중편소설 《소년방랑자》, 궈뭐뤄의 시집 《녀신》, 바진의 장편소설 《격류》(3부작), 라오서의 장편소설 《락타 샹쯔》 등도 중국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작품으로 되였다.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은 그 창작가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방도를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고 혁명가의 전형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한 약점을 나타냈다. 이 문학은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놀았다.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 빅또르 유고(1802—1885)가 1862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빅또르 유고는 프랑스의 지방도시 브쟝송에서 나뽈레옹군대의 한 장군의 아들로 태여났다. 나뽈레옹이 망하고 반동적인 부르봉왕조가 복귀되자 봉건왕조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리혼하였다. 유고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왕권에 대한 숭배사상으로 교육받았다. 그는 초기에 프랑스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시인이였던 샤또브리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일

찌기 소년시절부터 시적재능을 보여준 많은 시들을 썼지만 그 시들에는 반동적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부르봉왕조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기운이 높아짐과 함께 자본주의제도를 비판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동정한 우수한 작품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유고는 자기 작품들에서 자본주의사회악을 규탄하고 평등과 정의, 인도주의사상을 보여주었지만 《계급협조》와 《도덕적완성》의 방법으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다는 개량주의적이고 무저항주의적경향을 심하게 드러내였다.

유고는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 《빠리 노뜨르담사원》, 《93년》, 《바다의 로동자》, 시집 《동방시초》, 《징벌》, 희곡 《크롬웰》, 《에르나니》 등을 창작하였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레 미제라블》이다.

《레 미제라블》이란 우리 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와 서구라파의 진보적랑만주의소설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고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입니다.》

유고는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학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에서 벗어져나올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소설의 사건은 주인공 쟝 발쟝이 굶주리고있는 어린 조카들을 위하여 한쪼각의 빵을 훔친것이 죄가 되여 19년의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 갖은 세상풍파에 부딪치는 로정을 통하여 전개된다.

쟝 발쟝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전과자(이전에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라 하여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게 된다. 그후 미리에르사교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감화된 쟝 발쟝은 이름을 마들레느라고 고치고 한 유리공장에 들어가 인조흑진주를 만드는 새로운 창안을 한다. 이로 인하여 돈벌이가 잘되고 공장이 크게 확장되며 쟝 발쟝이 공장주로 된다. 그는 번 돈의 많은 몫을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데 돌린다. 그리하여 그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아 시장으로까지 된다.

이때 쟝 발쟝을 뚈롱형무소에서 다루던 쟈베르라는 경찰이 이

곳 경찰서에 와있었는데 그는 시장의 뒤를 캐고있었다.

이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쟝 발쟝은 마차밑에 깔린 포슈르방령감을 구원해주기도 하며 가난속에 허덕이는 불쌍한 녀인 판띠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이 애매하게도 쟝 발쟝의 루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였다는것을 알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진짜 쟝 발쟝임을 스스로 자수하고 다시 감옥으로 잡혀가기도 한다.

감옥에서 탈출한 쟝 발쟝은 죽은 판띠느와 이미 약속한대로 강도 떼나르디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의 딸 꼬제뜨를 구원해내온다. 이 부분이 선문교재이다.

그는 말년에 쟈베르의 추격을 피해 빠리의 뒤골목에 숨어서 검박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남모르게 도움을 준다.

빠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청년들이 시내에 바리케트를 쌓고 정부군과 싸울 때 쟝 발쟝은 자기의 양딸인 꼬제뜨를 사랑하는 마리유스라는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 바리케트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폭동군중들에게 체포되여있는 쟈베르와 만나게 된다. 자기를 일생동안 추적해온 원쑤이건만 쟝 발쟝은 쟈베르를 놓아준다.

바리케트가 정부군에게 점령되고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참살을 당할 때 쟝 발쟝은 부상당해 정신잃은 마리유스를 어깨에 메고 하수도로 빠져나오며 후에 마리유스와 양딸 꼬제뜨가 결혼했을 때에는 감추어두었던 돈 60여만FF(프랑스프랑)을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사위된 사람에게 숨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본명이 전과자인 쟝 발쟝이라는것을 밝힌다.(지금까지는 포슐르방이라는 가명을 써왔었다.)

마리유스는 쟝 발쟝이 전과자였다는것으로 해서 그를 배척한다. 쟝 발쟝은 이제는 그렇게도 귀중히 여겼던 딸네 집에 와볼수조차 없게 된 마음의 고통으로 앓아눕는다.

그후 우연한 기회에 강도 떼나르디에를 통하여 쟝 발쟝이 바리케트전투에서 중상당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자기를 업고 빠리의 하수도로 해서 쎄느강으로 빠져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것을 알게 된 마리유스가 자책감에 잠겨 꼬제뜨와 더불어 달려갔을 때 쟝 발쟝은 이미 그들이 온것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사경에 처해있었다.

장 발장은 이렇듯 자비와 관대, 도덕적자기완성의 길을 걸으면서도 광명한 세상을 보지 못한채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다.

소설은 곡절많은 한생을 외롭게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쟝 발쟝, 딸애를 키우기 위하여 천신만고하며 애쓰다가 비참하게 죽는 판띠느, 어린 나이에 무서운 고역과 천대에 시달리는 꼬제뜨, 거리를 헤매는 나어린 방랑소년 가브로슈 등의 모습을 통해 부르죠아사회는 인민대중에게는 지옥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소설의 제한성은 사회개조의 방도를 그릇되게 제기한것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자비심과 자선사업, 인간의 도덕적완성을 통하여 자본주의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악과 불행을 없앨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와 자본가계급의 본질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함이였다.

제2부. 꼬제뜨

제3편. 고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다

5. 오직 소녀 혼자서

… …

꼬제뜨는 이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큰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열까지 세기 시작하였다.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했다. 그렇게 하고나서 주위사물들을 어느 정도 가려볼수 있었다. 물을 길을 때 적신 손이 시려왔다. 꼬제뜨는 일어섰다. 그러자 다시 무서워졌다. 누를래야 누를길없는 공포심이 다시금 그를 엄습했다. 소녀는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달아나자는것이였다. 숲을 빠져나와 들판을 지나 인가가 있는데까지, 창문들이 있는 곳까지, 초불이 있는 곳까지 달아빼자는것이였다. 꼬제뜨는 앞에 놓인 물통을 바라다보았다. 떼나르디에네 계집

년이 어찌나 무서운지 물통을 내버리고 갈수는 없었던것이다. 소녀는 두손으로 가까스로 물통을 들었다.

꼬제뜨는 이렇게 여라문발자국 옮겨디뎠으나 물이 가득찬 물통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만 내려놓지 않을수 없었다. 소녀는 잠간 숨을 돌렸다. 그리고나서 다시 물통을 들고서 이번에는 앞서보다는 조금 더 걸었다. 허지만 역시 머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잠시 쉬여가지고 또 걸었다. 늙은이처럼 앞으로 몸을 굽힌채 머리를 숙이고 걸었다. 물통의 무게는 소녀의 연약한 팔을 뻣뻣하게 만들었다. 쇠손잡이는 소녀의 조그만 젖은 손을 마비시켜 꽁꽁 얼구어놓았다. 꼬제뜨는 이따금 머물러서야만 하였다. 머물러설 때마다 물이 통에서 쏟아져나와 벌거숭이종아리를 적셨다. 이 모든 일이 숲속에서 그것도 겨울 한밤중에,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있었다. 더구나 겨우 여덟살밖에 안되는 소녀에게 말이다. 이때 그 애처로운 모습을 바라보고있는것은 오직 하늘뿐이였다.

그리고 또 한사람 세상 떠난 그의 어머니뿐이였으리라!

왜냐하면 무덤속에서 죽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세상에 있는 법이니.

소녀는 괴로움에 숨을 할딱였다. 울음이 북받쳐 목이 메였다. 그렇지만 울수도 없었다. 그렇듯 소녀는 멀리 떨어져있을 때조차도 떼나르디에네 계집년이 무서웠던것이다. 이런 형편이니 꼬제뜨는 길을 다우칠수 없었다. 그의 걸음은 여간만 뜨지 않았다. 머물러서는 시간을 줄이고 될수록 오래 걸으려고 아무리 악을 써도 무가내였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몽페르메이유까지 한시간도 더 걸릴것이다. 떼나르디에네 계집년한테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엎친데덮치는 격으로 밤중에 홀로 숲속에 있다는 공포심까지 덧쳤다. 그는 지칠대로 지쳤기때문에 아직 숲을 벗어나지도 못하고있었다. 눈에 익은 밤나무고목곁까지 와서 충분히 쉬여가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조금 오래 머물러섰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통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절망에 사로잡힌 가련한 소녀의 입에선 《아, 하느님! 아, 하느님!》 하는 소리가 저절로 새여나왔다.

그때였다. 소녀는 갑자기 물통이 가뻔해지는것을 느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통손잡이를 움켜쥐더니 닁큼 들어올리는것이였다. 꼬제뜨는 얼굴을 쳐들었다. 알지 못할 커다란 사나이가 어둠속을

자기와 나란히 걷고있었다. 그가 꼬제뜨의 뒤를 좇아왔으나 소녀는 그의 발자국소리조차 듣지 못했던것이다. 사나이는 말 한마디 없이 꼬제뜨가 들고있는 통의 손잡이를 잡았다.

인생의 그 어떠한 사건이건 그에 대응하는 본능이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꼬제뜨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 …

7. 어둠속에서 알지 못할 사람과 나란히 걷는 꼬제뜨

우에서 말한대로 꼬제뜨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사나이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바스에 가까왔다.

《애야, 이건 너같은 어린애에겐 너무 무거울것 같구나.》

꼬제뜨는 머리를 들고 대답했다.

《네, 무거워요.》

《이리 다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내가 들어다주마.》

꼬제뜨는 통을 놓았다. 사나이는 소녀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무겁구나.》 하고 그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나서 《애야, 너 몇살이냐?》 하고 물었다.

《여덟살야요.》

《이걸 먼데서 들고 왔느냐?》

《숲속 샘터에서 들고 왔어요.》

《갈길이 아직 머냐?》

《여기서 15분은 걸려요.》

사나이는 잠시 아무 말 없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에겐 어머니가 없나보구나.》

《몰라요.》 하고 아이는 대답했다.

사나이는 무어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소녀는 덧붙였다.

《내겐 어머니가 애당초 없었나봐요.》

사나이는 머물러서더니 물통을 땅에다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꼬제뜨의 량어깨에 손을 얹고서 캄캄한 어둠속으로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다.

꼬제뜨의 여위여가는 가냘픈 얼굴이 희끄무레한 하늘빛에 희미하게 드러나보였다.

《네 이름이 무어냐?》 하고 사나이는 물었다.

《꼬제뜨야요.》

사나이는 마치도 전기에라도 감전된듯싶어보였다. 그는 좀더 자세히 소녀를 뜯어보더니 두손을 그의 어깨에서 뗀 다음 통을 집어들고 걷기 시작했다.

잠시후 그는 다시 물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사니?》

《몽페르메이유에서 살아요. 나리는 거길 아시나요.…》

《이제 그리로 가는거냐?》

《네.》

그는 잠간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밤중에 대체 누가 널 숲속에 물을 길러 보내더냐?》

《떼나르디에네 아주머니예요.》

사나이는 또 물었다. 태연하게 말하려고 애쓰는것 같았으나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떨렸다.

《떼나르디에네 아주머니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 집 주인아주머니예요.》 하고 아이는 말했다.

《려인숙을 해요.》

《려인숙?》 하고 사나이는 되뇌였다.

《그럼 나도 오늘 저녁 거기서 묵자. 나를 안내해다구.》

《그리로 가는 길이예요.》 하고 아이는 말했다. 사나이는 꽤 빨리 걸었다. 그런데도 꼬제뜨는 곧잘 따라갔다.

… …

그들은 마을에 다달았다. 꼬제뜨는 알지 못할 사나이를 인도해갔다. 그들은 빵가게앞을 지났다. 그렇지만 꼬제뜨는 빵을 사오라던 말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사나이는 더는 묻지 않고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들이 교회당앞을 지나 구멍가게가 늘어서있는것을 보자 꼬제뜨에게 물었다.

《여긴 장마당이냐?》

《아니예요. 크리스마스때문이예요.》

그들이 려인숙가까이에 왔을 때 꼬제뜨는 겁에 질려 사나이의 팔을 꽉 잡았다.

《나리？》

《왜 그러니？》

《거진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젠 물통을 돌려주어요.》

《어째서？》

《남이 통을 들어다준걸 알면 아주머니가 때려요.》

사나이는 소녀에게 통을 내주었다. 잠시후 그들은 려인숙대문앞에 와있었다.

8. 돈냥이나 있어보이는 가난뱅이를 언짢게 맞아들이다

꼬제뜨는 저도모르게 장난감가게에 놓여있는 커다란 인형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려인숙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떼나르디에네 계집년이 손에 초불을 들고 나타났다.

《난 또 누구라구, 요 빌어먹을 계집년같으니라구！ 뭘하느라 이렇게 늦었어？ 조놈의 계집애가 꼬물거리다 이제야 오는게야.》

《아주머니.》 하고 꼬제뜨는 온몸을 떨면서 말했다.

《손님을 한분 모시고 왔어요.》

계집년의 험상궂던 얼굴이 대번에 부드러워졌다. 려인숙을 해먹을만 하였다.

그러더니 손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입니까？》 하고 그 계집년은 말했다.

《그렇소.》 하고 사나이는 모자를 벗어들면서 대답했다. 돈많은 손님이라면 이렇게 상냥하게는 굴지 않는 법이다. 그의 거동과 옷차림과 보따리를 다시 살펴보더니 떼나르디에네 계집년의 발라맞추던 상판은 금시 샐쭉해졌다. 계집년은 쌀쌀하게 말했다.

《들어오시구려. 아바이.》

《아바이》는 안으로 들어갔다. 계집년은 다시 흘끔 그의 모습을 살피고 낡아빠진 후록코트와 해져가는 모자를 유심히 뜯어보더

니 머리를 쳐들어 코등을 찌프리면서 눈을 끔벅해 남편의 의향을 물었다. 여느때처럼 말몰이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있던 사내놈은 슬쩍 둘째손가락을 움직여 거기에 대답했다. 입술까지 비죽 내밀어 보이는데 《건달이다.》라는 뜻이다. 그것을 보자 녀편네는 커다란 소리로 지껄여댔다.

《여봐요 손님, 미안하지만 빈 방이 없구려.》

《아무데나 좋으니 묵게 해주시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광이건 마구간이건 좋습니다. 그래도 방세는 제 값을 물테요.》

《40쑤라오.》

《40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40쑤라고!》 하고 말몰이군이 계집년에게 나지막히 속삭이였다.

《20쑤가 아니던가요.》

《저 사람에겐 40쑤란 말요.》 하고 계집년이 나직하게 대꾸했다.

《그보다 싸겐 거렁뱅이를 재울수 없거든요.》

《그렇구말구.》 하고 사내놈도 조용하게 말을 보태였다.

《저따위를 재우면 우리 집 위신이 떨어진단 말야.》

그러는 사이에 사나이는 걸상우에 보따리와 지팽이를 놓고서 식탁에 마주앉았다. 꼬제뜨는 서둘러 포도주 한병과 잔을 가져왔다.

… …

9. 떼나르디에의 계교

… …

두 사람만이 남자 떼나르디에는 손님에게 의자를 권했다. 손님은 의자에 앉았다. 떼나르디에는 선채로였다. 그의 얼굴에는 호인답게 소박해보이는 독특한 표정이 나타나있었다.

《나으리.》 하고 그는 말했다.

《자, 들어주십쇼. 저는 그 애를 무척 사랑하고있답니다.》

사나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느 앨 말이요?》

떼나르디에는 말을 계속했다.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어쩐지 자꾸만 마음이 끌리니. 아니 그런데 이건 웬 돈입니까. 이건 거두십시오. 저는 그 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굴 두고 하는 말이요?》 하고 사나이는 물었다.

《저의 집에 있는 꼬제뜨말입죠! 나으리가 그 애를 데려가겠다 하셨죠. 헌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나으리가 훌륭한분인만큼, 저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 애가 없고보면 허전해서 못 견딜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키워왔으니까요. 돈이 든것도 사실이고 걔 몸이 개운치 않은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넉넉치 못한것도 사실이고 또 걔가 앓을 때 4백프랑이 넘는 약값을 문것도 사실입죠.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해야 하잖겠습니까. 애비도 어미도 없는 애를 내 손 하나로 길러냈답니다. 저에겐 제 집식구 이외에 그 애를 먹여 살릴만 한 돈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애를 여간만 소중히 여기고있지 않답니다. 말하자면 정이 든게지요. 저는 사람이 똑똑치 못하며 말주변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애를 귀여워합니다. 집사람은 좀 팔팔하긴 하지만 역시 그 애를 사랑하고있습죠. 보시는바와 같이 제자식처럼 기르고있습니다. 그 애가 집안에서 재깔대는게 여간만 락이 아니랍니다.》

사나이는 떼나르디에를 면바로 쏘아보고있었다.

주인놈이 말을 계속하였다.

《실례의 말 같습니다만 나으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애를 훌쩍 내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사리에 어긋나는 말은 아니죠? 나으리는 부자이고 또 보아하니 아주 훌륭한분이지만 그게 그 애의 전도를 위해서 꼭 좋은 일이라고 단언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사정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걔를 나으리께 맡겨 저의 사사로운 정리쯤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간다는것쯤 알고싶은게 인정이 아닐가요. 영영 못 보게 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있는것쯤 알아두고서 때로는 만나러 가기도 해야 할게 아니겠어요? 또 저 애로 말하더라도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있어 자기를 항상 념려해주고있다는것쯤 알게 하도록 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뜻밖의 일도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름조차 모르는 나으리가 저것을 데려가신다면 우리 아루에뜨가 어디 가있을가 하

고 밤낮 마음이 놓이지 않을겝니다. 무슨 증명서라도 통행증 같은 것이라도 좀 보았으면 싶습니다!》

사나이는 상대편의 본심을 낱낱이 꿰뚫고있는듯 한 시선으로 계속 주인놈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떼나르디에씨, 빠리에서 5리쯤 떠나오는데 통행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꼬제뜨를 준다면 데리고 갈뿐이지 그밖에 무슨 수속이 필요하오. 내 이름도 내 주소도 또 꼬제뜨가 어디로 가는가도 당신에게 알릴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저 애가 다시는 당신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해주고싶소. 나는 저 애의 다리에 매여있는 포승을 끌러주고싶소. 그래 어떻소. 응하겠소, 안하겠소?》

악마나 요귀가 자기보다 뛰여난 신을 알아보듯이 떼나르디에도 상대가 웬간히 손아귀가 세다는것을 깨달았다.

…

《나으리》 하고 그는 말하였다.

《1 500프랑은 주셔야겠습니다.》

낮모를 손님은 호주머니에서 낡아빠진 검은 가죽지갑을 꺼내더니 그것을 열어서 지페 석장을 탁자우에 놓았다. 그리고는 그 지페를 커다란 엄지손가락으로 누른채 주인놈에게 일렀다.

《꼬제뜨를 데려오시오.》

…

사내놈의 분부로 꼬제뜨를 데리러 온것이였다. 이상하게도 자기를 때리지도 않으려니와 욕도 하지 않았다.

《꼬제뜨》 하고 계집년은 웬간히 싹싹하게 말했다.

《빨리 이리로 오너라.》

잠시후에 꼬제뜨는 천장이 낮은 방으로 들어왔다.

알지 못하는 사나이는 손에 들고있던 꾸레미를 끌렀다. 거기에는 조그만 모직저고리와 앞치마, 면마교직으로 만든 내복, 치마, 어깨걸개, 털양말 등 필요한 옷일습이 들어있었다. 빛갈은 모두 검은 빛갈이였다.

《애, 아가.》 하고 사나이는 일렀다.

《이걸 가지고가서 곧 갈아입고 오너라.》

그날 해뜰무렵에 문을 열기 시작한 몽페르메이유마을사람들은 루추하게 차린 로인이 팔에 커다란 장미빛인형을 안은 상복차림소녀의 손을 잡고서 빠리통로로 걸어가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리브리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그 손님과 꼬제뜨였다.

그 사나이를 알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꼬제뜨도 지금은 누데기를 입지 않았으므로 거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꼬제뜨는 그곳을 떠나가고있었다. 누구와 함께? 그는 몰랐다. 어디로? 그것도 몰랐다. 다만 소녀가 아는것은 인제 자기는 떼나르디에네 음식점을 뒤에 두고 떠난다는 사실뿐이였다. 어느 누구하나 소녀에게 작별을 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소녀에게도 작별을 고할 사람이 없었다. 미움을 받고 미워하던 그 집에서 소녀는 나온것이였다. 지금까지 마음에 압박만을 받아온 가련한 어린것이여!

꼬제뜨는 그 어글어글한 눈을 크게 뜨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힘있게 걸어갔다.

…

려인숙— (지난날에) 《작은 려관》을 이르던 말.

교회당— (그리스도교에서) 여러가지 종교적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크리스마스— (들어온 말) (그리스도교에서) 예수가 태여났다고 하는 날. 12월 25일이다. (같은말—성탄절, 성탄제)

후록코트— (들어온 말) (낡은 사회에서) 주로 관리들이 입는 례복의 한가지.

프랑, 쑤—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 나라에서 쓰는 돈의 단위. 프랑은 우리나라의 《원》에 해당하고 쑤는 《전》에 해당한다.

독부— 독살스러운 녀자.

면마교직— 고사리무늬를 새겨 짠 천.

아루에뜨— (프랑스말로) 종달새. 꼬제뜨를 달리 부르던 이름.

압록강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설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 같은 작품들을 다 읽어야 합니다.》

《압록강가에서》는 중국작가 쟝광츠(1901—1931)가 1926년에 창작한 단편소설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린(길림)시절에 읽으시고 큰 감명을 받으셨던 작품이다.

쟝광츠는 중국 안후이성 류안(안휘성 륙안)의 어느 한 소상인 가정에서 태여나 학생시기부터 민주주의혁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모스크바류학기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생의 전기간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렸으며 혁명문학의 구호를 제일먼저 추켜든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28년에 동지들과 함께 《태양사》라는 좌익적인 문학단체를 조직하고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편집출판하였다.

쟝광츠는 1929년에 일본에 건너갔다가 다음해에 귀국한 다음부터 주로 로씨야의 소설을 번역하는 사업과 《로씨야문학》, 《로씨야문학개관》 등의 책을 집필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서는 시집들인 《새꿈》, 《중국을 애도한다》, 《전투의 북》, 중편소설 《소년방랑자》, 단편소설 《압록강가에서》, 장편소설 《울부짖는 대지》(일명 《전야의 바람》)가 있다.

단편소설 《압록강가에서》는 1920년대초의 조선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했던 조선인민의 생활처지를 보여주고 반일애국투사의 형상을 창조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닌 리맹한과 운고의 형상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망국노의 쓰라린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는데 있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소설에는 주인공들의 형상에 감상적인 애정세계와 번민, 슬픔의 감정이 너무 진하게 반영된 약점이 나타나고있다. 그들은 아직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있던 시기의 혁명운동자의 형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 … …

그날 저녁은 여덟시쯤부터 눈이 펑펑 쏟아지고 날씨가 몹시 차지기 시작하였다. 나와 한호실에 든 사람은 셋이였는데 페르샤사람, 조선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국사람 C군이였다. 우리는 침실에 잡부가 없어서 방을 쓸거나 뻬치까에 불을 피우는것 같은 일을 모두 우리 손으로 하였다. 이것은 로동을 사랑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이날 저녁엔 어찌나 추웠던지 우리는 모두 달라붙어 불을 피웠다. 나무는 로씨야의 특유한 봇나무였는데 그 봇나무장작은 빨리 타고 불땀도 여간만 세지 않았다. 불이 피여나자 우리는 빙 둘러앉아 한담을 벌렸다.

… … …

그중에서도 페르샤에서 온 동무가 그 무슨 보물이라도 얻은듯 제일 신바람이 나서 손세를 써가며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온 동무는 언제 봐도 잠자코 앉아 좀처럼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남들이 하는 사랑이야기를 들으며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지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묻군 하였다.

《자넨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그는 시무룩이 웃을뿐 대답이 없었다. 혹 대답할 경우에도 한마디로 굼때군 하였다.

《아무 근심도 없네.》

그는 나에게 진정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어떤 가슴아픈 사연이 있으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이 조선동무의 이름은 리맹한이였다. 그는 스무살이 갓 넘은 이쁘장한 젊은이였다. 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녀성적인데가 있어 사람들과 말할 때면 늘 얼굴에 홍조를 띠우군 하였다.

나는 자주 그에게 롱을 걸었고 동무들앞에서 그를 나의 애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얼굴이 붉깃해졌지만 그렇다고 성을 내거나 탓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가끔 그에게 거만하게 군적도 있었으나 진정으로 그를 좋아하였고 그와 가까이 지내려 하였는데 그의 녀성적인 성미가 얼마간의 즐거움을 주었기때문이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깊이 존경하기도 하였다. 그는 남달리 공부에 열중하였고 도량이 컸으며 또 말수가 적어 내가 배워야할 점들이 많았던것이다. 그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다. 나를 대해주는 그의 태도는 나에게 저으기 위안을 주는것이였다.

우리가 뻬치까앞에 둘러앉아 한창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페르샤에서 온 동무(그의 이름은 쑤단스터였다.)가 제기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우리모두가 자기의 사랑이야기를 하되 조금도 숨김없이 털어놓자고 하였다. 이때 C군은 동무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 … …

리맹한은 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자네들이 정 듣고싶다면 내 한마디 하지. 내 생각에 나는 련정의 세계에서 제일 슬픔을 맛본 사람인것 같네!》

《그렇다면 더우기 자네가 오늘 저녁엔 그 슬픔을 우리에게 들려줘야겠네.》

쑤단스터가 한마디 끼여들었다.

《금년 3월에 나는 서울에서 로씨야로 망명해온 한 조선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확실한 소식을 알게 되였네. 나의 사랑, 나의 가련한 애인은 슬픔에 잠긴 조선의 한 도시에서 일본놈의 감옥에 갇혀 끝내 죽고말았네.》

리맹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울상이 되였다.

《아!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쑤단스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너무도 구슬픔에 끌려 할 말을 찾지 못했던것이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댔나? 응 리맹한?》

《무슨 죄를 지었는가구? 쑤단스터, 자넨 우리 조선형편을 모를걸세. 우리 조선은 일본놈들에게 강점당한 후 조선인민은… 아! 가련하지, 가련해! 해종일 고통속에서 천근만근으로 지지누르는 일본

놈의 압박밑에서 살고있네. 죄를 졌건 안 졌건 그게 문제가 아닐세. 일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대하면 그것이 큰 죄로 되여 함부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다네. 왜놈들은 조선사람의 목숨을 닭의 목숨처럼 여기며 죄가 있건 없건 묻지도 않고 막 죽이는판일세. 불쌍한 나의 애인, 나의 운고도 그 간악한 왜놈들에게 학대받다가 죽을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겠나!》

리맹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었다. 내 마음도 괴롭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속에 잠겼다. 리맹한은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지금 망명객이네. 조국으로 돌아갈수 없는 사람일세. 만약 돌아간다면 나는 일본놈들에게 체포될게구 나의 생명은 담보할수 없게 될걸세. 아, 나의 벗들! 조선이 독립하지 않는다면, 만약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압박밑에서 조국을 해방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조국으로 돌아갈수 없게 될걸세. 나는 진정 내 애인의 무덤가에 가고싶네. 애인의 무덤앞에 엎드려 내 마음속의 슬픔을 터치며 울고싶네. 그리구 나의 조국의 가련한 모습과 수난받는 동포들을 보고싶네. 그 아름다운 우리 집 정원을 보고싶네.

그러나 나는, 나는 그렇게 할수 없는 처지네. 나는 그렇게 할수 없는 처지란 말일세!…》

리맹한은 눈물을 흘렸다. 쑤단스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였지만 지금은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있었다. 나는 리맹한의 비통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지옥속의 조선인민을 그려보며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리맹한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워이쯔! 자넨 바로 알아맞혔네. 자넨 노상 나에게 그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고 말했지. 그렇네. 조국을 잃고 동포들은 수난당하고 애인은 억울하게 죽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데 있겠는가? 워이쯔! 내가 만약 조국을 해방할 희망을 품고있지 않다면, 아무때건 나의 운고의 무덤앞에 가볼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나는 오래전에 벌써 죽고말았을거네. 나는 내 의지가 자못 굳세다고 믿고있네. 나는 비록 끝없는 비애에 잠겨있지만 그러나 열렬한 희망을 품고있네. 나는 나의 운고가 조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것을 알고있네. 나는 조선을 해방하고야말겠네. 그것

은 운고의 령혼을 위로하고 또 그의 원쑤를 갚는것으로 될걸세. 워이쯔! 자넨 내 말을 알아듣겠나?》

《알구말구, 리맹한! 내 생각엔 희망은 가지되 슬픔은 좀 더는게 좋겠네. 좌우간 좋네. 오늘은 운고와 련애하던 경위나 말해주게. 래일 오전에 수업이 없네. 라지예브교수가 앓아서 우리는 늦잠을 자도 괜찮네. 쑤단스터! 자넨 뭘 생각하나? 왜 말이 없나?》

《나는 리맹한의 말에 얼이 빠졌네. 자, 리맹한! 오늘은 사랑이야기나 하게.》

리맹한은 자기와 운고의 력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 …

이는 벌써 10년전의 일이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두 아이가 (한 아이는 남자였고 한 아이는 녀자였네.)거의 매일이다싶이 이 수풀속에 와서 해종일 놀았다네. 두 아이는 나이가 어슷비슷하였는데 둘다 예닐곱살 나보였네. 그들의 모습은 말그대로 한쌍의 어린 천사였지! 그 남자애에 대해서는 우리 더 말하지 말고 천사같은 녀자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구. 그의 장미와 같은 작은 얼굴, 가을물같이 정기도는 두눈, 발그레한 연한 입술, 죽순같은 작은 손, 칠흑같이 검은 숱많은 머리칼, 거기다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두개의 작은 볼우물, 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것 같은 이 꼬마천사를 좀처럼 형용해낼수가 없네그려. 벗들, 자네들은 혹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나 내가 어떻게 그의 용모를 만분의 일인들 그려낼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를 상상할수는 있어도 좀체로 그의 용모를 잘 그려낼수가 없네.

이 두 아이는 온종일 수풀속에서 놀군 했네. 수풀속에서 달음박질을 하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집을 짓고는 이 방엔 내가 살고 저 방엔 네가 살고 또 저쪽 방엔 어머니가 살고 하며 즐겁게 놀았고 때론 조약돌을 주어들고 바다가에 뛰여나가 누가 더 멀리, 더 큰소리나게 던지는가 내기를 걸고 바다물에 돌을 던지기도 했네. 또 때론 풀밭에 나란히 누워 날아가는 흰구름송이를 바라보기도 하였고 때론 과일을 가지고 술상을 차려 손님을 청하는 놀음도 하고 때론 큰 바위돌에 나란히 앉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며 남들한테서 들은 옛말도 했고 래일

은 어떻게 놀것인가를 의논하기도 하였네. 그들 둘은 손을 맞잡고 바다가에 나란히 서서 오고가는 돛배며 꿈틀거리는 바다물을 보기도 하였네. 그들 둘은 간혹 다투는 때도 있었지만 다투고나서도 얼마후에는 곧 친해졌네. 한번도 사이가 나빠진적이 없었지. 그들 둘은 갈라놓을수 없는 단짝이였으며 함께 있지 않은적이란 거의 없었네. 이렇듯 근심걱정없이 온종일 자연의 품속에서 자라났으니 이 어린 한쌍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벗들, 이 뗄래야 뗄수 없는 한쌍은 바로 10년전의 나와 운고였네. 아! 이게 벌써 10년전 일이란 말일세.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가버렸으니 어떻게 다시 되돌려세울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와 운고가 지난날처럼 행복한 생활을 다시 누릴수 있단 말인가? 생각컨대 나는 참으로 행복하였네. 그러나 그로 하여 나는 또 가슴이 아프네!

나와 운고는 모두 명문가문의 후손이였네. 내 성은 리가고 운고의 성은 김가였네. 이 두 집안은 조선에서 이름있는 집안이였네. 워이쯔, 자네는 혹 알지도 모르겠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 나의 아버지와 운고의 아버지는 모두 관직을 버리고 숲속에 숨어살았네. 그분들은 매우 가까운 친구였네. 친척들의 말에 의하면 형제같이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더군. 우리 두 집은 여라문걸음 떨어져 수림가에 자리잡고있었네. 이 두 늙은이는 망국의 치욕과 동포들의 수난을 몹시 가슴아파했네. 그러나 나무 한가치로는 루각을 세울수 없듯이 힘이 없어 숲속에 숨어 세월을 보내고있었다네. 그들은 때로 화로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슬픔을 토로하고 통곡도 하였네. 그때 나와 운고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네. 두 늙은이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며 그 까닭은 알수 없었지만 어린 가슴에도 한번씩 충격을 받군 했네. 후에 나와 운고는 차츰 나이들면서 두 늙은이가 하는 말을 다소나마 알아듣게 되였는데 두 늙은이는 가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우리가 곁에 가면 늘 중도에서 이야기를 끊고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네. 이는 참으로 우리 두 어린 마음에 지울수 없는 인상으로 새겨졌지. 이젠 두 늙은이의 이야기는 이만 하겠네. 나와 운고는 타고난 벗으로 어려서부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림자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듯이 함께 지냈네. 우리 둘은 네것내것이 없었다네. 어떤 때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

기도 하고 내가 그의 집에 가서 먹기도 했네. 그럴 때면 늘 한상에 가지런히 앉으려 했지. 그렇지 않을 때는 둘이 다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네. 우리 두 집 어머니들도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매우 화목하게 지냈고 우리를 대하는데도 사이를 둔적이 없었다네. 나와 운고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났기때문에 행복하기 그지없었다네! 후에 우리 둘은 나이가 좀 들자 공부를 시작했네. 운고의 아버지가 우리 선생이였지. 우리 둘이 읽는 책은 같은 책이였고 선생이 우리들에게 배워준것도 꼭같은것이였지만 운고는 나보다 좀 더 슬기롭고 총명하여 그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군 했네. 하루에 서너시간씩 공부하고나서 우리 둘은 손에 손을 잡고 숲속이나 바다가에 가서 놀았다네.

…………

세월은 살같이 흘러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어갔지. 나와 운고는 어느덧 열네살이 되였네! 아! 열네살 나던 이해에, 벗들, 나의 슬프고도 불행한 생활이 시작된셈이네. 속담에 〈하늘엔 헤아릴수 없는 풍운조화가 있고 인생은 한때의 화와 복이라〉 했지만 벗들, 우리 조선은 한때의 복은커녕 밤낮으로 화만 겪어야 하는판이였네. 설혹 누가 집안에 앉아 얼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목숨이 담보되는것이 아니였네. 왜놈경찰들과 제국주의사냥개들이 무시로 조선사람들을 잡아다가 반역죄를 들씌워 목을 자르고 총살하는 판국이였으니까. 아! 일본놈들이 조선땅에서 저지르고있는 흉악무도한 만행을 아마 자네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걸세! 자네들의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당하는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 못할걸세.

나의 아버지는 조선독립을 열망한분이였네. 이에 대해서 나는 잘 아네. 이해에 조선사람 하나가 일본경찰놈을 암살하였는데 일본당국은 우리 아버지가 그를 사촉한 혐의자라는것이였네. 그 내막을 나는 통 알수가 없네. 결국 우리 아버지는 체포되여 총…살…당하고말았지.…》

쑤단스터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얼토당토않은 일이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아! 나는 그 일본놈들이 조선땅에서 이렇게까지 악착한짓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네！…》

그러지 않아도 리맹한의 말을 들으며 몸서리를 치던 나는 쑤단스터가 이렇게 나오자 이가 갈렸다. 리맹한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 울음섞인 목소리로 울먹울먹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일본놈들에게 총살당한 후… 우리 어머니… 그…그… 아！ 그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마저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네.…》

쑤단스터는 두눈을 부릅뜨고 말이 없었는데 그 모양은 목석같았다. 나의 두눈은 축축히 젖어들고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쏟아져내렸다. 우리는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때로는 천군만마가 내달리는것 같았고 때로는 파도가 노호하는것 같았으며 때로는 하늘땅이 뒤집히는것 같았다. …바람도 조선의 운명을 구슬퍼하는것인가 아니면 리맹한의 울분으로 하여 저리도 울부짖는것인가？

리맹한은 울음을 그쳤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계속하였다.

《만일 운고가 없었다면, 운고의 고무격려가 없었다면 벗들, 나는 오래전에 우리 부모들을 따라가버렸을거네. 지금 이 자리에 이 리맹한이가 어떻게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자네들이 또 어떻게 이 모스크바에서 내 얼굴을 볼수 있으며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내 말을 들을수 있겠는가？ 아！ 운고는 나의 구원자였지！ 아！ 운고는 내 생명의 고무자였지！

우리 부모가 비참하게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외롭게 남게 되였네. 그런것을 운고의 아버지가(그도 자칫하면 경찰에 잡혀갈번 했는데 숱한 사람들이 보를 서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질수 있었네.) 자기 집에 데려다 자기 아들처럼 길렀네. 그런데도 나는 온종일 울음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자살할수 있을가 하는 궁리만을 했네. 부모를 비참히 잃고 외롭게 남은 내가 이제 무슨 재미로 살랴 싶었기때문이였네. 운고 역시 나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지어 밥까지 먹으려 하지 않았네. 그 녀자는 남달리 총명한 녀자였네. 그는 나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내게서 그 무슨 불상사라도 생길가봐 내 행동을 각별히 살피는것이였네. 내가 자살하고싶은 생각밖에 없다는것을 은근히 밝히자 그는 울었네. 그는 애써 나를 위로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더란 말일세. 아！ 나의 운고, 그는 참으로 존경할만 한 처녀였네！ 그의 식견은 나보다 몇배 더 넓었네. 그는 말하기를 애써 몸을 남겨두면 장차 쓸모가 있으며 언제고 복수할 날이 꼭 온다고 하였네. 죽음이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니 사내대장부답게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고 하였네. 그는 또 말하기를 만일 내가 죽으면 자기도 울음에 지쳐 죽을게라고 하면서 나더러 참아낼수 있는가고 묻기까지 하는것이였네. … 나는 운고의 말이 사리에 맞는다고 느끼고 그의 지혜로운 마음씨에 감동되여 자살하려던 생각을 버렸네. 그때 나는 자살하려고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한가지 근심, 결코 저버릴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네. 아！ 그것이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운고였네. 나의 생명을 맡긴 운고였네！ 벗들, 어디 생각을 좀 해보게. 만일 운고가 나를 고무격려해주지 않았던들 지금 자네들이 이 리맹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수 있었겠는가？

이때로부터 운고는 그야말로 부드럽고도 인자한 나의 어머니로 변하여갔네. 그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고—한마디로 나를 세심히 보살펴줬네. 가끔 나는 그에게 성을 낸적도 있었지만 그는 늘 참아주었으며 조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네. 아, 나의 운고, 나의 사랑하는 운고, 그러나 나는 애석하게도 더는 그의 그 부드럽고 다정하던 손길의 애무를 받을수 없게 되였네！…

이렇게 조용히 또 2년이 지나갔네. 운고는 자라면 자랄수록 더 예뻐지고 자라면 자랄수록 이전보다 더 아름다와졌네. 그의 아름다움을, 아！ 나는 도무지 형용해낼수가 없네. 그렇네. 나는 애당초 이런 속된 말재간을 가지고서는 그의 그 선녀와도 같은 아름다움을 그리려들지 말았어야 했네！ 이 세상엔 나의 운고보다 더 아름다운 녀자들도 있겠지만 내 안중엔, 벗들, 그대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녀자들을 가지고는 털끝만치도 내 마음을 끌지 못하네. 자네들은 평소에 날더러 공부만 알고 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웃었지만 아！ 나의 사랑은 하나의 무덤같아 벌써 그속에 운고는 영원히 잠들어 더는 다른 사람이 차지할것을 용납치 않고있다는것을 자네들이 어떻게 알수 있었겠나？ 나는 결코 운고를 위해 수절하겠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닐세. 이 세상엔 운고보다 더 사랑스런 녀자가 없다고 여기고있을뿐이네. 내가 운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벌써 나의 평생엔 큰 행복이였네. 나는 더는 바랄것이 없네. 벗들, 이젠 자네들도 나를 알겠나? 자네들은 혹 나를 잘 리해 못할지도 모르지.…

나는 어느덧 열여섯살이 되였네. 일본놈들이 나를 그렇게 편안히 지내라고 내버려두었겠나?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의 어머니를 죽이고도 아직 성차지 않아 그놈들은 아, 글쎄 그놈들은 또 나의 생명마저 노리는게 아니겠나. 조선사람이 일본놈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있다고 이놈들은 한사코 조선사람의 씨마저 말리려들고 조선사람을 모조리 죽이려드는지 나는 알수 없었네. …내가 차츰 나이 들자 일본경찰들이 나에게 주목을 돌리고 나를 감시하여 형세가 자못 급하게 되였네. 경찰들이 나를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네. 운고의 아버지는 이런 형편에서 일본놈들이 또 마수를 뻗쳐 언제 어느때 나를 잡아다가 죽일지 모른다면서 몹시 근심하였네. 그분은 집에서 전전긍긍하며 침식을 다 잊으셨네. 하지만 나는 어쨌는지 아나, 나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했네. 그런데 하루는 운고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앉히더군. 주위엔 아무도 없었지. 그분은 내 일때문에 눈물까지 뚝뚝 떨구는게 아니겠나. 나는 이때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네. 그분은 울음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였지.

〈맹한아, 너의 부모가 돌아간 후 내가 너를 내 친자식처럼 여겨왔다는것은 너도 아마 느꼈을게다. 나는 본래 너를 내앞에서 다 키워 한편으로 너의 친부모들이 구천에서 마음놓고 눈을 감게 하고 또 한편으로 죽은 벗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 했다. 이미 너한테 운고까지 허락한 나로서 말이다! 그렇지만 맹한아, 지금 이 조선땅이 더는 네가 살 곳이 못되는구나.… 왜놈경찰이 너를, 아! 그 못된 놈들이 어떤 악의를 품고있는지 누가 알겠니! 만일 네 신변에 불행이 생기고 그놈들의 마수가 다시 뻗친다면 내가 너를 무슨 낯으로 대하고 또 죽은 너의 부모님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니? 아! 나의 맹한아! 때를 놓쳐서는 안될것 같다. 너는 이 고장을 부득불 떠나야 할것 같다. 내가 미리 준비를 다 갖추어놨으니 오늘 밤안으로, 너는… 너는… 꼭 이 슬픔으로 가득찬 조선땅을 떠나야 한다.… 몇해후 아! 몇해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운고의 아버지는 격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목놓아 흐느끼는것이였네. 나는 이때 맑은 하늘에서 생벼락이라도 맞은것처럼 어

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네. 벗들, 자네들이 생각들 좀 해보게나, 이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 그때만 해도 철부지였던 내가 이런 난감한 일에 맞다들었으니, 벗들, 상상들을 좀 해보게, 내가 어떻게 처신했겠나? 이때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네. 나는 그저 운고의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네…

그러나 나의 운고는 어떠했던가? 그는 벌써 자기 아버지가 이때 나에게 한 말뜻을 다 알고있질 않겠나? 아! 어질고 어진 운고! 사리에 밝은 운고! 그는 벌써 알고있었네. 내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도까지도 그는 죄다 자기 아버지와 의논해두었었네. 운고인들 어찌 이렇게 하는것을 원했겠는가? 운고인들 어찌 내가 자기곁에서 떠나는것을 원하였고 내가 홀몸으로 이역멀리에 가서 떠돌아다니는것을 참을수 있었겠는가? 그는 원하지 않았네. 결코 그렇게 될것을 원하지 않았네! 하나 나의 안전을 위해 그는 참고 견디며 나를 슬픈 조국땅에서 떠나보내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네! 아, 그의 마음인들 오죽 괴로왔겠는가!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줄 때 그리고 그자신이 홀로 자기 방에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 때 그리고 창자를 끊는듯 한 그 아픔을 참아갈 때…

이날 밤 10시쯤 되였을 때였네. 한 로인이 고기배 한척을 저어 압록강가의 인적없는 한곳에 살며시 대여놓고는 갈대 우거진 강안에 숨어있었네. 지척을 분간 못할 어둠속에서 한쌍의 젊은이가 허전거리며 조용히 고기배가 서있는 강변으로 걸어오고있었네. 이는 금시 생리별하게 될 한쌍의 원앙새였네. 자네들은 누구도, 아, 누구도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는가를 그려내지 못할걸세! 강안에 이르자 그들은 손에 든 보꾸레미를 떨어뜨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껴울었네. 그들은 울음소리를 크게 낼수 없었네.

〈맹한오빠 이제 가면… 난 오빠가 무고하기만을… 나는 영원히… 오빠의…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꼭… 꼭 한자리에 모여살 날이 올거예요!〉

〈나의 운고! 내 마음도 갈갈이… 찢기는것… 같아… 나도 운고의 소원을 풀기 위해 힘쓰겠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아! 운고는 내 마음속의 빛… 빛…〉

그들은 울기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였네. 아! 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가! 배우에 있던 늙은이가 보다못해 강안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갈라놓으며 무거운 어조로 말하였네.

〈울면 뭘하나, 젊은이, 아무때건 조선땅에도 자유가 회복될 날이 올거네. 그리구 언제건 자네들이 부부가 되여 한자리에 모여 살 날이 올걸세! 지금은 울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네! 운고! 이젠 그만하고 돌아가지. 여기 오래 서있으면 안돼, 남의 눈에 띄면 안되니까.〉

말을 마치자 늙은이는 곧 젊은이를 이끌고 배우에 올라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를 저어갔네. 아마 운고는 여전히 강기슭에 서서 고기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줄곧 바라보고있었을걸세.

아! 벗들, 나의 사랑하는 벗들아! 압록강가에서의 이 리별이 영원한 리별로 될줄이야 또 누가 알았겠는가.… 조선이 자유를 찾게 될 때, 나의 운고, 나의 운고여! 나는 영영 그대의 얼굴을 다시는 볼수 없게 되였구려! 언제건 한자리에 모여살 날이 온다고 하던 그대를!

압록강반은 내가 영원히 추억해야 할 땅이네. 해마다 흘러가는 강물의 흐느낌소리는 조선의 운명을 두고 구슬피 우는것이며 나의 그 불쌍한 운고를 위하여 원한을 터뜨리는것이라네!

나는 이날 밤 중국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이태를 보내고 다시 중국을 떠나 해방된 이 로씨야땅에 와서 2년간 붉은군대병사로 복무하다가 어느덧 오늘에 이르렀네. 꼽아보면 조국을 떠난지도 벌써 6～7년이나 되네. 그동안 내 마음은 한순간도 조국과 나의 운고와 떨어져있어본적이 없네! 나는 조국에서 뛰쳐나온 후 한번도 운고의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네. 실상 우리 둘은 편지를 주고받을 기회마저 못 가졌네. 나는 줄곧 그와 한자리에 모여살 날만을 바라며 살아왔건만 누가 알았겠나. 금년 정초에 그마저 또 왜놈들의 손에 죽을줄이야! 아! 강물의 흐름은 끝이 있건만 내 가슴에 맺히고 서린 원한은 가셔질 날이 있을것 같지 않네!》

《대관절 자네의 운고가 무슨 죄로 죽었나?》

내가 끼여들어 물었다.

리맹한은 눈섭을 쪼프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슨 죄로 죽었는가구?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고려사회

주의청년동맹 부녀부 비서로 일하였는데 어느날 로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본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파업을 선동했다는 죄명을 들쓰게 되였다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였고 끝내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었다는걸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판정에서 일본놈들의 만행을 크게 꾸짖으면서 조선의 로동군중이 다 죽지 않는 한 자유조선이 실현될 날은 꼭 온다고 말하였다니, 아, 이 얼마나 장한 웨침인가! 나는 이런 녀인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네. 벗들, 자네들은 나를 위하여 이 신성한 녀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녀인을 또 찾아낼수 있단 말인가?…》

리맹한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동무를 만나러 밖에 나갔던 C군이 돌아왔다. 온몸에 눈을 함빡 뒤집어쓴 C군은 마치 해오라기같았다. 우리의 눈길은 일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끊기였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었다. 우리는 뻬치까의 불을 끄고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리맹한이 자리에 든 후에도 오래동안 잠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자주 한숨 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망명객— 망명가. (낡은 사회에서) 정치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자기 나라에서의 정치적탄압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간 사람.

천사— ① (종교에서) 《신이나 하느님의 사도》를 이르는 말.
② (봉건사회에서) 황제가 보낸 사신.

죽순— 참대나무의 어린 순. 연하여 먹을수 있다.

루각— 문과 벽이 없이 확 트이여 사방을 바라볼수 있게 지은 훌륭한 큰 집.

풍운조화—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조화》를 이르는 말.

천군만마— 썩 많은 군사와 군대말.

전전긍긍하다—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바를 모르는것》을 한문투로 이르는 말.

구천— 《저승》을 달리 이르는 말.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이른바 넋이 가서 있게 된다고 하는 곳.

우제니 그랑데

《우제니 그랑데》는 프랑스의 작가 발자끄(1799—1850)가 1833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발자끄는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입니다. 발자끄는 수십편의 소설을 묶은 총서 〈인간희극〉에서 19세기 전반기의 프랑스사회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노레 더 발자끄는 프랑스의 남방도시 뚜르의 농민출신의 관리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빠리의 소르본느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였지만 법률가가 되지 않고 평소의 희망대로 문학창작을 시작했다. 그는 출판사업도 하고 글도 쓰기 위해 출판업에 손을 댔으나 실패만 거듭하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였다. 이 빚을 갚기 위해 1828년에 첫 장편소설 《슈앙당원》을 썼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여기서 고무를 받은 그는 긴장한 창작활동을 벌려 어떤 해에는 장편소설만도 10여편을 썼다. 그러나 그는 심장병이 도져 끝내 빚을 다 물지 못하고 51살에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대표적인것은 소설총서 《인간희극》이다. 그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현실을 여러모로 그린 97편의 소설에서 각 계층을 대표하는 2 000여명의 인물상을 그려놓고 황금을 위해 각축전을 벌리다가 인간성을 다 잃고 기형화되여가는 부르죠아지들의 모습을 《인간희극》이라고 불렀던것이다.

이 《인간희극》에 속하는 소설들인 《곱세크》, 《우제니 그랑데》, 《고리오령감》, 《환멸》, 《절대의 탐구》, 《농민》 등이 널리 알려져있다.

장편소설 《우제니 그랑데》는 쏘뮤르라는 지방소도시의 장사군이며 고리대금업자인 그랑데령감과 그의 외동딸 우제니의 운명을 통하여 황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어느 정도로 기형적으로 만드는가를 그린 작품이다.

그랑데령감은 무서운 수전노로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있지만 온 가족이 거지나 다름없이 살게 만든다. 자기자신이 먹고 입는것

을 아낄뿐아니라 병들어 앓는 안해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도 배불리 먹이지 않으며 다 낡아빠진 습기찬 방에서 너무 추워 부들부들 떨면서도 장작 한가치가 아까와 불을 때지 못하게 한다. 이때 그의 동생이 은행이 파산당하여 자살하게 되면서 외아들 샤를르를 그에게 보내온다. 그랑데령감은 가난한 조카를 천대하면서 쫓아내다싶이 외국으로 떠나보낸다. 샤를르를 사랑하는 우제니는(그때 프랑스에는 사촌끼리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아버지한테서 생일때마다 선물로 받았던 금화를 그에게 준다. 이것을 알게 된 그랑데는 딸을 가두고 검은 빵과 맹물만 주게 한다. 안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이 심해져 죽고만다. 령감은 안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우제니를 구슬려 몽땅 제가 차지하게 만들어버린다. 드디여 그랑데령감도 죽을 날이 온다. 그랑데령감은 이악스럽게 딸을 교양하여 그도 자기처럼 인정을 상실한 메마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선문교재는 이 부분을 발취한것이다.

우제니는 아버지가 죽은 뒤 1 700만FF의 재산을 물려받아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다. 사방에서 청혼자가 나선다. 그러나 우제니는 외국에 간 사촌오빠 샤를르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샤를르는 몇푼의 돈을 벌어가지고 귀국하자 우제니와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다른 귀족녀자와 결혼하여 출세할 꿈을 꾸게 된다. 그의 기억에는 우제니의 집이 가난뱅이로밖에 남아있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빚으로 해서 신세를 망칠 처지에 빠진다. 이 소식을 들은 우제니는 그 빚을 자기가 대신 물어주고 지방재판소장과 결혼한다. 지방재판소장은 우제니의 재산을 탐내여 결혼계약서에 두사람가운데 누가 먼저 죽으면 그의 전재산은 다른 사람의것이 된다는 조항을 박아넣었지만 도리여 제가 먼저 갑자기 죽는다. 우제니는 그의 재산까지 물려받아 더 큰 부자가 되였으나 여전히 외롭게 살아간다.

작가는 그랑데, 샤를르, 우제니 등의 형상을 통해 돈에 대한 욕심때문에 인간성마저 잃고 사랑도 의리도 행복도 돈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폭로비판하고있다.

… …

쏘뮤르장안에서 가장 이름난 의사인 베르쥬랑씨가 곧 왔다. 진찰을 하고나서 그는 그랑데에게 부인의 병이 매우 위독하나 극진한 정신적안정과 가벼운 음식물을 취하게 하며 정성껏 간호를 한다면 늦은가을까지는 견딜수 있을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다.

《돈이 많이 들가요？》 하고 령감태기는 물었다.

《약도 많이 들겠죠？》

《약은 많이 쓸 필요가 없으나 간병을 잘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의사는 어이가 없어서 미소를 금치 못하며 대답하였다.

《아무튼 베르쥬랑선생, 선생은 참 강직한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선생을 믿으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몇번이고 오셔서 보아주십쇼. 우리 마누라를 좀 살려주시구려. 나는 마누라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아시겠소. 걸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지요. 그건 원래 나라는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태우는 성질이니까요. 나는 여간 슬프지 않쉐다. 그 슬픔은 동생이 세상을 떠남과 아울러 우리 집에 스며들어왔지요. 동생때문에 빠리에서 숱한 돈을 썼다우… 정말 눈알이 튀여나올 정도로 돈을 썼지요! 그런데도 아직 끝장이 안 났거든요. 그럼 선생, 안녕히 다녀가시오. 우리 마누라를 살려주시구려. 살릴수 있다면 백프랑, 아니 2백프랑 써도 상관없으니.》

안해가 죽으면 가장 무서운것이 상속문제였기때문에 그랑데가 그처럼 애타게 마누라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고 또 이들 모녀의 어떠한 소망이건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랑데는 친절하게 들어주었고 또 우제니의 그렇듯 정성어린 간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랑데부인은 거침없이 죽음으로 달음질쳐갔다. 그랑데부인은 날마다 쇠약해졌으며 그만한 나이의 녀인들이 병에 걸리면 의례히 그렇듯이 수척해갔다. 그는 가을날의 나무잎처럼 시들어버렸다. 나무잎이 해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드는것과 마찬가지로 천당의 빛은 이 녀인을 빛나게 하였다. 그것은 그랑데부인의 한평생과 어울리는 죽음이였으며 그리스도교도다운 죽음이였다. 이러한 죽음은 숭고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이였다.

1822년 10월에 들어와서 그랑데부인의 미덕과 그 천사같은 참을성,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류달리 빛났다. 그랑데부인은 조금도 탓하지 않고서 잠자듯이 죽어버렸다. 티끌만 한 흠집도 없는 새끼양처럼 천당으로 올라갔다. 그가 이 속세에 남기고간 걱정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차거운 일생의 단짝이던 귀여운 딸뿐이였다. 딸에게 던진 그랑데부인의 마지막눈길은 수많은 불행을 예언해주는듯싶었다. 자기와 같이 순결한 이 어린 양을 욕심스러운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어 그 털을 뜯기우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될것을 생각함인지 그랑데부인은 몸을 오돌오돌 떨었다.

《얘 아가.》 하고 그랑데부인은 숨을 거두기 전에 딸에게 말하였다.

《행복은 천당밖에 없느니라. 너도 이제 알게 될거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튿날 우제니는 자기가 태여났고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은 이 집,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 집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애착을 느꼈다. 객실창문과 팔걸이의자를 바라보는 우제니는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참을길이 없었다. 우제니는 아버지가 자기를 더없이 사랑해주는 바람에 이 늙은 아버지를 자기가 여태 옥생각하여온것이나 아닌가고 생각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아침밥을 먹으러 내려갈 때에 딸한테 와서 팔을 부축해주었다. 아버지는 또 거의 선량하다 할 눈으로 몇시간이고 몇시간이고 딸을 바라보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랑데령감은 딸을 황금덩이처럼 싸고돌았다.

늙은 통장사의 거동이 어찌나 달라졌는지(그는 딸앞에서 절절매였다.) 나농과 끄루쇼네 사람들은 령감이 이처럼 마음이 약해진것은 나이많은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령감의 머리나 몸의 기능이 쇠약해진것이나 아닌가 하고 걱정까지 하였다. 그러나 온 집안이 상복을 입은 날, 저녁식사가 끝난 뒤 령감태기의 이러한 거동의 본색은 끄루쇼에게 드러나고말았다. 그날 저녁 식사에 끄루쇼를 청했기때문에 끄루쇼만은 단골집주인의 속내를 알게 된것이다.

《내 귀여운 아가.》 하고 령감태기는 저녁상을 물리고 문을 죄다 단단히 잠그게 하고나서 우제니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상속자로 되였느니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해결할 일이 좀 있다. 안 그렇소, 끄루쇼?》

《그렇지요.》

《아버지, 오늘 꼭 해결해야만 할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그렇고말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수 없다. 네가 이 애비를 괴롭히지 않으리라고 나도 생각한다마는.》

《아이 아버지두…》

《그렇다면 오늘 저녁으로 당장 해결짓자꾸나.》

《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씀이세요?》

《아가, 그건 내가 말할 일이 못된다. 여보 끄루쇼, 이 애에게 당신이 말 좀 하시구려.》

《아가씨, 댁의 부친님께서는 재산을 나누어가지는것도 파는것도 또 지금 가지고계시는 현금에 대하여 많은 상속세를 무시는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아버님 소망대로 하기 위하여선 오늘 아가씨와 부친님의 공동명의로 되여있는 전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길밖에 없지요.…》

《여보 끄루쇼, 그 애한테 그렇게 말해서 알아들을수 있겠소?》

《가만 계시오. 그랑데, 나한테 맡기시오.》

《네 네, 로형이나 내 딸이 나를 발가벗기려 하지는 않을테니까. 그렇지, 아가?》

《그런데 끄루쇼령감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우제니는 답답증이 나서 물었다.

《간단히 말해서》 하고 대서인은 말을 이었다.

《이 증서에 수표만 하면 된다오. 그렇게 하면 아가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상속권을 포기하고 댁의 아버님과 공유하고계신 전 재산의 사용권을 지금까지대로 아버님이 가지시게 되지요. 물론 아가씨에게 허유권(소유권은 있으나 처분할 권리가 없는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하고 우제니가 대답하였다.

《그 증서를 이리 주세요. 어디다 수표를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시고.》

그랑데령감은 어찌도 흥분되였는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령감은 증서와 자기 딸을, 자기 딸과 증서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땀을 씻었다.

《얘 아가, 그 증서에 수표를 하는것보다 글쎄 그렇게 하면 등기비용이 무척 든단다. 나는 네가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의 재산상속을 깨끗이 포기하고 나한테 맡겨주는게 더 좋을상싶구나. 그렇게 하면 매달 백프랑이란 큰 돈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 너는 네가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미사도 올려줄수 있잖니.… 알겠느냐? 매달 백프랑씩이다. 리브르화페로? 응?》

《아버지, 저는 죄다 아버지 좋으실대로 하겠어요.》

《아가씨.》 하고 대서인이 말했다.

《의무상 한마디 꼭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가씨는 재산이 한푼도 남지 않게 되는…》

《아이 세상에!》 하고 우제니가 말하였다.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잠자코 있소. 끄루쇼. 이젠 다 결정되였으니.》 하고 그랑데는 소리를 지르면서 딸의 손을 잡아당기여 자기 손을 두드렸다.

《우제니, 너는 네가 한 말을 설마 취소하지는 않겠지, 응? 너는 착한 애니까.》

《아이 아버지두…》

그랑데는 진정으로 우제니를 입맞추었다. 그리고 두팔로 숨이 막히도록 꼭 껴안았다.

《애, 아가, 너는 이 애비를 살려주었다. 그야 아버지가 준것을 아버지에게 되돌려준셈이지. 그러니 피장파장이로군, 장사란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이란 장사나 다름없거든. 아버진 너를 축복한다! 너는 의리있는 처녀야. 이 애비를 몹시 사랑하지. 자, 이젠 너 하고

싶은대로 해라. 그럼 여보 끄루숑.》 하고 그랑데는 어이가 없어 멍하고있는 대서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래일 재판소 서기과에 상속권포기증서를 제출해주시구려.》

이튿날 정오경에 우제니는 증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제니는 자기 재산을 략탈하는 행위에 대해 자기스스로 마감일을 한셈이다.

그러나 늙은 통장사는 한달에 백프랑씩 주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하였건만 그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단 한푼도 딸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제니가 롱담삼아 이 말을 하였을 때는 령감태기도 낯을 안 붉힐수 없었다. 령감태기는 부랴부랴 자기 사무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자기 조카한테서 잡아두었던 금붙이의 3분의 1쯤을 딸에게 내놓았다.

《옛다 아가.》 하고 령감태기는 비꼬듯 딸에게 말했다.

《천이백프랑대신 이게 어떠냐？》

《아이 아버지, 정말 이걸 저한테 주시겠어요？》

《래년에도 또 그만큼 주마.》 그랑데는 그것들을 우제니 앞치마에 던져넣어주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 너는 그 녀석의 금붙이를 몽땅 갖게 되지.》 하고 손을 비비며 덧붙여말했다. 자기 딸의 감정을 리용하여 제 배를 채울수 있는게 매우 만족스러웠던것이다.

허나 이 늙은이가 제 아무리 정정한 몸이라 하여도 자기 딸에게 집안살림의 비밀을 가르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령감은 련이어 이태동안이나 딸에게 집안을 꾸려가게 하고 소작료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포도밭과 전장이름과 넓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령감이 어찌나 자기의 탐욕스러운 습관을 딸에게 불어넣었던지 3년째 되는 해에는 우제니 역시 그런 습관을 가지게까지 되고말았다. 그래서 령감은 아주 근심없이 창고열쇠를 딸에게 맡기고 딸을 집안의 안주인격으로 만들어버렸다.

… …

날이 밝으면 령감은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서 자기 방 난로와 분명 금화가 가득차있을 사무실문사이를 연신 왔다갔다하였다. 가

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있기도 했다. 문병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님의 얼굴과 두겹으로 된 사무실철문을 걱정스러운듯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바스락소리만 들려도 무슨 소린지 캐보았다. 그리고 대서인이 크게 놀란바이지만 령감은 안마당에 있는 개하품소리까지 분간해들었던것이다. 새벽녘이나 혹은 소작료를 받을 때라든가 포도밭일군과 셈을 놓을 때 그렇지 않으면 령수증을 줄 때에는 의례히 혼수상태에서 깨여났다. 그리하여 바퀴달린 안락의자를 자기 사무실문앞에까지 굴려가는것이였다. 그는 딸을 시켜서 사무실문을 열게 하고 안에서 우제니가 남몰래 돈포대를 하나하나 쌓아놓는것과 문을 제대로 닫는가 감시하였다. 그리고나서 우제니가 주는 그 귀중한 열쇠를 받아 한결같이 조끼주머니에 넣은 다음에야 아무말없이 먼저자리에 돌아오는것이였다. 령감은 가끔 열쇠를 만져보았다. 한편 령감의 오랜 친구인 대서인은 샤를르 그랑데만 돌아오지 않으면 지방재판소장인 자기 조카가 의례히 돈많은 녀자상속인을 안해로 맞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더욱더 정성을 들여 보살펴주었다. 끄루쇼는 매일같이 그랑데의 분부를 받으러 와서 그의 명령대로 프르와퐁에 갔고 전답과 풀밭과 포도밭에도 갔으며 그 수확물들을 팔아서 모두 금화나 은전으로 만들어주었다. 이 돈들은 령감의 사무실에 쌓여있는 돈포대우에 남몰래 또 쌓이게 되였다.

드디여 마지막발악의 나날이 다가왔다. 이동안 령감의 억센 골격은 파괴와 더불어 모질게 싸웠다. 그는 자기 사무실문앞에 있는 난로 한구석에 자리를 잡은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덮어주는 담요를 모조리 잡아당겨 돌돌 말아가지고 나농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잘 건사해.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꼭 건사해둬라.》

그는 남아있는 온 생명이 담긴 눈을 뜨기만 하면 즉시로 자기 재물을 감추어둔 사무실문을 바라보면서 딸에게 말하군 하였다.

《다 있지? 다 제대로 있지?》

그 목소리는 겁에 질린듯 하였다.

《네, 아버지.》

《금화를 잘 돌보아야 한다.… 내 눈앞에 금화를 가져오너라!》

우제니는 루이금화들을 책상우에 늘어놓았다. 령감은 여러 시간동안 루이금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도 갓난아기들이 어떤 물건을 보기 시작할 때같이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며 얌전하게 누워있는것 같은 모습이였다. 그리고 어린애와 마찬가지로 빙그레 웃음까지 피우는것이였다.

《돈을 보니 기운이 나는구나!》 가끔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얼굴에 더없는 행복의 빛이 떠도는것이였다.

례배당 목사가 령감을 운명시키려고 왔을 때 몇시간전부터 죽은듯이 보이던 령감의 눈이 은으로 만든 십자가와 초대와 성수기를 보자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하여 은붙이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사마귀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움직였다. 그리스도의 초상에 입을 맞추게 하려고 목사가 도금한 십자가를 그의 입술에 갖다대자 령감은 안깐힘을 쓰면서 그것을 잡으려들었다. 령감의 이러한 마지막노력은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고말았다. 령감은 우제니를 불렀다. 이때 우제니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미 차거워진 아버지 손을 눈물로 적시고있었지만 그 딸이 령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주세요.》

《모든걸 잘 보살펴라! 나중에 저승에서 또 보고를 받을테니까.》

령감의 이 마지막말은 그리스도교란 바로 욕심쟁이들의 종교임에 틀림없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우제니 그랑데는 이 세상에, 이 집안에 외토리몸으로 남게 되였다.

축 복

《축복》은 중국프로레타리아문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루쉰(1881—1936)이 1924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신의 작품들은 중국봉건통치제도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자유와 새 생활을 념원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에 중국인민들을 민주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루쉰은 중국의 저장성 사오싱현(절강성 소흥현)의 몰락한 봉건관리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본래이름은 저우수런인데 루쉰은 외가의 성을 따서 37살때부터 쓰기 시작한 필명이다.

루쉰은 어려서부터 중국신화와 전설, 옛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후에 그의 창작에서 큰 밑천으로 되였다.

루쉰은 고향의 서당과 난징 쟝난수사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1902년에 일본에 건너가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몸에 있는 병을 고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의식이 뒤떨어진 머리속의 병을 고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학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다른 나라의 진보적인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사업을 하다가 1918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루쉰은 1930년 3월 상하이(상해)에서 중국좌익작가련맹(좌련)조직에 참가하고 공산당의 령도밑에 반동군벌의 백색테로와 부르죠아어용문인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루쉰은 창작활동 전기간에 600여편의 문예작품을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축복》은 샹린아주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아무리 근면하고 선량한 녀성이라 하더라도 봉건사회제도하에서는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봉건적가부장제와 봉건유교도덕을 신랄히 단죄하고있다.

설명절을 며칠 앞두고 고향 루전에 돌아온 《나》는 한집안친척인 넷째아저씨네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된다. 고향마을의 집집들에서는 《축복》준비를 하느라고 너나없이 분주히 돌아갔다.

고향에 돌아온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보러 나갔다가 길가에서 우연히 샹린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 샹린아주머니는 넷째아저씨네 집에 하인으로 있던 녀자였다.

5년전에 본 일이 있는 그 녀자의 모습은 너무도 몰라보게 변하였다. 머리칼은 온통 새하얗게 되여 전혀 사십전후의 사람같지 않았고 뼈만 남은 얼굴은 누런빛에 검은빛이 돌았으며 그전날의 슬픈 기상마저 사라진것이 꼭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같았다.

거지가 되여버린 샹린아주머니는 《나》를 보자 그래도 인사를 한 다음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 사람이 죽은 뒤에 혼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진짜 지옥이 있는가고 간절히 묻는다.

뜻밖의 질문에 어리둥절해진 《나》는 그에게 어떻게 말해주었으면 좋을지 몰라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다싶이 그 자리를 피한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자기의 애매한 대답이 그 녀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줄지 몰라 몹시 불안해한다. 하루밤이 지났건만 불길한 예감까지 들면서 불안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는다.

《나》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루전을 떠나리라 마음먹는다.

그런데 이튿날 해질무렵 《나》는 샹린아주머니가 한지에서 굶어죽었다는 놀랍고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불길한 예감이 끝내 샹린아주머니의 죽음으로 끝난것이였다. 《나》는 무슨 예감이 들어 령혼과 지옥에 대하여 물어보던 샹린아주머니가 가엾이 죽은것을 가슴아파하면서 《축복》을 앞둔 때 사람이 죽은것을 꺼려하는 넷째아저씨와 밥상을 마주하고 침침한 기분속에 저녁을 먹는다.

그날 밤 《나》는 가물거리는 등잔불아래 홀로 앉아 자신이 알고있는 샹린아주머니에 대하여, 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그 이야기가 선문교재이다.

… …

겨울이라 해가 짧은데다가 눈까지 내렸고 어둠은 벌써 온 거리를 뒤덮어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등잔불아래서 일에 바빴으나 창밖은 매우 고요하였다. 눈송이는 두껍게 내려쌓인 눈이불우에 떨어져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리는듯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정적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홀로 누런빛이 나는 기름등잔아래서 의지할데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샹린아주머니의 일을 생각하였다. 사람들로부터 쓰레기가운데 버림받은 그 싫증이 난 낡아빠진 장난감처럼 취급되던 그는 그래도 이전엔 사람의 까풀만이라도 쓰레기속에서 내밀고있어 심심풀이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 녀자는 어째서 아직까지 살려고 하는가고 이상스럽게 생각했을것이나 지금은 끝내 덧없는 세월에 의하여 깨끗이 쓸리워버리고만셈이다. 령혼이 있고 없는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리하여 현재 무료히 살아가던자가 없어지고 보기 싫던자가 보이지 않는것은 남을 위하여서나 자신을 위하여서나 역시 괜찮은 일이다. 사락사락하는듯 한 눈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나는 한편으로 이 일을 생각해보니 도리여 점점 거뜬해지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이전에 보고 들은 그 녀자의 반생에 대한 토막토막들이 이제 와서는 옹근 하나로 이어지는것이였다.

그 녀자는 루전사람이 아니였다. 어느해 초겨울에 넷째아저씨네 집에서는 녀자하인을 갈게 되였는데 그때 중개인인 워이로파가 그를 데려왔다. 머리에 흰 댕기를 드리고 검은 치마에 남빛겹저고리, 물색배자를 입은 나이 이십륙칠세 되여보이는 녀자였는데 얼굴빛은 누르끄름했으나 두뺨만은 아직 불그스레했다. 워이로파는 그 녀자를 샹린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친정집근처에 사는데 남편이 죽었기때문에 남의 집살이를 하려고 나왔다는것이였다. 넷째아저씨는 량미간을 찌프리였다. 넷째아주머니는 그 녀자가 파부이기때문에 재수없다고 량미간을 찌프린 남편의 뜻을 알아차리였다. 그러나 그 녀자의 모양이 단정하고 또 손발이 억센데다가 눈을 온순히 내려뜨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것을 보아서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여 꾸준히 일할 사람 같기때문에 넷째아저씨가 량미간을 찌프리

건말건 그 녀자를 붙들어두었다. 시험삼아 일을 시켜보는 동안에 그 녀자는 놀고있으면 갑갑증이 나는지 하루종일 일하였다. 또 힘이 세여서 남자 한사람몫이상을 당해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매달 일삯을 오백잎씩 주기로 정하였다.

모두들 그 녀자를 그저 샹린아주머니라고 불렀을뿐 그 녀자의 성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소개한 사람이 워이씨마을사람이고 그의 집과 이웃이라고 이미 말한바 있으므로 아마 그 녀자의 성도 워이일는지 모른다. 그 녀자는 그닥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이 묻기나 해야 대답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 대답조차도 간단하였다. 십여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차츰차츰 알게 되였는데 그 녀자의 집에는 엄한 시어머니와 나무를 할수 있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 봄에 죽은 그의 남편도 본래 나무군이였는데 자기보다 열살 아래였다는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들어 안것이라고는 다만 이것뿐이였다.

세월은 거침없이 지나갔다. 하나 그 녀자는 조금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았고 어떤 일에든지 힘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루씨네 넷째나으리댁에 둔 이 녀자야말로 일 잘하는 남자보다도 낫다고 말하였다.

세밑이 되면 먼지를 턴다, 안팎을 치운다, 닭을 잡고 게사니를 튀하는 등 밤을 새우는 《복례》차비를 혼자 도맡아했기때문에 림시로 일군을 쓰지 않아도 되였다. 이러하였지만 도리여 그 녀자는 만족한듯이 입가에 차츰 웃음까지 떠올랐고 얼굴은 뽀얗게 포동포동해졌다.

설이 방금 지난 뒤였다. 그 녀자는 강가에 쌀을 씻으러 나갔다 오더니 불안한 기색이 돌았다. 강건너 뚝에서 어슬렁거리는 남자가 먼발치로 보였는데 그자가 자기 시집의 큰아버지 비슷할적에는 아마 자기를 찾으러 온것 같다고 말하였다. 넷째아주머니는 몹시 놀라 그에게 자세히 캐여물었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소리를 들은 넷째아저씨는 곧 량미간을 찌프리면서 혀를 찼다.

《이것은 좋지 않아, 아마 이 녀자는 도망쳐온 모양이야.》

그 녀자는 틀림없이 도망해온것이였다.

한 십여일이 지나서 모두들 그 일을 거의다 잊었을무렵에 문득 워이로파가 한 녀인을 데리고 와서 샹린아주머니의 시어머니라고 말하였다. 그 녀인은 산골사람임이 틀림없었지만 사람대하는 품이 침착하고 말도 제법 잘하는 편이였다. 그는 우선 의례히 하는 인사를 끌내고 이어 죄송하다는 말을 한 다음 봄철이 되여 일이 바쁜데다가 집안에는 단지 늙은이와 어린것뿐이여서 사람의 손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는것이였다.

《시어머니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또 딴말이 있어.》 하고 넷째아저씨는 말하였다.

그래 그 녀자의 삯을 다 계산하니 도합 1천 7백오십문이였다. 이것은 그 녀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주인집에 그대로 맡겼던것인데 그의 시어머니에게 내주었다. 그 녀인은 의복까지 찾아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나가버렸다. 바로 오정때였다.

《에그머니, 쌀은? 샹린아주머니가 쌀 일러 가잖았댔나?》

얼마후에야 비로소 넷째아주머니는 생각난듯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점심생각이 났던 모양이였다.

그리하여 모두들 제각기 쌀함박을 찾으러 다녔다. 넷째아주머니는 부엌으로 해서 안마당과 침실까지 둘러보았으나 쌀함박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넷째아저씨는 대문밖에까지 나가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기때문에 곧장 강가로 나가보았더니만 강언덕우에 쌀함박이 댕그러니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옆에는 배추까지 한포기 놓여있었다.

본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오정쯤해서 강가운데는 흰 뜸을 친 배 한척이 떠있었다는것이였다. 배에는 뜸을 온통 씌웠기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안에 있는지는 몰랐고 사전에 그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는것이였다. 샹린아주머니가 쌀 씻으려고 나와서 앉자마자 그 배속에서 산골사람같은 남자 두명이 뛰여나오더니 한자는 그를 붙안고 한자는 그를 곁들어서 배로 끌어가더란것이였다. 샹린아주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처음엔 몇마디 들리더니만 다시는 아무 소리도 없는것을 보니 아마 무엇으로 입을 틀어막은 모양이더라는것이다. 뒤이어 녀인 두명이 배에 올랐는데 하나는 본일 없는 녀자였

고 하나는 분명 워이로파였다는것이다. 배밀창을 엿보기는 하였지만 그닥 분명치 않았는데 미상불 샹린아주머니는 결박되여 배밀창에 곤드라져있는 모양이였다는것이다.

《고약한! 그러나…》 하고 넷째아저씨는 말하였다.

이날은 넷째아주머니가 손수 점심을 안치고 아들이 불을 땠다.

점심때가 지나서 워이로파가 또 왔다.

《고약한!》 하고 넷째아저씨는 또 말하였다.

《어쩔 작정이야? 무슨 렴치로 또 우리한테 왔담.》

넷째아주머니는 그릇을 가시다가 그 로파를 보자마자 성이 발끈 나서 쏘아붙였다.

《자기가 소개해주고서는 또 자기가 저편과 짜가지고 와서 후려갔겠다. 동네가 발깍 뒤집힐듯이 소동을 일으켰으니 남들이 우리를 뭣으로 보겠어? 그래 우리 집을 놀림감으로 아는셈인가?》

《아이구머니, 아니야요. 저는 정말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부러 그걸 밝히려고 왔답니다. 그 계집이 절더러 어데든지 일자릴 얻어달라고 너무 그러기에 그런줄만 알았지 제 시에미를 속이구 온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주인나으리와 주인마님께 정말 미안하게 되였어요. 모두 늙은것이 주책없이 해놓아서 주인나으리께 보일 낯이 없게 됐어요. 하지만 워낙 너그러우신 댁이여서 소인네 같은게 지은 죄를 따지지 않을줄 믿고있어요. 이번엔 제가 꼭 좋은 사람 하나를 구해드리는것으로 사과하겠어요.》

《그러나…》 하고 넷째아저씨는 말하였다.

이리하여 샹린아주머니의 사건은 끝이 나고 얼마 안있어서 역시 사람들은 이 일을 잊어버리게 되였다.

넷째아주머니만은 그후에 들어온 허드레일하는 녀자가 대개 게으르지 않으면 게걸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데다가 게걸스럽기까지 하여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아 샹린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늘 꺼내군 하였다. 매양 그럴 때마다 그는 혼자말을 하였다.

《지금은 무엇이나 하고있는지?》

마음속으로는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이태째 되던 설에는 아주 그것을 단념하였다.

설도 거의다 지나갈무렵에 워이로파가 세배하러 왔다. 벌써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는 워이씨마을 친정에 가서 며칠 머물러있느라니 늦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자연 샹린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하게 되였다.

《그 젊은이 말이요?》

워이로파는 신이 나서 말하였다.

《지금은 운이 틔였지요. 시에미가 잡아갈적에는 벌써 허쟈촌의 허라오류한테 주기로 약속되여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간지 며칠 안되여 곧 꽃가마에 실려갔는걸요.》

《아이구머니, 그런 시에미두 있나.》 하고 넷째아주머니는 놀랐다.

《아이구머니, 참 마님! 그건 정말 대가집마님다운 말씀입지요. 우리 같은 산골가난뱅이들에게야 그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젊은이에겐 시동생이 있으니까 장갈 보내야지요. 그 젊은이가 시집가지 않으면 어데서 돈이 생겨서 시동생 례장을 마련하겠어요? 그 젊은이의 시에미는 물정에 밝은 여간내기가 아니랍니다. 리속이 아주 밝지요. 그래 그 젊은이를 두메산골로 개가시켰지요. 만일 같은 마을사람들에게 주면 선페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두메산골로 외로이 시집가려는 계집이 적기때문에 그 시에미는 8만문이나 받았답니다. 둘째며느리를 맞는데 단지 오만문을 쓰고 또 잔치비용을 제하더라두 만여문이 남았지요. 그러니 이걸 보세요. 글쎄 이렇게 리속이 밝을데라구야.》

《그래 샹린아주머니가 말을 들었나?…》

《뭐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있나요— 누구든 소동을 한바탕 일구는 법인데요. 바줄로 묶어서 가마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내집으로 메고 가서는 족두리를 씌워 절을 시킨 다음에 신방에 처넣구 문을 꽉 잠가버리면 다지요. 하지만 샹린아주머니는 유별나서 그때의 소동이란 굉장했다더군요. 다들 그 젊은이가 글하는 량반댁에서 일했으니까 다르긴 다르다구 하더군요. 마님, 전 개가를 해선 우는것, 죽는다고 야단을 쳐서 풀려난것, 사내집에 갔으나 천지신명에게 례를 이루지 못한것, 차대를 들부신것두 봤는데 샹린아주머닌 이만저

만이 아니였답니다. 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가마속에서 대구 악을 쓰며 욕을 했기때문에 허쟈촌에 이르러서는 목이 꽉 잠겼더랍니다. 가마에서 끌어내서 장정들과 시동생이 달라붙어서두 천지시례를 시키지 못했답니다. 그들이 어찌다 손을 좀 늦췄다가 그만 하느님 맙시사! 머리로 향로상모서리를 들이받아서 머리가 헤작하니 터져 피가 랑자했답니다. 그래 이마에 향재 두웅큼을 틀어박구 헝겊을 두겹이나 감았어두 피를 멈출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모두들 들어붙어서 그를 신랑과 함께 겨우 신방에 처넣어 문을 밖으로 잠근 담에두 여전히 울며불며 욕이였다지요. 정, 정말 참…》 하고 그로파는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만 눈을 아래로 내리깔며 말을 끊어버리였다.

《그리구는 어떻게 됐나?》

넷째아주머니는 또 물었다.

《내가 듣기는 이튿날부터 일어나지 않았다구 해요.》

워이로파는 눈을 치뜨고 대답하였다.

《그담엔?》

《그담엔! 일어났지요. 그해 설날엔 곧 애길 낳았답니다. 사내아이를 말예요. 새해 잡혀선 두살입지요. 내가 이번 친정에 며칠 묵으면서 허쟈촌에 갔다온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 모자가 다 살이 올라 몸들이 좋아졌다는군요. 우에는 시어머니가 없지, 남편은 힘꼴이 좋아 일을 잘하지, 집은 또 제 집이지— 아아 그 녀인은 참 운이 틔였지요.》

이후부터 넷째아주머니도 다시는 샹린아주머니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해 가을, 샹린아주머니에게 운이 틔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한 이태 지나서였다. 그 녀자는 또 넷째아저씨네 안방앞에 서게 되였다. 탁자우에는 둥그스름한 바구니가 하나 뎅그러니 놓여있고 처마밑에는 조그마한 이불꾸레미가 놓여있었다. 그 녀자는 여전히 머리에 흰댕기를 드리고 검정치마에 남빛겹저고리, 물색배자를 입었다. 좀 검푸른데다가 누르스름한 빛이 돌았고 두뺨에는 혈색이 없었다. 내려뜬 눈귀에는 눈물흔적이 있었다. 또 눈도 이전처

럼 그렇게 정기가 없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역시 워이로파였다. 워이로파는 아주 자비심이나 있는듯이 언죽번죽 검질기게 넷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참, 〈하늘의 풍운조화는 헤아릴수 없다〉구, 이 젊은이의 남편이 생때같은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열병으로 명을 마칠줄이야 어느 뉘가 알았겠어요? 본래는 다 낫더랬는데 찬밥 한그릇을 잘못 먹은것이 도져서, 그나마 요행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게다가 이 젊은이는 일손이 좋아서 나무하기, 차따기, 누에치기 이렇게 해서 넉넉히 수절을 할수 있었는데, 어쩌문 어린애까지 또 승냥이한테 물려갈줄 알았겠어요. 봄철두 다 지났는데 마을에 승냥이가 내려올줄을 뉘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그저 외토리로 남았답니다. 그런데 집은 시아주버니란자가 빼앗고 이 젊은일 내쫓았지요. 그러니까 오두갈데가 없어서 하는수없이 옛 주인님을 찾아온것이야요. 이젠 이 젊은이에게는 걸리는것두 없구 또 마침 마님댁에서는 사람을 간다기에 제가 곧 다리고왔습지요.— 제 생각엔 구관이 명관이라구 생내기보다야 정말 낫지요.…》

《전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참으로…》 하고 샹린아주머니는 정기가 없는 눈을 들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전 그저 눈덮인 때만 짐승들이 산속에 먹을것이 없어서 동네루 내려오는줄 알았어요. 봄철에두 내려오는줄은 몰랐어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놓구 애기바구니에 콩을 담아서 우리 아마오더러 문턱에 앉아 그걸 까라고 했지요. 그 앤 참 내가 하는 말이라면 잘 들었어요. 그래 그 앤 나갔지요. 전 집뒤에서 장작을 패구 쌀을 일어서 솥에 안치군 콩을 삶으려고 〈아마오!〉 하구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 나가보니까 땅바닥에 콩만 널려있구 우리 아마오는 간데온데 없질 않겠어요. 그 앤 남의 집에 잘 놀러 가지두 않는터이지만 그래두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없질 않겠어요. 나는 안타까와서 사람들보구 사처로 찾아봐달라구 부탁했지요. 한것이 지나도록 살살이 찾아다니다가 산속에서 가시나무우에 걸려있는 그 애의 조그만 신짝 하나를 봤습지요. 모두들 이것을 보구 이젠 틀렸어, 승냥이한테 물려간게라구

그러지 않아요. 그래 좀 더 들어가봤더니 우리 아마오가 풀숲 웅뎅이에서 벌써 오장을 다 파먹히운채 누워있지 않겠어요. 손엔 그래두 그 애기바구니를 꼭 쥐구…》

그는 흐느껴울며 말을 잇지 못했다.

넷째아주머니는 처음엔 우밋주밋하다가 그의 말을 다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좀 생각해보더니 이윽고 그더러 바구니와 이불짐을 아래방으로 들여가라고 하였다. 워이로파는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이 한숨을 쉬였다. 샹린아주머니는 들어설적보다는 좀 마음이 가라앉아 누구의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서먹서먹함이 없이 이불짐을 들여다놓았다. 이때부터 그는 또다시 루전에서 고용살이를 시작하게 되였다.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샹린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처지가 매우 달라졌다. 이 집에서 일보기 시작한지 이삼일 되여서 주인네들은 그의 손발이 이전처럼 재지 못하고 기억력도 말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죽은 사람같은 그의 얼굴에는 하루종일 가야 웃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넷째아주머니의 말투에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섞이게 되였다. 그 녀자가 올 때 넷째아저씨는 이전처럼 량미간을 찌프렸으나 녀자하인을 두는데 애를 먹은지라 그다지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넌지시 넷째아주머니에게 경계를 해두었다. 즉 이런 사람은 불쌍은 하지만 미풍량속을 어지럽힌 녀자이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제사하는 때에만은 손을 얼씬도 못하게 하여 일체 제상에 올리는 음식은 손수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타서 조상이 운감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넷째아저씨네 집에서 가장 큰 일은 제사였다. 샹린아주머니가 이전에 제일 바빠 돌아간 때도 역시 제사때였다. 그러나 이젠 그는 도리여 한가해졌다. 탁자를 대청가운데 놓고 상보를 드리운 다음에 그는 전에 하던 법대로 술잔과 저가락을 벌려놓으려 하였다.

《샹린아주머니, 내버려둬! 내가 채릴터이니까.》 하고 넷째아주머니가 황망히 말하였다.

그는 민망하여 머밋머밋하며 손을 움츠러뜨렸다. 또 이번에는

초대를 가서 잡으려 하였다.

《샹린아주머니, 내버려둬! 내가 할테니.》 하고 넷째아주머니는 또 황망히 말하였다.

그는 빙빙 몇바퀴 돌기만 하다가 종내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의아쩍게 생각하면서 나갔다. 그가 이날 할수 있었던 일이라야 아궁이앞에서 불을 때는것뿐이였다.

마을사람들도 여전히 샹린아주머니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웃는 얼굴은 쌀쌀하였다. 그는 이런줄은 모르고 눈을 바로 뜨고서 자기가 오매불망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되풀이하는것이였다.

《전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참으로…》 하고 그는 말하였다.

《전 그저 눈덮인 때만 짐승들이 산속에 먹을것이 없어서 동네루 내려오는줄 알았어요. 봄철에두 내려오는줄은 몰랐어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놓구 애기바구니에 콩을 담아서 우리 아마오더러 문턱에 앉아 그걸 까라고 했지요. 그 앤 참 내가 하는 말이라문 잘 들었어요. 그래 그 앤 나갔지요. 전 집뒤에서 장작을 패구 쌀을 일어서 솥에 안치군 콩을 삶으려구 〈아마오!〉 하구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 나가보니까 땅바닥에 콩만 널려있구 우리 아마오는 간데온데 없질 않겠어요? 그래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없질 않겠어요? 나는 안타까와서 사람들보구 찾아봐달라구 부탁했지요. 한겻이나 지나도록 여러 사람이 샅샅이 찾아다니다가 산속에까지 찾아들어가서 가시나무우에 걸려있는 그 애의 조그만 신짝을 봤답니다. 그래 모두들 이것을 보구 이젠 틀렸어, 승냥이한테 물려간게라구 그러잖아요. 그래 좀 더 들어가봤더니 우리 아마오가 풀섶 웅뎅이에서 벌써 오장을 다 파먹히운채 누워있지 않겠어요. 불쌍하게도 그 조그만 애기바구니를 꽉 틀어쥐구…》 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것이였다.

이 이야기는 매우 효력이 있었다.

남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왕왕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말없이 가버린다. 그렇지만 녀인들은 그의 이와 같은것을 관대히 봐주는듯 곧 얼굴에서 멸시하는 기색을 지워버리며 그와 함께

술한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거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어떤 할멈네들은 일부러 그를 찾아서 그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흐느껴우는데까지 이야기를 듣고선 그들도 역시 눈귀에 고였던 눈물을 같이 흘리는것이였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지으며 잘 들었다는듯이 돌아갔는데 또 여러가지로 이에 대해 론의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남들에게 자기의 비참한 이야기를 반복할따름이였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느라고 너덧명씩 달라붙어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다들 외울 정도로 귀에 익어서 가장 자비심이 많고 념불하기 좋아하는 늙은 마나님들에게서조차 이젠 눈물흔적도 볼수 없게 되였다. 그후 온 거리 사람들이 모두 거의 그 녀자의 이야기를 따로외울수 있으리만큼 되여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전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참으로》 하고 그가 이야기의 허두를 떼기만 하면 그들은 곧

《그래 임자야 눈덮인 때만 짐승들이 산속에서 먹을것이 없어서 동네로 내려오는줄 알았지.》 하며 그의 말을 끊어버리고 돌아서갔다.

그러면 그는 입을 벌리고 멍청하니 서서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역시 자기도 흥미가 없는듯이 곧 발걸음을 떼였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일— 즉 애기바구니, 콩 그리고 남의 아이들 같은데서 자기 아마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보려고 하였다. 두세살 난 애들을 보기만 하면 곧 말하였다.

《아이구나, 우리 아마오가 살아있었으면 인젠 이만큼 컸겠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의 눈을 쳐다보곤 놀래여 자기 어머니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가자고 졸랐다. 여기서도 그는 또 혼자 남게 되며 멋적게 되여 발걸음을 옮긴다. 그후는 다들 그의 성질을 알기때문에 눈앞에 아이가 있기만 하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웃을둥말둥하며 앞질러 먼저 그에게 묻는것이였다.

《샹린아주머니, 임자 아마오가 살았으면 인젠 이만큼 컸겠지？》

그는 자기의 슬픈 이야기가 오래동안 여러 사람의 입에 짓씹어져서 이미 찌꺼기가 되여 이제는 다만 싫증과 버림밖에는 아무런 값이 없게 되였다는것을 아직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웃음가운데서 차고 날카로운것을 느끼는것 같아서 다시는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만 그들을 힐끗 쳐다볼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루전에서 여전히 설을 쇠게 되여 섣달스무날 넘어서부터는 분주하기 시작하였다. 넷째아저씨네 집에서는 이번엔 림시로 남자일군을 하나 얻어왔으나 그래도 분주해서 따로 류씨어멈을 데려다가 돕게 하였다. 닭을 잡고 게사니를 튀하는데 류씨어멈은 불교를 믿는 관계로 육붙이를 먹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기때문에 그릇 씻는 일만을 하려고 했다. 샹린아주머니는 불때는것을 제외하고는 할 일이 없어서 류씨어멈의 그릇 씻는것을 보고만 있었다.

눈이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샹린아주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면서 혼자말처럼 말을 끄집어냈다.

《샹린아주머니, 또 시작이구먼.》

류씨어멈은 시끄러운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내 하나 묻겠네. 이마에 난 상처는 그때 떠받아서 생긴거지？》

《으, 응》 하고 흐리멍텅하게 대답하였다.

… …

그는 메마른 조그만 눈으로 샹린아주머니의 이마를 보다가 이번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샹린아주머니는 매우 난처한듯이 곧 웃음을 거두고 시선을 옮겨 푸실푸실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샹린아주머니, 임잔 사실 생각이 빗나갔댔어.》 하고 류씨어멈은 무슨 이상한 비밀이나 말하는것처럼 《좀 더 세게 나가든지 그렇지 아니면 떠받아서 누가 하나 죽든지 했으면 좋았을것인데 이제 와서 보면 임잔 둘째남편하구는 이태두 못 살구서 큰 죄명만 뒤집어썼구만. 생각해보게나. 임자가 장차 죽어서 저승에 가면 그 죽은 두 남편의 귀신이 임자를 두고 싸움질을 할터인데 임잔 누구에

게로 돌려질것인가? 염라대왕도 하는수없이 임잘 톱으로 켜서 그두 귀신에게 나누어줄걸세. 암만해두 내 생각에 참 그건…》

샹린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곧 공포의 빛이 돌았다. 도무지 그것은 산골에선 들어보지 못하던 이야기였다.

《내 생각엔 미리 방도를 차리는게 좋을것 같네. 임잔 자기 몸대신으로 문지방을 하나 토지묘에 시주하게. 그렇게 해서 그 문지방을 이를테면 임자를 천사람이 밟고 만사람이 넘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벗어버리면 죽어서두 고생을 면한다네.》

당장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고민한 모양이였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보니 두눈가장자리에 거무스름한 둥그러미가 생기였다. 조반때가 지나서 그는 곧 마을 서쪽어구에 있는 토지묘에 가서 문턱을 하나 시주하겠다고 청을 드렸다. 묘지기는 처음엔 고집을 세우며 허락하지 않더니 샹린아주머니가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자 마지 못해 들어주는듯이 승낙하였다. 값은 대전 일만이천이였다.

그는 벌써 오래동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마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싫증이 났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류씨어멈과 이야길 주고받은 때로부터는 그 말이 퍼져나가서 허다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돋구었다. 그들은 또다시 그를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화제는 물론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였다. 이번엔 그 녀자의 이마우에 생긴 흠집에 대한것뿐이였다.

… …

그들의 웃는 얼굴과 말하는 투를 보아서 자기를 조소한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샹린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마주 볼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나중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종일 입을 꼭 다문채 남들이 치욕의 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흠집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거리로 심부름도 다니고 마당도 쓸고 남새도 씻고 쌀도 씻는 등 묵묵히 일했다. 근 일년이 지나갔다.

그는 그동안에 일해서 벌어온 삯전을 넷째아주머니한테서 받아 일원짜리 은화 열두잎과 바꾸어가지고는 잠시 말미를 타서 거리 서쪽으로 갔다.

그러나 한겼도 되지 않아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눈도 여느때보다 류달리 정기가 있어보였다.

그는 신이 나서 넷째아주머니에게 토지묘에 문지방을 시주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동지제사를 차릴 때 그는 보다 승기가 났다. 그래서 넷째아주머니가 제사음식 차려놓은 상을 자기 아들과 더불어 맞들어다 대청가운데 놓는것을 보고 샹린아주머니는 아무 생각없이 술잔과 저가락을 가지러 갔다.

《내버려둬, 샹린아주머니!》 하고 넷째아주머니는 황급히 큰소리를 쳤다. 그는 마치 화저가락에라도 닿은것처럼 손을 움츠러뜨렸다. 동시에 갑자기 얼굴빛이 시커매지면서 초대에는 다시 손도 내밀어보지 못하고 그만 실신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분향할 때가 되여 넷째아저씨가 나가라고 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갔다. 이번의 그의 변화란 비상히 큰것이였다. 다음날은 눈만 움푹 들어갔을뿐아니라 정신도 흐리멍텅해졌다.

그후부터 사람이 겁에 질렸다. 어두운 밤과 시꺼먼 그림자를 무서워할뿐아니라 사람을 보아도 그러하였다. 심지어 자기 주인을 보아도 역시 우밋주밋하며 떠는 모양이 마치 대낮에 구멍밖에 나온 쥐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앉아있는 꼴이 나무로 깎은 허수아비같았다. 그후 반년도 못되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서 심지어 쌀 씻으러 갈것까지도 잊어버리군 하였다.

《샹린아주멈, 왜 이리 멍청하구있어? 애당초 그때 집에 두질 않았을걸.》 하고 넷째아주머니는 가끔 경고하듯이 맞대놓고 쏘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그 모양이였다. 령리해질 희망이라군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를 워이로파한테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루전에 있을 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뿐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결국 그후에 곧 그 말이 실현된 모양이다. 그런데 그가 넷째아저씨네 집에서 나가 곧 거지가 되였는지 또 워이로파네 집에 갔다가 거지가 되였는지? 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곁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폭죽소리에 잠을 깨여 콩알만 한

누런 등불빛을 바라보고있었다.

곧 이어서 콩 볶는듯 한 폭죽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넷째아저씨네 집에서 바로 새해를 《축복》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5경이 가까운것을 알았다.

나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또 멀리서 끊임없이 련이어 터지는 폭죽소리를 듣고있었다.

하늘에 가득찬 그 소리들이 합쳐져서 짙은 구름이 되여 푸실푸실 흩날리는 눈송이와 함께 온 거리를 얼싸안은것 같았다.

나는 이 번거로운 음향의 포옹가운데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고 대낮부터 초저녁까지 마음에 품고있던 의혹은 이 축복의 공기로 인하여 사라졌다. 천지지간의 거룩하신 무리들께옵서 제물과 향내를 기꺼이 운감하고 모두들 거나하니 취하여 하늘을 비틀비틀 거닐면서 루진사람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려는것 같았다.

《축복》놀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복을 비는 명절놀이.

구관이 명관— 오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보다 낫다는것을 나타낸 성구.

운감— (미신에서) 제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귀신이 맛봄.

폭죽— 가는 대나 종이로 된 통에 화약을 재우고 불을 달아 터뜨려서 소리가 나게 하는 놀이감.

문 학(중학교 제5학년용)

제4판

집 필 교수 박사 김성우,
박사 부교수 리동수, 교수 박사 문재홍,
부교수 오정환, 태필, 왕광수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공훈기자 김승도, 손수옥 　콤퓨터편성 손수옥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3판 발행 주체98(2009)년 12월 28일

4판 인쇄 주체101(2012)년 6월 5일 　4판 발행 주체101(2012)년 6월 15일

교-12-보-683 　값 15원